초등 · 중등 · 고등 국어

교재 라인업 2026

국어농장 교재의 학습 대상과 구성, 권장 학습 기간을 실제 지면과 함께 소개합니다.

학년별 교재 구성



레벨 이름 뒤의 숫자는 학년을 나타냅니다(소쉬르1 = 초등 1학년, 러셀1 = 중학 1학년, 비트겐슈타인1 = 고등 1학년).

차례

교재 한눈에 보기 2
01 프로모드 정규 과정 4
02 문장 독해 연습 6
03 문법 개념 연습 8
04 문학 개념 연습 10
05 지식과 지혜 글쓰기 12
06 작가와 작품 세계 14
07 국어농장 어휘 15
08 국어농장 읽기 텃밭 17
09 국어농장 추론 연습 19
10 비트겐슈타인 최고난도 독서 21
11 고전문학 읽기 23
12 선택지 18패턴 24
13 내신 서술형 연습 25
14 한국사 독해 · 세계사 독해 26
15 경제학 · 법학 · 철학 독해 외 27
교재 사진 채점 28
커리큘럼 예시 29
교재 전권 차례 31
교재별 실제 지면 103

시리즈 구성

한눈에 보는 국어농장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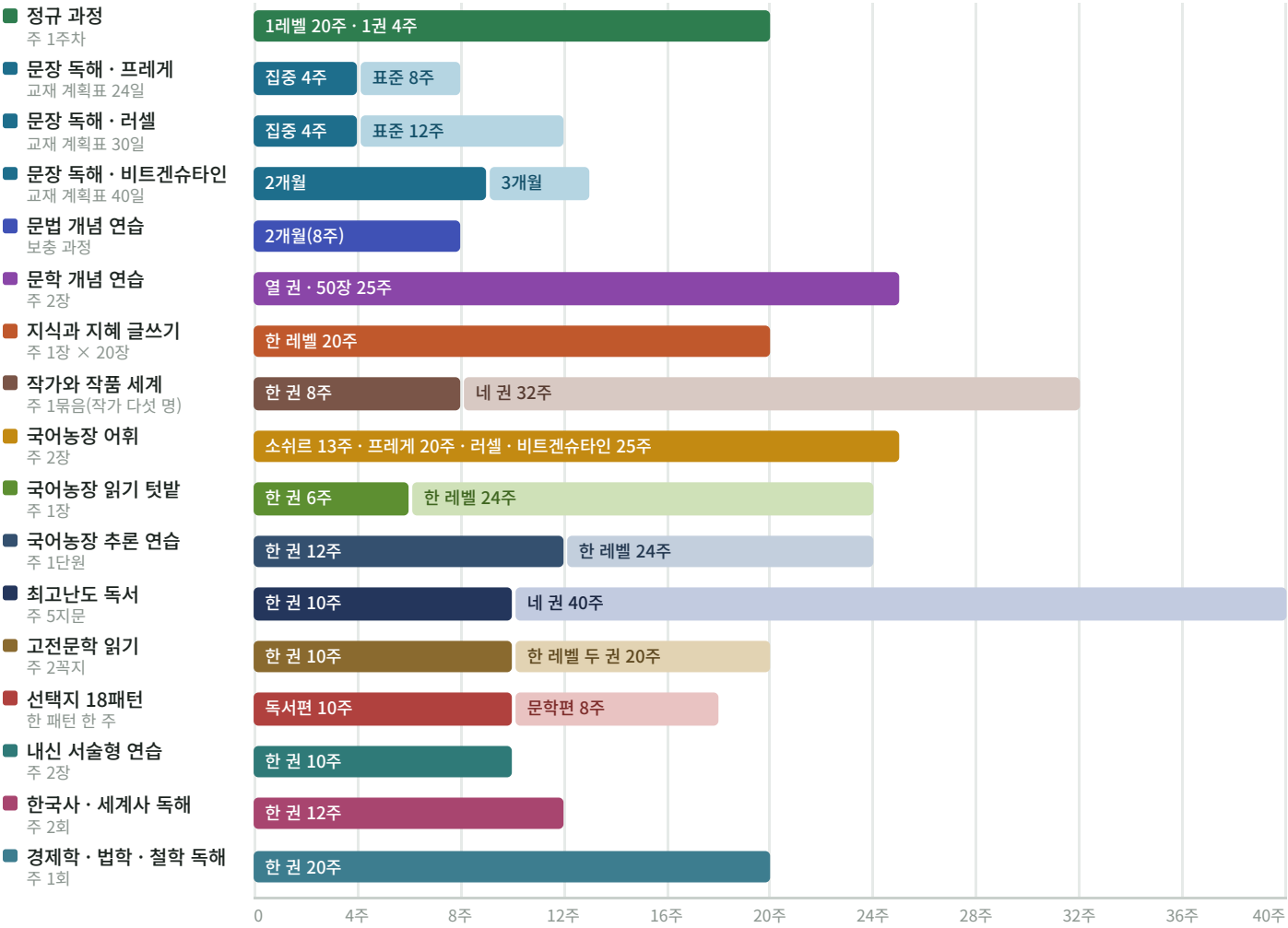
교재별 학습 대상과 구성, 권장 학습 기간을 한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기간은 3쪽 그림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교재마다 자세한 구성과 본문은 4쪽부터 소개합니다.

교재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이런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프로모드 정규 과정 프로모드	초1~고3 · 12레벨	레벨별 5~6권 20주차	한 레벨 20주 (약 5개월)	국어농장 학습을 시작하는 모든 학생
문장 독해 연습 책 과정	실력 있는 초5~6 중1~3 · 고등 상위권	4권 · 36단원	표준 8~12주 집중 4주	긴 문장을 정확히 읽지 못해 지문을 잘못 이해하는 학생
문법 개념 연습 책 과정 · 교재 「문법 개념 농장」	초4~6 · 중1~3 고1~3	4단계 · 5권 42장	보충 과정 2개월(8주)	문법 개념을 처음부터 정리하려는 학생 예비 고1 · 고등 방학 특강
문학 개념 연습 책 과정	중1~3 · 고1~3	레벨별 10권 50장	한 레벨 25주 (주 2장)	문학 개념어와 선지 표현을 정확히 익히려는 학생 고등 방학 특강
지식과 지혜 글쓰기 글쓰기 교재	초1~중3	10권 · 레벨별 20장	한 레벨 20주 (주 1장)	개요 짜기부터 논술 답안까지 단계적으로 글쓰기를 익히려는 학생
작가와 작품 세계 훈련 교재	중 · 고등	4권 · 작가 160명	한 권 8주 (주 1묶음)	작가 이름만 보고는 작품을 떠올리지 못하는 학생
국어농장 어휘 책 과정	초1~고3	11권 · 165장	한 단계 13~25주 (주 2장)	어휘가 부족해 글을 읽기 어려운 학생
국어농장 읽기 텃밭 책 과정	초1~3	레벨별 4권 24장	한 레벨 24주 (주 1장)	소리 내어 읽기와 글에서 내용 찾기를 처음 익히는 저학년 학생
국어농장 추론 연습 독해 · 사고력 교재	초4~6	레벨별 2권 24단원	한 레벨 24주 (주 1단원)	글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을 알아내거나 근거를 들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학생
비트겐슈타인 최고난도 독서 고등 상위권 · 독서	고2~고3 수능 1등급 목표	4권 · 200지문	한 권 10주 (주 5지문)	수능 독서 고난도 세트에서 시간이 모자라고 정답률이 크게 떨어지는 학생
고전문학 읽기 책 과정	중3 · 고2에 권장 (러셀 · 비트겐슈타인)	4권 · 80꼭지 혼자 읽기 20편	한 권 10주 (주 2꼭지)	고전 문학 원문이 낯설어 해석부터 막히는 학생
선택지 18패턴 시리즈 · 독서와 문학	중3~고3	3권 · 18장 실전 12회	한 패턴 한 주 (독서편 10주)	지문은 읽었는데 선택지 두 개에서 늘 고민하는 학생
내신 서술형 연습 책 과정	예비 중1 · 중1~3 고1~3	3단계 · 9권 비문학 · 문학 · 문법	한 권 10주 (주 2장)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자주 잃는 학생 · 첫 내신을 앞둔 중1 · 고1
한국사 독해 · 세계사 독해 분야 독해 · 역사	초4~6 예비 중1	각 4권 권마다 24회	한 권 12주 (주 2회)	사회 역사 단원의 낱말과 사건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 · 중학교 역사를 앞둔 학생
경제학 · 법학 · 철학 독해 과학 · 기술 · 예술 독해	중1~3	2~3권씩 16권 권마다 20회	한 권 20주 (주 1회)	수능 독서에 자주 나오는 법 · 경제 · 철학 · 과학 · 기술 · 예술 지문의 개념이 낯선 학생

학습 기간

교재별 권장 학습 기간

한 레벨(한 권)을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막대의 길이로 교재마다 필요한 기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장 독해 연습은 진한 막대가 집중 과정, 연한 막대가 표준 과정의 기간이며, 교재에 수록된 학습 계획표의 일수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작가와 작품 세계 · 읽기 텃밭 · 추론 연습 · 최고난도 독서 · 고전문학 읽기는 진한 막대가 한 권, 연한 막대가 전체 과정의 기간이고, 선택지 18패턴은 진한 막대가 독서편, 연한 막대가 문학편의 기간입니다. 분야 독해는 경제학 · 법학 · 철학 · 과학 · 기술 · 예술 독해가 같은 기간입니다. 학습 기간은 학생의 수준과 수업 횟수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1

프로모드 · 정규 과정

프로모드 정규 과정

국어농장의 기본 과정입니다. 주차별로 어휘 · 문법 · 개념 · 비문학 · 문학 지문을 함께 읽고 문제를 풀며 국어 실력을 고르게 기릅니다. 매 주차 챕터 테스트로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통과하면 다음 주차로 넘어갑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초등 1학년~고등 3학년(12레벨) 단계마다 교재 이름이 다릅니다	레벨별 5권 · 20주차 권마다 4주차(비트겐슈타인1은 6권)	주 1주차 기준 1권 4주 · 1레벨 20주(약 5개월)

단계별 교재와 학습 목표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소쉬르 · 씨앗 모으기
낱말과 문장을 익히고, 읽은 내용을 자기 말로 정리합니다

프레게 · 생각 키우기
글의 짜임을 파악하고, 근거를 들어 자기 생각을 씁니다

러셀 · 국어 보듬기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적히지 않은 내용까지 추론합니다

비트겐슈타인 · 정규 교재
수능 지문을 시간 안에 정확히 읽고 푸는 연습을 합니다

주차별 학습 영역

단계가 올라갈수록 비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커집니다

	어휘	문법 · 어법	개념	교과 · 비문학	문학	글쓰기
소쉬르 초1~3	●			●	●	●
프레게 초4~6	◐	◐	◐	●	●	
러셀 중1~3	●	●	●	●	●	
비트겐슈타인 고1~3		●		●	●	

● 매 주차 수록 · ◐ 일부 주차 수록(프레게1은 어휘 · 어법 · 개념을 매주, 프레게2는 어휘와 개념을 매주, 프레게3은 개념과 어법을 주마다 번갈아 수록)

주차 구성

러셀1 1주차 · 지문 다음 쪽에 해당 지문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1 차례



주마다 다섯 영역과 쪽

2 어휘



「선택은 어떻게 마음의 질서를 드러내는가」

3 문법



「문장 속 단어들의 역할(품사)」

4 개념



「표현을 생생하게 만드는 비유법」

5 비문학



「내 마음의 다섯 가지 욕구, 현실요법」

6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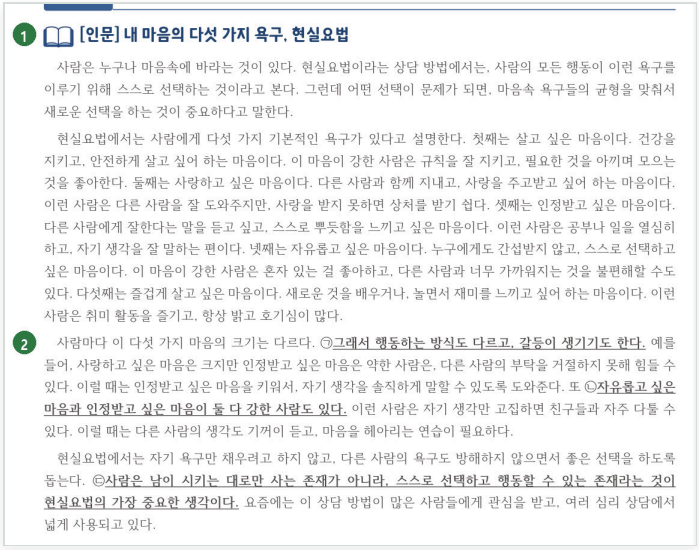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온라인 연계 학습

주차별 어휘 → 정독 독해 → 논리 → 내용 숙지 → 정답과 해설 → **챕터 테스트(70점 통과)**

챕터 테스트는 객관식 70점과 서술형 30점으로 이루어지며, 통과하지 못하면 문항이 다른 시험지로 다시 응시합니다. 내신 시험 2주 전에는 시험 대비 학습으로 바꾸고, 시험이 끝나면 이어서 학습합니다.

본문 구성 러셀1 1주차 비문학 「내 마음의 다섯 가지 욕구, 현실요법」



[인문] 내 마음의 다섯 가지 욕구, 현실요법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다. 현실요법이라는 상담 방법에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런 욕구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문제가 되면, 마음속 욕구들의 균형을 맞춰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실요법에서는 사람에게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살고 싶은 마음이다.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고, 필요한 것을 아끼며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둘째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쉽다. 셋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편이다. 넷째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다. 다섯째는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놀면서 재미를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취미 활동을 즐기고, 항상 밝고 호기심이 많다.

사람마다 이 다섯 가지 마음의 크기는 다르다. ㉠그래서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 수 있다. 이럴 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키워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자유롭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둘 다 강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친구들과 자주 다툴 수 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기꺼이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현실요법에서는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욕구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사람은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현실요법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다. 요즘에는 이 상담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여러 심리 상담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다.

지문 — 지문 한 편을 한 쪽에 수록



현실요법 객관식 문제

1 ⑤	2 ③
3 ④	4 ②
5 ⑤	6 ③
7 ⑤	8 ④
9 ③	10 ②

3문단에서 "사람마다 이 다섯 가지 마음의 크기는 다르다."라고 명시했다.

6

〈보기〉의 민수는 3문단의 예시처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자신을 지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약한 경우이다. 따라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키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7

2문단에서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취미

정답과 해설(별책) — 객관식 정답 표와 문항마다 근거를 짚은 풀이



현실요법 단답형 문제

현실요법의 기본 생각, 다섯 가지 욕구, 갈등 원인과 해결 흐름을 구조도로 정리하세요.

01 보기

지침: 글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파악하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 1문단: 현실요법의 기본 생각
  * 인간의 모든 행동 = (①)을 이루기 위한 (②)
  * 문제 해결 방법 = 마음속 욕구들의 (③) 맞추기
* 2문단: 다섯 가지 기본 욕구
  * 욕구 1: (④) 싶은 마음
  * 욕구 2: (⑤) 싶은 마음
  * 욕구 3: (⑥)받고 싶은 마음
  * 욕구 4: (⑦) 싶은 마음
  * 욕구 5: (⑧) 살고 싶은 마음
* 3문단: 갈등의 원인과 해결
  * 원인: 사람마다 다섯 가지 마음의 (⑨)가 다르기 때문
  * 사례 및 해결책 제시
* 4문단: 현실요법의 목표와 현재
  * 핵심 목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⑩)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
  * 현재: 많은 (⑪)을 받으며 넓게 사용되고 있음

답 _____

02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속 욕구를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상담 방법은 무엇인가?

답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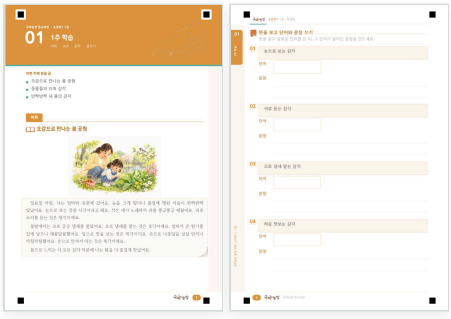
03 규칙을 잘 지키고 필요한 것을 아끼며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강한 사람인가?

문제 — 글의 흐름을 구조도로 정리하는 단답형

1. **지문** — 인문 · 사회 · 과학 등 제재 영역을 밝힌 지문을 한 쪽에 수록하였습니다.
2. **밑줄과 ㉠ · ㉡ · ㉢** — 뒤에 이어지는 객관식 문제에서 이 부분을 묻습니다.
3. **단답형 문제** — 글의 중심 내용과 흐름을 구조도로 정리합니다.
4. **문단별 빈칸** —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빈칸을 채우며 글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5. **내용 확인** — 지문에 나온 개념과 사례를 단답형으로 확인합니다.

지문별 문항 구성
단답형(구조도 · 내용 확인) → 객관식(밑줄 친 부분 · 내용 일치 · 〈보기〉 적용)
정답과 해설은 별책에 실었습니다.

단계별 지문과 문제 소쉬르1 · 프레게1 · 비트겐슈타인1의 1주차



소쉬르1(초1) 「오감으로 만나는 봄 공원」
그림과 함께 읽는 짧은 글 · 뜻을 보고 낱말과 문장 쓰기



프레게1(초4)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개념 지문과 OX · 이어지는 교과 지문



비트겐슈타인1(고1) 「정합설의 이해」
수능형 비문학 지문 · 선지를 명제로 나누어 따지는 명제 분석

권별 구성 1레벨 5권 · 20주차 · 비트겐슈타인1은 1~4주차를 두 권으로 나누어 여섯 권

1권 1~4주차	**2권** 5~8주차	**3권** 9~12주차	**4권** 13~16주차	**5권** 17~20주차

프로모드 · 책 과정

02 문장 독해 연습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수식, 대용 표현, 연결어 등 문장을 정확히 읽는 방법을 단원별로 익히는 문장 독해 교재입니다. 원리를 배운 뒤 교과서와 기출 문단으로 훈련하며, 답의 근거는 문장 번호로 적습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프레게 — 실력 있는 초5~6 러셀 — 중1~3 비트겐슈타인 — 고등 상위권	4권 · 36단원(8 · 12 · 16단원) 단원별 원리 → 예제 → 훈련 4세트 권말 실전 종합	표준 8~12주 · 집중 4주 비트겐슈타인은 2~3개월 24 · 30 · 40일 학습 계획표 수록

레벨별 학습 대상



프레게
「주어와 서술어 찾기」부터 시작하며, 중학교 교과서와 쉬운 모의고사 문장을 다룹니다.

러셀
대용 표현, 연결어와 문장 관계까지 다루며, 중학교 교과서와 고1 학력평가 문장을 수록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
평가원 기출 문장처럼 어려운 문장으로 수능 국어의 고난도 문항에 대비합니다. 문학과 비문학 문장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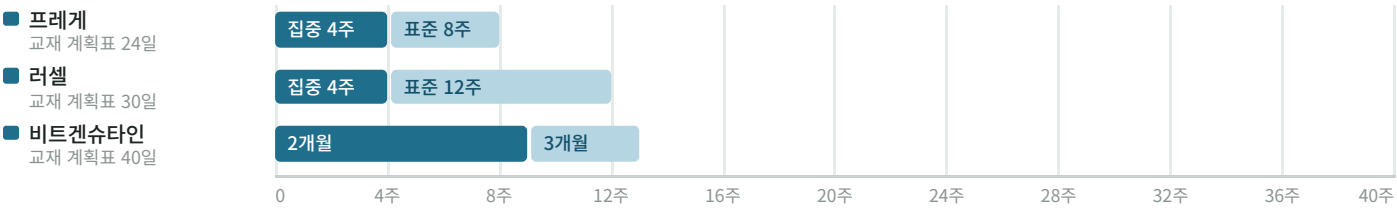
단원 구성

단계가 올라갈수록 다루는 읽기 방법이 늘어납니다

	뼈대 읽기	바꿔 읽기	짝지어 읽기	조건 바꿔 읽기	묶어 읽기	실전 종합
프레게 8단원	01 주어와 서술어 찾기 02 가리키는 말 찾기 03 이어 주는 말 읽기	04 쉬운 말로 바꾸기 05 설명과 예 짝짓기 06 숫자 넣어 읽기	—	—	07 순서대로 정리하기 08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16세트**
러셀 12단원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02 수식 풀기 03 대용 표현 04 연결어와 문장 관계	05 쉬운 말로 바꾸기 06 부정과 한정 표현 07 비교와 비례 표현	08 일반 진술과 예시 대응 09 숫자 넣어 읽기 10 새 사례에 적용하기	—	11 조건문 읽기 12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20세트**
비트겐슈타인 16단원 · 2권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02 수식 풀기 03 대용 표현 04 연결어와 문장 관계	05 쉬운 말로 바꾸기 06 부정과 한정 표현 07 비교와 비례 표현 08 같은 대상 묶기	09 일반 진술과 예시 대응 10 숫자 넣어 읽기 11 새 사례에 적용하기	12 조건문을 P와 Q로 나누기 13 조건 바꿔 읽기 14 표와 식으로 옮기기	15 문장 압축 16 문단 지도	**25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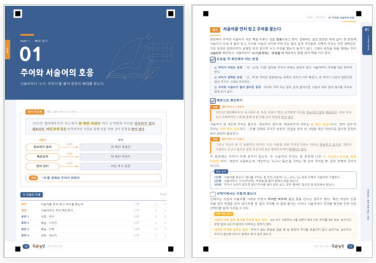
러셀의 11 · 12단원은 교재의 「따지고 묶어 읽기」 PART에 속합니다.

권장 학습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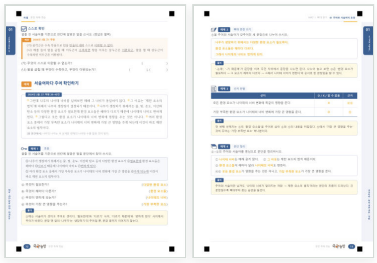
단원 학습 흐름 러셀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1 도입 · 원리 2쪽



원리 한눈에 · 예문 · 읽는 순서

2 예제 2쪽



스스로 확인 · 예제로 함께 풀기

3 훈련 4세트



펼친 두 쪽이 한 세트 · 다섯 문항

4 실전 종합



권말 · 여러 읽기 방법을 한 문단에 적용

훈련 세트 구성 펼친 두 쪽 · 2027 수능특강 문단





1. **출처를 밝힌 실제 문단** — 수능특강 · 교과서 · 학력평가 문단을 수록하고, 문장마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2. **호응** — 밑줄 친 서술어마다 「누가 · 무엇을」을 찾아 씁니다.
3. **서술어와 주어** — 생략되거나 멀리 떨어진 주어를 찾습니다.
4. **뼈대 문장 쓰기** — 긴 문장을 주어가 다 드러나는 짧은 문장으로 나눕니다.
5. **쉬운 말로 바꾸기** — 어려운 말을 자기 말로 풀어 씁니다.
6. **선지 판별** — O · X · 알 수 없음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근거 문장 번호를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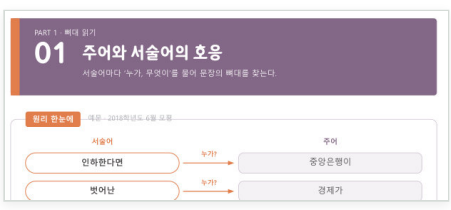
단계별 01단원 비교 단원 첫 쪽



프레게 01 「주어와 서술어 찾기」



러셀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비트겐슈타인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온라인 연계 학습

단원별 내용 숙지(원리 · 예제) → 새 기출 문단 두 편 정독 → 책의 훈련 세트를 정답과 해설로 확인 → **챕터 테스트(10문항 · 70점 통과)**

03

프로모드 · 책 과정 · 교재 이름 「문법 개념 농장」

문법 개념 연습

학습지와 내신 · 수능 기출의 문법 내용을 단계별로 한 권에 정리한 문법 교재입니다. 개념을 익힌 뒤에는 「앞말에 붙여 썼는가?」와 같은 질문에 차례로 답하며 품사를 판별합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초등 문법 — 초4~6 · 중등 문법 — 중1~3 기본 — 고1~2 · 실력 — 고2~3	4단계 · 5권 · 42장(6 · 11 · 12 · 13장) 개념 정리 → 빠른 점검 → 트레이닝 → 실전 문제	중등 보충 과정 2개월(8주) 고등 방학 특강 4~5주(주 3장)

레벨별 학습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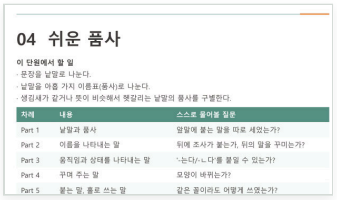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프레게 · 초등 문법			러셀 · 중등 문법			비트겐슈타인 기본		
										비트겐슈타인 실력	

실력편은 기본편의 개념 학습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고난도 출제 요소를 다룹니다. 1~6장과 7~13장을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단원 구성 영역별 단원 배치

	품사 · 단어	문장	문법 요소	음운 · 발음	맞춤법 · 표준어	의미 · 담화	국어의 역사
초등 문법 프레게 · 6장	04 쉬운 품사 05 쉬운 단어의 형성	—	06 쉬운 문법 요소	02 쉬운 표준 발음	01 맞춤법	—	03 훈민정음 이야기
중등 문법 러셀 · 11장	01 품사와 활용 02 형태소와 단어의 짜임	03 문장 성분 04 문장의 짜임	05 문법 요소	06 음운 07 음운 변동	08 맞춤법과 표준 발음	09 단어의 의미 10 담화	11 훈민정음과 옛말 맛보기
기본 비트겐슈타인 · 12장	01 품사 02 형태소 03 단어의 형성	04 문장 성분과 서술어 자릿수 05 문장의 짜임	06 문법 요소	07 음운 08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	09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11 단어의 의미와 사전 12 담화와 국어의 다양성	10 국어의 역사
실력 비트겐슈타인 · 13장	01 품사 02 형태소 03 단어의 형성	04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자릿수 05 문장의 짜임	06 문법 요소	07 음운 08 음운 변동	09 한글 맞춤법	11 단어의 의미 12 담화	10 국어의 역사 13 영역 복합 · 지문형 모음

단계별 「품사」 단원 비교



초등 문법 04 「쉬운 품사」



중등 문법 01 「품사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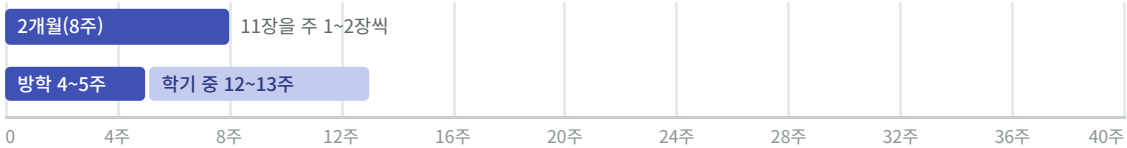
기본 01 「품사」



실력 01 「품사」 — 고난도 출제 요소 14가지

권장 학습 기간

- **중등 문법** 보충 과정
- **기본 · 실력** 방학 주 3장 · 학기 중 주 1장



단원 학습 흐름 중등 문법 01 「품사와 활용」

1 단원 첫 쪽 | 2 개념 정리 | 3 트레이닝 | 4 실전 문제 | 5 서술형



Part 목록과 이 단원에서 할 일 | 빈칸을 채우며 읽는 개념 | Part별 판별 연습 | 「품사와 활용」 42문항 | 근거를 들어 쓰는 문항

개념 정리 중등 문법

품사를 나누는 세 기준

형태 · 기능 · 의미

· ___: 문장 속에서 모양이 바뀌는가 → 바뀌면 가변어, 안 바뀌면 불변어 ①
· ___: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 ___: 그 단어 무리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가 → 아홉 품사

기능	품사	하는 일 ②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문장의 몸. 조사가 붙어 주어, 목적어 등이 된다
관계언	조사	앞말에 붙어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한다
용언	동사, 형용사	주어를 풀이한다. 모양이 바뀐다
수식언	관형사, 부사	다른 말을 꾸민다
독립언	감탄사	홀로 쓰인다

함정 — 모양이 바뀌는 말은 셋이다 ③
모양이 바뀌는 가변어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다. '이다'는 조사이지만 '이고, 이니, 이어서'처럼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조사는 모두 불변어이다"는 틀린 말이다.
여기가 우리 학교이고, 저기가 운동장이다. → 서술격 조사, 가변어

아홉 품사 판별 순서도 ④

순서도를 돌릴 때 지킬 것
· '학생이다'는 '학생'과 '이다' 두 단어다. '이다'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첫 질문에서 조사로 간다.
· '예쁜 꽃'의 '예쁜'은 꽃을 꾸미지만 사전에서 '예쁘다'로 찾는다. 두 번째 질문에서 용언으로 간다.

아홉 품사 판별 순서도

앞말에 붙여 썼는가?
- 예 → 조사 / 관계언
- 아니요 ↓

사전을 찾을 때 '-다'를 붙여 찾는가?
- 예 → 용언 →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 아니요 ↓

뒤에 '이/가', '을/를'을 붙일 수 있는가?
- 예 → 체언 → 명사·대명사·수사
- 아니요 ↓

놀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가?
- 예 → 감탄사 / 독립언
- 아니요 ↓

뒤의 체언이 '어떤' 것인지 꾸미는가?
- 예 → 관형사 / 수식언
- 아니요 ↓

부사 — 수식언 · 용언이나 문장을 꾸민다

① **빈칸 개념 정리** — 핵심어를 빈칸으로 두어 채우며 읽습니다.
② **세 기준** — 형태 · 기능 · 의미로 나누는 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
③ **함정** —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을 따로 짚습니다.
④ **판별 순서도** —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아홉 품사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실력편 본문 수능 문법

출제 요소 01

품사 분류 기준의 적용 ★★

출제 유형 ①
문장 하나를 주고 형태·기능·의미의 세 기준으로 단어를 나누게 한다. 기준마다 나눈 결과를 통째로 대조하게 하거나, 한 문장에 아홉 품사가 모두 들어 있는지 세게 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②
· 서술격 조사 '이다'를 빠뜨린다. '이다'는 관계언(조사)이면서 활용하므로 가변어이다.
· 기능 기준과 의미 기준을 혼동한다. '밝은'(형용사)과 '잡았어'(동사)는 의미로는 다르지만 기능으로는 둘 다 용언이다. '어느 기준으로 나누어도 서로 다른 부류'라는 선지는 틀린다.
· '열에 아홉은'의 '열, 아홉'을 명사로 본다. 수량을 나타내고 조사가 붙었으므로 수사이다.
· 지시하는 말을 모두 대명사로 본다. '그 나비'의 '그'는 관형사이다.

판별 방법 ③
1) 문장을 단어로 나눈다. 조사는 단어로 세고, 어미는 단어로 세지 않는다.
2) 단어마다 활용하는지(형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기능), 무엇을 나타내는지(의미)를 차례로 따진다.
3) 선지가 '모두', '어느 기준으로도'라고 하면 단어 하나하나에 적용해 본다.

예제 01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선생님: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의 세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와, 우리가 새로 핀 그 꽃 하나를 찾았구나.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① '그 꽃 하나를'은 기능에 따라 나누면 수식언 한 개, 체언 두 개, 관계언 한 개를 포함합니다.
② '새로 핀'은 형태에 따라 나누면 가변어 한 개, 불변어 한 개를 포함합니다.
③ '와, 우리가 새로 핀 그 꽃 하나를 찾았구나'는 의미에 따라 나누면 아홉 품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④ '핀'과 '찾았구나'는 기능에 따라 나누면 같은 부류이고, 의미에 따라 나누어도 같은 부류입니다.
⑤ '새로'와 '그'는 기능에 따라 나누면 모두 수식언입니다.

개념 확인 · 품사 분류 기준 ⑤

01 서술격 조사 '이다'는 관계언이면서 가변어이다. (O / X)

02 '밝은'과 '잡았어'는 기능에 따라 나누면 서로 다른 부류이다. (O / X)

① **출제 유형** — 해당 요소가 수능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② **자주 틀리는 부분** — 잘못 판단하기 쉬운 내용을 하나씩 짚습니다.
③ **판별 방법** — 문제를 풀 때 따를 순서를 정리합니다.
④ **예제** — 〈보기〉가 있는 기출형 문항에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합니다.
⑤ **확인 문제** — O · X와 단답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온라인 연계 학습

단원별 내용 숙지(개념 정리 · 빠른 점검) → 문법 농장 트레이닝(필수 몇 편 + 「더 해 보기」) → **챕터 테스트**

04

프로모드 · 책 과정

문학 개념 연습

시어 · 화자 · 비유 · 시점 · 서술자 등 문학 개념을 하나씩 익히고 실제 작품과 기출 선지에 적용하는 교재입니다.
개념별로 장을 나누어 시 · 소설 · 고전 등 갈래를 골라 수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러셀 — 중1~3(중학 국어) 비트겐슈타인 — 고1~3(고등 · 수능)	레벨별 10권 · 50장(권마다 5장) 정의 → 헷갈리는 부분 → 기출 선지 → 작품 → 확인 문제	주 2장 기준 두 권 5주 · 열 권 25주 방학 특강용으로 필요한 권만 선택 가능

권별 구성

러셀 열 권의 차례(권마다 5장) · 비트겐슈타인도 같은 짜임의 열 권으로 고등 · 수능 기출을 학습

1 · 2권 · 기초 개념	3 · 4권 · 필수 개념 ①	5 · 6권 · 필수 개념 ②	7 · 8권 · 수능 심화 개념	9 · 10권 · 실전 선지 적용
01 시어와 시구, 행과 연	11 운율 ②	21 시상 전개 ①	31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41 선지 속 의인 표현
02 화자와 시적 상황	12 비유 ②와 상징	22 정서의 변화와 깨달음	32 공감각적 심상	42 선지 속 감정 이입 표현
03 비유 ①	13 강조하는 표현	23 소설의 시점	33 시상 전개 ②	43 선지 속 감각 표현
04 운율 ①	14 변화를 주는 표현과 여운	24 서술자와 인물 제시 방법	34 대화체와 돈호법	44 선지 속 설의와 호명
05 심상 ①	15 대조와 대구	25 인물의 유형	35 통사 구조의 반복과 연쇄	45 선지 속 끝맺음과 반복
06 미각적 심상과 과장	16 반어와 역설, 풍자와 해학	26 갈등의 양상	36 말하기와 보여 주기	46 선지 속 시선과 공간의 이동
07 소설의 구성 요소	17 어조	27 사건의 구성	37 여러 가지 구성 방식	47 선지 속 구조와 비교
08 시간과 공간의 변화	18 화자의 태도 ①	28 고전 시가의 갈래	38 고전 시가의 형식	48 선지 속 화자와 청자
09 묘사와 대화	19 화자의 태도 ②	29 고전 소설과 설화	39 고전 소설의 특징	49 선지 속 시점 표현
10 시조 · 고전 소설 · 수필의 기초	20 화자와 청자	30 희곡 · 시나리오와 수필	40 작품 감상의 관점과 수필	50 선지 속 서술과 구성

한 장에서 시어 · 시구 · 행 · 연 · 소재 등 서로 관련된 개념 4~5개를 함께 다룹니다. 9 · 10권은 기출 선지에서 개념어를 돌려 표현한 사례를 모아 구성하였습니다.

장 학습 흐름

러셀 1권 01장 「시어와 시구, 행과 연」

1 장 도입



배울 개념 · 학습 목표 · 생각 열기

2 개념



정의 · 헷갈리는 부분 · 기출 선지

3 작품 적용



작품 속에서 개념 찾기

4 확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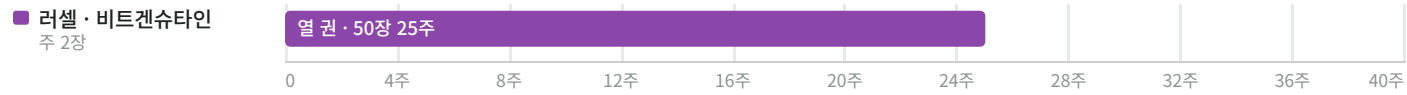
단답형 · OX · 구절 찾기

5 실전 문제



작품을 읽고 5지선다

권장 학습 기간



고등학생은 방학 특강용으로 필요한 개념의 권만 골라 사용할 수 있고, 문학이 약한 중학생은 2개월(8주) 보충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념 학습 1권 01 「시어」


헷갈림 주의
시어는 한 낱말이고, 시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시구가 된다. '보리밭'은 시어이고 '푸른 보리밭'은 시구이다.
선지의 '동일한 시어의 반복'은 같은 낱말이 되풀이된다는 뜻이고, '동일한 시구의 반복'은 같은 구절이 되풀이된다는 뜻이다.

기출은 이렇게 묻는다

선지 표현 사전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같은 낱말을 여러 번 써서 그 뜻을 힘주어 드러냈다는 뜻.
▶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 →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 '진눈깨비'와 '함박눈'처럼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음.
▶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 '푸른', '붉은'처럼 색깔을 나타내는 낱말을 썼다는 뜻.

실제 기출 선지
ⓞ (나)와 (다)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이성부, 「벼」 · 2017년 6월 고1 학평 36번 ④)
(나)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 되자'를, (다)는 '~을 보아라', '쓰러지고 쓰러지고'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곳을 두 작품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 ㉢ : '함박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2017년 6월 고1 학평 37번 ③)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고 한 대상이고 '함박눈'은 '되어 내리자'고 한 대상이다. 화자가 거부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짝을 이루므로 두 시어는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작품 속으로 「어머니」 김종상
들로 가신 엄마 생각
책을 펼치면
책장은 그대로
푸른 보리밭
이 많은 이랑의
어디만큼에
호미 들고 계실까
우리 엄마는
▶ '보리밭', '이랑', '호미'는 모두 한 낱말로 된 시어이다. 이 시어들은 들에 나가 김을 매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화자는 책장을 펼치고 그것을 보리밭으로 바라보며 들에 계신 엄마를 생각한다.

1 2 3 4

1 **헷갈림 주의** — 시어와 시구처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구별합니다.

2 **선지 표현 사전** — 선지에 자주 나오는 표현의 뜻을 풀이합니다.

3 **실제 기출 선지** — 학력평가 기출 선지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함께 실었습니다.

4 **작품 속으로** — 작품 구절에서 개념이 쓰인 곳을 표시하고, 구절 아래에 풀이를 달았습니다.

실전 선지 적용 9권 41장 「선지 속 의인 표현」


5 3 바꿔 쓰기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에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각각 쓰고, 이것이 의인법인지 판단하시오.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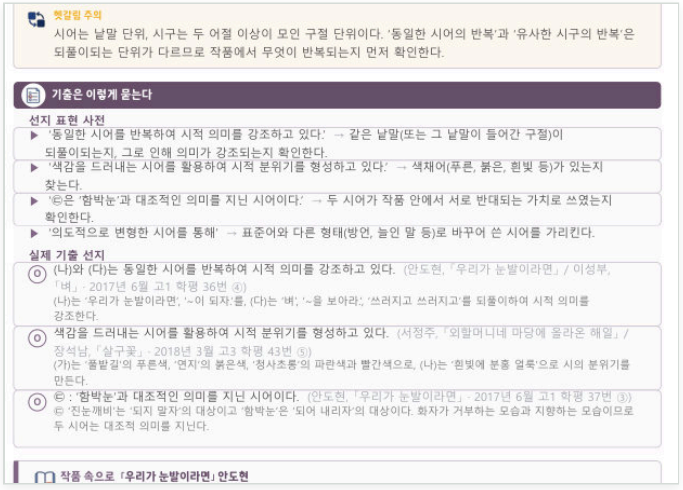
4 OX
그래 그래 그래
산들이 고개 끄덕여 주고
— 나태주, 「별밤에」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 산이 화자의 다짐에 공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O / X)

6 5 구절 찾기
그래 그래 그래
산들이 고개 끄덕여 주고
강물도 입술 반짝이며
엿듣고 있다
— 나태주, 「별밤에」
강물을 사람처럼 나타낸 시구를 찾아 쓰시오.
답안

5 **바꿔 쓰기** — 개념어 없이 돌려 말한 선지를 찾아 개념어로 바꾸고, 거꾸로 개념어가 들어간 문장을 시험 선지처럼 바꿔 씁니다.

6 **구절 찾기** — 작품에서 해당 표현이 쓰인 구절을 찾습니다.

기출 선지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처럼 개념어를 쓰지 않고 돌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 10권은 이러한 선지 표현을 개념별로 모아 10개 장에 수록하였습니다.


헷갈림 주의
시어는 낱말 단위, 시구는 두 어절 이상이 모인 구절 단위이다. '동일한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시구의 반복'은 되풀이되는 단위가 다르므로 작품에서 무엇이 반복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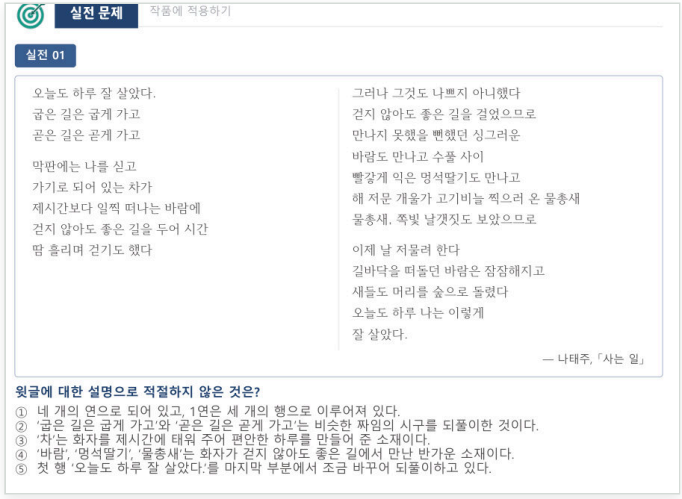
기출은 이렇게 묻는다

선지 표현 사전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같은 낱말(또는 그 낱말이 들어간 구절)이 되풀이되는지, 그로 인해 의미가 강조되는지 확인한다.
▶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색채어(푸른, 붉은, 흰빛 등)가 있는지 찾는다.
▶ '㉢은 '함박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 두 시어가 작품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가치로 쓰였는지 확인한다.
▶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 표준어와 다른 형태(방언, 늘인 말 등)로 바꾸어 쓴 시어를 가리킨다.

실제 기출 선지
ⓞ (나)와 (다)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이성부, 「벼」 · 2017년 6월 고1 학평 36번 ④)
(나)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 되자'를, (다)는 '벼', '~을 보아라', '쓰러지고 쓰러지고'를 되풀이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 장석남, 「살구꽃」 · 2018년 3월 고3 학평 43번 ⑤)
(가)는 '풀밭길'의 푸른색, '연지'의 붉은색, '청사초롱'의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는 '흰빛에 분홍 얼룩'으로 시의 분위기를 만든다.
ⓞ ㉢ : '함박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2017년 6월 고1 학평 37번 ③)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의 대상이고 '함박눈'은 '되어 내리자'의 대상이다. 화자가 거부하는 모습과 지향하는 모습이므로 두 시어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다.

작품 속으로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비트겐슈타인 1권 01 「시어」 — 같은 개념을 고등 · 수능 기출 선지로 다룹니다


실전 문제 작품에 적용하기
실전 01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갛게 익은 멍석딸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
물총새,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
이제 날 저물려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 나태주, 「사는 일」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네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1연은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굽은 길은 굽게 가고'와 '곧은 길은 곧게 가고'는 비슷한 짜임의 시구를 되풀이한 것이다.
③ '차'는 화자를 제시간에 태워 주어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준 소재이다.
④ '바람', '멍석딸기', '물총새'는 화자가 걷지 않아도 좋은 길에서 만난 반가운 소재이다.
⑤ 첫 행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를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바꾸어 되풀이하고 있다.

1권 실전 문제 — 작품을 읽고 개념을 적용하는 5지선다(나태주 「사는 일」)

온라인 연계 학습

장별 내용 숙지 → 책의 실전 문제를 정답과 해설로 확인 → **챕터 테스트**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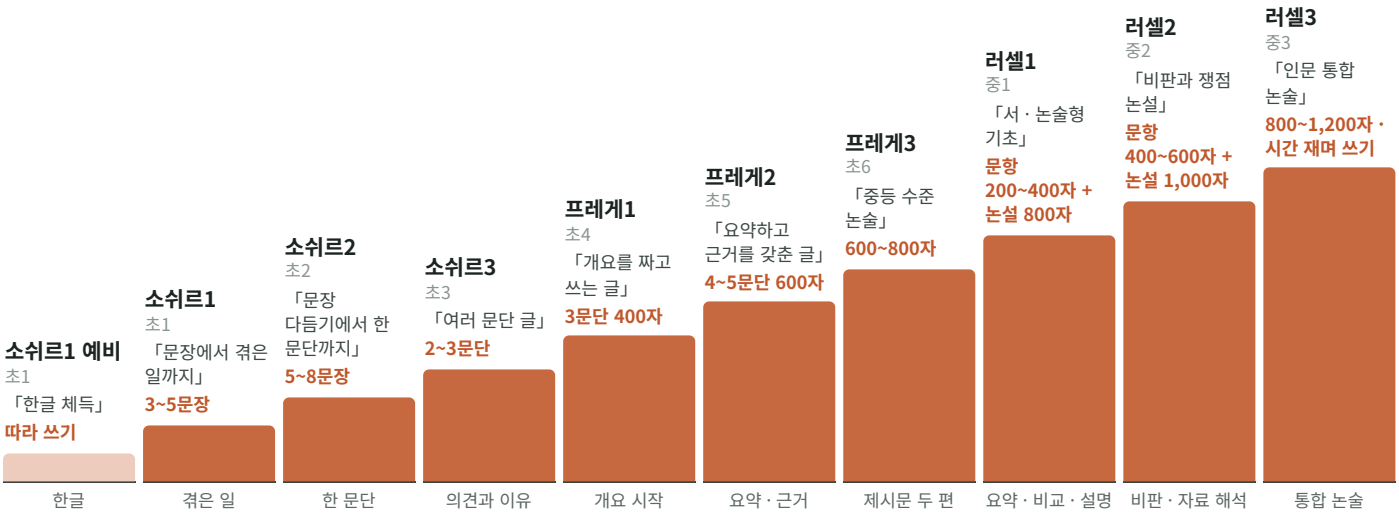
글쓰기 교재

지식과 지혜 글쓰기

핵심어 찾기 · 개요 짜기 · 요약 등의 활동으로 글쓰기를 단계별로 익히는 교재입니다. 교재에 쓴 글을 사진으로 올리면 AI가 첨삭하고, 학생은 첨삭 내용에 따라 글을 고쳐 써서 과제를 완성합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초1~중3 소쉬르1 예비과정부터 러셀3까지	10권 · 레벨별 20장 보기 글 · 연습 · 개요 · 글쓰기 · 고쳐 쓰기	주 1장 기준 한 레벨 20주(예비과정도 같음)

단계별 학습 목표 레벨별 도달 목표와 글 분량



아래 줄은 각 단계에서 새로 익히는 내용입니다. 고등(비트겐슈타인) 단계 교재는 없습니다.

한 장 학습 구성 한 주에 한 장

개요까지
보기 글 읽기 → 연습 → 자료 정리 → 개요 짜기
개요를 사진으로 올리면 AI가 점검해 주고, 그다음에 글을 씁니다.

›

글쓰기와 고쳐 쓰기
원고지에 글 쓰기 → 사진으로 올리기 → AI 첨삭 → 고쳐 쓰기 → 교사 확인
고쳐 쓴 글을 다시 올리면 두 번째 평가를 받습니다.

AI 첨삭 과정

교재에 쓰기
원고지에 손글씨로

›

사진 올리기
QR로 해당 장을 열어 촬영

›

AI 첨삭
교정 · 100점 평가 · 추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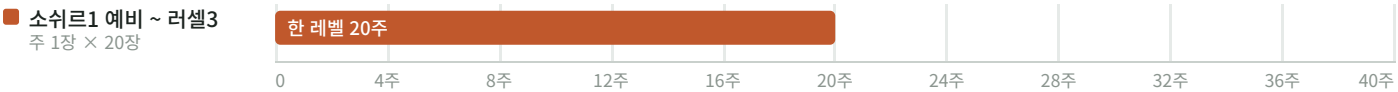
›

고쳐 쓰기
「고쳐 쓰기」 쪽에 다시 써서 완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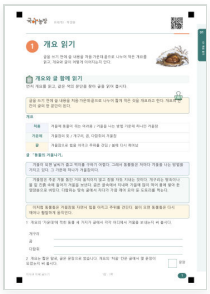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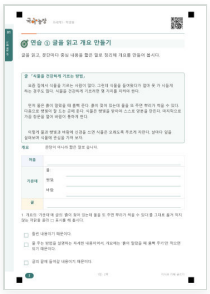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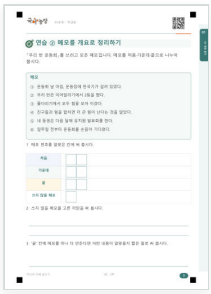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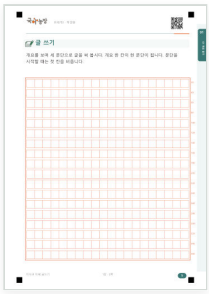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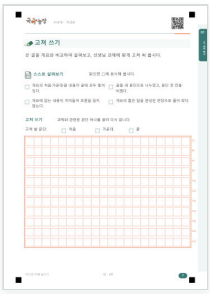
교사 확인
학부모 열람 가능

권장 학습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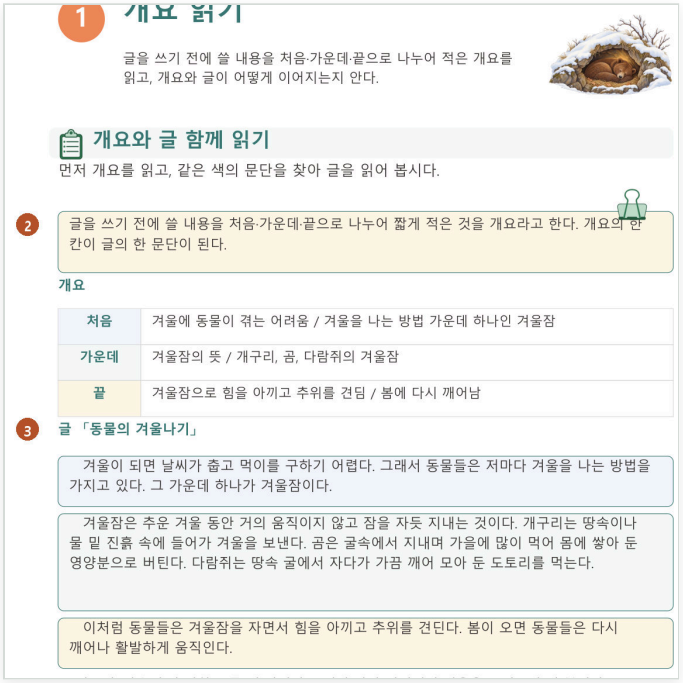


「개요 짜기까지」처럼 한 장을 두 번에 나누어 진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방학에는 분량을 늘려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장 구성(6쪽) 프레게1 1장 「개요 읽기」

1 보기 글	2 연습 1	3 연습 2	4 내 개요	5 글 쓰기	6 고쳐 쓰기
					
개요와 글 함께 읽기	글을 읽고 개요 만들기	메모를 개요로 정리하기	사진으로 올려 개요 확인	원고지 400자	과제에 맞게 다시 쓰기

보기 글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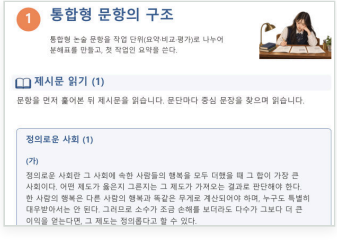
1. **개념 설명** — 그 장에서 익힐 개념을 짧게 설명합니다.
2. **개요** — 쓸 내용을 처음 · 가운데 · 끝으로 나누어 짧게 적은 표입니다.
3. **보기 글** — 개요의 각 칸이 글에서 어느 문단이 되었는지 같은 색으로 확인합니다.

고쳐 쓰기 6쪽 · QR로 앱과 연계



1. **QR 코드** — 찍으면 앱에서 해당 장이 열리고, 바로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네 귀퉁이 기준점** — 앱이 이 점을 기준으로 칸의 위치를 맞추어 손글씨를 칸별로 읽습니다.
3. **스스로 살펴보기** — 고쳐 쓰기 전에 점검표로 자기 글을 먼저 살펴봅니다.
4. **고쳐 쓰기** — AI 첨삭에서 받은 과제를 보고, 그 과제와 관련된 문단을 골라 원고지에 다시 씁니다.

단계별 본문 각 권의 앞부분

			
소쉬르1 예비 2장 「자음자 ① ㄱ·ㄴ·ㄷ·ㄹ」	**소쉬르2** 1장 「이어 주는 말 ②」	**프레게3** 1장 「핵심어로 요약하기」	**러셀3** 1장 「통합형 문항의 구조」

06

훈련 교재

작가와 작품 세계

박완서 · 염상섭 등 작가 이름만으로는 작품을 떠올리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작가 · 작품 학습 교재입니다. 작가와 대표 작품을 함께 익히고, 작가 다섯 명을 학습할 때마다 확인 문제를 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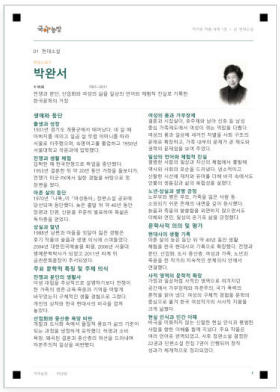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중 · 고등 수능 · 내신 문학을 준비하는 학생	4권 · 작가 160명(권마다 40명) 다섯 명이 한 묶음, 묶음마다 확인 문제	주 1묶음 기준 1권 8주 · 4권 32주

1권 차례 현대소설 · 현대시 · 고전 산문 · 고전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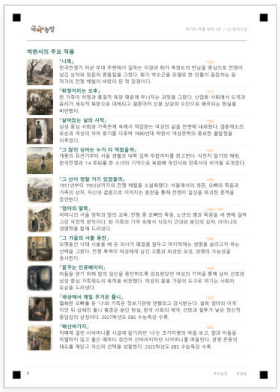
01 현대소설 박완서 · 염상섭 · 채만식 · 김원일 · 김유정	**02 현대소설** 이청준 · 최일남 · 양귀자 · 김정한 · 김소진	**03 현대소설** 박경리 · 이문구 · 이호철 · 임철우 · 황석영	**04 현대시** 신경림 · 문정희 · 정지용 · 김수영 · 윤동주
05 현대시 김소월 · 나희덕 · 백석 · 이육사 · 조지훈	**06 고전 산문** 김시습 · 김만중 · 허균 · 박지원 · 임제	**07 고전 시가** 윤선도 · 정철 · 허난설헌 · 박인로 · 정훈	**08 고전 시가** 이규보 · 충담사 · 안민영 · 이이 · 이현보

묶음별 학습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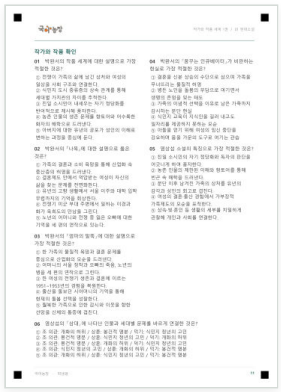
1 작가 쪽 → 2 대표 작품 → 작가 5명 반복 → 3 확인 문제 → 4 서술형



생애 · 문학적 특징 · 의의



작품마다 발표 연도와 내용 요약



작가와 작품 확인 · 객관식



권말 정답과 해설



박완서

朴婉緖 1931~2011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여성의 삶을 일상의 언어와 체험적 진실로 기록한 한국문학의 거장

생애와 등단 1

출생과 성장
1931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났다.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일곱 살 무렵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이주했으며,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1950년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다.

전쟁과 생활 체험
입학한 해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1953년 결혼한 뒤 약 20년 동안 가정을 돌보다가, 전쟁기 미군 PX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첫 장편을 썼다.

마흔 살의 등단
1970년 『나목』이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늦은 출발 뒤 약 40년 동안 장편과 단편, 산문을 꾸준히 발표하며 폭넓은 독자층을 얻었다.

상실과 말년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잇달아 잃은 경험은 후기 작품의 슬픔과 생명 의식에 스며들었다. 200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2006년 서울대 명예문학박사가 되었고 2011년 타계 뒤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주요 문학적 특징 및 주제 의식 2

여성의 몸과 가부장제
결혼과 시집살이, 호주제와 남아 선호 등 남성 중심 가족제도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을 다뤘다. 여성의 몸과 일상에 새겨진 차별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확장하고, 가족 내부의 문제가 곧 제도와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 주었다.

일상의 언어와 체험적 진실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자신의 체험에서 출발해 역사와 사회의 모순을 드러냈다. 냉소적이고 신랄한 시선에 재치와 유머를 더해 비극 속에서도 인물의 생동감과 삶의 복합성을 살렸다.

노년·상실과 생명 긍정
노부부와 병든 부모, 가족을 잃은 사람 등 소외되기 쉬운 존재의 내면을 깊이 응시했다. 늙음과 죽음의 쓸쓸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해와 연민, 일상의 온기로 삶을 긍정했다.

문학사적 의의 및 평가 3

현대사의 생활 기록
마흔 살의 늦은 등단 뒤 약 40년 동안 생활 체험을 한국 현대사의 기록으로 확장했다. 전쟁과 분단, 산업화, 도시 중산층, 여성과 가족, 노년과 죽음을 한 작가의 지속적인 문제의식 안에서 연결했다.

작가 학습 박완서

1. **생애와 등단** —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생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2. **주요 문학적 특징과 주제 의식** —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가의 특징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3. **문학사적 의의와 평가** — 작가가 문학사에서 지니는 의의와 받아 온 평가를 정리하였습니다.

국어농장에서는 장마다 작가 다섯 명의 내용 숙지 → 정답과 해설 → 챕터 테스트 차례로 공부하고, 그 작가들의 대표 작품 내용 숙지를 더 해 볼 수 있습니다.

07

프로모드 · 책 과정

국어농장 어휘

단계가 올라갈수록 새로운 낱말을 차례로 익히도록 구성한 어휘 교재입니다. 앞 단계에서 배운 낱말은 다음 단계에 다시 수록하지 않으며, 표제어는 교과서와 기출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장마다 주제로 묶은 표제어와 함께 비슷한 말의 차이 · 높임말 · 한자 성어처럼 낱말을 익히는 원리 하나를 학습합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초등 1학년~고등 3학년 단계별 2~3권	11권 · 165장(25 · 40 · 50 · 50장) 표제어 정리 → 원리 → 연습 문제 → 확인 문제	주 2장 기준 소쉬르 13주 · 프레게 20주 러셀 · 비트겐슈타인 25주

단계별 수록 어휘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소쉬르 · 500낱말 25장 · 높임말 같은 생활 속 말			프레게 · 1,000낱말 40장 · 한자 성어와 사회 · 과학 교과 용어			러셀 · 1,500낱말 50장 · 비슷한 말의 차이와 문맥에 따른 뜻			비트겐슈타인 · 2,000낱말 50장 · 고전 · 수능 지문 어휘와 한자 성어		

장 학습 흐름 러셀 13장 「마음 · 실망과 좌절」

1 표제어 정리



주제로 묶은 표제어

2 표제어



뜻 · 용례 · 예문

3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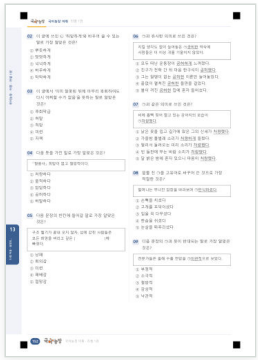
비슷한 말의 차이

4 연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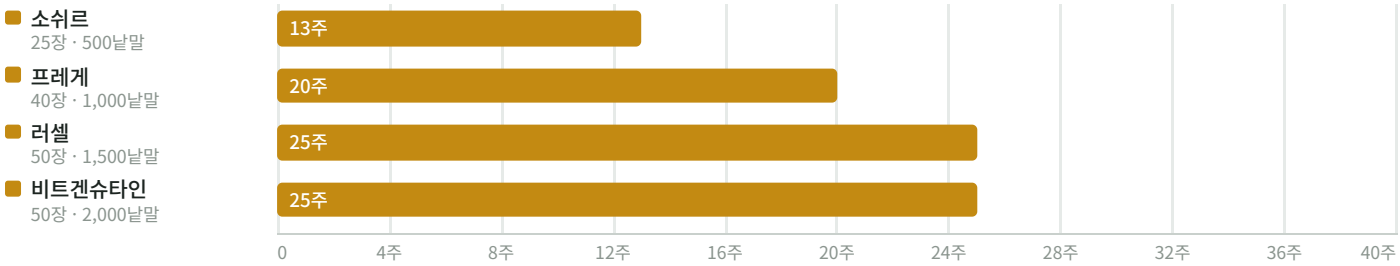
일곱 갈래로 익히기

5 확인 문제



글 속 낱말 확인

권장 학습 기간 주 2장 기준



온라인 연계 학습

장별 내용 숙지(표제어 · 원리) → 정답과 해설 → **챕터 테스트(70점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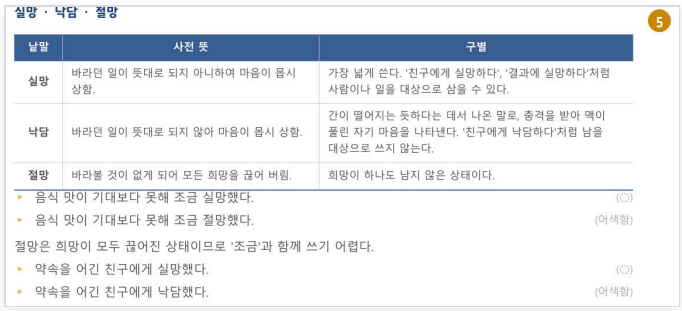
온라인 내용 숙지와 챕터 테스트의 문제는 교재 문제와 겹치지 않도록 새로 출제하였습니다. 챕터 테스트에서는 그 장의 표제어를 문장과 짧은 글 속에서 확인합니다.

본문 구성 러셀 13장 「마음 · 실망과 좌절」


13장 마음 · 실망과 좌절 1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익힌다. 소설과 시를 감상하는 글에서 인물이나 화자의 심정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이다.
이 장의 원리는 「비슷한 말의 차이」이다. 실망 · 낙담 · 절망처럼 뜻이 비슷한 말을 정도, 남아 있는 희망, 어울리는 말에 따라 구별해 본다.
표제어의 발음 · 활용 · 문형 · 뜻풀이와 ¶ 용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다. ▸는 이 책에서 쓴 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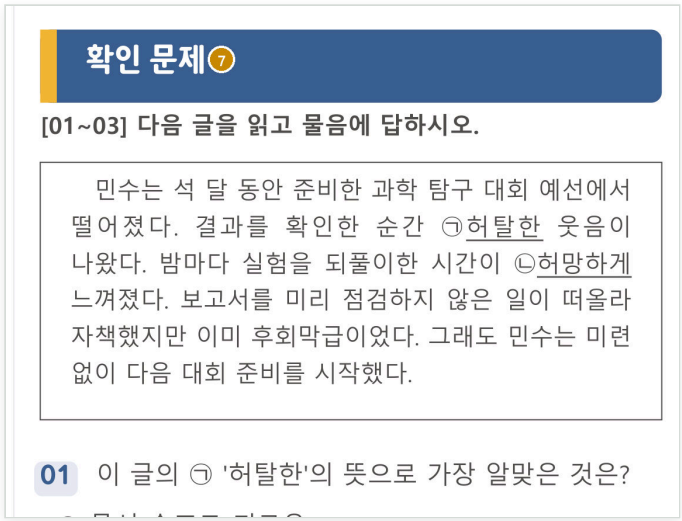
표제어 정리 2
1. 기대가 꺾일 때
낙담-하다 (落膽--) [낙땀하다] 활용 낙담하여(낙담해), 낙담하니 3
「동사」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하다. 너무 놀라 간이 떨어지는 듯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시험에 떨어져 낙담하다.
▸ 결승전에서 진 선수들이 크게 낙담하자 감독은 고개를 들라고 말했다.
비슷한 말 낙심하다 · 실망하다 4


실망 · 낙담 · 절망 5

낱말	사전 뜻	구별
실망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몹시 상함.	가장 넓게 쓴다. '친구에게 실망하다', '결과에 실망하다'처럼 사람이나 일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낙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	간이 떨어지는 듯하다는 데서 나온 말로, 충격을 받아 맥이 풀린 자기 마음을 나타낸다. '친구에게 낙담하다'처럼 남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절망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림.	희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이다.

▸ 음식 맛이 기대보다 못해 조금 실망했다. (○)
▸ 음식 맛이 기대보다 못해 조금 절망했다. (어색함)
절망은 희망이 모두 끊어진 상태이므로 '조금'과 함께 쓰기 어렵다.
▸ 약속을 어긴 친구에게 실망했다. (○)
▸ 약속을 어긴 친구에게 낙담했다. (어색함)


연습 문제 6
A. 낱말의 뜻 알기
다음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ㄱ. 몹시 탄식하다.
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ㄷ. 의심이 드는 느낌.
ㄹ.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하다.
ㅁ. 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하다.
ㅂ.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다.
ㅅ.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 자신감을 잃은 느낌이나 기분.
ㅇ.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1 낙담하다
2 체념하다
3 낭패
B. 뜻풀이에 맞는 낱말 쓰기
다음 사전 뜻풀이에 맞는 낱말을 쓰시오. 괄호 안은 첫 글자이다.
9 「동사」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 버리다. (단)
10 「명사」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무)
11 「명사」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 (상)
12 「동사」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다. (자)
13 「명사」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미)
14 「형용사」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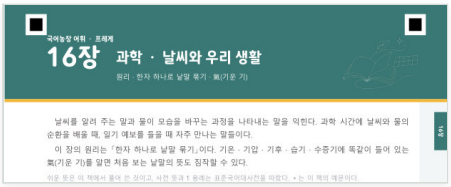

확인 문제 7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수는 석 달 동안 준비한 과학 탐구 대회 예선에서 떨어졌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밤마다 실험을 되풀이한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보고서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일이 떠올라 자책했지만 이미 후회막급이었다. 그래도 민수는 미련 없이 다음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01 이 글의 ㉠ '허탈한'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장 도입** — 주제와 그 장에서 익힐 원리를 제시합니다.
2 **표제어 정리** — 소주제별로 표제어를 묶습니다.
3 **표제어** — 한자 · 발음 · 활용 · 뜻 · 예문을 사전 기준으로 싣습니다.
4 **함께 익힐 말** — 비슷한 말과 같은 한자가 쓰인 말을 덧붙입니다.
5 **원리** — 실망 · 낙담 · 절망처럼 뜻이 비슷한 말을 표로 비교하여 구별합니다.
6 **연습 문제** — 낱말의 뜻 알기, 사전 뜻풀이 완성하기, 예문에 알맞게 쓰기, 한자어와 고유어 바꾸어 쓰기, 구별해서 쓰기 등 일곱 갈래로 표제어를 익힙니다.
7 **확인 문제** — 짧은 글을 읽고 그 글에 쓰인 낱말의 뜻과 쓰임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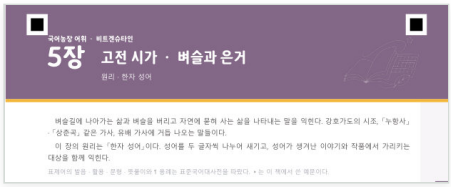
단계별 본문 장 도입


4장 우리 가족

소쉬르 4장 「우리 가족」 · 원리: 높임말


16장 과학 · 날씨와 우리 생활

프레게 16장 「과학 · 날씨와 우리 생활」 · 원리: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5장 고전 시가 · 벼슬과 은거

비트겐슈타인 5장 「고전 시가 · 벼슬과 은거」 · 원리: 한자 성어

08

프로모드 · 책 과정 · 부제 「이야기와 노래로 읽는 교과」

국어농장 읽기 텃밭

그 학년 교과에서 배우는 주제 하나를 이야기와 노래, 설명하는 글 등 여러 갈래의 글로 거듭 읽는 초등 저학년 독해 교재입니다. 글마다 같은 차례로 내용을 확인하고 낱말을 익히며, 교과 지식과 글을 읽는 힘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소쉬르1(초1) · 소쉬르2(초2) 소쉬르3(초3)	레벨별 4권 · 24장(권마다 6장) 장마다 글 세 편(소쉬르3은 네 편)	주 1장 기준 1권 6주 · 1레벨 24주

레벨별 학습 목표

소쉬르1 · 초등 1학년
글자 · 낱말 ·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고, 누가 · 어디서 · 무엇을 했는지 글에서 찾습니다.

소쉬르2 · 초등 2학년
글의 중심 내용을 확인하고, 일이 일어난 차례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합니다.

소쉬르3 · 초등 3학년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간추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습니다.

장 구성

교과 주제 하나를 갈래가 다른 글 세 편으로 읽습니다

장 머리
장 제목과 이 장에서 읽을 글

›

글 세 편(소쉬르3은 네 편)
이야기 · 노래 · 설명하는 글 · 생활글
글마다 읽기 전에 → 글과 낱말 풀이 → 문제의 차례로 학습합니다.

›

장 끝
낱말 놀이 · 알게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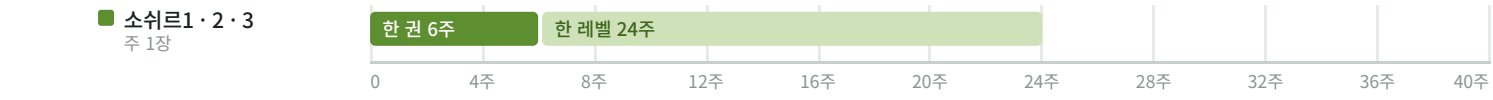
내용 확인	찾아 읽기	낱말 익히기	생각하며 읽기	써 보기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 언제 · 어디서 · 왜를 글에서 찾습니다	낱말의 뜻과 흉내 내는 말 · 반대말을 익힙니다	까닭과 차례, 인물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읽은 내용과 생각을 문장으로 씁니다

권별 차례

레벨마다 4권 · 24장

	1권 · 1~6장	2권 · 7~12장	3권 · 13~18장	4권 · 19~24장
소쉬르1 초등 1학년 통합 · 국어 · 수학 · 안전	01 안녕, 학교 02 내 짝꿍 03 학교에서 조심해요 04 하나, 둘, 셋 05 굴러가는 모양, 쌓이는 모양 06 우리 가족	07 이웃과 함께 08 우리 친척 09 받침이 있는 글자 10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는 말 11 더하고 빼고 12 누가 더 길까	13 태극기와 무궁화 14 한글을 만든 세종 대왕 15 한가위 보름달 16 옛날 아이들의 놀이 17 동그라미, 세모, 네모 18 몇 시일까	19 무늬에 숨은 규칙 20 궁금한 것을 알아봐요 21 동물들의 겨울나기 22 겨울이 왔어요 23 안전하게 다녀요 24 나는 이제 2학년
소쉬르2 초등 2학년 통합 · 국어 · 수학 · 안전	01 나는 어떤 사람일까 02 쑥쑥 자라는 몸 03 오늘 내 마음은 04 씨앗에서 꽃까지 05 풀숲의 작은 친구들 06 지구를 아껴요	07 백, 십, 일 08 칠교 조각으로 만들어요 09 뼘으로 재고 자로 재고 10 끼리끼리 모아요 11 꾸며 주는 말 12 차례대로 이야기해요	13 우리 마을 한 바퀴 14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15 장날 구경 16 우리 마을 안전 지도 17 안녕, 세계의 친구들 18 세계의 음식	19 다른 나라 옛이야기 20 구구단을 외워요 21 달력 속 시간 22 표로 정리해요 23 겨울을 건강하게 24 우리 반 이야기책
소쉬르3 초등 3학년 과학 · 사회 · 수학 · 국어 · 도덕 · 음악 · 체육	01 밀고 당기는 힘 02 땅에서, 물에서, 하늘에서 03 들에도, 산에도, 물에도 04 알에서 나비까지 05 내가 좋아하는 곳 06 오래된 물건이 들려주는 이야기	07 똑같이 나누어요 08 1초, 1분, 1킬로미터 09 중심 문장을 찾아요 10 국어사전에서 찾아요 11 약속을 지켜요 12 우리 소리, 우리 악기	13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14 바다와 갯벌 15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16 감염병을 막아요 17 여러 문화가 함께 18 옛날과 오늘날	19 들이와 무게 20 그림그래프로 나타내요 21 사실일까, 생각일까 22 옛 그림 속으로 23 몸을 움직이면 24 마음을 전하는 편지

권장 학습 기간



한 주에 한 장씩 학습하면 방학을 빼고 한 학년 안에 한 레벨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장 학습 흐름 소쉬르1 1장 「안녕, 학교」

1 장 머리 → 2 이야기 → 3 문제 → 4 노래 → 5 설명하는 글 → 6 낱말 놀이 → 7 알게 된 것



이 장에서 읽을 글 · 옛이야기 · 판타지 · 글마다 문제 · 4·4조 동요 · 교과 지식 · 그 장 낱말 놀이 · 빈칸을 채워 정리

글 설명하는 글 「학교에 있는 곳과 하는 일」



설명하는 글 3 **학교에 있는 곳과 하는 일**

1 **읽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2 학교에는 여러 곳이 있고, 곳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교실은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보건실에는 보건 선생님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건실에 가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씀드리면, 보건 선생님이 살펴보고 치료해 주십니다.

낱말 풀이와 문제 글 끝과 다음 쪽



3 **낱말 풀이**
치료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을 낫게 하는 것.
세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생물.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설명하는 글 3 **학교에 있는 곳과 하는 일**

문제 4

1 보건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점심을 먹는 곳이에요.
② 책을 읽거나 빌리는 곳이에요.
③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④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는 곳이에요.
⑤ 몸을 움직이며 노는 곳이에요.

5 **써 보기** 학교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곳을 고르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쓰세요.

1 **읽기 전에** — 제목과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물음으로, 읽을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립니다.

2 **글** — 설명하는 글에는 그 학년 교과에서 배우는 지식을 담았고, 이야기와 노래도 같은 주제로 썼습니다.

3 **낱말 풀이** — 글에 나온 어려운 낱말의 뜻을 글 뒤에 풀이하였습니다.

4 **문제** — 내용 확인 · 찾아 읽기 · 낱말 익히기 · 생각하며 읽기 문제를 풉니다.

5 **써 보기** — 글마다 마지막 문제로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씁니다.

단계별 노래 레벨마다 1장의 노래

교문 지나 ∨ 현관 지나
신발 벗고 ∨ 실내화로
복도 따라 ∨ 사뿐사뿐
우리 교실 ∨ 찾아가요

소쉬르1 「우리 학교 한 바퀴」
4·4조 동요 · 띄어 읽을 자리(∨) 표시

거울 속에 비치는 낯익은 얼굴
눈썹 위에 점 하나 바로 나라네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꼽자
떡볶이와 공룡 책 빗방울 소리

소쉬르2 「나를 소개하는 노래」
7·5조 동요

(앞소리) 이 줄 저 줄 큰 줄이야
(뒷소리) 어기영차 당겨 보세
(앞소리) 이 마을도 저 마을도
(뒷소리) 어기영차 당겨 보세

소쉬르3 「줄다리기 소리」
앞소리와 뒷소리를 주고받는 노래

온라인 연계 학습

소쉬르1 · 2 글마다 낭독 연습 → 정답과 해설 → **챕터 테스트(70점 통과)**

소쉬르3 글마다 정독 또는 낭독 → 내용 숙지 · 정답과 해설 → **챕터 테스트(70점 통과)**

낭독 연습에서는 화면에 밝게 표시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면 음성 인식으로 바르게 읽었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그 문장의 문제를 풉니다. 챕터 테스트는 객관식 13문항과 서술형 2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서술형은 AI가 채점합니다.

09

독해 · 사고력 교재

국어농장 추론 연습

글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을 단서로 알아내는 읽기 추론과, 근거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숨은 전제를 찾는 논리 추론을 함께 익히는 초등 고학년 교재입니다. 두 갈래 모두 「단서 → 배경지식 → 결론」의 추론 표에 생각을 정리하며 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프레게1(초4) · 프레게2(초5) 프레게3(초6)	레벨별 2권 · 24단원(권마다 12단원) 단원마다 개념 → 따라 하기 → 연습 → 실전 정답과 해설 별책	주 1단원 기준 1권 12주 · 1레벨 24주

레벨별 학습 목표

프레게1 · 단서 찾기와 결론 내기
글 속 단서로 인물의 마음과 까닭을 알아내고, 규칙과 사실에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프레게2 · 생략된 내용과 숨은 전제 찾기
생략된 장면과 과정을 추론하고, 주장하는 글에 숨은 전제를 찾습니다.

프레게3 · 속뜻과 의도, 결론 확인하기
함축과 반어, 작가의 의도를 추론하고, 결론이 근거에서 바르게 이어지는지 판단합니다.

추론 표 읽기 추론과 논리 추론을 같은 표로 풉니다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읽기 추론	**단서** — 글에 있는 것	**배경지식** — 내 경험과 지식	**결론** — 글에 없는 것
논리 추론	**근거**	**생략된 근거**(프레게1) · **숨은 전제**(프레게2 · 3)	**결론**
예	지후는 우산을 털며 교실에 들어왔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밖에 비가 오고 있다.

모든 문제를 세 칸을 차례로 채우며 풉니다. 논리 추론에서는 가운데 칸에 근거와 결론을 이어 주는 생각을 씁니다. 프레게2는 따라 하기에서 이 칸을 스스로 채우고, 프레게3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까지 판단합니다.

단원 구성 부마다 읽기 추론 셋 · 논리 추론 둘(주황 번호) · 종합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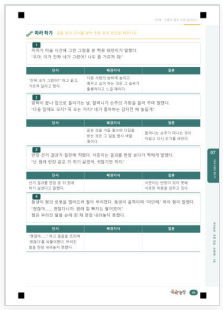
	프레게1 · 초4	프레게2 · 초5	프레게3 · 초6
1부 ①권	01 제목과 차례로 내용 짐작하기 02 앞뒤 문장으로 낱말 뜻 짐작하기 03 이야기의 때와 곳 짐작하기 04 규칙과 사실로 결론 내기 05 단서 여러 개를 모아 결론 내기 06 종합 1	01 문맥으로 낱말 뜻 추론하기 02 관용 표현과 속담의 뜻 알아내기 03 생략된 과정 추론하기 04 두 전제에서 결론 이끌어 내기 05 숨은 전제 찾기 06 종합 1	01 함축된 표현의 속뜻 추론하기 02 돌려 말하기와 반어 이해하기 03 되풀이되는 사물의 상징 이해하기 04 이어지는 조건으로 결론 추론하기 05 뒤집어 말하기로 결론 추론하기 06 종합 1
2부 ①권	07 인물의 말로 마음 알아내기 08 행동과 표정으로 마음 알아내기 09 원인과 결과 짐작하기 10 생략된 근거 찾기 11 공통점을 찾아 결론 내기 12 종합 2	07 생략된 장면 추론하기 08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09 여러 장면을 종합하여 인물의 성격 추론하기 10 규칙을 거꾸로 적용한 추론 판단하기 11 꼭 있어야 하는 조건과 그것만 있으면 되는 조건 구별하기 12 종합 2	07 작가의 의도 추론하기 08 갈등의 원인 추론하기 09 말하는 이가 놓친 사실 추론하기 10 숨은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 11 새로운 정보로 결론 판단하기 12 종합 2
3부 ②권	13 이어질 일 예측하기 14 표와 자료를 읽고 알아내기 15 생략된 장면 짐작하기 16 반례를 찾아 결론 확인하기 17 무리와 성질을 이어 결론 내기 18 종합 3	13 인물의 마음 변화 추론하기 14 배경이 사건에 미친 영향 추론하기 15 여러 원인과 숨은 원인 추론하기 16 일반화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 17 유추로 결론 이끌어 내기 18 종합 3	13 관점이 다른 두 글 비교하며 읽기 14 자료의 변화에서 원인 짐작하기 15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생략된 과정 추론하기 16 함께 일어난 일과 원인 구별하기 17 유추의 적절성 판단하기 18 종합 3
4부 ②권	19 대화 속 숨은 뜻 짐작하기 20 동시에서 말하는 이와 상황 짐작하기 21 확실한 것과 짐작인 것 구별하기 22 조건을 맞추어 답 찾기 23 의견과 까닭이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24 종합 4	19 설명문의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20 비유적 표현의 속뜻 추론하기 21 글과 자료를 함께 읽고 추론하기 22 여러 조건을 표로 정리하여 추론하기 23 결론이 근거에서 나오는지 판단하기 24 종합 4	19 복선으로 결말 예측하기 20 옛 글의 시대와 생활 추론하기 21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 내리기 22 논증의 구조 파악하기 23 근거와 전제를 갖추어 주장하는 글 쓰기 24 종합 4

단원 학습 흐름 프레게1 7단원 「인물의 말로 마음 알아내기」 ·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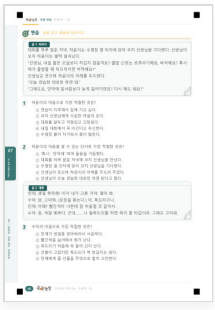
1 개념 1쪽 → **2 따라 하기 1쪽** → **3 연습 3쪽** → **4 실전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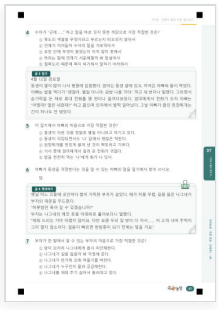


개념 · 예시 · 추론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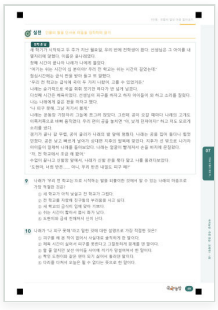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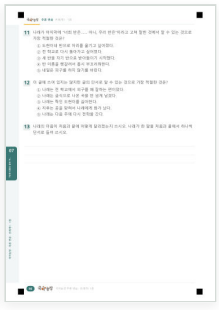
짧은 글로 추론 표 채우기





종류가 다른 글 네 편 · 객관식과 찾아 쓰기





긴 글 한 편 · 객관식과 서술형

개념 7단원 1쪽



읽기 추론

[4국05-01] 인물과 이야기의 흐름 ①

7 인물의 말로 마음 알아내기

이야기에서 인물의 마음은 '기뻤다', '서운했다'처럼 바로 쓰여 있지 않을 때가 많다. 이때는 인물이 한 말에서 단서를 찾는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도 단서가 된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지, 말끝을 흐리는지, 묻는 말에 짧게만 대답하는지, 한 말을 고쳐 말하는지 살핀다.

단서를 찾았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마음일까?' 하고 내가 아는 것을 떠올린다. 단서와 아는 것을 이어 결론을 낸다.

예시 ②

현우는 축구 시합에서 지고 집에 왔다. 엄마가 "오늘 어땠어?" 하고 묻자 현우가 말했다. "몰라. 그냥 그랬어. 저녁은 안 먹을래."

단서	배경지식	결론
시합에서 진 날, 묻는 말에 "몰라. 그냥 그랬어."라고 짧게 대답하고 저녁도 안 먹겠다고 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말하고 싶지 않고 입맛도 없어진다.	현우는 시합에 져서 속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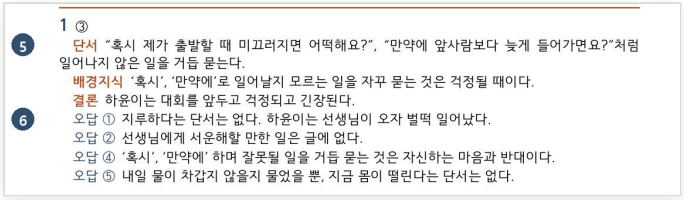
추론 순서 ③

1 인물이 한 말을 찾는다.
2 말하는 방식을 살핀다. 되풀이하는 말, 흐리는 말끝, 짧은 대답, 고쳐 말한 말을 찾는다.
3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아는 것을 떠올린다.
4 결론을 앞뒤 상황과 맞추어 본다. 상황과 어긋나면 다시 생각한다.

자주 하는 실수 ④

인물이 한 말을 겉뜻 그대로 믿는 실수가 잦다. "괜찮아."라고 말해도 앞뒤 상황이 괜찮지 않으면 마음은 다를 수 있다. 말과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별책 · 같은 단원 연습 1번



1 ③
⑤ **단서** "혹시 제가 출발할 때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만약에 앞사람보다 늦게 들어가면요?"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듭 묻는다.
배경지식 '혹시', '만약에'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자꾸 묻는 것은 걱정될 때이다.
결론 하윤이는 대회를 앞두고 걱정되고 긴장된다.
⑥ 오답 ① 지루하다는 단서는 없다. 하윤이는 선생님이 오자 벌떡 일어났다.
오답 ② 선생님에게 서운해할 만한 일은 글에 없다.
오답 ④ '혹시', '만약에' 하며 잘못될 일을 거듭 묻는 것은 자신하는 마음과 반대이다.
오답 ⑤ 내일 물이 차갑지 않을지 물었을 뿐, 지금 몸이 떨린다는 단서는 없다.

① **갈래와 성취기준** — 단원 머리에 추론의 갈래와 관련 성취기준을 밝혔습니다.

② **예시와 추론 표** — 짧은 예시 글을 「단서 → 배경지식 → 결론」의 세 칸으로 풀어 보입니다.

③ **추론 순서** — 단서를 찾아 결론을 내기까지의 순서를 정리하였습니다.

④ **자주 하는 실수** — 학생들이 흔히 잘못 판단하는 부분을 짚습니다.

⑤ **단서 · 배경지식 · 결론** — 정답과 해설에도 같은 세 칸으로 풀이 과정을 실었습니다.

⑥ **오답의 까닭** — 오답마다 틀린 까닭을 밝혔습니다. 자주 고르는 오답(지나친 추론 · 반대로 읽기 등)은 책 앞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논리 추론 단원 같은 표를 「근거 → 생략된 근거(프레게2 · 3은 숨은 전제) → 결론」으로 읽습니다



논리 추론 [4국01-04] 의견과 이유

10 생략된 근거 찾기

의견을 말할 때에는 까닭을 함께 든다. 이때 주장하는 것을 결론, 결론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근거라고 한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근거와 결론을 잇는 생각 하나를 말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다. 듣는 사람도 다 아는 생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말 속에 들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생각을 생략된 근거라고 한다.

생략된 근거를 찾으면 그 말이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 또 그 생각이 정말 맞는지 살펴볼 수도 있다.

예시 "오늘은 비가 오니까 체육 대회를 미뤄야 해."

근거	생략된 근거	결론
오늘은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운동장에서 체육 대회를 하기 어렵다.	체육 대회를 미뤄야 한다.

추론 순서
1 결론(하자는 것, 주장하는 것)을 찾는다.

프레게1 10단원 「생략된 근거 찾기」 — 근거와 결론 사이에 생략된 생각을 찾습니다



논리 추론 [4국01-02] 주장과 이유나 근거

5 숨은 전제 찾기

주장하는 말이나 글은 근거에서 결론을 이끌어 낸다.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바탕이 되는 생각을 전제라고 한다. 근거는 겉으로 드러난 전제이다.

그런데 근거만으로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 근거와 결론 사이에는 말하는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겨 드러내지 않은 생각이 하나 더 있다. 이것을 숨은 전제라고 한다.

숨은 전제를 찾아야 그 주장이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주장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예시 우리 학교도 교복을 입어야 한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들이 옷값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숨은 전제	결론
교복을 입으면 학생들이 옷값 걱정을 덜 수 있다.	학생들의 옷값 걱정을 덜어 주는 방법이 있다면 학교는 그 방법을 써야 한다.	우리 학교도 교복을 입어야 한다.

추론 순서
1 결론과 근거를 찾는다.

프레게2 5단원 「숨은 전제 찾기」 — 말하는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겨 드러내지 않은 생각을 찾습니다

온라인 연계 학습

단원별 내용 숙지 → 정답과 해설 → **챕터 테스트**

10

고등 상위권 · 독서(비문학)

비트겐슈타인 최고난도 독서

수능 독서의 가장 어려운 세트 수준으로 지문과 문항을 새로 쓴 문제집입니다. 평가원 수능 · 모의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사설 모의고사, 여러 해의 수능특강 · 수능완성을 분석해 지문의 짜임과 오답 선지를 만드는 방식을 정리하였고, 그 방식에 따라 모든 지문과 문항을 새로 썼습니다. 쉬운 문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학습 대상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고2 겨울방학~고3
독서 고난도 세트에서 시간이 모자라고
정답률이 크게 떨어지는 학생

구성
4권 · 권마다 50지문(230문항 안팎)
구조 유형 30지문 + 실전 5회(회마다 4지문)
학생용 · 정답과 해설 · 교사용 · 교사용 해설

권장 학습 기간
주 5지문 기준 한 권 10주
구조 유형 30지문 → 실전 5회 차례

권 구성

권	다루는 분야	분량
1권 인문 · 예술	철학(인식론 · 윤리학 · 언어 철학 · 논리학), 사상사, 미학 · 예술론, 역사학 방법론	50지문 · 233문항 학생용 116쪽
2권 사회 · 법 · 경제	경제(거시 · 금융 · 국제), 법(민법 · 공법 · 국제법), 정치 · 행정, 사회 · 문화	50지문 · 230문항 학생용 116쪽
3권 과학 · 기술	물리 · 화학 · 생명 과학 · 지구 과학, 공학 장치와 공정, 정보 · 통신 · 알고리즘	50지문 · 230문항 학생용 124쪽
4권 복합 · 융합	(가)(나) 주제 통합 지문, 인문과 과학 · 사회와 기술이 맞물리는 지문, 자료 · 수치 해석	50지문 · 254문항 학생용 140쪽



1권 인문 · 예술 **2권** 사회 · 법 · 경제 **3권** 과학 · 기술 **4권** 복합 · 융합

지문 하나의 문항 짜임

수능처럼 지문마다 4~6문항 · 어휘 문항 없이 모두 내용을 판단하는 문항

자리	문항 유형	하는 일	4문항	5문항	(가)(나) 6문항
①	**내용 일치 · 이해**	지문 전체를 점검합니다. 누가 한 말인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를 바꾼 선지가 나옵니다.	○	○	○
②	**핵심 개념 · 구조 이해**	지문이 비교하는 두 대상 가운데 하나를 골라 꼼꼼하게 따집니다.	○	○	○
③	**추론**	지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은 예외 조건 · 원인 · 방향을 지문의 근거로 이끌어 냅니다.	○	○	○
④	**〈보기〉 적용 [3점]**	지문의 원리를 새로운 상황 · 수치 · 도식에 적용합니다. 지문마다 하나 이상 있는 고난도 문항입니다.	○	○	○
⑤	**〈보기〉 두 번째 적용 [3점]**	다른 기준으로 한 번 더 분류하거나 추론합니다.	–	○	○
⑥	**(가)(나) 관점 적용 [3점]**	두 글의 관점을 조건에 따라 나누어 새 사례에 적용합니다.	–	–	○

지문마다 판정을 세 번 이상 거쳐야 답이 나오는 문항(정의를 대입하고 → 방향을 정하고 → 비교하는)을 하나 이상 두었습니다. 교사용 해설에는 문항마다 2~3등급 학생의 예상 정답률을 적었고, 고난도 문항은 30% 이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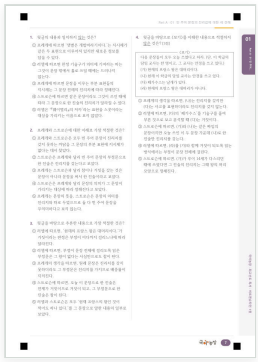
온라인 연계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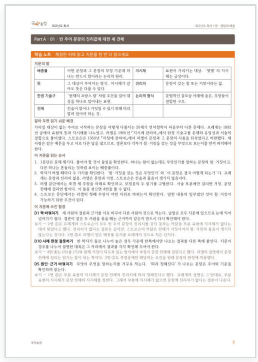
장별 책으로 풀고 답 입력 → 채점 · 분석 → 해설 집중 읽기 → **틀린 문항 다시 풀기**

책의 흐름 1권 인문 · 예술

1 차례 **2 지문** **3 〈보기〉 문항** **4 실전 회차** **5 정답과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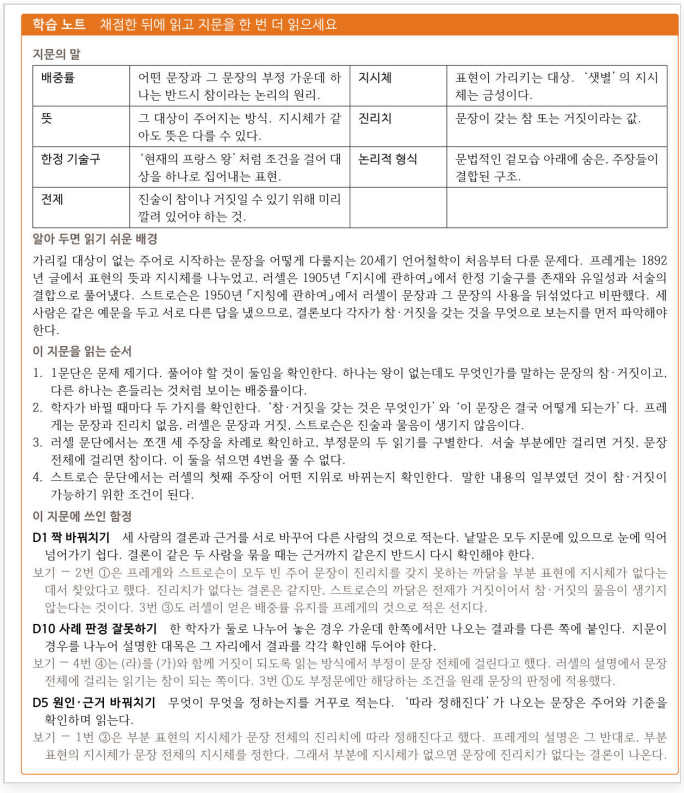






구조 유형 30 · 실전 5회 | 두 단 시험지 | 3점 고난도 | 회마다 지문 넷 | 별책 · 빠른 정답 · 학습 노트

1. **지문** — 수능 실제 길이에 맞추었습니다. 4문항 지문 1,100~1,600자, 5문항 지문 1,500~2,000자, (가)(나) 지문 1,700~2,200자(공백 제외)입니다.
2. **읽으며 만드는 표** — 지문마다 학생이 머릿속에 만들어야 하는 비교표(인물 × 주장, 공정 × 순서, 제도 × 조건)가 있습니다. 문항은 그 표의 빈칸을 묻습니다.
3. **〈보기〉 문항** — 지문의 원리를 처음 보는 사례에 적용합니다. 사례의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야 답이 나옵니다.
4. **실전 회차** — 실전 1~5회는 서로 다른 구조의 지문 넷을 한 회로 묶었습니다. 시간을 재고 한 번에 풉니다.



학습 노트 채점한 뒤에 읽고 지문을 한 번 더 읽으세요

지문의 말

배중률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논리의 원리.	지시체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 '샛별'의 지시체는 금성이다.
뜻	그 대상이 주어지는 방식. 지시체가 같아도 뜻은 다를 수 있다.	진리치	문장이 갖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값.
한정 기술구	'현재의 프랑스 왕'처럼 조건을 걸어 대상을 하나로 집어내는 표현.	논리적 형식	문법적인 겉모습 아래에 숨은, 주장들이 결합된 구조.
전제	진술이 참이나 거짓일 수 있기 위해 미리 깔려 있어야 하는 것.		

알아 두면 읽기 쉬운 배경

가리킬 대상이 없는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다룰지는 20세기 언어철학이 처음부터 다룬 문제다. 프레게는 1892년 글에서 표현의 뜻과 지시체를 나누었고, 러셀은 1905년 「지시에 관하여」에서 한정 기술구를 존재와 유일성과 서술의 결합으로 풀어냈다. 스트로슨은 1950년 「지칭에 관하여」에서 러셀이 문장과 그 문장의 사용을 뒤섞었다고 비판했다. 세 사람은 같은 예문을 두고 서로 다른 답을 냈으므로, 결론보다 각자가 참·거짓을 갖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 지문을 읽는 순서

1. 1문단은 문제 제기다. 풀어야 할 것이 둘임을 확인한다. 하나는 왕이 없는데도 무엇인가를 말하는 문장의 참·거짓이고, 다른 하나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배중률이다.
2. 학자가 바뀔 때마다 두 가지를 확인한다. '참·거짓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와 '이 문장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다. 프레게는 문장과 진리치 없음, 러셀은 문장과 거짓, 스트로슨은 진술과 물음이 생기지 않음이다.
3. 러셀 문단에서는 쪼갠 세 주장을 차례로 확인하고, 부정문의 두 읽기를 구별한다. 서술 부분에만 걸리면 거짓, 문장 전체에 걸리면 참이다. 이 둘을 섞으면 4번을 풀 수 없다.
4. 스트로슨 문단에서는 러셀의 첫째 주장이 어떤 지위로 바뀌는지 확인한다. 말한 내용의 일부였던 것이 참·거짓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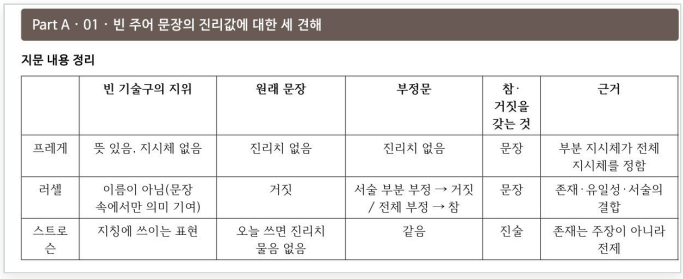
이 지문에 쓰인 함정

D1 짝 바꿔치기 세 사람의 결론과 근거를 서로 바꾸어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적는다. 낱말은 모두 지문에 있으므로 눈에 익어 넘어가기 쉽다. 결론이 같은 두 사람을 묶을 때는 근거까지 같은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보기 — 2번 ①은 프레게와 스트로슨이 모두 빈 주어 문장이 진리치를 갖지 못하는 까닭을 부분 표현에 지시체가 없다는 데서 찾았다고 했다. 진리치가 없다는 결론은 같지만, 스트로슨의 까닭은 전제가 거짓이어서 참·거짓의 물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3번 ③도 러셀이 얻은 배중률 유지를 프레게의 것으로 적은 선지다.

D10 사례 판정 잘못하기 한 학자가 둘로 나누어 놓은 경우 가운데 한쪽에서만 나오는 결과를 다른 쪽에 붙인다. 지문이 경우를 나누어 설명한 대목은 그 자리에서 결과를 각각 확인해 두어야 한다.
보기 — 4번 ④는 (라)를 (가)와 함께 거짓이 되도록 읽는 방식에서 부정이 문장 전체에 걸린다고 했다. 러셀의 설명에서 문장 전체에 걸리는 읽기는 참이 되는 쪽이다. 3번 ①도 부정문에만 해당하는 조건을 원래 문장의 판정에 적용했다.

D5 원인·근거 바꿔치기 무엇이 무엇을 정하는지를 거꾸로 적는다. '따라 정해진다'가 나오는 문장은 주어와 기준을 확인하며 읽는다.
보기 — 1번 ③은 부분 표현의 지시체가 문장 전체의 진리치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다. 프레게의 설명은 그 반대로, 부분 표현의 지시체가 문장 전체의 지시체를 정한다. 그래서 부분에 지시체가 없으면 문장에 진리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학습 노트 — 1권 정답과 해설



Part A · 01 · 빈 주어 문장의 진리값에 대한 세 견해

지문 내용 정리

	빈 기술구의 지위	원래 문장	부정문	참·거짓을 갖는 것	근거
프레게	뜻 있음, 지시체 없음	진리치 없음	진리치 없음	문장	부분 지시체가 전체 지시체를 정함
러셀	이름이 아님(문장 속에서만 의미 기여)	거짓	서술 부분 부정 → 거짓 / 전체 부정 → 참	문장	존재·유일성·서술의 결합
스트로슨	지칭에 쓰이는 표현	오늘 쓰면 진리치 물음 없음	같음	진술	존재는 주장이 아니라 전제

지문 내용 정리 — 1권 교사용 해설

5. **학습 노트** — 별책 정답과 해설에는 지문마다 학습 노트를 두어, 지문에 나온 말의 뜻과 알아 두면 읽기 쉬운 배경, 지문을 읽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채점한 뒤에 읽고 지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6. **이 지문에 쓰인 함정** — 학습 노트 끝에는 오답 선지가 지문 내용을 어떻게 비틀었는지(짝 바꿔치기 · 원인과 근거 바꿔치기 등) 적고, 그 함정이 쓰인 문항과 선지를 밝혔습니다. 함정마다 붙인 D1~D10 번호는 「선택지 18패턴」의 독서 열 패턴을 따릅니다.
7. **문항 해설** —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단과 문장을 밝히고, 오답 선지마다 지문의 어느 말과 어긋나는지 적었습니다.
8. **지문 내용 정리** — 교사용 해설에는 지문을 읽으며 만들어야 했던 비교표를 정답 표로 싣고, 문항마다 예상 정답률을 적었습니다. 틀린 학생과 함께 어느 칸을 놓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책 과정 · 고전 문학

고전문학 읽기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을 원문으로 읽어 내는 힘을 기르는 교재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고전 문학은 현대어 풀이 없이 원문으로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을 한 줄씩 직접 현대어로 옮겨 읽고, 고전 문학에 되풀이해 쓰이는 표현을 익힌 뒤, 학교 시험에 나온 문항을 변형한 문제로 작품마다 확인합니다.

학습 대상
러셀 권은 중3, 비트겐슈타인 권은 고2에 권장
고전 문학 원문이 낯설어 해석부터 막히는 학생

구성
레벨마다 고전시가 · 고전산문 한 권씩
권마다 20꼭지 · 갈래마다 혼자 읽기
빠른 정답과 예시 답안(별책) · 교사용

권장 학습 기간
주 2꼭지 기준
한 권 10주 · 한 레벨 두 권 20주

권마다 실은 작품

네 권 · 80꼭지 · 작품 110편 · 혼자 읽기 20편

권	갈래와 작품
러셀 · 고전시가 **34편 · 152쪽**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 「구지가」 「황조가」 · 백제 가요 「정읍사」 · 고려 가요 「가시리」 「동동」 · 평시조(회고가 · 절의가 · 기녀 시조) · 연시조 「강호사시가」 「오우가」 「훈민가」 · 사설시조 · 가사 「상춘곡」 「농가월령가」 「우부가」 · 민요 「시집살이노래」 · 한시 「송인」
러셀 · 고전산문 **24편 · 180쪽**	신화 「단군신화」 「주몽신화」 · 설화 「조신설화」 「도미설화」 · 고전 소설 「홍길동전」 「박씨전」 「전우치전」 · 한문 소설 「양반전」 「허생전」 ·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 우화 소설 「두껍전」 · 가전 「공방전」 · 고전 수필 「슬견설」 「차마설」 「규중칠우쟁론기」 「조침문」
비트겐슈타인 **고전시가 31편 · 188쪽**	향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 고려 가요 「서경별곡」 「청산별곡」 「만전춘별사」 · 경기체가 「한림별곡」 · 평시조 · 사설시조 · 연시조 「만흥」 「어부사시사」 「도산십이곡」 「고산구곡가」 · 가사 「속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 「규원가」 「누항사」 · 악장 「용비어천가」 · 한시 「부벽루」
비트겐슈타인 **고전산문 21편 · 184쪽**	우언 「화왕계」 · 가전 「국순전」 「국선생전」 · 설화 「거타지설화」 · 전기 소설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 한문 소설 「최척전」 「운영전」 · 국문 소설 「구운몽」 · 영웅 소설 「소대성전」 「조웅전」 「홍계월전」 「유충렬전」 · 판소리계 소설 「숙영낭자전」 「배비장전」 · 가정 소설 「정을선전」 · 고전 수필 「수오재기」 「일야구도하기」 「동명일기」 「한중록」 「주옹설」

꼭지 하나를 공부하는 차례

1 원문 읽기
주석을 보지 않고 소리 내어 읽으며 모르는 말의 뜻을 짐작해 적습니다.

2 대조하며 읽기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나란히 놓고 풀이를 채운 뒤, 드러나지 않은 주어와 대상을 찾아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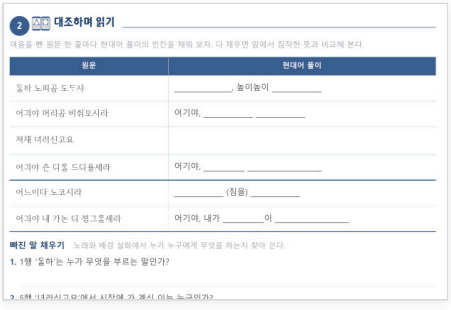
3 되풀이되는 표현
다른 작품에도 자주 나오는 시어 · 표현 · 말투를 모아 익힙니다.

4 작품 정리
표의 빈칸을 채워 작품의 짜임과 화자 · 인물의 정서를 정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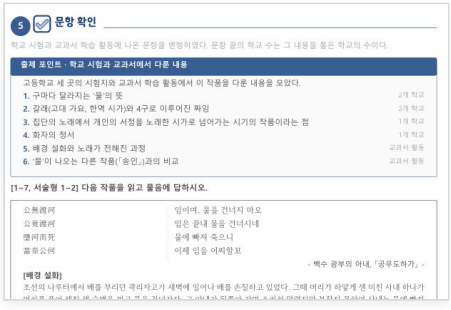
5 문항 확인
학교 시험에 나온 문항을 변형한 객관식과 서술형을 풀고, 별책 「빠른 정답과 예시 답안」으로 맞춥니다.



원문 읽기 비트겐슈타인 · 고전시가 「제망매가」



대조하며 읽기 러셀 · 고전시가 「정읍사」



문항 확인 러셀 · 고전시가 「공무도하가」

문항 앞의 '출제 포인트'에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을 많이 나온 것부터 적었고, 문항 끝에는 그 내용을 물은 학교의 수를 밝혔습니다. 비트겐슈타인 권에는 수능 · 모의평가 형식의 〈보기〉 문항을 더했습니다. 갈래 하나를 마칠 때마다 처음 보는 작품을 「혼자 읽기」로 읽고 바로 문항을 풉니다.

온라인 · 꼭지별 원문과 풀이 맞춰 보기 → 문항 해설 읽기 → **챕터 테스트**

12

시리즈 · 독서와 문학 선택지

선택지 18패턴

국어 시험의 오답 선택지는 정해진 몇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창훈 원장이 수능 · 모의평가 기출 선지를 분석해 그 방식을 18가지 패턴(독서 10 · 문학 8)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선지를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짧은 명제로 나누고, 명제마다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판정한 뒤, 거짓인 명제가 왜 거짓인지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중3~고3 지문은 읽었는데 선택지 두 개에서 늘 고민하는 학생	독서편 10장 · 문학편 8장 · 실전편 12회 권마다 학생용 · 정답과 해설(별책)	한 장(패턴 하나) 한 주 독서편 10주 · 문학편 8주 뒤 실전편

18가지 패턴

독서 — 오답 선지를 만드는 10가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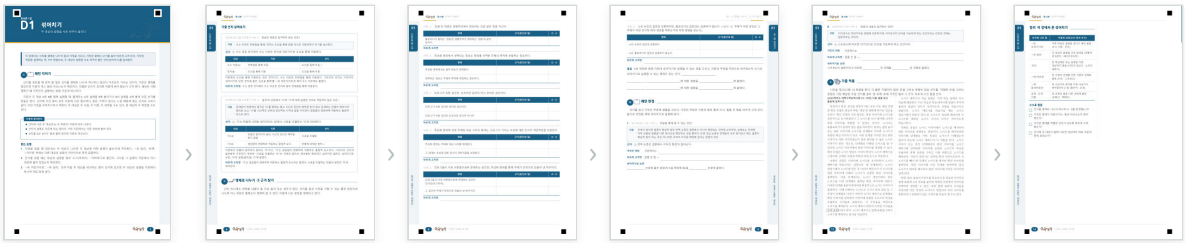
D1	섞어치기	두 대상의 설명을 서로 바꾸어 붙인다
D2	부정 표현 · 상대어	지문에 없는 반대말로 진술을 뒤집는다
D3	누가 · 누구의 · 누구를	행위의 주체와 대상, 소유 관계를 바꾼다
D4	순서 · 방향	과정의 차례나 이동의 방향을 거꾸로 세운다
D5	인과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거나 엉뚱하게 잇는다
D6	의도 · 목적	인물이 그렇게 한 까닭을 바꾸어 붙인다
D7	상관관계	'-할수록'의 비례 · 반비례를 뒤집는다
D8	필요조건	'-여야만'의 조건 관계를 잘못 세운다
D9	결합 · 분리	함께여야 참인 것을 떼거나, 따로인 것을 묶는다
D10	케이스	지문이 나눈 경우를 다른 경우에 갖다 붙인다

문학 — 오답 선지를 만드는 8가지 방식

L1	긍정 · 부정 뒤집기	시어 · 인물 · 태도에 대한 평가를 반대로 말한다
L2	대립항 섞어치기	서로 맞서는 두 대상의 속성을 뒤섞는다
L3	누가 · 누구의 · 누구를	화자 · 인물의 주체와 대상을 바꾼다
L4	순서 · 방향	사건의 선후, 시선 · 생각의 방향을 뒤집는다
L5	의도 · 목적	근거 없는 의도를 인물에게 덧붙인다
L6	인과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잘못 잇는다
L7	결합 · 분리	따로인 속성을 합치거나 하나인 것을 나눈다
L8	했느냐 안 했느냐	바람 · 가정 · 상상을 실제로 한 일처럼 말한다

한 장을 공부하는 차례 독서편 1장 「D1 섞어치기」 · 10쪽

① 패턴 익히기 → ① 기출 선지 → ②③ 명제 · 근거 → ④ 패턴 판정 → ⑤ 기출 적용 → 정리



패턴의 뜻 · 알아보는 법 / 지문과 선지 비교하기 / 명제마다 근거 문단 · O · X / 거짓인 말 · 바르게 고치기 / 같은 패턴의 기출 세트 / 이 장에서 본 패턴

실전편 평가원 기출 12회 · 독서 6회(인문 · 사회 · 법 · 과학 · 기술 · 예술) · 문학 6회

① 시험처럼 풀기 → ② 명제로 따져 보기 → ③ 만난 패턴



시간을 재고 기출 한 세트를 푼 뒤, 선지마다 나누어 둔 명제를 하나씩 판정합니다. 근거가 되는 문단(문학은 구절)과 O · X를 쓰고, X인 명제는 거짓인 까닭을 패턴 기호로 적습니다. 마지막에 그 회에서 쓴 기호를 모아 이 세트의 선지가 무엇을 바꾸어 거짓이 되었는지 봅니다. 패턴은 O · X를 정한 뒤에 붙입니다.

온라인 · 장별 해설 집중 읽기(실전편은 회별) → **챕터 테스트**

13

책 과정 · 서술형

내신 서술형 연습

학교 시험의 서술형 문항에 맞춰 답안을 쓰는 연습 교재입니다. 중 · 고등학교 시험의 서술형 1,164문항(중학교 703 · 고등학교 461)을 모아 무엇을 어떻게 묻는지 살폈고, 그 문항들을 바탕으로 대표 문항과 확인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지문은 교과서에 실린 글과 작품을 옮겼습니다. 〈조건〉을 빠뜨려 깎이는 점수, 근거 없이 결론만 써서 깎이는 점수를 줄이도록 문항 읽기부터 고쳐 쓰기까지 차례대로 연습합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예비 중1(프레게) · 중1~3(러셀) · 고1~3(비트겐슈타인) 첫 내신을 앞둔 중1 · 고1부터 권장	단계마다 비문학 · 문학 · 문법 한 권씩(9권) 권마다 20장 · 한 장 5~6쪽 · 학생용 · 교사용	주 2장 기준 한 권 10주 시험 앞에는 시험 범위에 맞는 장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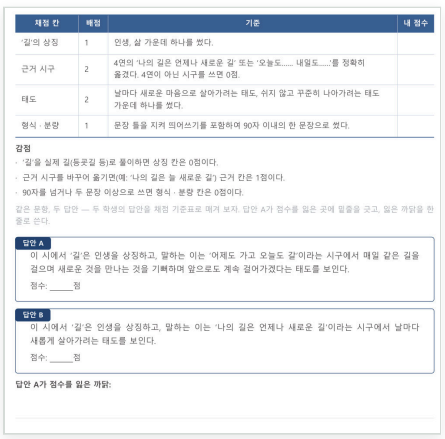
단계마다 다루는 서술형 권마다 20장 가운데 일부

	비문학	문학	문법
프레게 예비 중1 중1 교과서 지문	핵심어와 중심 문장 찾기 · 문단 요약(삭제와 선택, 일반화와 재구성) · 글의 구조에 맞게 요약하기 · 설명 방법 찾기와 그 효과	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 반복과 운율 · 감각적 표현 · 비유와 의인 표현 · 인물의 마음, 말과 행동에서 찾기	품사, 형태에 따라 나누기 · 체언과 관계언 · 용언의 기본형과 활용 · 형태소와 그 갈래
러셀 중학교 내신	문단의 중심 내용 요약하기 · 설명 방법과 그 효과 · 주장과 이유, 근거 구별하기 · 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하기	〈조건〉을 읽는 법 · 시어의 뜻을 근거와 함께 · 원관념과 보조관념 · 반어와 역설 · 갈등의 종류와 원인 · 서술자의 특성과 효과	품사를 나누는 세 기준 ·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기 · 단어의 짜임 분석하기 ·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비트겐슈타인 고등학교 내신	원인과 결과의 고리 잇기 · 개념의 정의와 비유의 뜻 · 그래프 · 그림 자료 해석하기 · 생략된 전제 찾기 · 글의 관점을 사례에 적용하기	배점이 붙은 〈조건〉 읽기 · 시어와 시구의 함축 의미 밝히기 · 중의적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하기 · 인물의 행동과 관계의 변화 쓰기	음운 변동의 순서와 단계 쓰기 · 탈락 · 축약과 음운의 개수 · 잘못된 발음 고치기와 그 까닭 · 형태소 분석

한 장을 공부하는 차례 러셀 문학 1장 「〈조건〉을 읽는 법」 · 5쪽



이 장에서 익힐 것 · 지문 | 발문과 〈조건〉 · 근거 찾기 | 개요 · 답안 · 글자 수 | 채점 기준 · 두 답안 | 두 문항 · 4점씩



⑤ **채점 기준 점검** — 러셀 문학 1장

1. **채점 기준표** — 〈조건〉마다 배점을 붙여 학교 시험의 채점 기준처럼 부분 점수를 매깁니다. 대표 문항은 6점, 확인 문항은 4점입니다.
2. **같은 문항, 두 답안** — 같은 문항에 쓴 두 학생의 답안을 채점 기준표로 매겨 보고, 답안 A가 점수를 잃은 까닭을 씁니다. 내 답안에서 깎일 자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하는 실수 10가지** — 권 앞에 감점되는 답안의 공통점을 열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문장 틀을 지키지 않거나 꼭 넣으라는 낱말을 빠뜨리는 실수 등입니다. 답안을 다 쓰면 이 목록으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온라인 · 장별 책에 쓴 답 사진 올리기 → AI가 채점 기준으로 채점 → 통과하지 못한 부분만 고쳐 다시 올리기 → **다음 장**

14

분야 독해 · 프레게(초등 고학년)

한국사 독해 · 세계사 독해

역사를 글과 자료로 읽는 초등 고학년 독해 교재입니다. 초등 5 · 6학년 사회에서 처음 배우는 우리 역사는 짧은 기간에 선사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를 다루어, 낱말과 사건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회마다 한 가지 주제를 한 쪽 분량의 글로 읽고, 옛 기록과 유물 사진, 연표 같은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가려 봅니다. 세계사 독해는 중학교 역사의 세계사 단원 차례를 따릅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프레게1~3(초4~6) · 예비 중1 세계사는 한국사를 마친 초6 · 예비 중1에 권장	시리즈마다 4권 · 권마다 24회 모아 읽기 4회 · 한 회 3~4쪽 · 교사용 별책	주 2회 기준 한 권 12주 40분 수업 한 번에 한 회

권 구성 두 시리즈 여덟 권 모두 출간

권	한국사 독해	세계사 독해
1	**선사 시대부터 삼국까지** · 92쪽	**고대 문명과 여러 나라** · 116쪽
2	**남북국 시대부터 고려까지** · 92쪽	**중세 세계와 동서 교류** · 116쪽
3	**조선** · 92쪽	**교류의 확대와 근대의 시작** · 116쪽
4	**개항부터 오늘날까지** · 92쪽	**제국주의에서 오늘날까지** · 1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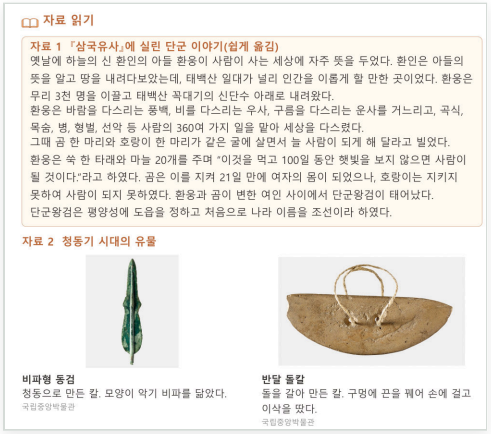
한국사 독해 1 세계사 독해 1

한 회의 차례 한국사 독해 1 · 4회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 · 3쪽

1 글 읽기 → 2 자료 읽기 · 낱말 익히기 → 3 문제 · 정리하기



알아볼 물음 · 낱말 도움말 / 옛 기록 · 유물 사진 / 객관식 넷 · 찾아 쓰기 · 정리 표



자료 읽기 — 한국사 독해 1 · 4회

1 **글 읽기** — 회마다 한 가지 주제를 한 쪽 분량의 글로 읽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알아볼 물음'을 생각하며 읽고, 어려운 낱말은 쪽 아래의 낱말 도움말에서 찾아봅니다.

2 **자료 읽기** — 쉽게 옮긴 옛 기록, 유물 사진, 연표, 표를 읽고, 자료만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판단합니다. 유물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공누리로 공개한 것을 실었습니다.

3 **문제** —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일이 일어난 까닭, 낱말의 뜻을 묻는 문제 네 개와 글에서 찾아 쓰는 문제 하나를 풉니다.

4 **낱말 익히기와 정리하기** — 그 회에 나온 낱말과 뜻을 잇고, 빈칸을 채워 정리표와 한 문장 정리를 완성합니다.

5 **모아 읽기** — 여섯 회를 마칠 때마다 두 글을 비교하며 읽고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권 끝에 연표와 찾아보기를 실었습니다.

온라인 · 회별 책으로 풀고 답 입력 → 해설 집중 읽기 → **틀린 문항 다시 풀기**

15

분야 독해 · 러셀(중학생)

경제학 · 법학 · 철학 · 과학 · 기술 · 예술 독해

한 분야의 기본 개념을 차례대로 익히면서 그 분야의 글을 국어 시간에 배운 방법으로 읽게 하는 중학생 독해 교재입니다. 수능 독서에는 법 · 경제 · 철학 · 과학 · 기술 · 예술 지문이 자주 나오지만, 중학교 교과에서는 그 개념을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회마다 개념을 교과서 수준의 글로 먼저 익히고, 수능 독서 지문과 같은 짜임으로 새로 쓴 글을 읽은 뒤 수능 발문으로 다섯 문항을 풉니다.

학습 대상	구성	권장 학습 기간
러셀1~3(중1~3) 1권 중1 · 2권 중2 · 3권 중3에 맞추었습니다	여섯 시리즈 16권(시리즈마다 2~3권) 권마다 20회 · 한 회 3~4쪽 · 기출 3세트	주 1회 기준 한 권 20주 학생용 · 교사용(정답과 해설)

권 구성 여섯 시리즈 16권 모두 출간

시리즈	1권 · 중1	2권 · 중2	3권 · 중3
경제학 독해	선택과 시장	국민 경제와 금융	세계 경제와 경제학의 방법
법학 독해	법의 기초와 헌법	생활 속의 민법	형법 · 행정법 · 재판과 법 해석
철학 독해	논증과 인식	윤리와 사회	동양 철학과 존재
과학 독해	운동 · 에너지 · 물질	생명과 인체	지구와 우주, 과학의 방법
기술 독해	디지털 정보와 통신	전자 기술과 측정	–
예술 독해	미술 · 건축 · 영상	음악과 미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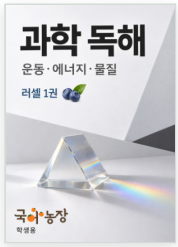
경제학 독해 1



법학 독해 1



철학 독해 1



과학 독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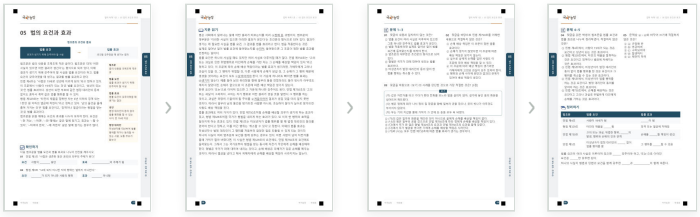
기술 독해 1



예술 독해 1

한 회의 차례 법학 독해 1 · 5회 「법의 요건과 효과」 · 4쪽

1 개념 익히기 2 지문 읽기 3 문제 4 정리하기



1. **개념 익히기** — 그 회에서 쓰는 개념을 교과서 수준의 글로 먼저 익히고, 핵심 용어를 확인한 뒤 빈칸을 채워 점검합니다.
2. **지문 읽기** — 수능 독서 지문과 같은 짜임으로 새로 쓴 글을 읽습니다. 법조문이나 사례를 들어 개념을 넓혀 가는 글입니다.
3. **문제** — 내용 일치, 개념 사이의 관계, 〈보기〉 사례 적용, 추론, 문맥상 낱말의 뜻을 묻는 다섯 문항을 수능과 같은 발문으로 풉니다.
4. **정리하기** — 개념 사이의 관계를 표의 빈칸으로 정리하고 한 줄 설명을 채웁니다.

권 끝의 '기출로 확인하기'에서는 그 분야의 고1 ·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지문 세 세트를 원문 그대로 풀어 보며, 책에서 익힌 개념이 실제 시험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 회별 책으로 풀고 답 입력 → 해설 집중 읽기 → **틀린 문항 다시 풀기**

온라인 연계 학습

교재 사진 채점

교재를 풀고 푼 쪽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문항마다 채점합니다. 객관식 · O X 표시는 사진에서 바로 읽고, 손으로 쓴 단답과 서술형은 AI 가 읽어 판정합니다. 선생님이 걷은 교재를 반 단위로 스캔해 학생마다 차례로 채점할 수도 있습니다.

채점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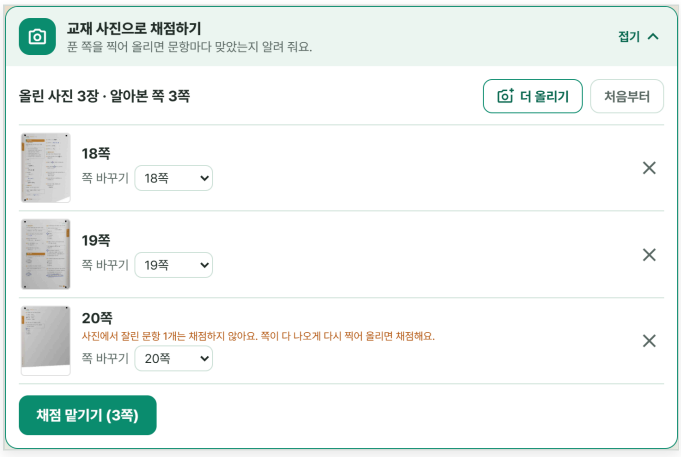
장별 교재 풀기 → 푼 쪽 사진 · 스캔 PDF 올리기 → 쪽 알아보기 · 문항 읽기 → 문항마다 채점 → **정답과 해설 · 통합 분석표에서 확인**

교재별 사용

교재	학생이 올리는 곳	채점
프로모드 정규 과정	주차의 「정답과 해설」	객관식 · 단답은 맞음과 틀림 서술형은 A+ ~ F 등급과 짧은 의견
문장 독해 연습 · 문법 개념 연습 · 문학 개념 연습 **국어농장 어휘 · 읽기 텃밭 · 추론 연습 · 작가와 작품 세계**	장의 「정답과 해설」	위와 같음
고전문학 읽기 · 선택지 18패턴	장의 「해설 집중 읽기」	위와 같음
비트겐슈타인 최고난도 독서 **한국사 · 세계사 독해 · 경제학 · 법학 · 철학 독해 외**	테스트 화면	책에 표시한 답을 읽어 OMR 칸에 넣습니다 채점은 테스트 그대로입니다

지식과 지혜 글쓰기와 내신 서술형 연습은 과정마다 따로 있는 사진 첨삭과 서술형 채점을 씁니다.

화면



학생 화면 사진마다 알아본 쪽과 잘린 문항을 알려 줍니다



채점 결과 문항마다 학생 답 · 판정 · 의견이 나옵니다

운영

- 결과는 그 장의 정답과 해설 문항 옆에 붙고, 통합 분석표의 「교재 채점」에 장마다 첫 채점 결과가 남아 학생 · 학부모 · 선생님이 함께 봅니다.
- 틀린 문항을 고쳐 다시 찍어 올리면 다시 채점합니다. 정답과 해설을 먼저 펼친 뒤에 올린 채점에는 「정답 확인 뒤」가 붙습니다.
- 선생님은 관리자 화면의 「교재 채점」에서 반을 고르고 학생마다 푼 쪽을 대신 올려 채점합니다. 책을 펼쳐 두 쪽을 한 번에 스캔해도 됩니다.
- 글씨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판정을 정하지 못한 문항은 「확인 필요」에 모여 선생님이 판정을 정합니다.
- 현재 판매하는 판의 교재로 쪽을 알아봅니다.

추천 학습 로드맵

커리큘럼 예시

학생의 수준과 목표에 따라 교재를 이어서 사용하는 예입니다. 순서와 기간은 학생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등 읽기 학습의 단계 내용을 찾아 읽는 단계에서 추론하며 읽는 단계로

초1~3 · 읽기 텃밭
교과 주제를 이야기 · 노래 · 설명하는 글로 읽고, 글에 나온 내용을 찾아 확인합니다.

›

초4~6 · 추론 연습
글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을 단서로 알아내고, 근거에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

중학교 · 러셀
문장 독해 연습으로 긴 문장을 정확히 읽고, 문학 개념 연습으로 문학 개념어를 익힙니다.

초등 저학년 주간 학습 소쉬르 · 정규 교재에 읽기 텃밭을 더합니다

정규 교재
「씨앗 모으기」 주 1주차

읽기 텃밭
주 1장 · 온라인 낭독 연습과 챕터 테스트

국어농장 어휘
주 2장 · 13주 과정

지식과 지혜 글쓰기
주 1장 · 20주 과정


CONTENTS
차례
읽기 텃밭 1 · 소쉬르1 1권
1장 안녕, 학교 5
2장 내 짝꿍 19
3장 학교에서 조심해요 31
4장 하나, 둘, 셋 43
5장 굴러가는 모양, 쌓이는 모양 54

읽기 텃밭 1 1권 차례


CONTENTS
차례
읽기 텃밭 2 · 소쉬르2 1권
1장 나는 어떤 사람일까 5
2장 쑥쑥 자라는 몸 17
3장 오늘 내 마음은 28
4장 씨앗에서 꽃까지 39
5장 풀숲의 작은 친구들 51

읽기 텃밭 2 1권 차례


CONTENTS
차례
읽기 텃밭 3 · 소쉬르3 1권
1장 밀고 당기는 힘 5
2장 땅에서, 물에서, 하늘에서 19
3장 들에도, 산에도, 물에도 33
4장 알에서 나비까지 47
5장 내가 좋아하는 곳 62

읽기 텃밭 3 1권 차례

읽기 텃밭은 1 · 2권이 1학기, 3 · 4권이 2학기 교과 주제를 다룹니다. 장마다 관련 교과와 단원을 밝혀 학교 진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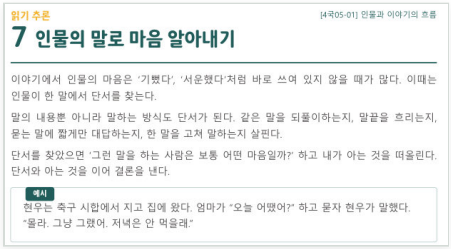
초등 고학년 연간 운영 프레게 · 학기 중 추론 연습 · 방학 중 교재 특강

1학기
추론 연습 1권
1~12단원 · 주 1단원

여름방학
문장 독해 연습
집중 4주 · 실력 있는 초5~6

2학기
추론 연습 2권
13~24단원 · 주 1단원

겨울방학
문법 개념 연습
초등 문법 · 보충 과정 8주


읽기 추론
[4국05-01] 인물과 이야기의 흐름
7 인물의 말로 마음 알아내기
이야기에서 인물의 마음은 '기뻤다', '서운했다'처럼 바로 쓰여 있지 않을 때가 많다. 이때는 인물이 한 말에서 단서를 찾는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도 단서가 된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지, 말끝을 흐리는지, 묻는 말에 짧게만 대답하는지, 한 말을 고쳐 말하는지 살핀다.
단서를 찾았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마음일까?' 하고 내가 아는 것을 떠올린다. 단서와 아는 것을 이어 결론을 낸다.
예시
현우는 축구 시합에서 지고 집에 왔다. 엄마가 "오늘 어땠어?" 하고 묻자 현우가 말했다.
"몰라. 그냥 그랬어. 저녁은 안 먹을래."

추론 연습 프레게1 7단원


PART 1 · 뼈대 읽기
01
주어와 서술어 찾기
서술어를 먼저 찾고, '누가(무엇이)'를 물어 문장의 뼈대를 찾는다.

문장 독해 연습 프레게 01단원


01 맞춤법
이 단원에서 할 일
· 낱말의 원래 모양을 살려 쓰는 말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말을 가린다.
· 소리가 바뀌는 말과 원소리로 나는 말을 바르게 쓴다.
· 받침이 두 개인 말과 모양이 비슷한 말을 바르게 쓴다.
· 되/돼, 안/않, 맞히다/맞추다처럼 헷갈리는 말을 가려 쓴다.
·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 쓰기도 하는 말을 바르게 띄어 쓴다.
· 이/히, 당가/들러/치러처럼 자주 틀리는 말을 고쳐 쓴다.
차례 내용 스스로 풀어볼 질문

문법 개념 연습 프레게 · 초등 문법 01단원

학기 중에는 정규 교재 「생각 키우기」를 주 1주차씩 함께 학습하고, 국어농장 어휘(주 2장 · 20주)와 지식과 지혜 글쓰기(주 1장 · 20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역사를 배우는 5 · 6학년은 「한국사 독해」(주 2회 · 한 권 12주)를,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은 「세계사 독해」를 함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중등 맞춤 학습 정규 과정을 바탕으로 부족한 영역을 책 과정으로 보완합니다

정규 교재
1권 학습

›

약점 진단
챕터 테스트와 통합 분석표로 부족한 영역 확인

›

문학 · 문법이 약하면
문학 개념 연습 · 문법 개념 연습
2개월(8주) 보충 과정

읽기가 약하면
문장 독해 연습 + 국어농장 어휘
러셀 표준 12주 · 집중 4주
지문의 개념이 낯설면 경제학 · 법학 · 철학 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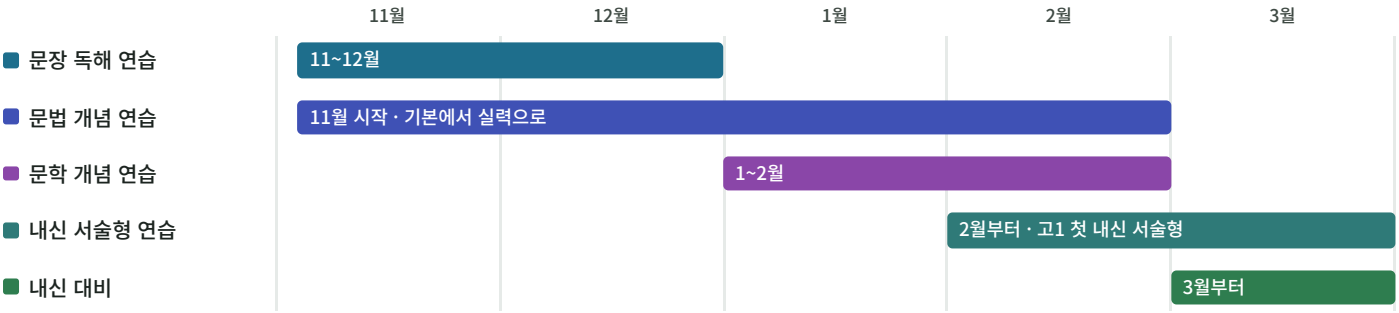
중1 · 첫 내신 서술형
내신 서술형 연습(러셀)
주 2장 · 시험 4주 전 집중

중3 · 고등 고전 문학 대비
고전문학 읽기 러셀 고전시가 · 고전산문
주 2꼭지 · 한 권 10주

›

학부모 상담
학습 진도와 다음 계획 안내

예비 고1 겨울방학 고1 첫 내신 대비



11~12월에 문장 독해와 문법을 먼저 학습하고, 1~2월에 문학 개념을 더하여 고1 첫 내신 시험에 대비합니다. 2월부터는 「내신 서술형 연습」(비트겐슈타인)으로 첫 내신의 서술형을 준비합니다.

고등 연간 운영 학기 중 내신 대비 · 방학 중 교재 특강

1학기
내신 대비

여름방학
책 과정 두세 가지 특강

2학기
내신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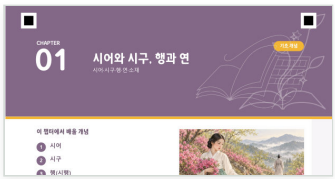
겨울방학
책 과정 두세 가지 특강



문장 독해 연습 비트겐슈타인



문법 개념 연습 비트겐슈타인 기본 · 실력



문학 개념 연습 비트겐슈타인



고전문학 읽기 비트겐슈타인 · 고전시가

고1은 학기 중에 「내신 서술형 연습」(비트겐슈타인)으로 서술형을, 고2는 방학 특강에서 「고전문학 읽기」 비트겐슈타인 고전시가 · 고전산문으로 고전 원문 읽기를 더합니다.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고2 겨울방학부터 「비트겐슈타인 최고난도 독서」로 수능 독서의 고난도 세트를 연습합니다.

글쓰기 운영 지식과 지혜 글쓰기

20주 과정
주 1장씩 20장

분량 조절
「개요 짜기까지」처럼 한 장을 나누어 학습

교사 확인
AI 첨삭 뒤 선생님이 확인

방학 집중
방학 중 분량을 늘려 집중 학습

KORFARM · 국어농장

교재 전권 차례

프로모드 정규 과정 · 책 과정 · 지식과 지혜 글쓰기 교재 177권의 차례를 한데 모았습니다.

- **프로모드 정규 과정**
  정규 교재 · 12레벨 61권 · 레벨마다 20주
- **문장 독해 연습**
  책 과정 · 프레게 · 러셀 · 비트겐슈타인
- **문법 개념 연습**
  책 과정 · 교재 「문법 개념 농장」
- **문학 개념 연습**
  책 과정 · 러셀 · 비트겐슈타인 각 10권
- **지식과 지혜 글쓰기**
  글쓰기 교재 · 소쉬르1~러셀3 · 10권(소쉬르1 예비과정 포함)
- **작가와 작품 세계**
  책 과정 · 4권 · 작가 160명
- **국어농장 어휘**
  책 과정 · 소쉬르 · 프레게 · 러셀 · 비트겐슈타인
- **국어농장 읽기 텃밭**
  책 과정 · 소쉬르1 · 2 · 3
- **국어농장 추론 연습**
  책 과정 · 프레게1 · 2 · 3
- **비트겐슈타인 최고난도 독서**
  책 과정 · 4권 · 200지문
- **고전문학 읽기**
  책 과정 · 러셀 · 비트겐슈타인
- **선택지 18패턴**
  책 과정 · 독서편 · 문학편 · 실전편
- **내신 서술형 연습**
  책 과정 · 프레게 · 러셀 · 비트겐슈타인
- **한국사 독해 · 세계사 독해**
  책 과정 · 분야 독해(역사)
- **경제학 · 법학 · 철학 · 과학 · 기술 · 예술 독해**
  책 과정 · 분야 독해

차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교재(학생용)의 차례 쪽에서 옮겼습니다. 레벨 이름 뒤의 숫자는 학년을 나타냅니다(소쉬르1 = 초등 1학년, 러셀1 = 중학 1학년, 비트겐슈타인1 = 고등 1학년).

프로모드 정규 과정

정규 교재 · 12레벨 61권 · 레벨마다 20주

소쉬르1 초1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오감으로 만나는 봄 공원 · 동물들의 슈퍼 감각 · 반짝반짝 내 몸의 감각

2주 내 마음이 말해요! 우리들의 학예회 · 감정의 종류와 표현법 · 마음의 날씨

3주 순서대로 보내는 나의 하루 · 시각을 읽는 법 · 지수의 하루

4주 서로 아끼는 화목한 우리 가족 ·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2권 5~8주

5주 설날에 만난 할머니의 지혜 · 옛날 물건의 비밀 · 할머니 무릎

6주 포근한 우리 집 보금자리 · 우리를 지켜 주는 집 · 우르릉 쾅쾅, 무서운 밤

7주 서로 돕는 우리 동네 이웃 · 함께 사는 세상 · 잃어버린 지갑과 경찰관

8주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요 · 모양을 흉내 내는 말 · 땅속 씨앗의 꿈

3권 9~12주

9주 애벌레가 매미가 되기까지 · 매미의 긴 기다림 · 뜨거운 여름날

10주 단풍은 왜 빨갛게 물들까 · 색깔을 나타내는 말 · 숲속 친구들의 편지

11주 함박눈 내린 겨울 아침 · 눈 결정체의 모양 · 함박눈이 내린 아침

12주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해요 · 반대되는 말 · 큰 홍수와 나무배

4권 13~16주

13주 분리배출로 지구를 지켜요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지구가 아파요

14주 엄마와 함께 김치 담그는 날 ·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 · 김밥을 만드는 순서

15주 세종 대왕이 만든 한글 · 알맞은 문장 부호 찾기 안내 · 한글 자모 노래

16주 약초 고개를 넘은 하루 · 살아 숨 쉬는 그릇, 옹기 · 삼 년 고개

5권 17~20주

17주 구름은 무엇을 닮았을까 · 구름의 종류와 특징 · 파란 도화지 위에

18주 달은 왜 모양이 변할까 · 달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 · 어리석은 사또와 세는 말

19주 다정한 말 한마디의 힘 · 생생하게 꾸며 주는 말 · 민수의 그림 시간

20주 꿈을 향해 한 걸음씩 · 높임말과 예사말 · 나는 무엇이 될까

소쉬르2 초2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새 학기 첫날, 나를 소개해요 · 나를 알리는 자기소개 쓰기 · 특별한 나

2주 떨리던 학예회 무대 · 화를 다스리는 마음의 힘 · 알록달록 마음 도화지

3주 알찬 방학 하루 계획 ·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습관 · 민수의 잠자리 대화

4주 누나에게 우리 동네 구경시켜 주기 ·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약속 · 놀이터의 보물지도

2권 5~8주

5주 숲속 음악회에서 들은 소리 · 악기는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 톡, 토독! 빗방울 노래

6주 돋보기로 들여다본 작은 세상 · 여러 가지 나뭇잎 모양 · 파란 하늘 도화지

7주 모습이 바뀌는 사계절 · 계절 따라 달라지는 생활 · 커다란 나무의 한 해

8주 해와 빛이 만드는 하루 · 낮과 밤은 어떻게 생길까요? · 해님의 하루

3권 9~12주

9주 땅속에 숨은 작은 세상 · 보이지 않는 땅속 세상 · 아기 두더지 두두

10주 밀물과 썰물이 만든 갯벌 · 깊고 깊은 바다에는 누가 살까요? · 깜깜 나라의 바닷속 친구들

11주 풀밭에서 이어지는 먹이사슬 ·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 누가 더 대단한가

12주 공기에서 우주까지 ·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날까요? · 신기한 구름 양탄자

4권 13~16주

13주 착한 농부와 꿈 이야기 · 옛이야기에 담긴 지혜 · 멸치의 이상한 꿈

14주 골고루 먹고 깨끗이 지내요 · 우리 몸의 영양소 · 편식 대장 민준이

15주 용돈 기입장을 써 봐요 · 용돈 기입장 쓰기 · 일주일치 용돈

16주 동네를 깨끗하게 지켜요 · 재활용품의 변신 · 아기 물고기 포도의 꿈

5권 17~20주

17주 할머니께 배운 말의 지혜 · 상황에 맞는 속담 · 바둑이와 암탉 꼬꼬

18주 친구에게 건넨 진심 어린 사과 · 헷갈리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 · 양반과 백정

19주 미래를 상상하는 발명가의 꿈 ·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길까요? · 아침을 깨우는 로봇

20주 6일까 9일까, 보는 자리에 따라 · 틀리기 쉬운 맞춤법 · 장님과 코끼리

소쉬르3 초3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잠들기 전, 나를 돌아본 밤 · 나의 장점과 단점 · 거울 앞의 나

2주 화를 가라앉히고 알게 된 것 · 감정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 급한 사자와 숲속 친구들

3주 잘 듣는 것이 대화의 시작 ·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 앵무새 초록이의 말

4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기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오늘은 우리 둘이

2권 5~8주

5주 덜컹거리던 사물함을 고치다 ·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글, 건의문 · 행복 아파트에 드리는 편지

6주 용돈을 슬기롭게 쓰는 법 ·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 지우의 5천 원

7주 내 정보를 지키는 작은 습관 ·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 드래곤 월드의 유혹

8주 나뭇잎이 나에게 인사한다 · 말에 마법을 거는 비유적 표현 · 숲속의 반딧불이

3권 9~12주

9주 먹이 사슬과 생태계의 균형 · 돌고 도는 생태계의 약속 · 초록빛 나뭇잎

10주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 숲속의 천하장사, 장수풍뎅이의 성장 일기 · 애벌레 꼬물이의 꿈

11주 바퀴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 과학적 발견이 바꾼 세상 · 뉴턴과 떨어진 사과

12주 소금물에 달걀이 떠오른 까닭 ·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기록해요 · 소금물에 뜨는 달걀

4권 13~16주

13주 자연을 지키는 작은 실천 · 쓰레기도 보물이 될 수 있어요 · 아기 거북이 푸푸

14주 유물 속에 담긴 옛사람의 삶 · 유물과 유적지로 떠나는 과거 여행 · 온달과 평강공주

15주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 · 실패를 사랑한 위인들 ·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16주 꿈을 이루는 나만의 힘 · AI와 함께 만드는 나의 미래 직업 · 하늘을 나는 펭귄 페페

5권 17~20주

17주 별자리가 된 영웅 헤라클레스 ·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헤라클레스의 모험

18주 별과 행성으로 가득한 우주 · 태양의 가족, 8행성 · 칼리스토와 큰곰자리

19주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 사실과 의견·낱말 분류하기 · 굴뚝 청소부의 지혜

20주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규범 · 법이 우리를 지켜줘요 · 사또의 재판과 황금

프레게1 초4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도서관은 어떻게 책을 정리할까 · 헷갈리기 쉬운 낱말 구별하기 ·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 생각을 분류하고 조직하는 법 · 지우의 정리법

2주 글에도 골조가 필요하다 · 뜻에 따라 달라지는 띄어쓰기 · 글쓰기에도 지도가 필요해! ·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과 중요성 · 무너진 블록 탑

3주 긴 글을 짧게 줄이는 요약의 기술 ·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접속사 (1)' · 긴 글을 한 입 크기로! '요약'의 힘 · 문단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기술 · 이야기가 뒤죽박죽인 날

4주 내일 날씨를 어떻게 미리 알까 ·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접속사 (2)' · 내일 날씨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일기 예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개미와 베짱이

2권 5~8주

5주 운동장 다툼을 해결한 회의 · 단어의 갈래 '품사 (1)' - 명사, 대명사, 수사 · 규칙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 법과 규칙은 왜 필요할까요? · 사라진 지우개

6주 돈은 어떻게 돌고 도는가 · 단어의 갈래 '품사 (2)' - 동사, 형용사 ·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을까요? ·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현우의 용돈

7주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사는 법 · 단어의 갈래 '품사 (3)' - 관형사, 부사 · 왜 나라마다 먹는 음식이 다를까? ·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문화 상대주의 · 세계 음식의 날

8주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 · 단어의 갈래 '품사 (4)' - 조사, 감탄사 · 지구가 열이 나요! (지구 온난화) · 지구가 열이 나요! · 연어 연이의 귀향

3권 9~12주

9주 이야기 속 인물과 갈등 읽기 · 벌이다와 벌리다 구별하기 · 왜 인물의 성격을 알아야 할까요? ·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읽어요 · 흥부전

10주 시 속에서 말을 건네는 화자 · 두음 법칙 · 시는 누가 이야기할까요? · 시를 노래하는 목소리 · 엄마야 누나야

11주 잎 한 장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 좇다와 쫓다 구별하기 · 식물은 지구의 공장이에요 ·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 · 녹슨 개울의 변화

12주 사과와 배를 비교해 보면 · 되와 돼 구별하기 · 왜 비교하며 읽어야 할까요? · 비교와 대조, 논리적 분석의 첫걸음 · 해님은 빨간 얼굴로

4권 13~16주

13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 물건과 수량에 알맞은 단위 명사 · 에너지는 어디에나 있어요! · 에너지의 다양한 얼굴과 역할 · 찜통 같은 여름날
에너지와 생활

14주 기계를 움직이는 코딩과 알고리즘 · 유의어·반의어와 사동·피동 표현 · 기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 알고리즘과 코딩: 기계에게 명령하는 언어 · 인공지능 친구 마리
알고리즘과 코딩

15주 여행을 글로 남기는 기행문 · 다의어, 동음이의어 / 왠과 웬 구별하기 · 왜 기행문을 써야 할까요? · 기행문 쓰기: 여정, 견문, 감상을 중심으로 · 하회마을에 다녀온 날
기행문 쓰기

16주 짧은 시에 담긴 깊은 마음 · 배다와 베다 구별하기 · 왜 시를 '생략된 언어'라고 할까요? · 시의 함축적 의미와 운율 · 반딧불
시의 함축적 의미와 운율

5권 17~20주

17주 발이 넓다는 말의 진짜 뜻 · 관용어와 발하다·바래다 구별하기 · 관용 표현, 왜 중요할까요? · 관용 표현의 의미와 효과 · 재훈이의 조끼
관용 표현

18주 미디어 속 사실과 의견 가려내기 · 사실과 의견 / -으로서와 -으로써 구별하기 · 정보를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 매체별 특성과 정보의 신뢰도 판단 · 인터넷 소문의 진실
매체와 정보의 신뢰도

19주 기자는 어떻게 기사를 쓸까 · 육하원칙의 구체적인 역할 / -이에요와 -예요 구별하기 · 왜 기사문은 딱딱하게 느껴질까요? · 기사문의 기본: 사실, 육하원칙, 그리고 구조 · 우리 반 재능 발표회
기사문 쓰기

20주 토의와 토론은 어떻게 다를까 · 토론의 구성 요소 / 바치다·받치다·받히다 구별하기 · 토의와 토론, 무엇이 다를까요? · 토론의 목적과 규칙 · 학급문고 회의
토의와 토론

프레게2 초5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춘향전에 담긴 사랑과 자유 · 화자, 청자 · 신분과 능력이 부딪치다, 조선의 신분 제도 · 춘향유문

2주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 비유하기 ·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와 깨어 있는 시민 · 풀

3주 병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면역 · 유의어, 반의어 · 우리 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면역 · 황씨 아저씨의 무명천

4주 근거와 논리로 토론하는 법 ·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 사실과 의견, 무엇이 다를까? · 토끼전

2권 5~8주

5주 가설과 실험으로 밝히는 자연의 비밀 · 문장 성분 (목적어, 보어) · 멘델의 완두콩 실험과 유전의 비밀 · 우장춘 박사의 꿈

6주 공정한 언론과 비판적 읽기 · 문장 성분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 언론, 세상을 보는 창 · 행복초등학교 급식실 사건

7주 권력을 셋으로 나눈 삼권 분립 · 운율 형성 방법 · 나라의 권력을 나누는 방법, 삼권 분립 · 해

8주 높임법에 담긴 겸손한 마음 · 직접 높임, 간접 높임 · 우리말의 예절, 높임법 · 민지의 편지

3권 9~12주

9주 첨단 기술과 사람을 위한 윤리 ·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 기술의 두 얼굴 · 기억 도서관

10주 표현 속 의도를 읽는 눈 ·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 광고, 달콤한 유혹 속에 숨겨진 전략 · 의좋은 형제

11주 값을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 · 심상(이미지) · 세계를 잇는 경제의 끈, 무역과 환율 · 십 년을 경영하여

12주 먹이 사슬로 이어진 생태계의 평형 · 문장의 호응 · 돌고 도는 생명의 그물, 생태계 · 아마존 숲의 오후

4권 13~16주

13주 희소성 속에서 하는 현명한 선택 · 소설의 시점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 돌다리

14주 홍길동전이 꿈꾼 평등한 세상 · 영웅 소설의 구조 · 착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될까요? · 홍길동전

15주 화자의 마음을 따라 읽는 시 · 화자의 정서 · 암울한 시대의 희망을 노래한 저항 시인, 이육사 · 청포도

16주 질서를 지키는 약속, 법과 정의 · 갈등의 종류 · 법 중의 법, 헌법 · 미스터 방

5권 17~20주

17주 한 편의 연극이 만들어지기까지 ·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 무대와 화면을 만드는 대본 · 장금의 정성 어린 음식

18주 단서와 암시를 좇는 이야기 읽기 ·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 전쟁의 아픔을 달래준 이야기, 박씨전 · 박씨전

19주 세금이 돌고 도는 나라 살림 · 다의어, 동음이의어 ·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 새로운 길

20주 함께 손잡는 따뜻한 공동체 · 문장의 유형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중하다 · 동승

프레게3 초6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기 · [인문] 사람은 본래 착할까, 나쁠까? · 슬픔이 기쁨에게

2주 문장 속 단어들의 역할 (품사) · [사회] 비싸지면 안 사? 꼭 그렇지는 않아! · 이옥설

3주 다섯 가지 감각으로 느끼는 심상 · [과학] 제로 칼로리 식품의 비밀 · 귀뚜라미

4주 문장의 핵심과 연결고리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 [기술] 조상들의 지혜, 천연 냉장고 석빙고 · 동명왕 신화

2권 5~8주

5주 움직임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 (동사와 형용사) · [예술] 덩더쿵! 장구가 만드는 국악의 리듬 · 두근두근 내 인생

6주 문장을 꾸미고 느낌을 살리는 말 (관형사, 부사, 감탄사) · [인문]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행복 · 멸치

7주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운율 · [사회]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법 · 청산별곡

8주 마음을 더 강하게 전달하는 방법 · [과학] 디저트 배는 정말 따로 있을까? · 흥부전

3권 9~12주

9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조각 (형태소) · [기술] 소중한 내 그림을 지키는 기술, 워터마킹 · 운수 좋은 날

10주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주성분 · [인문] 플라톤의 눈으로 본 예술 · 수오재기

11주 문장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 (관형어, 부사어) · [예술] 철학, 그림을 만나다: 니체와 표현주의 · 속미인곡

12주 느낌, 부름, 대답! 독립어 · [사회] 연결이 힘이 되는 시장, 플랫폼 · 별 헤는 밤

4권 13~16주

13주 시에서 누가 말하고 있을까? · [과학] 무서우면서도 유용한 생물의 독 · 꽃

14주 소설 속 카메라는 어디에? · [기술] 마술일까, 과학일까? 유튜브 추천의 비밀 · 소나기

15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형시, 시조 · [예술] 움직임의 아름다움, 미래주의 · 오우가

16주 반대로 말해서 더 강하게, 모순되게 말해서 더 깊게 · [인문] 백성을 주인으로 삼은 율곡 이이 · 진달래꽃

5권 17~20주

17주 문장 속 짝꿍 (호응 관계) · [사회] 법은 어떻게 진짜 힘을 가질까? · 이생규장전

18주 문장을 끝맺는 다섯 가지 방법 (종결 표현) · [과학]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기찻길에 숨은 과학 ·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9주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시간 표현) · [기술]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기술 · 광야

20주 싫어! 안 해! 못 해! (부정 표현) · [예술] 생각을 그리는 미술, 입체주의 · 동명일기

러셀1 중1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선택은 어떻게 마음의 질서를 드러내는가 · 문장 속 단어들의 역할 (품사) · 표현을 생생하게 만드는 비유법 · [인문] 내 마음의 다섯 가지 욕구, 현실요법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2주 다수의 선택은 언제 공정한가 · 문장의 뼈대가 되는 말 (명사, 대명사, 수사) ·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 · [사회] 어떤 방법이 가장 공정할까? 여러 가지 투표 방식 · 메밀꽃 필 무렵

3주 나무는 어떻게 물을 위로 올리는가 · 단어를 이어주는 풀 (조사) · 시의 머리와 꼬리가 만나는 수미상관 · [과학] 식물은 어떻게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릴까? · 산에 언덕에

4주 가상은 어떻게 현실의 경험을 바꾸는가 · 움직임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 (동사, 형용사) · 조선 시대의 노래, 시조 · [기술] 가상과 현실의 만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 강호사시가

2권 5~8주

5주 버려진 것들은 어떻게 작품이 되는가 ·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 (관형사와 부사) · 소설 속 시간의 흐름 · [예술] 버린 물건이 예술이 되다 · 엄마의 말뚝

6주 말은 어떻게 세계를 그리는가 · 기분을 드러내는 말 (감탄사) · 이야기를 바라보는 눈, 시점 · [인문] 말은 세상을 담는 그림일까? · 흐르는 북

7주 돈의 흐름은 왜 경기의 온도를 바꾸는가 ·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조각 (형태소) · 마음속 고민과 외부의 충돌 - 갈등의 세계 · [사회] 나라 경제를 살리는 마법, 돈의 양 조절하기 · 장끼전

8주 녹음된 목소리는 왜 낯설게 들리는가 · 단어의 짜임 - 단일어와 복합어 · 감각으로 시 읽기 - 심상의 종류 · [과학] 녹음된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 · 성에꽃

3권 9~12주

9주 가상 공간은 어떻게 감각을 움직이는가 · 단어의 짜임 - 합성어 파생어 · 귀로 듣는데 왜 푸르다고 할까 · [기술] 상상을 현실로! 메타버스와 감각 전달 장치 · 향수

10주 조각은 왜 장소를 떠나 다른 의미를 얻는가 · 문장의 주인공 (주어) · 말하는 이의 마음가짐과 목소리 · [예술] 장소를 떠난 조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다 · 찬기파랑가

11주 노동은 왜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가 · 주인공을 설명하는 말 (서술어) · 소설의 뼈대, 특별한 구성 방식 · [인문] 철학자들이 말하는 노동의 의미 · 구운몽

12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조건 · 행동의 대상 (목적어) · 시대의 거울, 소설의 배경 · [사회]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될까? ·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4권 13~16주

13주 대기의 작은 성분은 왜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 · 문장을 보충하는 말 (보어) · 고려 시대 사람들의 솔직한 노래, 고려가요 · [과학] 과거를 품은 얼음, 남극 빙하의 비밀 · 가시리

14주 빠른 기억장치는 어떻게 기다림을 줄이는가 · 체언을 꾸며 주는 말 (관형어) · 겉과 속이 다른 표현, 모순 속에 숨은 진실 - 반어법과 역설법 · [기술] 컴퓨터를 빠르게 만드는 비밀, 캐시 기억장치 · 절정

15주 낯선 예술은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는가 ·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 (부사어) · 주인공과 악역, 그 외에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 · [예술] 규칙을 깨는 새로운 예술, 아방가르드 · 홍길동전

16주 몸은 생각의 바깥에만 있는가 · 문장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말 (독립어) · 운율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 · [인문] 머리로 기억할까, 몸으로 기억할까? · 서경별곡

5권 17~20주

17주 관세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가 · 문장의 짜임 (홑문장과 겹문장) · 문학 속 두 가지 웃음 - 풍자와 해학 · [사회] 세금으로 나라 경제 지키기, 관세 · 허생전

18주 오로라는 왜 극지방의 하늘에서 더 잘 보이는가 · 예의와 존중을 담은 말 (높임 표현) ·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는 시의 종류 · [과학] 밤하늘에 춤추는 빛, 오로라 · 신선 재곤이

19주 화면은 빛을 어떻게 골라 보여 주는가 · 주인공이 당했어요! (피동 표현) · 4음보의 연속, 가사 · [기술]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휴대폰 화면의 비밀 · 상춘곡

20주 디지털 작품에도 원본이 있을 수 있는가 · 주인공이 시켰어요! (사동 표현) · 사물을 사람처럼, 가전체 문학 · [예술] 디지털 예술 작품에 붙이는 이름표, NFT · 공방전

러셀2 중2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행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 단어에게 이름표를! 품사 분류의 원리와 9품사 ·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 [인문] 양심을 통한 최대 행복 실현, 밀의 공리주의 · 서시

2주 미성년자의 계약을 법은 어떻게 다루는가 ·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하는 체언, 문법적 관계를 맺는 관계언 · 소설,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을까? · [사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계약 취소 제도 · 동백꽃

3주 물은 어떻게 뿌리에서 잎까지 올라가는가 · 활용하는 용언, 꾸며주는 수식언, 홀로 쓰이는 독립언 ·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 심상 · [과학] 중력을 이기는 식물의 물 운반 비밀 · 엄마 걱정

4주 컴퓨터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글자로 바꾸는가 · 단어의 구조를 파헤치다: 형태소, 어근, 접사 ·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 [기술] 말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컴퓨터의 비밀 · 꺼삐딴 리

2권 5~8주

5주 혁명 이후의 미술은 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 새로운 단어의 탄생, 파생어와 합성어 · 신비롭고 기이한 이야기, 전기 소설 · [예술] 프랑스 대혁명이 바꾼 미술의 흐름 · 김현감호

6주 기억이 사라지면 나는 여전히 나인가 · 문장의 뼈대를 세우는 주성분 · 시의 깊이를 더하는 함축적 의미 · [인문] 기억과 망각, 철학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 ·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7주 소비자는 어떻게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가 · 문장에 맛과 멋을 더하는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 노래와 이야기, 몸짓이 하나 되는 판소리 · [사회] 제한된 소득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방법 · 흥보가

8주 배고픔은 몸과 뇌가 함께 만드는 신호인가 · 나란히 이을까, 의미를 더할까? -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 시적 상황에 따른 화자의 태도 · [과학] 뇌과학으로 풀어보는 식욕의 원리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3권 9~12주

9주 하이패스는 어떻게 멈추지 않는 결제를 처리하는가 · 문장 속 또 다른 문장, 안은문장 (1) - 명사절, 관형절 · 서술자의 눈, 시점과 거리 · [기술] 달리면서 요금 내는 하이패스의 비밀 · 수난이대

10주 미술은 왜 보이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벗어났는가 · 문장 속 또 다른 문장, 안은문장 (2) -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 감정을 비추는 거울, 객관적 상관물 · [예술] 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까지의 변화 · 황조가

11주 마음은 왜 자기 자신을 다 알지 못하는가 · 문장에 태도와 의미를 더하는 문법 요소 -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 조선 시대 가족 이야기, 가정 소설 · [인문] 빙산의 일각, 의식 뒤에 숨은 무의식의 세계 · 창선감의록

12주 잘못된 보도로 생긴 피해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 주어가 당할까, 시킬까? -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 고전 시가의 형식적 특징, 월령체와 후렴구 · [사회] 언론 자유와 개인 권리 사이의 균형, 반론권 · 동동

4권 13~16주

13주 먼지는 왜 회전하는 공기 속에서 분리되는가 · 소리대로 적을까, 어법대로 적을까? - 한글 맞춤법 · 소설 속 갈등과 인물의 성장 · [과학] 소용돌이 원리로 작동하는 사이클론식 청소기 · 자전거 도둑

14주 GPS는 어떻게 지구 위의 위치를 계산하는가 · 헷갈리는 우리말, 정확하게 발음하기 - 표준 발음법 · 영웅의 탄생과 승리, 영웅의 일대기 구조 · [기술]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신호와 시간 차이를 계산하는 GPS · 유충렬전

15주 현대 도시는 왜 직선과 격자를 선택했는가 · '자장면'과 '짜장면', 둘 다 표준어라고? - 표준어 규정 · 이별의 슬픔, 그 애틋한 마음 · [예술]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모더니즘 건축의 변화 · 공무도하가

16주 홉스는 왜 사람들이 강한 국가에 권리를 넘긴다고 보았는가 · 'Paris'는 '파리', '신라'는 'Silla'로 적는 이유 · 분위기를 만드는 힘, 소설의 배경과 분위기 · [인문] 자연법에서 사회 계약으로, 홉스의 정치 사상 · 달밤

5권 17~20주

17주 원작을 바꾸어 새 작품을 만들 때 왜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 말의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 음운 · 강렬한 인상을 주는 표현 방법, 반어와 역설 · [사회] 소설에서 영화로, 영화에서 연극으로 바뀔 때 필요한 허락 · 치숙

18주 우리는 어떻게 소리가 오는 방향을 짐작하는가 · 발음을 편하게 만드는 음운의 교체 · 우리 시가의 기본 형식, 시조의 멋 · [과학] 시간 차이와 소리 그늘로 알아내는 음원의 위치 · 하여가 / 단심가

19주 공기 청정기는 먼지와 냄새를 같은 방식으로 없애는가 ·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변동: 축약, 탈락, 첨가 · 웃음 속에 숨은 칼날, 고전 소설과 사회 비판 · [기술] 공기 청정기의 오염 물질 제거 방식 · 숙향전

20주 사진의 결정적 순간은 우연만으로 만들어지는가 · 백성을 사랑한 글자, 한글의 창제 원리 · 진솔한 삶의 노래, 고려가요의 특징 · [예술]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사진작가 브레송 · 정석가

러셀3 중3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정약용은 왜 선한 행위의 책임을 기질이 아니라 선택에서 찾았는가 · 단어의 이름표, 품사 체계의 이해 · 구수한 사투리의 맛, 방언의 효과 · [인문] 용서와 추서, 정약용의 실천 윤리 · 금 따는 콩밭

2주 같은 사건도 왜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가 ·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틀: 형태소, 어근, 접사 · 판소리에서 태어난 소설 · [사회]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법 vs 개인이 다투는 민사법 · 심청전

3주 암석의 나이는 왜 원자핵의 변화로 계산할 수 있는가 · 새로운 단어의 탄생: 파생어와 합성어 · 시간의 흐름에 담긴 의미 · [과학]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석 연대 측정법 · 비

4주 검사용 키트의 한 줄은 왜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닌가 · 단어의 변신, 품사 통용의 이해 · 여성 화자를 통한 정서 표현 · [기술]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검사용 키트의 원리 · 사미인곡

2권 5~8주

5주 큐비즘은 왜 한 얼굴을 여러 방향에서 그렸는가 ·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자릿수 · 근대 소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 [예술] 여러 각도에서 본 세상, 큐비즘의 새로운 시선 · 무정

6주 사르트르는 왜 죽음보다 현재의 선택을 강조했는가 · 문장의 짜임: 홑문장과 겹문장, 이어진문장 · 신라 시대의 노래, 향가 · [인문] 사르트르가 말하는 죽음과 삶의 의미 · 제망매가

7주 보험은 왜 손해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가 · 문장의 짜임: 안은문장 (1) - 명사절, 관형절 · 실학과 문학 · [사회] 손해보험으로 알아보는 보상의 기준 · 양반전

8주 지진파를 알면 건물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가 · 문장의 짜임: 안은문장 (2) -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 규방 여인의 노래, 규방 가사 · [기술] 지진에 견디는 건물 만들기, 내진 설계의 세 가지 방법 · 규원가

3권 9~12주

9주 PET 영상은 어떻게 세포의 활동을 드러내는가 · 소리의 정체를 밝히다: 음운의 개념과 체계 · 길 위에서 만나는 세상, 여로형 구조 · [과학] 양전자 단층 촬영(PET)의 원리 · 만세전

10주 쇤베르크의 음악은 왜 무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인가 · 음운 변동 (1): 소리가 바뀌는 현상, 교체 ·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 [예술] 쇤베르크가 추구한 새로운 음악 질서 · 자화상

11주 아렌트에게 정치는 왜 생계를 넘어서는 행위인가 · 음운의 변동 (2): 음운의 개수가 변하는 축약, 탈락, 첨가 · 고전 소설의 특징 · [인문] 가정과 폴리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차이 · 전우치전

12주 생산량이 늘면 왜 제품 하나의 비용은 달라지는가 · 문장에 태도와 의미를 더하는 문법 요소 · 말 뒤에 숨은 진심과 진리, 반어와 역설 · [사회] 왜 생산량이 늘면 개당 비용이 줄어들까 · 님의 침묵

4권 13~16주

13주 냄새는 어떻게 분자의 접촉에서 기억의 감정으로 이어지는가 · 동작의 주체를 바꾸는 힘 -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 1970년대의 빛과 그림자 · [과학] 후각의 비밀, 냄새 분자에서 뇌 신호까지 · 삼포 가는 길

14주 암호문을 열지 않고도 계산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소통을 위한 글쓰기 약속, 한글 맞춤법 · 전쟁의 상처와 인간성의 회복, 전후 소설 · [기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동형암호 기술 · 비 오는 날

15주 근대 도시는 왜 집 안을 더 사적인 세계로 만들었는가 · 정확한 소통을 위한 약속, 표준 발음법 · 민중의 목소리, 현실을 노래하다 · [인문] 짐멜과 베냐민이 바라본 실내 공간의 두 얼굴 · 농무

16주 프랭클은 왜 고통의 제거보다 의미의 발견을 중시했는가 · 시대의 거울, 표준어의 원칙과 변화 · 무대 위의 문학, 희곡 · [인문] 프랭클이 말하는 고통 속에서 의미 찾기 · 파수꾼

5권 17~20주

17주 세입자의 보증금은 왜 단순한 계약만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가 ·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꿈속의 삶, 인생의 의미를 묻다 · [사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신의 꿈

18주 간은 왜 단순한 소화 기관이 아니라 몸속의 조절 공장인가 · 단어의 의미 관계와 그 유형 · 시선을 따라가는 그림 · [과학] 인체의 화학 공장, 간의 구조와 기능 · 사평역에서

19주 CT는 어떻게 겹쳐 보이는 몸속 구조를 단면 영상으로 바꾸는가 ·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체계적 우수성 · 눈물 나는 현실을 웃음으로 감싸 안다, 판소리의 미학 · [기술]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CT 기술 · 태평천하

20주 아도르노는 왜 불편한 예술에서 사회 비판의 가능성을 보았는가 · 국어의 역사 - 훈민정음으로 본 중세 국어 · 사회를 향한 문학의 목소리, 참여시 · [예술] 아도르노가 말하는 진정한 예술의 조건 · 껍데기는 가라

비트겐슈타인1 고1 · 6권 · 20주

1권 1~2주

1주 문법 지문 - 음운 체계 · 알 수 없어요 · 배를 매며 · 정합설의 이해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2주 문법 지문 - 음절 끝소리와 음운 변동 · 모란이 피기까지는 · 고고(孤高) · 인격 동일성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견해 · 심신 이원론과 동일론 — 정신과 육체의 관계

2권 3~4주

3주 문법 지문 - 비음화와 유음화 · 플라타너스 · 달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 대상의 본질에 대한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

4주 문법 지문 - 구개음화와 된소리되기 · 상춘곡(賞春曲) ·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노자』에 대한 한비자·왕안석·오징·설혜의 해석 · 장자의 호접몽과 물아일체 사상

3권 5~8주

5주 문법 지문 - 형태소와 이형태 · 오륜가(五倫歌) · 차마설(借馬說) · 율곡의 이기론과 법제 개혁론 — 수기치인의 실천 · 이익·최한기의 인체관 —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

6주 문법 지문 - 체언과 품사 분류 ·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 화암구곡(花庵九曲) · 개화 사상의 변천과 중국 신문화 운동 — 동서 만남과 근대 주체 · 박제가·이덕무 북학론 / 18세기 후반 청의 경제적 번영과 위기

7주 문법 지문 - 용언과 활용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데이터 권리·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 매매 계약·채무 불이행·계약 해제권·원상회복 청구권

8주 문법 지문 - 조사와 품사 분류 ·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사이버 폭력·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 ·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재판매 가격 유지·추천보증/이용후기 광고

4권 9~12주

9주 문법 지문 - 파생어와 접사 · 서경별곡(西京別曲) · 만분가(萬憤歌) · 법조문 해석 방법 (가) / 보증·연대 보증·보증인 보호 특별법 (나)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형벌의 목적·사회계약·휴머니즘

10주 문법 지문 - 합성어와 구 · 동창이 밝았느냐 / 농가(農歌) ·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이중차분법 — 사건 효과 평가 방법 · 통화 정책 — 공개 시장 운영·선제성·준칙주의 vs 재량주의

11주 문법 지문 - 문장 성분과 서술어 자릿수 · 우부가(愚夫歌) · 타농설(惰農說) · 기축 통화 달러화·트리핀 딜레마·브레턴우즈 체제 · BIS 비율·바젤 협약(I·II·III)·말랑말랑한 법

12주 문법 지문 - 수식어·독립어와 문장 호응 · 성산별곡(星山別曲) ·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 정책 수단과 환율의 오버슈팅 · 거시 건전성 정책 — 금융 시스템 위험·경기 대응 완충자본

5권 13~16주

13주 문법 지문 - 문장의 짜임과 안은문장 · 화전가(花煎歌) / 공명을 헤아리니 · 석문가(石門歌) 〈제2수〉 · (가) 광고와 독점적 경쟁 시장 / (나)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환경 오염 · 외부성·전통적 경제학·정부 개입

14주 문법 지문 - 이어진문장과 안긴문장 · 한거십팔곡(閒居十八曲) · 기취서행(記翠西行) · 이종 이식·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 혈액 응고·비타민 K·칼슘의 역설

15주 문법 지문 -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 · 풍파에 일렁이던 배 / 심의산 서너 바퀴 · 호아곡(呼兒曲) · 슈퍼문·달의 공전 궤도 이심률·일식 · 열팽창·휨 민감도·액추에이터

16주 문법 지문 - 한글 맞춤법과 표기 원칙 · 사미인곡(思美人曲) / 창 밧긔 워석버석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청정 에너지 수소·MCH·암모니아·수소 연료 전지 · 촉매·활성화 에너지·고체 촉매

6권 17~20주

17주 문법 지문 - 표준어 사정 원칙과 복수 표준어 · 북새곡(北塞曲) · 이 시름 저 시름 / 강원도 설화지를 · 지각부호화·오디오 신호 압축·임계대역·차폐 문턱값 · 디지털 통신 부호화·엔트로피·삼중 반복 부호화·차동 부호화

18주 문법 지문 -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 · 국화야 너는 어이 / 이화에 월백하고 · 촉규화(蜀葵花) · 확산 모델·AI 이미지 생성·잠재 표현·순확산/역확산 · 인공 신경망·퍼셉트론·가중치·학습-판정 단계

19주 문법 지문 - 담화와 화행 · 천만리 머나먼 길에 / 청초 우거진 골에 · 흥망이 유수하니 · 압전 효과·수정 진동자·초정밀 저울·기체 농도 측정 ·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진공·스퍼터 이온 펌프·단분자층 형성 시간

20주 문법 지문 - 음운·단어·문장 종합 분석 · 개야 즈치 말라 / 개야 즛지 마라 ·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 살구(殺狗) · 플라스틱·공유 결합·폴리에틸렌 중합·결정 영역 · CD 드라이브·포커싱 렌즈·트래킹/초점 편차 보정

비트겐슈타인2 고2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문법 지문 - 음운 체계와 음운 분석 · 병원 · 나무 · 지식의 구분에 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의 입장 ·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2주 문법 지문 -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 · 바람이 불어 · 새 · 심리 철학의 기능주의와 확장 인지 이론, 몸의 체험으로서의 지각 · 반자유의지 논증과 그에 대한 비판

3주 문법 지문 - 비음화와 음운 변동 · 청명(淸明) · 초록 바람의 전언 · 헤겔의 변증법적 미학 체계와 그에 대한 비판 ·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4주 문법 지문 - 구개음화와 된소리되기 ·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 이문원노종기(摛文院老樅記) · 주희와 정약용의 『대학』 해석 · 새먼의 과정 이론과 동아시아의 재이론

2권 5~8주

5주 문법 지문 - 이형태와 형태소 분석 · 정을선전(鄭乙善傳) · 이대봉전(李大鳳傳) ·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와 도덕적 능력주의 개혁론 · 조선의 유서와 실학자의 서학 수용

6주 문법 지문 - 의존 명사와 품사 분류 · 김원전(金圓傳) ·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 · 신채호의 '아' 개념과 투쟁 · 연대에 대한 인식 · 동아시아 과거제의 합리성과 그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개혁론

7주 문법 지문 - 용언 활용과 보조 용언 ·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 심청전(沈淸傳) · 계약 자유의 원칙과 법규의 종류 · 채권과 예약

8주 문법 지문 - 품사와 조사 분류 · 국순전(麴醇傳) · 토끼전 · 유류분과 무상 처분의 반환 · 점유와 소유권, 선의취득

3권 9~12주

9주 문법 지문 - 파생어와 합성어 · 호질(虎叱) · 유충렬전 · 근대법의 세 모델과 임대차 보호 · 법령의 불확정 개념과 재량

10주 문법 지문 - 합성어와 단어 구조 · 적성의전(狄成義傳) · 흥부전 · 한계 비용과 공공요금 · 과두제적 경영과 그 보완책

11주 문법 지문 - 문장 성분과 서술어 자릿수 · 임진록(壬辰錄) · 최척전(崔陟傳) ·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 · 지식 재산 보호와 디지털세

12주 문법 지문 - 문장 성분(관형어·부사어·독립어와 호응) · 옹고집전 · 배비장전 ·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관한 연구 · 경마식 보도와 선거 방송 토론회

4권 13~16주

13주 문법 지문 - 안긴문장과 문장 성분 · 전우치전(田禹治傳) · 홍계월전 ·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 · 명령적 위임 방식과 자유 위임 방식

14주 문법 지문 -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 · 김원전(金圓傳) · 장끼전 · 표적 항암제의 종류와 작용 원리 · 음원의 위치를 알아내는 청각의 원리

15주 문법 지문 -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 · (가) 전기소설론 · (나) 김현감호 · (다)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 · 금방울전 · 암흑 물질의 존재와 성질을 밝힌 관측 ·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등급과 거리 지수

16주 문법 지문 - 한글 맞춤법과 표기 원칙 · 구운몽(九雲夢) · 운영전(雲英傳) · 맥스웰 속력 분포와 밀러와 쿠슈의 실험 · 불확정성 원리와 '본다'는 것의 의미

5권 17~20주

17주 문법 지문 - 표준어 규정과 복수 표준어 · 숙영낭자전 ·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 디지털 영상의 확대와 축소 · 3D 합성 영상의 생성과 출력

18주 문법 지문 - 표준 발음법 · 정을선전 · 이대봉전(李大鳳傳) · 블록체인 기술의 구조와 특성 · 검색 엔진의 중요도와 적합도

19주 문법 지문 - 화용론과 담화 · 조웅전(趙雄傳) · 옥루몽(玉樓夢) ·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작동 원리 · 하드 디스크의 디스크 스케줄링

20주 문법 지문 - 형태소·문장 성분·문장 구조 · 수궁가 · 최고운전(崔孤雲傳) · DNS 스푸핑 · 지레와 돌림힘

비트겐슈타인3 고3 · 5권 · 20주

1권 1~4주

1주 문법 지문 - 안은문장과 절 · 초가 · 별 — 금강산시 3 · 헴펠과 샐먼의 과학적 설명 이론 · 귀납의 논리적 문제와 포퍼의 반증 가능성

2주 문법 지문 - 겹받침 발음과 음운 변동 · 대장간의 유혹 · 나무의 수사학 1 · 도덕 문장에 대한 에이어와 행크스의 견해 · 베이즈주의의 믿음의 정도와 조건화 원리

3주 문법 지문 - 비음화와 음운 변동 종합 · 길 · 전문가 · 이원론과 동일론 —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와 단순성의 원리 ·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4주 문법 지문 - 음운 변동의 유형과 복합 적용 · 음지의 꽃 · 종가 · 동양의 천(天) 개념 — 자연천·상제천·천명·의리천의 변천 · 메타 윤리학 —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

2권 5~8주

5주 문법 지문 - 형태소와 이형태 · 소문의 벽 · 독가촌 풍경 · 유학의 상도와 권도 / 병자호란 시기 척화론과 주화론 · 정약용의 인의예 사상 — 「이재의에게 보내는 답장」

6주 문법 지문 - 품사와 조사 ·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 비 오는 길 · 한나라 육가의 통합 학문 / 조선 초기 역사서 편찬 · 맹자의 의(義) 사상 — 도덕 내재주의와 이익 배제

7주 문법 지문 - 용언과 활용 · 관촌수필 · 쓰러지는 빛 · 행정입법 — 위임명령·행정규칙·조례 · 공동 소송·집단 소송·단체 소송 — 다수 피해자 구제 제도

8주 문법 지문 - 품사 통용과 문장 성분 · 사막을 건너는 법 · 무사와 악사 · 저작권의 공정 이용과 저작물 공유 캠페인 ·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3권 9~12주

9주 문법 지문 - 파생어와 합성어 · 북찬가 · 갑민가 · 간접 광고와 협찬 제도·간접 광고 제도 ·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과 주민 참여 제도

10주 문법 지문 - 합성어와 단어 형성 · 어부단가 · 소유정가 · 혁신의 확산 — 지리학적 모형과 시간에 따른 확산 과정 · 영화적 관습과 누벨바그의 관습 파괴

11주 문법 지문 - 문장 성분과 서술어 · 규원가 · 시집살이 노래 · 채권 가격 — 금리·만기·지급 불능 위험·대체 자산 · J커브 현상과 환율·경상수지의 복잡한 관계

12주 문법 지문 - 문장 성분의 확장 분석 · 탄궁가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네 편 · 아도르노의 미학과 그에 대한 평가 · 유명인 광고 모델의 중복 출연과 광고 효과

4권 13~16주

13주 문법 지문 - 안긴문장과 문장 성분 · 박씨전 · 임경업전 · 집합 의례 — 뒤르켐·파슨스·스멜서·알렉산더 · 시민 사회론 — 헤겔과 뒤르켐의 직업 단체

14주 문법 지문 - 이어진문장·중의성·높임·시제 · 최척전 · 최고운전 · 입체 지각 —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 · 근육·운동 단위·지근/속근·크기의 원리

15주 문법 지문 - 단어의 의미 관계 · 춘향전 · 토끼전 · 전향력 — 지구 자전과 푸코의 진자 · 사막의 형성 — 대기 대순환·지형·지각 변동

16주 문법 지문 - 표기 규정과 표기 원리 · 적성의전 · 박태보전 · 빗방울 낙하 — 중력·부력·항력·종단 속도 · 각운동량 보존·회전 관성 — 다이빙·피겨의 물리

5권 17~20주

17주 문법 지문 -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 담초 · 조용 ·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 인포그·인포스피어·추상화 층위 · 메타버스 — HMD·가상 현실 장갑·트레드밀·키넥트 센서

18주 문법 지문 - 로마자 표기와 외래어 표기법 · 겸재의 빛 · 눈 · 영상 안정화 기술 — OIS·DIS·보이스코일 모터·특징점 · 스마트폰 실내 위치 측정 — GPS·IMU·비콘·근접성·삼변측량·위치 지도

19주 문법 지문 - 중세 국어와 담화·화행 · 공동 경비 구역 JSA · 오발탄 · CT — X선·투과율·환산값·역투사 · 차량 주위 영상 합성 — 광각 카메라·왜곡 보정·시점 변환

20주 문법 지문 - 피동·품사·단어 형성·문장 성분·의미 변화 · 편지 ·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포토리소그래피 — 마스크·감광 물질·반도체 패턴 형성 · 저항형 가스 센서 — 산화물 반도체·흡착·탈착·응답 감도

문장 독해 연습

책 과정 · 프레게 · 러셀 · 비트겐슈타인

프레게 8단원

PART 1 뼈대 읽기

01 주어와 서술어 찾기
서술어를 먼저 찾고, '누가(무엇이)'를 물어 문장의 뼈대를 찾는다.

02 가리키는 말 찾기
'이, 그, 이러한, 이것'이 가리키는 말을 앞에서 찾아 바꿔 넣고 다시 읽는다.

03 이어 주는 말 읽기
'그러나, 그래서, 반면, 즉'을 보고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낸다.

PART 2 바꿔 읽기

04 쉬운 말로 바꾸기
낱말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을 찾고,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어 읽는다.

05 설명과 예 짝짓기
'예를 들어' 앞뒤에서 설명과 예를 찾아 짝짓고, 새 예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판단한다.

06 숫자 넣어 읽기
숫자를 직접 넣어 계산해 보고, 두 값이 바뀌는 방향이 같은지 반대인지 알아낸다.

PART 3 묶어 읽기

07 순서대로 정리하기
'먼저, 그런 다음, 이후, 마침내'와 연도를 따라 일이 일어나는 차례를 화살표로 정리한다.

08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문장마다 역할을 따지고, 중심 문장을 뼈대로 삼아 문단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

PART 4 실전 종합

실전 1~4 인문 · 사회
인문과 사회 문단 네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5~8 과학
과학 문단 네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9~12 기술 · 환경
기술과 환경 문단 네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13~16 생활 · 문화
생활과 문화 문단 네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러셀 12단원

PART 1 뼈대 읽기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서술어마다 '누가, 무엇이'를 물어 문장의 뼈대를 찾는다.

02 수식 풀기
명사 앞의 긴 꾸밈말을 떼어 짧은 문장으로 다시 쓴다.

03 대용 표현
'이, 그, 이러한, 이처럼'이 가리키는 말을 찾아 바꿔 넣고 다시 읽는다.

04 연결어와 문장 관계
'그러나, 따라서, 즉, 반면'이 알려 주는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읽는다.

PART 2 바꿔 읽기

05 쉬운 말로 바꾸기
개념어와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풀어 읽고, 긴 설명은 개념어로 줄여 읽는다.

06 부정과 한정 표현
'만, 뿐, 모든, 대부분, ~이 아니라'가 정하는 문장의 범위를 확인한다.

07 비교와 비례 표현
'보다, 달리, ~할수록, 비례'가 나타내는 관계를 표와 화살표로 정리한다.

PART 3 짝지어 읽기

08 일반 진술과 예시 대응
일반적 진술의 요소와 구체적 예시의 요소를 하나씩 짝지어 읽는다.

09 숫자 넣어 읽기
식이나 수량이 나오는 문장에 직접 숫자를 넣어 두세 경우를 계산하고 관계를 찾는다.

10 새 사례에 적용하기
문단의 원리를 조건과 결과로 정리하고, 처음 보는 사례에 대입한다.

PART 4 따지고 묶어 읽기

11 조건문 읽기
'~려면 ~해야', '~면'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쓰고, 뒤집은 말이 맞는지 따진다.

12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문장마다 역할을 정하고, 중심 문장에 필요한 말만 묶어 한 문장으로 줄인다.

PART 5 실전 종합

실전 1~5 인문 · 예술
인문과 예술 문단 다섯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6~10 사회 · 문화
사회와 문화 문단 다섯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11~15 과학
과학 문단 다섯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16~20 기술 · 생활
기술과 생활 문단 다섯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비트겐슈타인 2권 · 16단원

1권

PART 1 뼈대 읽기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서술어마다 '누가, 무엇이'를 물어 문장의 뼈대를 찾는다.

02 수식 풀기
명사 앞의 긴 꾸밈말을 떼어 독립된 문장으로 다시 쓴다.

03 대용 표현
'이, 그, 이러한, 전자·후자'가 가리키는 말을 찾아 바꿔 넣고 다시 읽는다.

04 연결어와 문장 관계
'그러나, 따라서, 즉, 반면'이 알려 주는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읽고, 빠진 연결어를 채운다.

PART 2 바꿔 읽기

05 쉬운 말로 바꾸기
개념어와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풀어 읽고, 긴 설명은 개념어로 줄여 읽는다.

06 부정과 한정 표현
'만, 뿐, 반드시, 모든, 일부, ~이 아니라'가 정하는 문장의 범위를 확인한다.

07 비교와 비례 표현
'보다, ~할수록, 비례'가 나타내는 관계를 화살표로 정리한다.

08 같은 대상 묶기
한 대상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을 묶고, 선택지의 표현과 대응시킨다.

PART 3 짝지어 읽기

09 일반 진술과 예시 대응
일반적 진술의 요소와 구체적 예시의 요소를 하나씩 짝지어 읽는다.

10 숫자 넣어 읽기
수량 관계를 말로 설명한 문장에 가상의 숫자를 넣어 계산한다.

11 새 사례에 적용하기
문단의 원리를 조건과 결과로 정리하고, 새 사례에 대입한다.

2권

PART 4 조건 바꿔 읽기

12 조건문을 P와 Q로 나누기
조건문의 P와 Q를 문장으로 쓰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가린다.

13 조건 바꿔 읽기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바꾸어 쓰고, 대우를 문장으로 쓴다.

14 표와 식으로 옮기기
대상과 기준은 표로, 분류는 나무 그림으로, 수량은 식으로 옮긴다.

PART 5 묶어 읽기

15 문장 압축
중심 문장을 찾고 뒷받침 문장을 걸러, 문단을 조건에 맞는 한 문장으로 줄인다.

16 문단 지도
문장 번호와 화살표로 문장 사이의 관계를 그려 문단의 짜임을 한눈에 본다.

PART 6 실전 종합

실전 1~5 인문 · 예술
언어 철학, 인식론, 음악, 매체 미학 문단 다섯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6~10 사회 · 문화
경영, 사회학, 언론법, 윤리, 정치 문단 다섯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11~15 법 · 경제
민법, 소송, 조세, 헌법 문단 다섯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16~20 과학
생명, 약학, 화학 문단 다섯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실전 21~25 기술

센서, 정보 보안, 컴퓨터, 블록체인, 영상 기술 문단 다섯 개로 실전 세트를 푼다.

문법 개념 연습

책 과정 · 교재 「문법 개념 농장」

프레게 6단원

01 맞춤법
02 쉬운 표준 발음
03 훈민정음 이야기
04 쉬운 품사
05 쉬운 단어의 형성
06 쉬운 문법 요소

러셀 11단원

01 품사와 활용
02 형태소와 단어의 짜임
03 문장 성분
04 문장의 짜임
05 문법 요소
06 음운
07 음운 변동
08 맞춤법과 표준 발음
09 단어의 의미
10 담화
11 훈민정음과 옛말 맛보기

비트겐슈타인 기본 12단원

01 품사
02 형태소
03 단어의 형성
04 문장 성분과 서술어 자릿수
05 문장의 짜임
06 문법 요소
07 음운
08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
09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10 국어의 역사
11 단어의 의미와 사전
12 담화와 국어의 다양성

비트겐슈타인 실력 2권 · 13단원

1권

01 품사
02 형태소
03 단어의 형성
04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자릿수
05 문장의 짜임
06 문법 요소

2권

07 음운
08 음운 변동
09 한글 맞춤법
10 국어의 역사
11 단어의 의미
12 담화
13 영역 복합·지문형 모음

문학 개념 연습

책 과정 · 러셀 · 비트겐슈타인 각 10권

러셀 10권 · 50장

1권

기초 개념

01 시어와 시구, 행과 연
시어 · 시구 · 행(시행) · 연 · 소재

02 화자와 시적 상황
시적 화자 · 시적 대상 · 시적 상황 · 정서 · 그리움·연모

03 비유 ①
비유(비유적 표현) · 직유법 · 은유법 · 의인법(의인화)

04 운율 ①
운율(리듬) · 반복법 · 음성 상징어 · 의성어 · 의태어

05 심상 ①
심상(이미지) · 시각적 심상 · 청각적 심상 · 후각적 심상 · 촉각적 심상

2권

기초 개념

06 미각적 심상과 과장
미각적 심상 · 과장법 · 생동감 · 강조(표현 효과)

07 소설의 구성 요소
인물 · 배경 · 갈등 · 서술자 ·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08 시간과 공간의 변화
시간적 배경 · 공간적 배경 · 시간의 흐름(추보식) · 계절의 변화 · 공간의 이동

09 묘사와 대화
묘사 · 대화(인물 간 대화) · 대화·대사 제시 · 분위기 형성

10 시조·고전 소설·수필의 기초
시조(평시조) · 권선징악 · 행복한 결말 · 수필 · 자연물

3권

필수 개념

11 운율 ②
외형률 · 내재율 · 음보율(음보) · 음수율(3·4조, 7·5조) · 시어·시구·시행의 반복

12 비유 ②와 상징
원관념·보조관념 · 상징 · 관습적 상징 · 시어의 함축성

13 강조하는 표현
영탄법 · 점층법 · 열거법 · 설의법 · 의문형 표현

14 변화를 주는 표현과 여운
도치법 · 인용법 · 생략·말줄임표 · 명사형 종결(명사로 마무리) · 여운

15 대조와 대구
대조법 · 대구법 · 비교 · 대비 · 대립적 시어

4권

필수 개념

16 반어와 역설, 풍자와 해학
반어(반어법) · 역설(역설법) · 언어유희 · 풍자 · 해학

17 어조
어조 · 애상적 어조·정서 ·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 · 경어체(높임 표현)

18 화자의 태도 ①
태도 · 예찬적 태도 · 비판적 태도 · 성찰적(반성적) 태도 · 체념적 태도

19 화자의 태도 ②
의지적 태도 · 낙관적 태도·전망 · 회한·후회 · 연민 · 지향(동경)

20 화자와 청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 · 숨은 화자 · 시적 청자 · 독백체 · 말을 건네는 방식

5권

필수 개념

21 시상 전개 ①
시상 전개 · 과거와 현재의 대비 · 시선의 이동 · 수미상관 · 회상

22 정서의 변화와 깨달음
정서의 변화 · 깨달음·주제 제시 · 상상 · 계절감(계절 이미지) · 자연 vs 인간

23 소설의 시점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3인칭 관찰자(작가 관찰자)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24 서술자와 인물 제시 방법
작품 안 서술자 · 작품 밖 서술자 · 인물의 내면·심리 제시 · 직접 제시(말하기) · 간접 제시(보여주기)

25 인물의 유형
주동 인물 · 반동 인물 · 평면적 인물 · 입체적 인물 · 전형적 인물

6권

필수 개념

26 갈등의 양상
내적 갈등 · 외적 갈등(인물과 인물) · 인물과 사회의 갈등 · 인물과 운명·자연의 갈등 · 갈등의 해소

27 사건의 구성
구성(플롯) · 순행적 구성 · 복선 · 암시 · 사회적(시대적) 배경

28 고전 시가의 갈래
고대 가요 · 한시 · 연시조 · 가사 · 민요

29 고전 소설과 설화
고전 소설 · 설화(신화·전설·민담) · 우화(동물 우의 소설) · 교훈적 시가

30 희곡·시나리오와 수필
희곡 · 지시문(무대 지시문·동작 지시문) · 대사(대화·독백·방백) · 시나리오 · 체험과 깨달음

7권

수능 심화 개념

31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감정 이입 · 객관적 상관물 · 추상적(관념적) 대상의 구체화 · 활유법

32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 복합 감각적 심상 · 색채 이미지 · 동적 이미지 · 정적 이미지

33 시상 전개 ②
선경후정 · 역순행적 전개 · 시상의 전환 · 대조적 구조

34 대화체와 돈호법
대화체 · 대화 형식 · 돈호법(호격) · 고백적 어조

35 통사 구조의 반복과 연쇄
통사 구조의 반복 · 동일(특정) 종결 어미의 반복 · 연쇄법 · 후렴구

8권

수능 심화 개념

36 말하기와 보여 주기
서술자 개입(편집자적 논평) · 요약적 제시(말하기) · 장면적 제시(보여 주기) · 객관적 전달

37 여러 가지 구성 방식
역순행적 구성 · 액자식 구성 · 회상 삽입 · 장면 전환·교차 · 긴박감 조성

38 고전 시가의 형식
향가 · 고려가요(속요) · 사설시조 · 3음보 · 4음보

39 고전 소설의 특징
전기성(傳奇性)·비현실성 · 일대기적 구성(영웅의 일생) · 판소리계 소설 · 판소리(창·아니리·발림·추임새)

40 작품 감상의 관점과 수필
내재적(절대주의) 관점 · 표현론적 관점 · 반영론적 관점 · 효용론적 관점 · 경수필·중수필

9권

실전 선지 적용

41 선지 속 의인 표현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 의인화된 대상을 등장시켜 ·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 ·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42 선지 속 감정 이입 표현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 대상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한 효과·태도를 드러내는 (결합형) · 반어법을 사용하여 관념적 대상을 구체화

43 선지 속 감각 표현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 ·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계절적 배경)을

44 선지 속 설의와 호명
물음의 형식을 통해/활용하여 · 상대방에게 반문하며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 · 의문과 확인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 대상을 부르는 말을 반복하여

45 선지 속 끝맺음과 반복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 · 각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 · 특정 어미의 반복을 통해 ·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 높임의 종결 표현을 통해

10권

실전 선지 적용

46 선지 속 시선과 공간의 이동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 ·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 ·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 ·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47 선지 속 구조와 비교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인 안정감' · '수미상응의 시상 전개를 통해 구성상 안정감' ·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

48 선지 속 화자와 청자
'일인칭 화자를 직접 노출시켜' ·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 말을 건네는 방식' · '화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대상을 통해' ·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49 선지 속 시점 표현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 ·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 · '작품 속 서술자가 다른 인물을 관찰하여 서술'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

50 선지 속 서술과 구성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직접 평가' ·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 '대화와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 ·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 ·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비트겐슈타인 10권 · 50장

1권

기초 개념

01 시어와 시구, 행과 연
시어 · 시구 · 행(시행) · 연 · 소재

02 화자와 시적 상황
시적 화자 · 시적 대상 · 시적 상황 · 정서 · 그리움·연모

03 비유 ①
비유(비유적 표현) · 직유법 · 은유법 · 의인법(의인화) · 과장법

04 운율 ①
운율(리듬) · 반복법 · 음성 상징어 · 의성어 · 의태어

05 심상 ①
심상(이미지) · 시각적 심상 · 청각적 심상 · 후각적 심상 · 촉각적 심상

2권

기초 개념

06 심상 ②
미각적 심상 · 색채 이미지 · 동적 이미지 · 정적 이미지 · 생동감

07 소설의 구성 요소
인물 · 배경 · 갈등 · 서술자 ·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08 시간과 공간의 변화
시간적 배경 · 공간적 배경 · 시간의 흐름(추보식) · 계절의 변화 · 공간의 이동

09 묘사와 대화
묘사 · 대화(인물 간 대화) · 대화·대사 제시 · 강조(표현 효과) · 분위기 형성

10 시조·고전 소설·수필의 기초
시조(평시조) · 권선징악 · 행복한 결말 · 수필 · 자연물

3권

필수 개념

11 운율 ②
외형률 · 내재율 · 음보율(음보) · 음수율(3·4조, 7·5조) · 시어·시구·시행의 반복

12 비유 ②와 상징
원관념·보조관념 · 상징 · 관습적 상징 ·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기 · 시어의 함축성

13 강조와 변화의 표현
영탄법 · 점층법 · 열거법 · 설의법 · 도치법

14 대조와 대구
대조법 · 대구법 · 비교 · 대비 · 대립적 시어

15 반어와 역설, 풍자와 해학
반어(반어법) · 역설(역설법) · 풍자 · 해학 · 언어유희

4권

필수 개념

16 시의 끝맺음과 여운
명령형 어미 · 동일(특정) 종결 어미의 반복 · 명사형 종결(명사로 마무리) · 생략·말줄임표 · 여운

17 화자의 태도 ①
어조 · 태도 · 예찬적 태도 · 비판적 태도 · 성찰적(반성적) 태도

18 화자의 태도 ②
의지적 태도 · 낙관적 태도·전망 · 회한·후회 · 연민 · 지향(동경)

19 화자와 청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 · 숨은 화자 · 시적 청자 · 말을 건네는 방식 · 친근감·친밀감

20 시상 전개 ①
시상 전개 · 과거와 현재의 대비 · 시선의 이동 · 수미상관 · 정서의 변화

5권

필수 개념

21 시상 전개 ②
대조적 구조 · 회상 · 깨달음·주제 제시 · 계절감(계절 이미지) · 자연 vs 인간

22 소설의 시점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3인칭 관찰자(작가 관찰자)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23 서술자와 인물 제시 방법
작품 안 서술자 · 작품 밖 서술자 · 인물의 내면·심리 제시 · 직접 제시(말하기) · 간접 제시(보여주기)

24 인물의 유형
주동 인물 · 반동 인물 · 평면적 인물 · 입체적 인물 · 전형적 인물

25 갈등의 양상
내적 갈등 · 외적 갈등(인물-인물) · 인물과 사회의 갈등 · 갈등의 심화 · 갈등의 해소

6권

필수 개념

26 사건의 구성
구성(플롯) · 순행적 구성 · 복선 · 암시 · 회상 삽입

27 사회적 배경과 문체
사회적(시대적) 배경 · 배경의 기능 · 문체 · 간결체 · 서사(서술)

28 고전 시가의 갈래
고대 가요 · 한시 · 연시조 · 가사 · 민요

29 고전 시가의 화자와 고전 서사
여성 화자 · 교훈적 시가 · 고전 소설 · 설화(신화·전설·민담) · 우화(동물 우의 소설)

30 희곡·시나리오와 수필
희곡 · 지시문(무대 지시문·동작 지시문) · 대사(대화·독백·방백) · 시나리오 · 체험과 깨달음

7권

수능 심화 개념

31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감정 이입 · 객관적 상관물 · 추상적(관념적) 대상의 구체화 · 매개(체) · 개인적(창조적) 상징

32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 복합 감각적 심상 · 상승 이미지 · 하강 이미지 · 색채 대비

33 시상 전개 ③
역순행적 전개 · 공간의 대비 · 선경후정 · 시상의 전환 · 순환 구조

34 관조와 말하기 방식
관조적 태도 · 감정 절제 · 독백체 · 대화체 · 대화 형식

35 여러 가지 수사법
연쇄법 · 점강법 · 돈호법(호격) · 통사 구조의 반복 · 가정의 표현

8권

수능 심화 개념

36 말하기와 보여 주기
서술자 개입(편집자적 논평) · 요약적 제시(말하기) · 장면적 제시(보여 주기) · 내적 독백 · 객관적 전달

37 여러 가지 구성 방식
역순행적 구성 · 액자식 구성 · 삽화식(피카레스크) 구성 · 병치(병렬적 구성) · 장면 전환·교차

38 고전 시가의 형식
향가 · 고려 가요(속요) · 사설시조 · 후렴구 · 여음·조흥구

39 고전 소설의 특징
전기성(傳奇性)·비현실성 · 일대기적 구성(영웅의 일생) · 적강 모티프 · 판소리계 소설 · 판소리(창·아니리·발림·추임새)

40 작품 감상의 관점
내재적(절대론적) 관점 · 표현론적 관점 · 반영론적 관점 · 효용론적 관점 · 시나리오 용어

9권

실전 선지 적용

41 선지 속 의인 표현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 의인화된 대상을 등장시켜 ·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 ·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 대상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42 선지 속 감정 이입과 거리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 ·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 ·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43 선지 속 감각 표현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계절적 배경 · 명암의 대비를 통해 ·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 · 관찰 사실을 묘사하여 대상의 역동성

44 선지 속 설의와 가정
물음의 형식을 통해/활용하여 · 의문과 확인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 상대방에게 반문하며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 ·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

45 선지 속 반복과 끝맺음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 특정 어미의 반복을 통해 · 각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 · 대상을 부르는 말을 반복하여 · 반어법을 사용하여 관념적 대상을 구체화

10권

실전 선지 적용

46 선지 속 시선과 공간의 이동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 ·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 ·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 ·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 · 시적 공간을 이동하여 긴장감

47 선지 속 구조와 시간

수미상응의 시상 전개를 통해 구성상 안정감 ·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인 안정감 ·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을 묘사하여 세월의 흐름 · 과거와 현재의 통합 / 시간의 모호성

48 선지 속 청자와 대화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 말을 건네는 방식 · 화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대상을 통해 ·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49 선지 속 서술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 서술자를 교체하여 ·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 ·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직접 평가 · 인물의 표정과 내면을 반대로 서술하여

50 선지 속 사건 배열과 서술 속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를 지연 ·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삽화처럼 나열 ·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 ·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 인물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사건의 진행을 더디게

지식과 지혜 글쓰기

글쓰기 교재 · 소쉬르1~러셀3 · 10권(소쉬르1 예비과정 포함)

소쉬르1 초1 · 2권 · 40장

예비과정 · 한글 체득

01 바른 자세와 선 긋기
02 자음자 ① ㄱ·ㄴ·ㄷ·ㄹ
03 자음자 ② ㅁ·ㅂ·ㅅ·ㅇ
04 자음자 ③ ㅈ·ㅊ·ㅋ·ㅌ·ㅍ·ㅎ
05 모음자 ① ㅏ·ㅓ·ㅗ·ㅜ·ㅡ·ㅣ
06 모음자 ② ㅑ·ㅕ·ㅛ·ㅠ
07 글자의 짜임 ① 자음자 + 세로 모음자
08 글자의 짜임 ② 자음자 + 가로 모음자
09 받침 없는 낱말 ① 두 글자
10 받침 없는 낱말 ② 세 글자
11 복잡한 모음자 ① ㅐ·ㅔ·ㅚ·ㅟ
12 복잡한 모음자 ② ㅘ·ㅝ·ㅢ·ㅒ·ㅖ
13 받침 ① ㅇ·ㄴ·ㄹ
14 받침 ② ㄱ·ㅁ·ㅂ
15 받침 ③ 소리가 같은 받침
16 받침 ④ ㅋ·ㅍ, ㄲ·ㅆ
17 쌍자음 ㄲ·ㄸ·ㅃ·ㅆ·ㅉ
18 소리와 다르게 쓰는 낱말 ①
19 소리와 다르게 쓰는 낱말 ②
20 겹받침과 첫 문장

문장에서 겪은 일까지

01 누가 + 어찌하다
02 누가 + 무엇을 + 어찌하다
03 무엇이 + 어떠하다
04 무엇은 + 무엇이다
05 언제와 어디서
06 문장 부호
07 띄어쓰기
08 꾸며 주는 말
09 흉내 내는 말
10 마음을 나타내는 말
11 이어 주는 말
12 그림일기 ① 두 문장
13 그림일기 ② 세 문장
14 나를 소개하는 글
15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글
16 동물을 소개하는 글
17 편지
18 겪은 일 쓰기 ① 처음과 끝
19 겪은 일 쓰기 ② 차례대로
20 겪은 일 쓰기 ③ 처음-가운데-끝

소쉬르2 초2 · 20장

문장 다듬기에서 한 문단까지

01 이어 주는 말 ② 그런데·그러나·왜냐하면
02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03 문장을 자세하게
04 문장 고쳐 쓰기
05 겪은 일을 차례대로
06 일기
07 물건을 소개하는 글
08 친구를 소개하는 글
09 책을 읽고 쓰기
10 마음을 전하는 카드
11 중심 문장 찾기
12 중심 문장 쓰기
13 뒷받침 문장 쓰기

14 뒷받침 문장의 종류
15 한 문단 소개 글
16 의견과 까닭
17 한 문단 의견 글
18 순서대로 쓰기
19 관찰 기록
20 한 문단 글 완성

소쉬르3 초3 · 20장

여러 문단 글

01 문단의 짜임 다지기
02 중심 생각에서 벗어난 문장
03 문단 나누기
04 문단 고쳐 쓰기
05 의견과 사실
06 까닭 두 가지
07 까닭이 알맞은가
08 두 문단 의견 글
09 의견 글 고쳐 쓰기
10 결과와 알게 된 점
11 실험 보고하는 글
12 조사 보고하는 글
13 고마운 마음 전하기
14 미안한 마음 전하기
15 부탁하는 글
16 낱말 메모로 글 짜기
17 처음 문단 쓰기
18 끝 문단 쓰기
19 세 문단 설명 글
20 세 문단 의견 글

프레게1 초4 · 20장

개요를 짜고 쓰는 글

01 개요 읽기
02 개요 짜기
03 가운데 문단 두 개
04 개요와 글 맞추기
05 설명하는 글의 짜임
06 대상의 특성 고르기
07 예를 들어 설명하기
08 비교하고 대조하기
09 설명하는 글 한 편
10 의견과 근거
11 알맞은 근거 고르기
12 근거를 자세하게
13 의견 글 개요
14 의견 글 고쳐 쓰기
15 독서 감상문의 짜임
16 인물에 대한 생각
17 독서 감상문 한 편
18 자료를 내 말로
19 자료 읽고 개요 짜기
20 자료 읽고 설명하는 글

프레게2 초5 · 20장

요약하고 근거를 갖춘 글

01 문단 요약
02 글 전체 요약
03 설명문 요약
04 주장하는 글 요약
05 주장하는 글의 짜임
06 근거의 종류

07 출처 밝히기
08 예상 반론
09 주장하는 글 한 편
10 분류하여 설명하기
11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기
12 과정으로 설명하기
13 설명하는 글 한 편
14 기사문
15 발표문
16 체험 감상문
17 통일성 점검
18 글 전체 고쳐 쓰기
19 두 자료 비교
20 두 자료 읽고 쓰는 글

프레게3 초6 · 20장

중등 수준 논술

01 핵심어로 요약하기
02 조건에 맞춰 요약하기
03 두 제시문 요약
04 관점이란 무엇인가
05 비교 기준 세우기
06 두 제시문 비교하기
07 논설문 개요
08 반론 예상하기
09 재반박 쓰기
10 논설문 한 편
11 개념으로 사례 설명 ①
12 개념으로 사례 설명 ②
13 사례 설명 문항
14 표 읽기
15 그래프 읽기
16 자료를 근거로 쓰기
17 논술 종합 ① 환경과 개발
18 논술 종합 ② 과학 기술과 일자리
19 논술 종합 ③ 개인과 공동체
20 논술 종합 ④ 돈과 행복

러셀1 중1 · 20장

서 · 논술형 기초

01 요약형 문항 읽기
02 핵심어 제한 요약
03 구조에 따른 요약
04 두 문단 요약
05 비교 기준 세우기
06 두 제시문 관점 비교
07 세 제시문 비교
08 비교·대조형 답안
09 개념 정리 문장
10 개념으로 사례 설명
11 관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
12 설명·적용형 답안
13 타당한 근거
14 반론을 다루는 문단
15 논설문 개요
16 논설문 한 편
17 여러 자료로 정보 전달
18 설명 방법 고르기
19 경험과 정서를 드러내는 글
20 독자를 고려해 고쳐 쓰기

러셀2 중2 · 20장

비판과 쟁점 논설

01 평가 기준 세우기
02 주장의 전제 찾기
03 한계 지적하기
04 비판·평가형 답안
05 도표 읽는 문장
06 도표와 제시문 연결
07 자료 해석형 답안
08 자료를 근거로 한 주장
09 분류 기준 찾기
10 제시문 분류하기
11 분류하고 설명하기
12 분류형 답안
13 쟁점 찾기
14 맥락을 고려한 주장
15 입장 비교 개요
16 쟁점 논설
17 건의문
18 비평문
19 복합양식 자료 활용
20 쓰기 윤리와 고쳐 쓰기

러셀3 중3 · 20장

인문 통합 논술

01 통합형 문항의 구조
02 문항 조건표
03 답안 설계
04 원고지 답안 규칙
05 통합 답안 ① 요약 + 비교
06 통합 답안 ② 요약 + 비교 + 평가
07 통합 답안 ③ 비교 + 평가
08 통합 답안 ④ 분류 + 평가
09 통합 답안 ⑤ 요약 + 비교 + 평가
10 통합 답안 ⑥ 요약 + 비교 + 평가
11 자료 해석 + 논증 ① 노동과 소득
12 자료 해석 + 논증 ② 저출생
13 자료 해석 + 논증 ③ 기후 정책
14 자료 해석 + 논증 ④ 디지털 격차
15 60분 쓰기 ① 행복과 욕망
16 60분 쓰기 ② 관용
17 90분 쓰기 두 문항 세트
18 실전형 종합 ① 처벌의 목적
19 실전형 종합 ② 기본 소득
20 실전형 종합 ③ 유전자 편집

작가와 작품 세계

책 과정 · 4권 · 작가 160명

1권 8단원

01 현대소설
박완서 · 염상섭 · 채만식 · 김원일 · 김유정

02 현대소설
이청준 · 최일남 · 양귀자 · 김정한 · 김소진

03 현대소설
박경리 · 이문구 · 이호철 · 임철우 · 황석영

04 현대시
신경림 · 문정희 · 정지용 · 김수영 · 윤동주

05 현대시
김소월 · 나희덕 · 백석 · 이육사 · 조지훈

06 고전소설
김시습 · 김만중 · 허균 · 박지원 · 임제

07 고전시가
윤선도 · 정철 · 허난설헌 · 박인로 · 정훈

08 고전시가
이규보 · 충담사 · 안민영 · 이이 · 이현보

2권 8단원

01 현대소설
윤흥길 · 황순원 · 최인훈 · 현기영 · 최인호

02 현대소설
하근찬 · 김성한 · 손창섭 · 이태준 · 이상

03 현대소설
김동인 · 김승옥 · 오정희 · 공선옥 · 성석제

04 현대시
한용운 · 송수권 · 최승호 · 고재종 · 김기택

05 현대시
문태준 · 박목월 · 오장환 · 장석남 · 김광균

06 현대시
김남조 · 김춘수 · 박재삼 · 이수익 · 정호승

07 고전시가
황희 · 권호문 · 김광욱 · 김수장 · 김득연

08 고전시가
신교 · 권섭 · 조우인 · 위백규 · 유박

3권 8단원

01 현대소설
이범선 · 안수길 · 서정인 · 홍성원 · 이광수

02 현대소설
강경애 · 박태원 · 최명익 · 박태순 · 이동하

03 현대시
구상 · 오세영 · 김광규 · 고정희 · 곽재구

04 현대시
김기림 · 김영랑 · 김용택 · 김혜순 · 박남수

05 고전소설
권필 · 이옥 · 임춘 · 심의 · 조위한

06 고전시가
이정보 · 조존성 · 정극인 · 송순 · 이황

07 고전시가
이신의 · 조위 · 정서 · 원천석 · 길재

08 고전시가
이색 · 정도전 · 이덕일 · 김상헌 · 구강

4권 8단원

01 현대소설
전상국 · 전광용 · 오영수 · 김동리 · 이효석

02 현대소설
이문열 · 윤대녕 · 김애란 · 조세희 · 문순태

03 현대시
신동엽 · 이성복 · 이성부 · 강은교 · 김명인

04 현대시
김선우 · 김종길 · 김지하 · 기형도 · 박두진

05 현대시
박용래 · 정끝별 · 황동규 · 허수경 · 최두석

06 고전시가
남도진 · 김천택 · 이진유 · 이중경 · 김인겸

07 고전시가
홍정유 · 채헌 · 허전 · 김상용 · 박효관

08 고전시가
이정환 · 정학유 · 조식 · 김창업 · 백광홍

국어농장 어휘

책 과정 · 소쉬르 · 프레게 · 러셀 · 비트겐슈타인

소쉬르 2권 · 25장

1권

1 학교에 가요
원리 · 묶어 부르는 말

2 교실에서
원리 · 반대말

3 몸과 움직임
원리 · 흉내 내는 말

4 우리 가족
원리 · 높임말

5 날씨와 하늘
원리 · 비슷한 말

6 놀이와 운동
원리 · 묶어 부르는 말

7 기쁜 마음
원리 · 반대말

8 속상한 마음
원리 · 흉내 내는 말

9 친구와 함께
원리 · 높임말

10 물과 바람
원리 · 비슷한 말

11 먹고 마시는 것
원리 · 묶어 부르는 말

12 물건 다루기
원리 · 반대말

13 자연과 들
원리 · 흉내 내는 말

2권

14 예의 바르게
원리 · 높임말

15 놀라고 무서울 때
원리 · 비슷한 말

16 집과 동네
원리 · 묶어 부르는 말

17 착한 마음
원리 · 반대말

18 생각하는 말
원리 · 흉내 내는 말

19 웃어른과 지내기
원리 · 높임말

20 약속과 다짐
원리 · 비슷한 말

21 동물과 식물
원리 · 묶어 부르는 말

22 몸의 느낌
원리 · 반대말

23 서두를 때
원리 · 흉내 내는 말

24 들과 바다의 때
원리 · 묶어 부르는 말

25 말썽과 꾸중
원리 · 비슷한 말

프레게 3권 · 40장

1권

1 국어 · 글의 짜임
원리 · 접사 · -하다와 -되다

2 사회 · 우리 고장
원리 · 여러 뜻을 가진 말

3 사회 · 지도 읽기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地(땅 지)

4 과학 · 물체와 물질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體(몸 체)와 質(바탕 질)

5 마음 · 기쁨과 자랑
원리 · 속담 · 기쁨과 자랑을 담은 속담

6 사회 · 교통과 통신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通(통할 통)

7 과학 · 생물의 한살이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生(날 생)

8 행동 · 말하는 태도
원리 · 관용 표현 · 입과 귀가 들어간 말

9 사회 · 옛날과 오늘날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衣(옷 의) · 食(밥 식) · 住(살 주)

10 이야기 · 옛이야기
원리 · 한자 성어 · 네 글자로 된 말

11 사회 · 가족의 모습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親(친할 친)과 愛(사랑 애)

12 과학 · 지층과 암석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石(돌 석)과 巖(바위 암)

13 마음 · 걱정과 불안
원리 · 관용 표현 · 걱정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

14 사회 ·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多(많을 다)와 少(적을 소)

2권

15 국어 · 생각을 나누기
원리 · 여러 뜻을 가진 말 · '짚다'

16 과학 · 날씨와 우리 생활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氣(기운 기)

17 사회 · 촌락과 도시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農(농사 농)

18 행동 · 몸짓과 표정
원리 · 관용 표현 · 몸짓으로 마음을 나타내는 말

19 이야기 · 인물의 성격
원리 · 반대되는 말 · 성격을 비교하는 말

20 사회 · 경제생활과 선택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品(물건 품)

21 과학 · 용해와 용액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溶(녹을 용)

22 마음 · 화와 억울함
원리 · 속담 · 화나고 억울한 마음을 담은 속담

23 사회 · 국토와 자연환경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領(거느릴 령)

24 수학 · 재고 비교하기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平(평평할 평)

25 국어 · 낱말과 표현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想(생각 상)

26 사회 · 인권과 법
원리 · 여러 뜻을 가진 말 · '심판'과 '보호'

27 과학 · 태양계와 별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星(별 성)

3권

28 행동 · 일하는 모습
원리 · 관용 표현 · 손과 발이 들어간 말

29 사회 · 민주주의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民(백성 민)

30 이야기 · 사건과 갈등
원리 · 비슷한 말 구별하기 · '드디어'와 '비로소'

31 과학 · 우리 몸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養(기를 양)

32 사회 · 우리 경제의 성장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業(업 업)

33 마음 · 놀람과 당황
원리 · 속담 · 놀라고 서두르는 일을 담은 속담

34 사회 · 옛 나라와 문화유산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遺(남길 유)

35 과학 · 생물과 환경
원리 · 여러 뜻을 가진 말 · '재생'과 '중독'

36 마음 · 다짐과 용기
원리 · 속담 · 다짐과 노력을 담은 속담

37 사회 · 나라를 지킨 사람들
원리 · 한자 성어 · 두 글자씩 풀어 보기

38 과학 · 빛과 에너지
원리 · 한자 하나로 낱말 묶기 · 光(빛 광)

39 사회 · 통일과 지구촌
원리 · 여러 뜻을 가진 말 · '관계'와 '교류'

40 행동 · 다투고 화해하기
원리 · 관용 표현 · 다툼과 화해를 나타내는 말

러셀 3권 · 50장

1권

1 생각 · 개념과 관점
원리 · 추상어

2 글 읽기의 말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3 마음 · 슬픔과 그리움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4 사건 · 죄와 벌
원리 · 한자 하나로 (告 · 罰 · 白)

5 인물 · 성품
원리 · 반대되는 말

6 사회 · 민주와 권리
원리 · 한자 하나로 (權)

7 사회 · 갈등과 해결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8 마음 · 분노와 미움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9 경제 · 돈과 거래
원리 · 한자어↔고유어

10 역사 · 나라의 흥망
원리 · 한자 성어 · 두 글자씩 끊어 짝 찾기

11 과학 · 현상과 작용
원리 · 추상어

12 과학 · 탐구와 실험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13 마음 · 실망과 좌절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14 말과 소통
원리 · 한자어↔고유어

15 처세와 태도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16 예술 · 아름다움과 창작
원리 · 추상어 · 짝을 이루는 말

17 문학 감상 · 표현과 분위기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2권

18 때와 정도를 나타내는 말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19 몸과 건강
원리 · 한자어↔고유어

20 위기와 고난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21 법과 규칙
원리 · 추상어 · 넓고 좁은 말, 짝을 이루는 말

22 인물의 행동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23 마음 · 두려움과 불안
원리 · 한자 성어 · 앞일을 알리는 말

24 자연과 환경
원리 · 한자어↔고유어

25 노력과 성취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26 사회 · 차별과 평등
원리 · 추상어는 장면과 함께

27 매체와 정보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28 마음 · 자존과 부끄러움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29 일과 직업
원리 · 한자어와 고유어

30 한자 성어 · 사람과 세상
원리 · 한자 성어 · 겉뜻과 속뜻

31 비교와 분류
원리 · 추상어 · 같음과 다름의 정도

32 변화와 흐름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33 마음 · 기쁨과 바람
원리 · 비슷한 말 · 바람의 세기와 웃음의 크기

34 관계 · 믿음과 배신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3권

35 운명과 인생
원리 · 비슷한 말과 한자 성어 · 인생을 나타내는 말

36 크기와 정도
원리 · 반대되는 말 · 크기와 한계

37 과학 기술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 과학 낱말의 넓은 쓰임

38 도움과 배려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39 교육과 배움
원리 · 한자어와 고유어

40 세상 보는 눈
원리 · 반대되는 말 · 관점을 나타내는 말

41 사회 · 정치와 제도
원리 · 추상어 · 나랏일을 나타내는 말

42 역사 · 개항과 근대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43 경제 · 산업과 무역
원리 · 한자어와 고유어

44 변화 · 고치고 바꾸기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45 국제 · 전쟁과 평화
원리 · 비슷한 말 · 쳐들어가고 막아 내는 말

46 경제 · 성장과 분배
원리 · 추상어 · 오르내림을 나타내는 말

47 사회 · 가족과 공동체
원리 · 문맥에 따른 뜻

48 지리 · 국토와 분포
원리 · 한자어와 고유어

49 문화 · 기록과 전승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50 생각 · 해석과 판단
원리 · 추상어 · 판단을 나타내는 말

비트겐슈타인 3권 · 50장

1권

1 인문 · 인식과 판단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2 인문 · 동양 사상
원리 · 바꿔 쓰기

3 인문 · 서양 철학
원리 · 헷갈리는 한자어

4 고전 시가 · 자연
원리 · 고전 어휘

5 고전 시가 · 벼슬과 은거
원리 · 한자 성어

6 사회 · 법과 권리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7 사회 · 계약과 소송
원리 · 바꿔 쓰기

8 경제 · 금융과 무역
원리 · 헷갈리는 한자어

9 고전 산문 · 전쟁과 전투
원리 · 고전 어휘

10 고전 산문 · 영웅의 일생
원리 · 한자 성어 · 영웅의 일생

11 고전 산문 · 인물의 처지
원리 · 한자 성어 · 비슷한 성어 구별

12 경제 · 정책과 경기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13 과학 · 물리와 지구
원리 · 바꿔 쓰기

14 과학 · 생명과 인체
원리 · 헷갈리는 한자어

15 고전 산문 · 임금과 신하
원리 · 고전 어휘

16 고전 시가 · 이별과 그리움
원리 · 한자 성어 · 비슷한 말 구별

17 기술 · 정보와 장치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2권

18 예술 · 음악과 미술
원리 · 바꿔 쓰기

19 예술 · 비평
원리 · 헷갈리는 한자어

20 고전 산문 · 집안과 상례
원리 · 고전 어휘

21 고전 산문 · 사랑과 혼인
원리 · 한자 성어

22 고전 산문 · 꾸짖음과 다툼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23 현대 소설 · 갈등과 불안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24 현대 소설 · 상실과 체념
원리 · 바꿔 쓰기

25 소설 · 인물의 말
원리 · 헷갈리는 한자어 · 비슷한 말

26 소설 · 인물의 태도
원리 · 반대되는 말

27 현대 시 · 정서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28 고전 수필 · 옛글의 부사
원리 · 고전 어휘 · 부사의 호응

29 배움과 삶의 태도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30 사회 · 집단과 제도
원리 · 바꿔 쓰기

31 사회 · 언론과 선거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32 역사 · 조선 사회와 백성
원리 · 고전 어휘

33 고전 산문 · 세태 풍자
원리 · 한자 성어

34 고전 산문 · 꿈과 환상
원리 · 고전 어휘

3권

35 고전 산문 · 의리와 은혜
원리 · 한자 성어

36 인문 · 언어와 의미
원리 · 헷갈리는 한자어

37 인문 · 역사 서술
원리 · 바꿔 쓰기

38 인문 · 윤리
원리 · 헷갈리는 한자어

39 고전 시가 · 늙음과 세월
원리 · 한자 성어

40 현대 소설 · 사회 현실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41 현대 소설 · 공간과 분위기
원리 · 바꿔 쓰기

42 현대 시 · 이미지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43 고전 산문 · 관리와 백성
원리 · 고전 어휘

44 고전 산문 · 꾀와 속임
원리 · 한자 성어

45 사회 · 국제와 외교
원리 · 헷갈리는 한자어

46 기술 · 데이터와 통계
원리 · 바꿔 쓰기

47 고전 · 여정과 견문
원리 · 고전 어휘

48 수능 어휘 · 생각을 펴는 말
원리 · 헷갈리는 한자어

49 수능 어휘 · 원인과 결과
원리 · 사전적 뜻과 문맥적 뜻

50 수능 어휘 · 정도와 상태
원리 · 바꿔 쓰기

국어농장 읽기 텃밭

책 과정 · 소쉬르1 · 2 · 3

소쉬르1 초1 · 4권 · 24장

1권

1장 안녕, 학교
이야기 「계단 밑 도깨비」 · 노래 「우리 학교 한 바퀴」 · 설명하는 글 「학교에 있는 곳과 하는 일」

2장 내 짝꿍
이야기 「외나무다리의 두 아이」 · 노래 「똑똑똑 누구신가」 · 생활글 「저를 소개합니다」

3장 학교에서 조심해요
이야기 「꼬마 대장장이 바우」 · 노래 「손 씻기 소리」 · 설명하는 글 「가위를 안전하게 쓰는 차례」

4장 하나, 둘, 셋
이야기 「콩을 세는 도깨비」 · 노래 「하나 하면」 · 설명하는 글 「물건마다 다른 세는 말」

5장 굴러가는 모양, 쌓이는 모양
이야기 「모양 마을의 다리」 · 노래 「모양 노래」 · 설명하는 글 「잘 굴러가는 모양과 잘 쌓이는 모양」

6장 우리 가족
이야기 「할머니의 수수께끼」 · 노래 「온 식구 일하는 소리」 · 생활글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2권

7장 이웃과 함께
이야기 「담 너머 두 집」 · 노래 「인사 노래」 · 생활글 「아랫집 할머니께」

8장 우리 친척
이야기 「도윤이의 수첩」 · 노래 「꼬리따기 친척 노래」 · 설명하는 글 「친척을 부르는 말」

9장 받침이 있는 글자
이야기 「받침을 잃어버린 마을」 · 노래 「글자 모양 노래」 · 설명하는 글 「글자를 이루는 자음자, 모음자, 받침」

10장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는 말
노래 「비야 비야 오지 마라」 · 이야기 「소리를 담는 병」 · 설명하는 글 「흉내 내는 말」

11장 더하고 빼고
이야기 「꾀보 할아버지의 셈」 · 노래 「셈 장타령」 · 생활글 「장보기 쪽지」

12장 누가 더 길까
이야기 「나뭇가지 하나로」 · 노래 「반대말 노래」 · 설명하는 글 「비교하는 말」

3권

13장 태극기와 무궁화
설명하는 글 「태극기를 살펴보아요」 · 이야기 「날아간 태극기」 · 노래 「무궁화 노래」

14장 한글을 만든 세종 대왕
이야기 「돌쇠의 손도장」 · 노래 「한글 노래」 · 설명하는 글 「한글날」

15장 한가위 보름달
이야기 「바람을 깨운 보름이」 · 노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 설명하는 글 「추석」

16장 옛날 아이들의 놀이
설명하는 글 「윷놀이 하는 법」 · 이야기 「호랑이와 윷놀이」 · 노래 「강강술래 소리」

17장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야기 「네모 임금님」 · 노래 「모양 수수께끼」 · 설명하는 글 「우리 둘레의 세모, 네모, 동그라미」

18장 몇 시일까
이야기 「바늘이 멈춘 마을」 · 노래 「시곗바늘 노래」 · 생활글 「나의 일요일 계획표」

4권

19장 무늬에 숨은 규칙
이야기 「색동저고리」 · 노래 「색동 노래」 · 설명하는 글 「무늬에 숨은 규칙」

20장 궁금한 것을 알아봐요
이야기 「돋보기 탐험대」 · 노래 「눈 귀 코 손 노래」 · 설명하는 글 「돋보기로 보면」

21장 동물들의 겨울나기
이야기 「첫눈 전날 밤」 · 노래 「겨울나기 노래」 · 설명하는 글 「동물마다 다른 겨울나기」

22장 겨울이 왔어요
이야기 「동장군과 두 아이」 · 노래 「눈 오는 날」 · 설명하는 글 「날씨에 맞는 옷차림」

23장 안전하게 다녀요
이야기 「하린이의 차례」 · 노래 「건널목 노래」 · 설명하는 글 「불이 나면」

24장 나는 이제 2학년
생활글 「1학년 마지막 날」 · 이야기 「일기장이 들려준 이야기」 · 노래 「2학년이 되는 노래」

소쉬르2 초2 · 4권 · 24장

1권

1장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야기 「거꾸로 말하는 아이」 · 노래 「나를 소개하는 노래」 · 생활글 「한서아를 소개합니다」

2장 쑥쑥 자라는 몸
노래 「까치야 까치야」 · 이야기 「지붕 위로 던진 이」 · 설명하는 글 「젖니와 영구치」

3장 오늘 내 마음은
이야기 「말로 전한 마음」 · 노래 「마음 이름 노래」 · 설명하는 글 「마음을 말로 나타내기」

4장 씨앗에서 꽃까지
이야기 「서두르지 않는 씨앗」 · 노래 「씨 뿌리는 소리」 · 설명하는 글 「씨앗이 자라는 차례」

5장 풀숲의 작은 친구들
이야기 「빨간 손님」 · 노래 「풀숲 마을」 · 설명하는 글 「무당벌레를 살펴보면」

6장 지구를 아껴요
이야기 「바스락의 긴 여행」 · 노래 「분리배출 노래」 · 설명하는 글 「쓰레기를 나누어 버리는 법」

2권

7장 백, 십, 일
이야기 「떡 장수 덕보」 · 노래 「꿰미 노래」 · 생활글 「나의 저금 기록표」

8장 칠교 조각으로 만들어요
설명하는 글 「칠교놀이」 · 이야기 「일곱 조각의 밤 여행」 · 노래 「도형 노래」

9장 뼘으로 재고 자로 재고
이야기 「원님의 막대」 · 설명하는 글 「자로 길이를 재는 법」 · 노래 「길이 노래」

10장 끼리끼리 모아요
이야기 「세 며느리의 곳간」 · 설명하는 글 「기준을 정해 나누기」 · 노래 「끼리끼리 노래」

11장 꾸며 주는 말
이야기 「서른 개의 노란 우산」 · 노래 「자세히 말해요」 · 설명하는 글 「자세히 말하는 법」

12장 차례대로 이야기해요
이야기 「단추 하나로 얻은 암탉」 · 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 생활글 「주먹밥 만드는 차례」

3권

13장 우리 마을 한 바퀴
설명하는 글 「마을 그림지도」 · 이야기 「할머니의 지도」 · 노래 「우리 마을 노래」

14장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이야기 「콩이를 찾는 밤」 · 노래 「마을 지키는 소리」 · 설명하는 글 「마을을 지키는 일」

15장 장날 구경
이야기 「하얀 조개껍데기」 · 노래 「장터 노래」 · 생활글 「오일장 장보기 목록」

16장 우리 마을 안전 지도
설명하는 글 「안전 지도 보는 법」 · 이야기 「노란 표지판」 · 노래 「안전 약속 노래」

17장 안녕, 세계의 친구들
설명하는 글 「여러 나라의 인사」 · 이야기 「종이비행기의 인사 여행」 · 노래 「세계 인사 돌림 노래」

18장 세계의 음식
설명하는 글 「먹는 도구」 · 이야기 「한밤의 식탁 시합」 · 노래 「냠냠 노래」

4권

19장 다른 나라 옛이야기
옛이야기 「커다란 순무」(러시아 옛이야기) · 설명하는 글 「옛이야기가 전해진 방법」 · 노래 「런던 다리」(영국 민요, 우리말로 옮김)

20장 구구단을 외워요
설명하는 글 「묶어 세기」 · 옛이야기 「벽에 그은 금」 · 노래 「구구단 노래」

21장 달력 속 시간
옛이야기 「열두 띠 달리기」 · 노래 「열두 달 노래」 · 생활글 「나의 겨울 방학 계획표」

22장 표로 정리해요
생활글 「우리 반이 좋아하는 과일」 · 이야기 「스물일곱 개의 손」 · 설명하는 글 「표를 읽는 법」

23장 겨울을 건강하게
옛이야기 「팥죽 자국 없는 대문」 · 노래 「감기야 오지 마」 · 설명하는 글 「감기를 막는 방법」

24장 우리 반 이야기책
생활글 「내 짝 서윤이를 소개합니다」 · 생활글 「첫눈 오는 날의 눈사람」 · 노래 「삼 학년이 되면」

소쉬르3 초3 · 4권 · 24장

1권

1장 밀고 당기는 힘
옛이야기 「원님의 줄다리기」 · 노래 「줄다리기 소리」 · 설명하는 글 「힘이 하는 일」 · 생활글 「고무줄 자동차 실험 기록」

2장 땅에서, 물에서, 하늘에서
이야기 「연못을 건너려던 닭」 · 동시 「누가 누가 지나갔나」 · 설명하는 글 「사는 곳과 생김새」 · 생활글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관찰 기록」

3장 들에도, 산에도, 물에도
이야기 「바람이 나른 편지」 · 동시 「부레옥잠」 · 설명하는 글 「물에 사는 식물」 · 생활글 「부레옥잠 관찰 일지」

4장 알에서 나비까지
이야기 「번데기 속의 긴 잠」 · 노래 「한살이 노래」 · 설명하는 글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 생활글 「배추흰나비 관찰 일지」

5장 내가 좋아하는 곳
이야기 「느티나무 아래의 이야기」 · 동시 「도서관 창가 자리」 · 설명하는 글 「그림지도」 · 생활글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을 세워 주세요」

6장 오래된 물건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야기 「다락방의 숯다리미」 · 노래 「다듬이 소리」 · 설명하는 글 「옛날 다리미와 오늘날 다리미」 · 생활글 「생활사 박물관 견학 기록」

2권

7장 똑같이 나누어요
옛이야기 「떡 한 판의 판결」 · 노래 「반쪽 반쪽 노래」 · 설명하는 글 「분수」 · 생활글 「햇살초등학교 나눔 장터 안내」

8장 1초, 1분, 1킬로미터
이야기 「1초를 찾아라」 · 노래 「똑딱똑딱 단위 노래」 · 설명하는 글 「길이와 시간의 단위」 · 생활글 「우리 모둠 등굣길 거리 조사」

9장 중심 문장을 찾아요
설명하는 글 「김장」 · 옛이야기 「김칫독을 지킨 밤」 · 동시 「김장하는 날」 · 생활글 「김장 체험 기록」

10장 국어사전에서 찾아요
이야기 「낱말 마을의 길 잃은 손님」 · 노래 「가나다 노래」 · 설명하는 글 「국어사전 찾는 법」 · 생활글 「나의 낱말 수첩」

11장 약속을 지켜요
옛이야기 「반쪽 표주박」 · 동시 「새끼손가락」 · 설명하는 글 「약속을 지키는 까닭」 · 생활글 「약속 일기」

12장 우리 소리, 우리 악기
설명하는 글 「사물놀이 악기」 · 노래 「아리랑」(경기 민요) · 이야기 「징 치는 아이」 · 생활글 「어린이 사물놀이 공연 안내」

3권

13장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옛이야기 「세 장인의 우산」 · 동시 「만져 보면 알아」 · 설명하는 글 「물질마다 다른 성질」 · 생활글 「숟가락 실험 기록」

14장 바다와 갯벌
이야기 「칠게 토독이의 먼 나들이」 · 동시 「갯벌에 가면」 · 설명하는 글 「밀물과 썰물」 · 생활글 「바닷가 마을 갯벌 체험 안내」

15장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이야기 「실 끝의 목소리」 · 동시 「아침 소리」 · 설명하는 글 「소리가 나는 까닭」 · 생활글 「아래층에서 온 쪽지와 우리 집 답장」

16장 감염병을 막아요
이야기 「우두를 들여온 지석영」 · 노래 「기침 예절 노래」 · 설명하는 글 「감염병을 막는 방법」 · 생활글 「보건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17장 여러 문화가 함께
이야기 「할머니 나라의 설날」 · 동시 「두 개의 이름」 · 설명하는 글 「여러 나라의 명절」 · 생활글 「햇살구 세계 문화 축제 안내」

18장 옛날과 오늘날
설명하는 글 「봉수와 파발에서 휴대 전화까지」 · 옛이야기 「봉수대의 불」 · 노래 「열두 달 세시 노래」 · 생활글 「할아버지와 나눈 이야기」

4권

19장 들이와 무게
옛이야기 「두 개의 되」 · 노래 「홉 되 말 노래」 · 설명하는 글 「들이와 무게의 단위」 · 생활글 「엄마와 만든 핫케이크」

20장 그림그래프로 나타내요
생활글 「우리 학교 도서관 대출 조사 보고」 · 설명하는 글 「그림그래프 읽는 법」 · 이야기 「사과 장부」 · 노래 「사과 세기 노래」

21장 사실일까, 생각일까
이야기 「숲속 소문」 · 설명하는 글 「사실과 의견」 · 생활글 「3학년 2반 해바라기 신문」 · 생활글 「광고 — 쑥쑥 우유 과자」

22장 옛 그림 속으로
이야기 「그림 속 씨름판」 · 동시 「그림 속 구경꾼」 · 설명하는 글 「옛 그림을 읽는 방법」 · 생활글 「특별 전시 안내」

23장 몸을 움직이면
이야기 「계곡의 여름」 · 노래 「아침 체조 노래」 · 설명하는 글 「준비 운동은 왜 할까」 · 생활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

24장 마음을 전하는 편지
이야기 「부치지 못한 편지」 · 동시 「우체통」 · 설명하는 글 「편지의 짜임」 · 생활글 「횡단보도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국어농장 추론 연습

책 과정 · 프레게1 · 2 · 3

프레게1 초4 · 2권 · 24단원

1권

1부

1 제목과 차례로 내용 짐작하기
읽기 추론

2 앞뒤 문장으로 낱말 뜻 짐작하기
읽기 추론

3 이야기의 때와 곳 짐작하기
읽기 추론

4 규칙과 사실로 결론 내기
논리 추론

5 단서 여러 개를 모아 결론 내기
논리 추론

6 종합 1
종합

2부

7 인물의 말로 마음 알아내기
읽기 추론

8 행동과 표정으로 마음 알아내기
읽기 추론

9 원인과 결과 짐작하기
읽기 추론

10 생략된 근거 찾기
논리 추론

11 공통점을 찾아 결론 내기
논리 추론

12 종합 2
종합

2권

3부

13 이어질 일 예측하기
읽기 추론

14 표와 자료를 읽고 알아내기
읽기 추론

15 생략된 장면 짐작하기
읽기 추론

16 반례를 찾아 결론 확인하기
논리 추론

17 무리와 성질을 이어 결론 내기
논리 추론

18 종합 3
종합

4부

19 대화 속 숨은 뜻 짐작하기
읽기 추론

20 동시에서 말하는 이와 상황 짐작하기
읽기 추론

21 확실한 것과 짐작인 것 구별하기
읽기 추론

22 조건을 맞추어 답 찾기
논리 추론

23 의견과 까닭이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논리 추론

24 종합 4
종합

프레게2 초5 · 2권 · 24단원

1권

1부

1 문맥으로 낱말 뜻 추론하기
읽기 추론

2 관용 표현과 속담의 뜻 알아내기
읽기 추론

3 생략된 과정 추론하기
읽기 추론

4 두 전제에서 결론 이끌어 내기
논리 추론

5 숨은 전제 찾기
논리 추론

6 종합 1
종합

2부

7 생략된 장면 추론하기
읽기 추론

8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읽기 추론

9 여러 장면을 종합하여 인물의 성격 추론하기
읽기 추론

10 규칙을 거꾸로 적용한 추론 판단하기
논리 추론

11 꼭 있어야 하는 조건과 그것만 있으면 되는 조건 구별하기
논리 추론

12 종합 2
종합

2권

3부

13 인물의 마음 변화 추론하기
읽기 추론

14 배경이 사건에 미친 영향 추론하기
읽기 추론

15 여러 원인과 숨은 원인 추론하기
읽기 추론

16 일반화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
논리 추론

17 유추로 결론 이끌어 내기
논리 추론

18 종합 3
종합

4부

19 설명문의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읽기 추론

20 비유적 표현의 속뜻 추론하기
읽기 추론

21 글과 자료를 함께 읽고 추론하기
읽기 추론

22 여러 조건을 표로 정리하여 추론하기
논리 추론

23 결론이 근거에서 나오는지 판단하기
논리 추론

24 종합 4
종합

프레게3 초6 · 2권 · 24단원

1권

1부

1 함축된 표현의 속뜻 추론하기
읽기 추론

2 돌려 말하기와 반어 이해하기
읽기 추론

3 되풀이되는 사물의 상징 이해하기
읽기 추론

4 이어지는 조건으로 결론 추론하기
논리 추론

5 뒤집어 말하기로 결론 추론하기
논리 추론

6 종합 1
종합

2부

7 작가의 의도 추론하기
읽기 추론

8 갈등의 원인 추론하기
읽기 추론

9 말하는 이가 놓친 사실 추론하기
읽기 추론

10 숨은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
논리 추론

11 새로운 정보로 결론 판단하기
논리 추론

12 종합 2
종합

2권

3부

13 관점이 다른 두 글 비교하며 읽기
읽기 추론

14 자료의 변화에서 원인 짐작하기
읽기 추론

15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생략된 과정 추론하기
읽기 추론

16 함께 일어난 일과 원인 구별하기
논리 추론

17 유추의 적절성 판단하기
논리 추론

18 종합 3
종합

4부

19 복선으로 결말 예측하기
읽기 추론

20 옛 글의 시대와 생활 추론하기
읽기 추론

21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 내리기
읽기 추론

22 논증의 구조 파악하기
논리 추론

23 근거와 전제를 갖추어 주장하는 글 쓰기
논리 추론

24 종합 4
종합

비트겐슈타인 최고난도 독서

책 과정 · 4권 · 200지문

1권 인문 · 예술 50지문

Part A 구조 유형

01 빈 주어 문장의 진리값에 대한 세 견해
02 기적을 전하는 증언에 대한 흄의 비판
03 정의의 원칙과 자아에 대한 롤스와 샌델
04 변칙 사례에 대한 포퍼와 쿤, 라카토슈
05 의도와 예견을 구분하는 이중 효과 원리
06 복제 기술과 대중에 대한 아도르노와 벤야민
07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구조와 평가
08 정당화의 조건에 관한 증거주의와 신빙론
09 선험성과 필연성의 구분과 크립키의 반례
10 타당한 논증과 건전한 논증의 구분
11 허구 문장의 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12 바르트의 신화론과 기호의 두 층위
13 카유아의 놀이 분류와 그 기준
14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개념
15 가족 유사성으로 본 개념의 성립 조건
16 반사실 조건문을 통한 인과의 분석
17 기와 리의 관계에 대한 성리학의 견해
18 지각되는 성질에 대한 로크와 버클리
19 인격 동일성의 기준에 관한 여러 견해
20 자연법 사상의 전개와 실정법과의 관계
21 정약용의 성기호설과 성리학 비판
22 피론과 데카르트, 흄의 회의주의
23 프래그머티즘의 진리관과 그 전개
24 예술의 정의를 둘러싼 이론의 변천
25 선 원근법의 원리와 그 한계
26 피타고라스 음률과 평균율의 조율 원리
27 위상 이동을 이용한 현대 음악의 기법
28 개념 미술의 등장과 작품의 조건
29 비극의 효과에 대한 카타르시스 해석
30 사료의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실전 1회

1 니체의 비극론에 나타난 두 충동
2 확률을 해석하는 네 가지 입장
3 종 차별주의 논쟁과 도덕적 고려의 범위
4 미적 판단의 보편성에 대한 칸트와 흄

실전 2회

1 기원 본질주의와 개체의 필연적 속성
2 조선의 소원 제도와 그 운영
3 귀납의 정당화와 새로운 수수께끼
4 사회 계약에 대한 홉스와 루소의 견해

실전 3회

1 생략된 전제를 찾는 논증의 재구성
2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과 현존재
3 노직의 소유 권리론과 분배 정의
4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맹자와 순자

실전 4회

1 동시 대비 현상과 오르피즘 회화
2 총합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
3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과 검증 원리
4 사진의 기록성에 대한 두 이론

실전 5회

1 자기 지시 문장이 낳는 역설
2 결정론과 자유 의지의 양립 가능성
3 이집트 미술의 정면성 원리
4 심신 관계에 대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2권 사회 50지문

Part A 구조 유형

01 조세의 귀착과 탄력성
02 가격 차별의 성립 조건과 탄력성
03 신용 창조와 통화 승수
04 비교 우위에 따른 무역의 이익
05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그 역설
06 통화 정책의 준칙과 테일러 준칙
07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
08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의 해석
09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이중차분법
10 기후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과 할인율
11 국제 금융의 불가능한 삼위일체
12 거부권 행위자와 정책 변화의 조건
13 정보 비대칭에서의 신호와 선별
14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의 요건
15 소멸 시효와 제척 기간의 차이
16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과 효과
17 연대 채무와 보증 채무의 비교
18 행정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19 착오 송금과 부당 이득의 반환
20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판단
21 외부 효과에 대한 피구세와 코즈 정리
22 공유 자원의 관리에 대한 하딘과 오스트롬
23 비례 원칙과 위헌 심사의 강도
24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한계
25 사실의 착오에 관한 두 학설
26 투표의 역설과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27 일탈을 설명하는 긴장 이론과 낙인 이론
28 메인의 법적 의제와 법의 변화
29 매디슨의 공화정론과 파벌의 통제
30 프로스펙트 이론의 가치 함수와 준거점

실전 1회

1 정부 부채의 범위와 비율 지표
2 경매 방식의 차이와 승자의 저주
3 저작권의 공정 이용 판단 기준
4 유동성 함정과 양적 완화

실전 2회

1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2 반복 게임에서 협력이 생기는 조건
3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그 제한
4 베버의 관료제와 네트워크 조직

실전 3회

1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비교
2 옵션 계약의 구조와 가격 결정
3 조약의 유보와 그 효력
4 중위 투표자 정리와 방향성 투표 이론

실전 4회

1 필립스 곡선과 기대의 역할
2 사용자 책임과 공동 불법 행위
3 심슨의 역설과 교란 변수
4 혐오 표현의 규제와 사상의 자유 시장론

실전 5회

1 환율 변동과 무역 수지의 J 곡선
2 행정 행위의 공정력과 하자의 승계
3 최저 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논쟁
4 인지 편향과 행동 재무학의 설명

3권 과학 · 기술 50지문

Part A 구조 유형

01 블룸 필터의 판정 원리와 한계
02 표피 효과의 원인과 그 활용
03 폐포의 표면 장력과 계면 활성제
04 효소 반응 속도의 포화와 저해
05 하디-바인베르크 법칙과 평형 조건
06 양자점의 크기와 발광 색
07 열기관의 효율과 카르노 한계

08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와 안정 조건
09 홀 효과의 원리와 홀 센서
10 노출의 세 요소와 사진의 변화
11 후성 유전의 조절 방식과 항암제
12 적응 면역의 클론 선택과 기억
13 오존층 파괴의 연쇄 반응과 규제
14 지자기 역전의 기록과 해저 확장
15 혈당 조절의 되먹임과 당뇨병
16 해양 산성화와 탄산염 평형
17 활동 전위의 발생과 전도
18 핵분열 연쇄 반응의 제어
19 항생제 내성의 발생과 자연 선택
20 지진파의 도달 시간과 진앙 결정
21 가상 메모리의 페이지 교체 방식
22 아가미의 역류 교환과 물속 호흡
23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샤딩과 복제
24 C4 식물과 CAM 식물의 광호흡 회피
25 삼원 촉매의 작동과 공연비 제어
26 오류 검출 부호와 해밍 부호
27 위성 항법의 거리 측정과 오차 보정
28 리튬 이온 전지의 열화 기구
29 진동 차단의 원리와 감쇠의 효과
30 태양 전지의 띠 간격과 효율 한계

실전 1회

1 미라쿨린의 작용과 맛의 지각
2 초전도와 초유체의 발견과 설명
3 스테가노그래피의 삽입 방식과 탐지
4 밀란코비치 주기와 기후 되먹임

실전 2회

1 단백질 접힘과 샤페론의 역할
2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
3 허프만 부호의 구성과 평균 길이
4 코호트 연구와 힐의 인과 판단 기준

실전 3회

1 기초 감염 재생산수와 집단 면역 문턱
2 단열 변화와 푄 현상
3 공개 키 암호의 원리와 전자 서명
4 적응주의와 스팬드럴 논쟁

실전 4회

1 임상 시험의 대조군과 맹검
2 p-n 접합의 정류 작용
3 협업 필터링의 유사도와 예측
4 항상성과 알로스테이시스

실전 5회

1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의 원리와 한계
2 레이저의 유도 방출과 밀도 반전
3 과적합을 줄이는 기계 학습의 방법
4 열역학 제2법칙과 맥스웰의 도깨비

4권 주제 통합 · 융합 50지문

Part A 구조 유형

01 평행선 공준과 비유클리드 기하
02 가설 검정의 p값과 유의 수준
03 종-면적 관계와 보호 구역 설계 논쟁
04 알고리즘 판정의 공정함에 관한 세 기준
05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 지능 검사 논쟁
06 대기의 굴절과 신기루의 형성
07 기억의 재구성 / 목격자 증언과 재판 절차
08 공공재의 성질과 무임승차 문제
09 이중 유전 이론 / 사회 학습의 실험
10 지도 투영법의 왜곡과 메르카토르 도법
11 번역의 불확정성 / 기계 번역의 작동
12 데시벨의 정의와 소리의 합성
13 정당한 전쟁의 두 층위 / 인도적 개입
14 대기 행렬의 이용률과 대기 시간
15 조판이 정하는 것 / 읽기 쉬움의 측정
16 초의 정의 변화와 윤초

17 희소성과 가격 / 장기 이식의 배분 기준
18 메타머와 색의 성립 조건
19 법의 일반성과 재량 / 양형 기준의 도입
20 표본 오차와 치우침의 구별
21 감정의 신체 이론 / 감정의 구성 이론
22 금속의 피로 파괴와 안전 계수
23 국내 총생산의 규칙과 한계 / 대안 지표
24 표본화 조건과 접힘 현상
25 구별 짓기와 문화 자본 / 문화적 잡식성
26 맬서스의 인구론과 녹색 혁명
27 집적의 이익 / 혼잡의 비용
28 유전자 검사의 침투율과 위험의 표시
29 기억의 터와 기념 / 역사 서술의 선택
30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망의 균형

실전 1회

1 지하수의 함양과 지속 가능한 취수
2 약물의 반감기와 투여 간격
3 표준 필수 특허와 프랜드 확약
4 언어와 사고의 관계 / 색 이름 연구

실전 2회

1 채찍 효과의 원인과 대책
2 형상 기억 합금의 두 가지 꼴과 쓰임
3 법인의 형사 책임과 양벌규정의 단서
4 칸트의 의무 / 자율 주행차의 규칙

실전 3회

1 연안 표사와 해안 침식 대책
2 냄새의 조합 부호화와 농도의 영향
3 상표의 혼동 가능성과 희석
4 법의 구속력 / 절차의 공정함과 준법

실전 4회

1 미세 먼지 농도의 측정과 기준
2 블록체인의 작업 증명과 합의
3 자백의 증거 능력과 보강 법칙
4 문화재의 복원 / 위작을 가려내는 과학

실전 5회

1 혈액 투석의 두 원리와 조절
2 연금의 두 방식과 인구 구조
3 국적 결정의 두 기준과 귀화
4 과학의 가치 중립 / 기술 영향 평가

고전문학 읽기

책 과정 · 러셀 · 비트겐슈타인

러셀 2권 · 40꼭지

① 고전시가

01 임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고대 가요
고대 가요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02 집단의 소망과 개인의 서정을 담은 고대 가요
고대 가요 묶음 · 구간과 백성들 「구지가」 · 유리왕 「황조가」

03 남편의 무사함을 비는 백제 가요
백제 가요 ·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혼자 1 거북을 부르는 신라의 노래(「해가」)

04 떠나는 임을 보내는 여인의 노래
고려 가요 · 작자 미상 「가시리」

05 열두 달에 담은 임을 향한 마음
고려 가요 · 작자 미상 「동동」

혼자 2 호미와 낫이 나오는 고려 가요(「사모곡」)

06 고려 왕조를 돌아보는 회고가와 절의가
평시조 묶음 · 길재 「오백 년 도읍지를」 ·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 원천석 「눈 맞아 휘어진 대를」

07 변하지 않는 마음을 노래한 절의가
평시조 묶음 ·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며」(하여가) ·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단심가) ·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 · 박팽년 「가마귀 눈비 맞아」

08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한 기녀 시조
평시조 묶음 ·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 홍랑 「묏버들 가려 꺾어」 · 계랑 「이화우 흩뿌릴 제」

09 배꽃 핀 봄밤과 황진이의 시조
평시조 묶음 ·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야」 · 황진이 「어져 내 일이야」

10 자연 속 소박한 삶을 노래한 시조
평시조 묶음 · 송순 「십 년을 경영하여」 · 한호 「짚방석 내지 마라」 · 성혼 「말 없는 청산이요」

혼자 3 사육신 이개의 시조(「방 안에 혓는 촛불」)

11 사계절의 강호 생활을 노래한 연시조(「강호사시가」)
연시조 · 맹사성 「강호사시가」

12 다섯 벗의 덕을 기린 연시조(「오우가」)
연시조 · 윤선도 「오우가」

13 백성을 가르치려고 지은 연시조(「훈민가」)
연시조 · 정철 「훈민가」

혼자 4 눈 속에 핀 매화를 노래한 연시조(「매화사」)

14 웃음 속에 세상을 비꼰 사설시조
사설시조 묶음 · 작자 미상 「두꺼비 파리를 물고」 · 작자 미상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15 서민의 슬픔과 하루를 담은 사설시조
사설시조 묶음 · 작자 미상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뫼에」 · 작자 미상 「논밭 갈아 김매고」

혼자 5 귀뚜라미를 부르는 노래(「귓도리 져 귓도리」)

16 봄을 즐기는 노래(「상춘곡」)
가사 · 정극인 「상춘곡」

17 달마다 농가의 일을 노래한 가사(「농가월령가」)
가사 · 정학유 「농가월령가」

18 어리석은 양반을 꾸짖은 가사(「우부가」)
가사 · 작자 미상 「우부가」

혼자 6 화전놀이를 노래한 규방 가사(「화전가」)

19 웃음으로 풀어낸 시집살이(「시집살이 노래」)
민요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20 대동강 가의 이별을 노래한 한시(「송인」)
한시 · 정지상 「송인」

혼자 7 가야산에서 지은 한시(「제가야산독서당」)

② 고전산문

01 나라를 세운 시조의 신화(「단군 신화」 · 「주몽 신화」)
신화 · 작자 미상 「단군 신화」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02 꿈속에서 오십 년을 산 승려의 이야기(「조신 설화」)
설화 · 작자 미상 「조신 설화」

03 왕의 위협에도 절개를 지킨 아내의 이야기(「도미 설화」)
설화 · 작자 미상 「도미 설화」

04 활빈당을 이끈 영웅 길동의 이야기(「홍길동전」)
고전 소설 · 허균 「홍길동전」

05 피화당에서 오랑캐를 물리친 박씨 부인(「박씨전」)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박씨전」

06 도술로 임금을 속인 전운치(「전우치전」)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혼자 1 꿈에 다녀온 요지의 잔치(「숙향전」)

07 양반 신분을 사고판 이야기(「양반전」)
한문 소설 · 박지원 「양반전」

08 만 냥을 빌려 장사에 나선 선비(「허생전」)
한문 소설 · 박지원 「허생전」

혼자 2 거지 광문의 이야기(「광문자전」)

09 광한루에서 만난 춘향과 이 도령(「춘향전」)
판소리계 소설 · 작자 미상 「춘향전」

10 수숫대 집에 사는 흥부와 심술궂은 놀부(「흥부전」)
판소리계 소설 · 작자 미상 「흥부전」

11 윗자리를 다투는 짐승들의 잔치(「두껍전」)
우화 소설 · 작자 미상 「두껍전」

12 인당수로 떠나는 효녀 심청(「심청전」)
판소리계 소설 · 작자 미상 「심청전」

13 행랑채를 고치고 배나무를 보며(「이옥설」 · 「접과기」)
고전 수필 · 이규보 「이옥설」 · 이규보 「접과기」

14 손님과 주고받은 두 문답(「슬견설」·「경설」)
고전 수필 · 이규보 「슬견설」 · 이규보 「경설」

15 말을 빌려 타고 배를 건너며(「차마설」·「주뢰설」)
고전 수필 · 이곡 「차마설」 · 이규보 「주뢰설」

16 사람이 되어 벼슬한 돈(「공방전」)
가전체 · 임춘 「공방전」

17 바느질 도구 일곱 벗의 다툼(「규중칠우쟁론기」)
고전 수필 ·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

18 부러진 바늘을 애도하는 글(「조침문」)
고전 수필 · 유씨 부인 「조침문」

혼자 3 이상한 관상가의 대답(「이상자대」)

19 양반 삼 형제를 놀리는 말뚝이(「봉산 탈춤」)
민속극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20 본처와 첩 사이의 표 생원(「꼭두각시놀음」)
민속극 ·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비트겐슈타인 2권 · 40꼭지

① 고전시가

01 죽은 누이를 추모한 10구체 향가
향가 · 월명사 「제망매가」

02 기파랑과 죽지랑을 기린 향가
향가 묶음 · 충담사 「찬기파랑가」 · 득오 「모죽지랑가」

03 서경과 대동강에서 부른 이별 노래
고려 가요 · 작자 미상 「서경별곡」

04 청산과 바다를 떠도는 이의 노래
고려 가요 · 작자 미상 「청산별곡」

05 임과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 가요와 선비들의 경기체가
고려 가요 · 경기체가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한림 제유 「한림별곡」

혼자 1 구운 밤 닷 되를 심는 고려 가요(「정석가」)

06 무릉도원과 요순시대를 떠올린 시조
평시조 · 사설시조 · 묶음조식 「두류산 양단수를」 · 김천택 「요일월 순건곤은」 · 작자 미상 「대장부 공 이루고」

07 청산 · 매화 · 달에 마음을 담은 평시조
평시조 묶음 · 황진이 「청산은 내 뜻ㅅ功이오」 · 매화 「매화 녯 등걸에」 · 정철 「내 ᄆᆞ · 음 버혀 내여」

08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려는 평시조
평시조 묶음 · 박효관 「님 글인 상사몽이」 · 호석균 「쑴ㅁ司에나 님을 볼려」 · 작자 미상 「연못에 비 오는 소리」

혼자 2 냇가와 무덤가에서 부른 평시조 두 수

09 자연에서 일어나는 흥을 노래한 연시조(「만흥」)
연시조 · 윤선도 「만흥」

10 어부의 네 계절을 노래한 연시조(「어부사시사」)
연시조 · 윤선도 「어부사시사」

11 자연 속의 뜻과 배움을 노래한 연시조(「도산십이곡」)
연시조 · 이황 「도산십이곡」

12 고산의 아홉 굽이를 노래한 연시조(「고산구곡가」)
연시조 · 이이 「고산구곡가」

혼자 3 물러나 살던 선비의 시조 다섯 수(「방옹시여」)

13 임을 기다리는 마음과 답답한 가슴을 노래한 사설시조
사설시조 묶음 · 작자 미상 「님이 오마 ᄒᆞ · 거놀 ᄅᆞᆯ 台」 · 작자 미상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

14 얄미운 개와 칡넝쿨에 빗댄 사랑의 사설시조
사설시조 묶음 · 작자 미상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 이정보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혼자 4 연을 날리며 부른 사설시조 두 수

15 두 여인의 대화로 임을 그리워한 가사(「속미인곡」)
가사 · 정철 「속미인곡」

16 계절마다 임을 그리워한 가사(「사미인곡」)
가사 · 정철 「사미인곡」

17 관찰사의 여정을 노래한 기행 가사(「관동별곡」)
가사 · 정철 「관동별곡」

혼자 5 섬에 유배된 선비가 이어 부른 사미인곡(「속사미인곡」)

18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규방 가사(「규원가」)
가사 · 허난설헌 「규원가」

19 소 한 마리를 빌리지 못한 선비의 가사(「누항사」)
가사 · 박인로 「누항사」

혼자 6 북쪽 변방을 다닌 어사의 가사(「북새곡」)

20 나라의 앞날과 옛 왕조를 노래한 악장과 한시
악장 · 한시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 이색 「부벽루」

혼자 7 산골 백성의 집에 들른 선비의 한시(「산민」)

② 고전산문

01 꽃의 왕 앞에 나선 두 인물(「화왕계」)
우언 · 설총 「화왕계」

02 술을 사람으로 그린 두 전(「국순전」 · 「국선생전」)
가전 · 임춘 「국순전」 · 이규보 「국선생전」

03 서해의 신을 구한 명궁(「거타지 설화」)
설화 · 작자 미상 「거타지 설화」

혼자 1 거북의 일생(「청강사자현부전」)

04 죽어서 돌아온 아내와의 이별(「이생규장전」)
전기 소설 · 김시습 「이생규장전」

05 부처와의 내기로 만난 여인(「만복사저포기」)
전기 소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06 안남 바다에서 다시 만난 부부(「최척전」)
한문 소설 · 조위한 「최척전」

07 한바탕 꿈에서 깨어난 성진(「구운몽」)
국문 소설 · 김만중 「구운몽」

08 잠만 자는 영웅(「소대성전」)
영웅 소설 · 작자 미상 「소대성전」

09 수성궁 담을 넘은 사랑(「운영전」)
한문 소설 · 작자 미상 「운영전」

10 장터의 노인과 관산의 도사(「조웅전」)
영웅 소설 · 작자 미상 「조웅전」

11 남관장의 장계와 영정루 싸움(「홍계월전」)
영웅 소설 · 작자 미상 「홍계월전」

12 변수 가의 천자와 원수(「유충렬전」)
영웅 소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혼자 2 용궁의 싸움에 나선 진옥(「김진옥전」)

13 과거 길의 선군과 동별당의 숙영(「숙영낭자전」)
판소리계 소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14 자루 속의 거문고(「배비장전」)
판소리계 소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15 토 선생 대신 호 생원을 부른 별주부(「수궁가」)
판소리 · 작자 미상 「수궁가」

16 나를 지키는 집(「수오재기」)
고전 수필 · 정약용 「수오재기」

17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너며(「일야구도하기」)
고전 수필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18 귀경대의 달맞이와 해돋이(「동명일기」)
고전 수필 · 의유당 「동명일기」

혼자 3 흙방을 허문 이야기(「괴토실설」)

19 양반을 돼지처럼 몬 쇠뚝이(「양주 별산대놀이」)
민속극 · 작자 미상 「양주 별산대놀이」

20 팔대부의 자손이라는 선비(「하회 별신굿 탈놀이」)
민속극 · 작자 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선택지 18패턴

책 과정 · 독서편 · 문학편 · 실전편

독서편

D1 섞어치기
두 대상의 설명을 서로 바꾸어 붙인다

D2 부정 표현 · 상대어
지문에 없는 반대말로 진술을 뒤집는다

D3 누가 · 누구의 · 누구를
행위의 주체와 대상, 소유 관계를 바꾼다

D4 순서 · 방향
과정의 차례나 이동의 방향을 거꾸로 세운다

D5 인과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거나 엉뚱하게 잇는다

D6 의도 · 목적
인물이 그렇게 한 까닭을 바꾸어 붙인다

D7 상관관계
'-할수록'의 비례 · 반비례를 뒤집는다

D8 필요조건
'-여야만'의 조건 관계를 잘못 세운다

D9 결합 · 분리
함께여야 참인 것을 떼거나, 따로인 것을 묶는다

D10 케이스
지문이 나눈 경우를 다른 경우에 갖다 붙인다

맺음 열 패턴 한눈에 보기
선지를 명제로 나누고, 거짓인 까닭을 패턴으로 설명한다

문학편

L1 긍정 · 부정 뒤집기
시어 · 인물 · 태도에 대한 평가를 반대로 말한다

L2 대립항 섞어치기
서로 맞서는 두 대상의 속성을 뒤섞는다

L3 누가 · 누구의 · 누구를
화자 · 인물의 주체와 대상을 바꾼다

L4 순서 · 방향
사건의 선후, 시선 · 생각의 방향을 뒤집는다

L5 의도 · 목적
근거 없는 의도를 인물에게 덧붙인다

L6 인과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잘못 잇는다

L7 결합 · 분리
따로인 속성을 합치거나 하나인 것을 나눈다

L8 했느냐 안 했느냐
바람 · 가정 · 상상을 실제로 한 일처럼 말한다

맺음 여덟 패턴 한눈에 보기
선지를 명제로 나누고, 거짓인 까닭을 패턴으로 설명한다

실전편

1회 반자유의지 논증
독서 · 인문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13번

2회 경마식 보도와 선거 방송 토론회
독서 · 사회 · 2024학년도 수능 4~7번

3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이용후기 광고
독서 · 법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4~7번

4회 기초 대사량과 클라이버의 법칙
독서 · 과학 · 2023학년도 수능 14~17번

5회 수정 진동자와 초정밀 저울
독서 · 기술 ·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8~11번

6회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독서 · 예술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19번

7회 유치환 「채전」 · 나희덕 「음지의 꽃」
문학 · 현대시 · 2023학년도 수능 31~34번

8회 구강 「북새곡」 · 사설시조 두 수
문학 · 고전 시가 · 2026학년도 수능 31~34번

9회 박태원 「골목 안」
문학 · 현대 소설 · 2024학년도 수능 28~31번

10회 조위한 「최척전」
문학 · 고전 소설 · 2023학년도 수능 18~21번

11회 「도산십이곡」 · 「지수정가」 · 「겸재의 빛」
문학 · 갈래 복합 · 2023학년도 수능 22~26번

12회 「독 짓는 늙은이」 시나리오와 원작
문학 · 극 · 소설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24번

내신 서술형 연습

책 과정 · 프레게 · 러셀 · 비트겐슈타인

프레게 3권 · 60장

비문학

1 핵심어와 중심 문장 찾기
문단의 설명 대상 · 중심 문장 · 뒷받침 내용

2 문단 요약, 삭제와 선택
반복되는 내용 지우기 · 예시 지우기 · 중심 문장 고르기

3 문단 요약, 일반화와 재구성
구체적인 사례를 묶는 말 · 중심 문장 새로 만들기 · 두 문단을 아우르기

4 글의 구조에 맞게 요약하기
처음 · 중간 · 끝 · 관련 있는 문단끼리 묶기 · 묶은 부분 요약하기

5 읽기 목적에 맞게 요약하기
읽기 목적 확인하기 · 필요한 문단 고르기 · 목적에 맞게 정리하기

6 글 전체를 한 문단으로 요약하기
도입 · 근거 · 주장의 짜임 · 예시 빼기 · 이어 주는 말

7 설명 방법 찾기와 그 효과
분류 · 대조 · 인용 · 설명 방법을 쓴 부분 · 효과

8 정보 전달 글, 자료를 골라 활용하기
선별 기준 · 주제와 관련 · 출처와 믿음 · 비슷한 정보 통합하기

9 정보 전달 글, 짜임과 개요
처음 · 중간 · 끝 · 개요에 자료 배치하기 · 주제에서 벗어난 자료 · 개요 고치기

10 정보 전달 글, 고쳐 쓰기와 출처
출처가 빠진 문장 고치기 · 도표를 넣은 효과 · 참고 자료와 쓰기 윤리

11 추론하며 읽기, 글쓴이의 관점
관점이 드러난 표현 · 비교하여 쓴 의도 · 사례를 든 의도

12 추론하며 읽기, 생략된 내용
생략된 내용 채우기 · 앞뒤 문장을 근거로 · 표현에 담긴 생각

13 주장하는 글, 주장과 근거 찾기
서론 · 본론 · 결론 · 주장 문장 · 근거 ·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14 주장하는 글, 근거 자료 판단하기
주장과 관련 있는가 · 믿을 만한가 · 객관적인가 · 근거로 쓸 수 없는 자료

15 주장하는 글, 고쳐 쓰기
주관적 표현 · 모호한 표현 · 근거가 아닌 문장 · 맞춤법 · 제목 고치기

16 토의, 의견과 해결 방안
토의 주제 · 토의자의 의견과 근거 · 의견 교환 · 절충안

17 토의, 참여자의 태도와 사회자
토의 예절에 어긋난 말하기 · 사회자의 말 · 대안을 내는 참여자

18 매체, 두 방송을 기준에 따라 비교하기
방송을 만드는 사람 · 방송하는 내용 · 시청자와의 소통 방식 · 영향력

19 매체, 영향력을 따지며 받아들이기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 · 사례 나누기 · 생산자와 수용자의 태도

20 추론하며 듣기, 전문가의 관점과 가치관
일반적인 생각과 전문가의 생각 · 관점이 드러난 표현 · 가치관 · 말하는 이의 의도

문학

1 조건 읽기, 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조건 나누어 읽기 · 무엇을 무엇에 빗대었나 · 꼭 넣을 말 · 한 문장

2 반복과 운율, 되풀이되는 말 찾기
같은 소리 · 같은 끝말 · 비슷한 짜임 · 반복이 담은 뜻

3 감각적 표현, 어떤 감각으로 그렸나
빗대어 표현한 장면 · 눈으로 · 귀로 · 흉내 내는 말

4 비유, 무엇을 무엇에 빗대었나
빗대어진 대상 · 빗댄 대상 · 두 쪽에 다 맞는 닮은 점

5 의인 표현, 사람처럼 나타내기
사람처럼 하는 행동 찾기 · 같은 행동은 하나로 · 사람의 삶으로 넓히기

6 상징, 시어가 뜻하는 것
사물의 모습 · 그 모습이 가리키는 삶 · 말하는 이의 반성

7 말하는 이의 마음과 다짐
말하는 이가 한 일 · 들은 소리 · 그 속에 담긴 다짐

8 관용 표현과 시의 뜻
관용 표현의 본래 뜻 · 시가 새로 준 뜻 · 엄마의 말에서 찾은 까닭

9 인물의 마음, 말과 행동에서 찾기
행동 그대로 옮기지 않기 · 앞뒤의 말에서 까닭 찾기 · 마음의 이름 붙이기

10 인물의 바람과 그 까닭
이 장면에서의 바람 · 대사에서 찾은 까닭 · 바람을 위해 무릅쓴 것

11 갈등, 무엇과 무엇이 부딪치나
누구와 누구의 갈등 · 원인은 양쪽에서 · 갈등이 풀리는 계기

12 인물의 변화, 처음과 나중
처음의 마음 · 나중의 마음 · 그 사이의 계기

13 근거 찾아 그대로 쓰기, 문장과 어절
어절 세기 · 한 글자도 바꾸지 않기 ·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 찾기

14 이야기의 차례, 사건을 간추리기
중심 사건 고르기 · 원인과 결과 잇기 · 일어난 차례대로

15 제목의 뜻, 아름다운 흉터
어울리지 않는 두 말 · 생각이 바뀐 계기 · 흉터가 뜻하는 것

16 수필, 경험과 깨달음
겪은 일 · 마음속 갈등 · 경험 끝의 깨달음

17 수필, 마음과 그 까닭
마음을 나타내는 말 찾기 · 까닭은 글쓴이의 말에서 · 마음의 이름과 근거

18 수필, 대상에 담긴 마음
대상과 사람의 행동 · 대상에 담긴 마음 · 그 마음을 이해한 '나'

19 수필, 고마운 사람과 그 영향
고마운 일 · 고마움이 큰 까닭 · 지금의 나에게 남은 영향

20 감상 쓰기, 내 경험과 관련지어
글쓴이의 깨달음 · 깨달음의 계기 · 내 경험과 잇기 · 잘못된 감상 고치기

문법

1 품사, 형태에 따라 나누기
품사의 분류 기준 · 가변어와 불변어 · 기능과 의미로 나누기

2 체언, 명사 · 대명사 · 수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 · 양수사와 서수사 · 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

3 관계언, 조사가 하는 일
조사의 개념과 특성 ·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4 용언, 기본형과 활용
동사와 형용사 · 기본형 찾기 · 형용사에 붙지 않는 어미

5 수식언, 관형사와 부사
꾸며 주는 말 찾기 · 관형사와 부사 구별하기 · 부사를 넣은 효과

6 독립언, 감탄사
감탄사 찾기 · 놀람이나 느낌 · 부름 · 응답 · 감탄사를 쓴 효과

7 문장 속 단어의 품사 모두 쓰기
단어로 나누기 · 조사도 한 단어 · 아홉 품사 쓰기 · 같은 꼴 다른 품사

8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
단어와 형태소 · 형태소로 나누기 · 단어 수와 형태소 수

9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홀로 쓰이는가 ·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 · 같은 소리 다른 형태소

10 단일어와 복합어
어근과 접사 · 하나의 어근으로 된 말 · 둘 이상이 결합한 말 · 잘못된 분석 고치기

11 합성어와 파생어
어근 + 어근 · 어근 + 접사 · 접두사와 접미사 · 접사가 더하는 뜻

12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법
새말이 만들어지는 까닭 · 합성과 파생 · 첫 말 따기와 일부 잘라 결합하기

13 외국어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기
차용한 새말 · 다듬은 말 만들기 · 단어의 짜임 활용 · 다듬어야 하는 까닭

14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
같은 뜻, 다른 말 찾기 · 어휘 변이와 팽창 · 낯선 어휘의 뜻 짐작하기

15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
전문어 · 전문어를 쓰는 까닭 · 분야 밖의 사람에게 쉽게 풀어 말하기

16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
온라인 대화의 특성 · 줄임말과 인터넷 용어 · 상대에 맞게 고쳐 쓰기

17 속담, 뜻을 알고 상황에 맞게
말과 관련된 속담 · 속담의 뜻 · 의미가 다른 속담 ·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

18 동음이의어, 사전으로 뜻 찾기
동음이의어 · 사전의 뜻풀이 · 오해 없이 고쳐 쓰기 · 다의어와 비교하기

19 담화의 구성 요소
화자 · 청자 · 내용 · 맥락 · 청자에 따라 달라지는 말

20 담화의 맥락, 숨겨진 의도 추론하기
추론하며 듣기 · 맥락과 비언어적 표현 · 표면적인 뜻과 숨겨진 의도

러셀 3권 · 60장

비문학

1 문단의 중심 내용 요약하기
설명하는 글 · 박상국, 「오랜 세월 보물을 지킨 장경판전」

2 읽기 목적에 맞게 요약하기
설명하는 글 · 「식물의 미래를 지키는 시드볼트」

3 핵심 정보 찾아 쓰기
설명하는 글 · 최낙언, 「우리는 왜 매운맛에 빠질까」

4 설명 방법과 그 효과
설명하는 글 · 「바닷속 친구 돌고래, 어디까지 알고 있니」

5 원리와 까닭 설명하기
설명하는 글 · 손영운, 「야구 선수들은 왜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것일까?」

6 주장과 이유, 근거 구별하기
주장하는 글 · 양은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도 괜찮을까?」

7 논증 방법과 그 짜임 밝혀 쓰기
주장하는 글 · 「보행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채운, 「기다려라, 그 순간을 위해!」

8 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하기
주장하는 글 · 「모두를 배려하는 현금 있는 사회」

9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설명하는 글 · 김영옥,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

10 글쓴이의 관점과 그 단서 추론하기
주장하는 글 ·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

11 그래프 자료 읽고 그 효과 쓰기
복합양식의 글 · 「인공 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까」

12 같은 화제를 다룬 두 글의 관점 비교하기
주장하는 글 · 「잊힐 권리 법제화, 시급해」, 「잊힐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13 토론의 쟁점과 맞선 주장 정리하기
토론 ·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관한 가상 토론」

14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 자료 고르기
발표 ·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듣기」 학습 활동

15 공감하며 대화하는 말로 바꾸어 쓰기
대화 ·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기」 학습 활동

16 토의 참여자의 발언 점검하고 고쳐 말하기
토의 · 「토의하기」 학습 활동

17 고쳐 쓸 곳 찾아 까닭 밝히기
고쳐 쓰기 · 유나의 초고 「약과, 어디까지 알고 있니?」

18 쓰기 계획에 맞게 자료를 고르고 개요 다듬기
설명하는 글 쓰기 · 동빈이의 「라면을 소개합니다」 쓰기 과정

19 인용의 효과와 출처 밝히기
인용과 쓰기 윤리 · 「인용 표현의 사용 의도와 효과」 학습 활동

20 광고의 의도와 관점을 단서로 추론하기
매체 · 공익 광고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계십니까?」

문학

1 〈조건〉을 읽는 법
현대 시 · 윤동주, 「새로운 길」

2 시어의 뜻을 근거와 함께
현대 시 · 이성선, 「사랑하는 별 하나」

3 원관념과 보조 관념
현대 시 · 오규원, 「3월」

4 운율을 만드는 방법과 효과
현대 시 · 김선우, 「맨드라미」

5 자연물에 담긴 상징
고시조 · 윤선도, 「오우가」

6 소설 속 소재의 의미
현대 소설 · 황순원, 「소나기」

7 말하는 이의 처지와 소망
현대 시 · 나희덕, 「귀뚜라미」

8 반어의 이름과 효과
현대 시 · 김소월, 「먼 후일」

9 역설에 담긴 진실
현대 시 · 고재종, 「첫사랑」

10 인물의 마음과 그 근거
현대 소설 · 현덕, 「하늘은 맑건만」

11 갈등의 종류와 원인
현대 소설 · 장주식, 「먹고 싶다, 수박」

12 인물의 변화와 성장
현대 소설 · 진형민, 「멍키 스패너」

13 서술자의 특성과 효과
현대 소설 · 김유정, 「동백꽃」

14 근거를 찾아 그대로 쓰기
현대 소설 · 문이소, 「목요일엔 떡볶이를」

15 풍자의 대상 찾기
고전 소설 · 박지원, 「양반전」

16 작품에 반영된 사회 · 문화적 상황
시나리오 · 엄유나, 「말모이」

17 시대 상황과 인물의 삶
현대 소설 · 하근찬, 「수난이대」

18 수필의 경험과 깨달음
수필 · 「버려진 두부와 내 엄지발톱」

19 우의와 풍자
희곡 · 이강백, 「파수꾼」

20 주제를 한 문장으로
현대 소설 · 박상기, 「옥수수 빵소니」

문법

1 품사를 나누는 세 기준
품사 · 형태 · 기능 · 의미

2 같은 말, 다른 품사
품사 · 수사와 수 관형사

3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기
품사 · 용언의 활용

4 보조사가 더하는 뜻
품사 · 조사

5 단어의 짜임 분석하기
단어 · 어근과 접사

6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어휘 · 어휘의 체계

7 세대와 분야에 따른 어휘
어휘 · 어휘의 양상

8 관용 표현 바꾸어 쓰기
어휘 · 관용 표현

9 자음의 위치와 방법
음운 · 자음 체계

10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음운 · 자음의 세기

11 단모음을 나누는 세 기준
음운 · 모음 체계

12 자음자를 만든 원리
한글 · 상형 · 가획 · 이체

13 모음자를 만든 원리
한글 · 상형 · 합성

14 훈민정음 창제 정신
한글 · 「어제 서문」

15 한글의 특성과 장점
한글 · 문자 체계

16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문법 요소 · 피동 표현

17 피동 표현을 쓰는 까닭
문법 요소 · 피동 표현의 의도와 효과

18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문법 요소 · 인용 표현

19 홑문장과 겹문장
문장 · 문장의 짜임

20 같은 말, 다른 뜻
담화 · 상황 맥락

비트겐슈타인 3권 · 60장

비문학

1 핵심 정보로 빈칸 채우기
윗글에서 찾아 쓰기 · 어절 수 조건 · 근거 문단 밝히기

2 원인과 결과의 고리 잇기
인과 관계 · 과정 설명 · 중간 고리 빠뜨리지 않기

3 개념의 정의와 비유의 뜻
개념 정의하기 · 비유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 · 비유 없이 풀어 쓰기

4 전개 방식과 그 효과
밑줄 범위 지키기 · 방식 이름 대기 · 이 글에서의 효과 쓰기

5 그래프 · 그림 자료 해석하기
축 먼저 읽기 · 그래프에서 읽은 것과 지문의 까닭 나누기

6 논증 방법 판단과 그 한계
귀납 · 연역 구별하기 · 근거와 결론을 윗글의 말로 · 방법마다 다른 한계

7 주장 · 근거 · 예상 반론 · 반박 정리
논증 요소의 자리 찾기 · 이유와 근거 나누기 · 반론을 평서문으로

8 생략된 전제 찾기
삼단 논법의 빈자리 · 있는 요소에 이름 붙이기 · 숨은 전제를 문장으로

9 글의 관점을 사례에 적용하기
기준을 표로 옮기기 · 사례의 행동을 기준에 비추기 · 기준의 뜻으로 까닭 쓰기

10 두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글 사이에서 비교하기 · 기준과 평가로 나누기 · 대비하는 문장으로

11 한 관점에서 다른 견해 반박하기
상대 주장 바르게 옮기기 · 내 관점의 기준으로 따지기 · 상대의 약점 쓰기

12 주제 통합적 읽기, 여러 글을 엮어 재구성하기
글마다 다루는 측면 정리 · 내 물음에 맞게 바꾸기 · 관계를 밝혀 하나로 묶기

13 비판적 읽기,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타당성 · 공정성 · 신뢰성 구별하기 · 평가 대상 밝히기 · 기준의 뜻으로 까닭 쓰기

14 공손성의 원리, 어긴 격률과 고쳐 말하기
상대 · 자신 구별하기 · 무엇을 늘렸나 · 격률 지켜 고쳐 말하기

15 공감하며 대화하기, 나-전달법과 공감 반응
비난 빼고 감정 말하기 · 상황은 사실대로 · 바람으로 대화 열기 · 공감으로 받기

16 토론, 필수 쟁점과 반대 신문 분석하기
반대 신문의 쟁점 · 논증의 평가 기준 · 답변의 대응 · 반대 측 주장

17 협상, 입장과 근원적 동기 구별하여 읽기
기본 입장 · 근원적 동기와 공동의 가치 · 우려와 대안 짝짓기 · 남은 우려

18 발표 전략, 말하기 방식과 그 효과
주제 선정 이유 · 비언어적 표현 · 자료의 종류 · 겹치지 않는 효과

19 쓰기, 개요 점검과 자료 활용
원인과 방안 짝짓기 · 자료가 채우는 자리 · 관련성 없는 자료 찾아내기

20 매체, 상호작용과 정보의 신뢰성
출처가 흐린 정보 · 실시간 방송의 보완 · 사례에서 이끈 설명 · 매체 기능

문학

1 배점이 붙은 〈조건〉 읽기
현대 시 · 백석, 「수라」

2 시어와 시구의 함축 의미 밝히기
현대 시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3 중의적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하기
고전 시가 · 황진이, 「어뎌 ᄂᆡ ᄆᆡ 일이여」 · 작자 미상, 「가시리」

4 표현 방법의 명칭 · 근거 · 효과 쓰기
현대 시 · 김수영, 「폭포」

5 운율 형성 방법을 시구와 함께 쓰기
고려 가요 · 작자 미상, 「청산별곡」

6 화자의 상황 · 정서 · 태도를 나누어 쓰기
현대 시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7 시상 전개 방식과 태도의 심화 쓰기
현대 시 · 김소월, 「진달래꽃」

8 까닭과 근거 문장을 정확히 짝지어 쓰기
현대 소설 · 이태준, 「돌다리」

9 인물의 행동과 관계의 변화 쓰기
현대 소설 · 김중혁, 「엇박자 D」

10 시점과 서술 방식의 효과 쓰기
현대 소설 ·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11 제목과 중심 소재의 의미 쓰기
현대 소설 ·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2 시조 갈래의 형식과 변화 쓰기
고전 시가 · 송순 · 황진이 · 작자 미상의 시조 세 편

13 갈래의 계승 관계 쓰기
고전 시가 · 향가와 시조

14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부분과 함께 쓰기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춘향전」

15 〈보기〉의 관점으로 작품 읽고 쓰기
현대 소설 · 김애란, 「도도한 생활」

16 사회 · 문화적 맥락으로 인물 평가하기
현대 소설 · 채만식, 「미스터 방」

17 기준을 밝혀 두 작품 비교하기
고려 가요와 현대 시 · 「가시리」와 김소월, 「개여울」

18 극의 장치와 그 기능 쓰기
희곡 · 이강백, 「파수꾼」

19 교술 갈래의 구성과 전개 방식 쓰기
고전 수필 ·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20 작품을 소개하는 긴 글 쓰기
고전 시가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문법

1 음운 체계로 발음의 차이 설명하기
음운 ·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2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을 빠짐없이 쓰기
음운의 변동 · 교체 · 탈락 · 축약 · 첨가

3 음운 변동의 순서와 단계 쓰기
음운의 변동 · 앞의 변동이 뒤의 변동을 부른다

4 일어나는 환경 ·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음운 변동 · 구개음화

5 된소리되기의 조건과 'ㄹ' 탈락
음운 변동 · 어간과 어미, 접미사

6 탈락 · 축약과 음운의 개수
음운 변동 · 'ㅎ' 탈락 · 거센소리되기 · 모음 탈락

7 잘못된 발음 고치기와 그 까닭
받침의 발음 · 표준 발음법 제13~15항 · 유음화와 비음화

8 형태소 분석과 형태소의 갈래
단어와 형태소 · 자립과 의존 · 실질과 형식 · 어근과 어간

9 동사와 형용사, 대명사의 갈래
품사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부정칭 · 미지칭 · 재귀칭

10 단어의 짜임, 합성어와 파생어 구별하기
어근과 접사 · 직접 구성 성분 ·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11 문장 성분과 홑문장 · 겹문장
주성분과 부속 성분 · 보어 · 서술절 · 접속 조사와 부사격 조사 · 서술어 자릿수

12 안긴문장 찾기와 관형어
안은문장 · 명사절 · 관형사절 · 부사절 · 절 표지 ·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

13 높임 표현의 대상과 실현 방법
상대 높임법 · 주체 높임법 · 객체 높임법 ·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14 시제와 동작상, 실현 요소와 의미
과거 · 현재 · 미래 시제 · 진행상과 완료상 · '-었-'과 '-겠-'의 쓰임

15 피동 · 사동의 실현 방법과 효과
능동문과 피동문 · 주동문과 사동문 · 파생적 · 통사적 ·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16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바꾸기
인용 표현 · 인칭 · 지시 · 시간 표현 · 문장의 종류에 따른 어미

17 한글 맞춤법 ①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총칙 제1항 · 된소리 표기(제5항) · 원형을 밝혀 적기(제25항)

18 한글 맞춤법 ② 사이시옷 · 두음 법칙 · 띄어쓰기
제30항 사이시옷 · 제11항 두음 법칙 · 제41~42항 띄어쓰기

19 중세 국어의 표기와 음운
이어 적기 · 오늘날 없는 음운 · 어두 자음군 · 모음 조화 · ' · '의 변화

20 중세 국어의 문법, 조사와 명사형
주격 조사 '이 · ㅣ · Ø' · 관형격 조사 'ㅅ · ᄋᆡ · 의' · 명사형 어미 '-옴/-움'

한국사 독해 · 세계사 독해

책 과정 · 분야 독해(역사)

한국사 독해 4권 · 96회

1권 선사 시대부터 삼국까지

01 역사를 알아내는 방법
02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03 신석기 시대와 농사의 시작
04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
05 고조선의 법과 멸망
06 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
모아 읽기 1 두 유적 안내문으로 알아보는 구석기와 신석기
07 고구려의 건국
08 백제의 건국과 한강
09 신라의 건국
10 철의 나라 가야
11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12 근초고왕과 백제의 전성기
모아 읽기 2 박혁거세 이야기와 김수로 이야기
13 진흥왕과 신라의 발전
14 고구려와 수 · 당의 전쟁
15 삼국의 불교 수용
16 고분 벽화로 본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17 백제의 문화
18 신라의 문화
모아 읽기 3 무령왕릉과 천마총의 발굴 이야기
19 가야의 문화와 교류
20 삼국 사람들의 신분과 생활
21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22 나당 전쟁과 삼국 통일
23 삼국 통일의 의미
24 일본으로 건너간 삼국의 문화
모아 읽기 4 일본 역사책에 남은 왕인과 담징

2권 남북국 시대부터 고려까지

01 통일 신라의 새로운 정치
02 원효와 의상
03 불국사와 석굴암
04 신라 촌락 문서로 본 마을
05 장보고와 청해진
06 발해의 건국
모아 읽기 1 원효 이야기와 의상 이야기
07 바다 동쪽의 번성한 나라, 발해
08 흔들리는 신라
09 견훤과 궁예
10 왕건과 후삼국 통일
11 태조 왕건의 나라 다스리기
12 광종과 성종
모아 읽기 2 『삼국사기』에 실린 견훤과 궁예
13 고려 사람들의 신분과 생활
14 서희의 외교 담판
15 강감찬과 귀주 대첩
16 벽란도와 고려의 무역
17 고려청자
18 무신 정변
모아 읽기 3 거란을 막아 낸 서희와 강감찬
19 몽골의 침입과 백성들의 항쟁
20 팔만대장경
21 삼별초의 항쟁
22 원의 간섭과 공민왕의 개혁
23 금속 활자와 『직지』
24 문익점과 최무선
모아 읽기 4 이규보가 남긴 두 기록

3권 조선

01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
02 한양과 경복궁
03 태종의 나라 다스리기
04 세종과 집현전
05 훈민정음
06 하늘과 시간을 재는 기구
모아 읽기 1 훈민정음을 만든 뜻
07 4군 6진과 대마도 정벌
08 『경국대전』과 나라의 제도
09 양반과 상민
10 서당 · 향교 · 성균관과 과거
11 유교의 가르침과 생활
12 이황과 이이
모아 읽기 2 향교와 서원
13 임진왜란이 일어나다
14 이순신과 조선 수군
15 의병과 관군의 승리
16 전쟁 뒤의 나라 다시 세우기
17 병자호란과 남한산성
18 조선 통신사
모아 읽기 3 『난중일기』와 『징비록』
19 영조의 탕평과 균역법
20 정조와 수원 화성
21 달라진 농업과 상업
22 실학자들
23 북학과 대동여지도
24 서민 문화
모아 읽기 4 박지원과 박제가의 수레 이야기

4권 개항부터 오늘날까지

01 세도 정치와 흥선 대원군
02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03 강화도 조약
04 개화 정책과 갑신정변
05 동학 농민 운동
06 갑오개혁과 을미사변
모아 읽기 1 최익현의 상소와 고종의 대답
07 독립 협회와 『독립신문』
08 대한 제국
09 근대 문물이 들어오다
10 독도
11 을사늑약과 헤이그 특사
12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
모아 읽기 2 「시일야방성대곡」과 민영환의 유서
13 안중근
14 국권 피탈과 무단 통치
15 3·1 운동
16 대한민국 임시 정부
17 무장 독립 전쟁
18 민족 말살 정책과 우리말 지키기
모아 읽기 3 3·1 독립 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 헌장
19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20 6·25 전쟁
21 4·19 혁명
22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
23 경제 성장
24 통일을 위한 노력
모아 읽기 4 7·4 남북 공동 성명과 6·15 남북 공동 선언

세계사 독해 4권 · 96회

1권 고대 문명과 여러 나라

01 세계사를 읽는 방법
02 인류의 등장과 구석기 시대
03 농사의 시작과 문명의 탄생
04 메소포타미아 문명
05 이집트 문명
06 인도 문명과 아리아인

모아 읽기 1 두 문명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 —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07 중국 문명과 상 · 주
08 춘추 전국 시대와 제자백가
09 진의 통일과 시황제
10 한의 발전과 비단길
11 페르시아 제국
12 그리스의 폴리스와 아테네 민주 정치
모아 읽기 2 넓은 땅을 다스린 두 황제 — 진 시황제와 다리우스 1세
13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
14 그리스의 문화
15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16 로마 공화정과 지중해 정복
17 로마 제국과 로마의 평화
18 로마의 문화
모아 읽기 3 시민이 함께 다스린 두 나라 — 아테네와 로마
19 불교의 탄생과 아소카왕
20 쿠샨 왕조와 간다라 미술
21 굽타 왕조와 힌두교
22 크리스트교의 탄생
23 크리스트교의 공인과 국교화
24 고대 세계의 교류
모아 읽기 4 세계로 퍼진 두 종교 — 불교와 크리스트교

2권 중세 세계와 동서 교류

01 수의 통일과 대운하
02 당의 발전과 나라를 다스린 제도
03 국제도시 장안과 당의 문화
04 동아시아 문화권
05 일본의 고대 국가와 무사의 등장
06 송의 건국과 사대부
모아 읽기 1 당의 장안과 송의 카이펑
07 무함마드와 이슬람교
08 이슬람 제국의 발전
09 이슬람의 학문과 문화
10 바다와 사막을 오간 이슬람 상인
11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
12 봉건 사회와 장원
모아 읽기 2 하룬 알 라시드와 카롤루스 대제
13 교황과 중세 교회
14 비잔티움 제국
15 십자군 전쟁
16 도시와 상업의 발달
17 대학과 성당, 중세 유럽의 문화
18 흑사병과 흔들리는 중세
모아 읽기 3 십자군을 바라본 두 시선
19 송의 경제와 발명
20 거란과 여진의 나라
21 칭기즈 칸과 몽골 제국
22 원의 중국 지배와 동서 교류
23 인도의 힌두교와 이슬람
24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모아 읽기 4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가 본 중국

3권 교류의 확대와 근대의 시작

01 명의 건국과 영락제
02 정화의 항해와 바다를 닫은 명
03 명의 경제와 서민 문화
04 청의 중국 지배
05 청의 전성기와 서양과의 만남
06 일본의 에도 막부
모아 읽기 1 정화 함대의 기록
07 오스만 제국
08 사파비 왕조와 이스파한
09 무굴 제국
10 신항로 개척에 나선 유럽
11 콜럼버스와 마젤란
12 아메리카의 정복과 세계 교역
모아 읽기 2 아메리카에 닿은 유럽인의 두 기록
13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14 알프스 북쪽의 르네상스와 인쇄술
15 루터의 종교 개혁
16 칼뱅, 영국 국교회, 종교 전쟁
17 절대 왕정
18 과학 혁명과 계몽사상
모아 읽기 3 계몽사상가가 그린 나라
19 영국 혁명
20 미국 혁명
21 프랑스 혁명
22 나폴레옹과 빈 체제
23 산업 혁명
24 산업 사회의 문제와 새로운 생각
모아 읽기 4 두 혁명의 선언

4권 제국주의에서 오늘날까지

01 자유주의 운동과 1848년 혁명
02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03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04 러시아의 개혁과 남하 정책
05 미국의 발전과 남북 전쟁
06 제국주의와 아프리카 분할
모아 읽기 1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과 게티즈버그 연설
07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08 인도의 민족 운동
09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10 아편 전쟁과 중국의 개항
11 태평천국 운동과 청의 개혁
12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모아 읽기 2 린쩌쉬의 편지와 글래드스턴의 연설
13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14 제1차 세계 대전
15 러시아 혁명
16 베르사유 체제와 국제 연맹
17 아시아의 민족 운동
18 대공황과 전체주의
모아 읽기 3 윌슨의 14개조와 간디의 편지
19 제2차 세계 대전
20 국제 연합과 냉전
21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독립
22 냉전의 완화와 해체
23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산
24 세계화와 오늘날의 과제
모아 읽기 4 국제 연합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

경제학 · 법학 · 철학 · 과학 · 기술 · 예술 독해

책 과정 · 분야 독해

경제학 독해 3권 · 60회

1권 선택과 시장

01 경제 활동과 경제 주체
02 희소성과 경제 문제
03 기회비용
04 합리적 선택과 매몰 비용
05 경제 체제
06 분업과 교환, 시장
07 수요와 수요 법칙
08 공급과 공급 법칙
09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의 기능
10 수요의 변동
11 공급의 변동
12 균형 가격의 변동
13 대체재와 보완재
14 수요의 가격 탄력성
15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16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17 과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
18 시장 실패와 외부 효과
19 공공재와 공유 자원
20 정부의 가격 규제
기출 1 관세와 시장의 변화
기출 2 준거가격과 거래효용
기출 3 독점규제법과 지식 재산 제도

2권 국민 경제와 금융

01 국내 총생산
02 생산 · 분배 · 지출
03 국내 총생산의 쓰임과 한계
04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05 경제 성장
06 경기 변동
07 물가와 물가 지수
08 인플레이션
09 실업률과 고용률
10 실업의 종류와 대책
11 화폐
12 이자와 이자율
13 은행과 예금 통화
14 중앙은행
15 통화 정책
16 조세
17 재정 정책
18 정부의 정책 수단
19 채권
20 주식과 위험 관리
기출 1 통화 정책의 선제성과 신뢰성
기출 2 환율의 오버슈팅과 정책 수단
기출 3 금융 안정과 건전성 정책

3권 세계 경제와 경제학의 방법

01 무역과 절대 우위
02 비교 우위
03 무역의 이익과 손해
04 관세와 보호 무역
05 세계 무역 기구와 자유 무역 협정
06 환율과 외환 시장
07 환율 변동의 영향
08 환율 제도
09 국제 수지
10 국제 금융과 외환 위기
11 정보의 비대칭과 역선택

12 도덕적 해이와 해결 방법
13 게임 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14 반복 게임과 협력
15 행동 경제학
16 선택 설계와 넛지
17 특허와 혁신
18 정책 효과의 평가
19 애덤 스미스와 케인스
20 조선 후기 북학파의 경제 사상
기출 1 기축 통화와 트리핀 딜레마
기출 2 지식 재산 보호와 디지털세
기출 3 이중차분법과 정책 효과의 평가

법학 독해 3권 · 60회

1권 법의 기초와 헌법

01 사회 규범과 법
02 법이 추구하는 가치
03 공법 · 사법 · 사회법
04 헌법 · 법률 · 명령의 단계
05 법의 요건과 효과
06 원칙과 예외
07 법을 사실에 적용하는 과정
08 권리와 의무
09 헌법과 입헌주의
10 기본권의 종류
11 기본권의 제한과 비례의 원칙
12 근대 국가와 기본권
13 권력 분립
14 국회와 입법
15 대통령과 행정부
16 법원과 재판
17 헌법 재판
18 대의제와 선거
19 지방 자치
20 인권 침해와 구제
기출 1 형사법과 민사법
기출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기출 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2권 생활 속의 민법

01 민법의 짜임과 법률 행위
02 권리 능력
03 제한능력자 제도
04 의사 표시와 그 흠
05 대리
06 계약의 성립
07 계약 자유와 그 한계
08 채권과 급부
09 채무 불이행과 강제 이행
10 계약의 해제와 손해 배상
11 불법 행위
12 특수한 불법 행위
13 물권과 채권
14 점유와 소유
15 물권의 변동과 공시
16 임대차
17 증여
18 보증
19 보험 계약
20 개인 정보와 데이터
기출 1 계약과 채무 불이행
기출 2 점유와 소유권의 공시
기출 3 예약과 채권

3권 형법 · 행정법 · 재판과 법 해석

01 죄형법정주의
02 범죄의 성립
03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04 책임과 형사 미성년자
05 미수와 공범

06 형벌의 종류와 목적
07 형사 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08 증거 재판주의
09 법치 행정과 위임 입법
10 행정 행위
11 재량과 불확정 개념
12 금전적 제재
13 행정 구제
14 민사 소송의 원칙
15 판결의 확정과 기판력
16 화해 · 조정 · 중재
17 법 해석의 방법
18 유추와 반대 해석
19 공정 거래
20 국제법과 조약
기출 1 금전적 제재와 징벌적 손해 배상
기출 2 조건과 판결의 기판력
기출 3 불확정 개념과 재량

철학 독해 3권 · 60회

1권 논증과 인식

01 철학이 묻는 것
02 논증의 구조
03 연역과 귀납
04 타당성과 건전성
05 조건문과 필요조건 · 충분조건
06 대우와 잘못된 추론
07 귀납적 일반화와 표본
08 유비 논증
09 모순과 반대
10 논증의 오류
11 앎과 믿음
12 정당화된 참인 믿음과 게티어의 반례
13 참에 대한 대응설
14 정합설과 실용설
15 합리론
16 경험론
17 칸트의 종합
18 헤겔의 변증법
19 논리 실증주의
20 포퍼의 반증주의와 과학적 설명
기출 1 칸트와 헤겔의 자유
기출 2 로크와 라이프니츠의 본유 관념
기출 3 데카르트와 하이데거의 교육관

2권 윤리와 사회

01 윤리학이 묻는 것
02 도덕 추론
03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04 칸트의 선의지와 의무
05 칸트의 정언 명령
06 의무가 부딪칠 때
07 벤담의 공리주의
08 밀의 질적 공리주의
09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10 트롤리 문제
11 덕 윤리의 부활
12 도덕 실재론과 자연주의적 오류
13 정서주의와 규정주의
14 도덕적 운
15 홉스의 사회 계약론
16 로크와 루소의 사회 계약론
17 밀의 자유론
18 롤스의 정의론
19 노직의 소유 권리론
20 형벌의 정당화
기출 1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
기출 2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기출 3 베카리아의 형벌론

3권 동양 철학과 존재

01 공자의 인과 예
02 맹자의 성선설과 왕도 정치
03 순자의 성악설과 예
04 『대학』과 수기치인
05 노자의 도와 무위
06 장자의 소요와 제물
07 한비자와 법가
08 주희의 성리학
09 왕수인의 양명학
10 사단 칠정 논쟁
11 정약용의 실학
12 서학과 조선의 학자들
13 신채호의 역사관
14 인격의 동일성과 기억
15 신체와 심리적 연속성
16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
17 동일론과 기능주의
18 본질에 대한 물음
19 인과에 대한 물음
20 정보 철학
기출 1 『대학』의 명명덕과 친민
기출 2 신채호의 아와 비아
기출 3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

과학 독해 3권 · 60회

1권 운동 · 에너지 · 물질

01 속력과 가속도
02 힘과 관성
03 작용과 반작용, 운동량
04 중력과 낙하 운동
05 마찰력
06 지레와 돌림힘
07 도르래와 일의 원리
08 압력
09 부력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10 유체 속의 낙하와 종단 속도
11 원운동과 각운동량 보존
12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13 열과 온도, 열평형
14 비열과 열의 이동
15 열팽창
16 기체의 압력과 부피
17 기체의 온도와 부피
18 화학 반응과 활성화 에너지, 촉매
19 수소 에너지와 연료 전지
20 플라스틱과 고분자
기출 1 인장 시험과 허용하중
기출 2 해양 온도차 발전
기출 3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

2권 생명과 인체

01 생명을 이루는 세포
02 세포막과 물질의 이동
03 세포 분열과 세포 주기
04 효소
05 영양소와 소화
06 탄수화물과 섬유소
07 세포 호흡과 ATP
08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
09 혈액과 순환
10 혈액 응고
11 병원체
12 우리 몸의 방어
13 항원과 항체
14 백신과 집단 면역
15 항원 검사 키트
16 DNA와 유전자
17 중합 효소 연쇄 반응

18 항암제
19 눈과 입체 지각
20 귀와 소리의 공간감
기출 1 실시간 PCR
기출 2 혈액 응고와 비타민 K
기출 3 기초 대사량과 상대 성장

3권 지구와 우주, 과학의 방법

01 지구의 크기를 잰 방법
02 지구의 자전
03 전향력
04 지구의 공전과 계절
05 타원 궤도와 이심률
06 달의 위상
07 일식과 월식
08 밀물과 썰물
09 천동설과 지동설
10 케플러의 세 법칙
11 만유인력
12 별까지의 거리
13 별의 밝기와 등급
14 별의 색과 일생
15 은하의 회전과 암흑 물질
16 팽창하는 우주
17 열은 무엇인가
18 나무의 물 이동
19 측정값과 데이터
20 불확정성 원리
기출 1 이심률과 천체의 관측
기출 2 열의 일당량과 열기관
기출 3 결측치와 이상치

기술 독해 2권 · 40회

1권 디지털 정보와 통신

01 아날로그와 디지털
02 이진수와 비트
03 문자의 부호화
04 디지털 영상과 화소
05 디지털 소리
06 데이터 압축
07 정보량과 허프만 부호화
08 오류의 검출과 정정
09 인터넷과 패킷
10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시스템
11 검색 엔진
12 하드 디스크
13 광 디스크
14 플래시 메모리와 SSD
15 암호와 공개 키
16 해시 함수
17 블록체인
18 인공 신경망과 학습
19 생성 모델과 확산 모델
20 3D 그래픽과 메타버스
기출 1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기출 2 패리티 검사와 CRC
기출 3 완전 동형암호

2권 전자 기술과 측정

01 전기 회로와 저항
02 반도체
03 다이오드
04 트랜지스터와 집적 회로
05 발광 다이오드와 태양 전지
06 충전지
07 충전기와 충전 방식
08 전자기 유도와 무선 충전
09 광통신
10 센서
11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12 관성 센서
13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
14 영상 안정화
15 차량 주변 영상
16 초음파와 레이더
17 X선과 CT
18 현미경과 분해능
19 저울과 킬로그램
20 콘크리트
기출 1 위치 측정과 비콘
기출 2 영상 안정화
기출 3 압전 효과와 초정밀 저울

예술 독해 2권 · 40회

1권 미술 · 건축 · 영상

01 조형 요소와 원리
02 선 원근법
03 명암과 대기 원근법
04 색의 세 속성
05 빛의 혼합과 물감의 혼합
06 인상주의
07 추상 미술
08 동양화의 시점과 여백
09 조각의 재료와 방법
10 극사실주의
11 기둥과 보, 아치
12 로마네스크와 고딕 성당
13 한옥의 짜임
14 홍예다리
15 사진기와 노출
16 사진의 등장과 회화
17 영화의 원리와 숏
18 몽타주와 롱 테이크
19 장르 영화
20 만화의 칸과 시간
기출 1 큐비즘의 표현 방법
기출 2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기출 3 엑스레이 아트

2권 음악과 미학

01 소리의 세기 · 높낮이 · 맵시
02 음정과 옥타브
03 음계와 조율
04 장조 · 단조와 화음
05 리듬 · 박자 · 빠르기
06 악기의 분류와 소리
07 관현악단
08 악보와 기보법
09 중세와 르네상스 음악
10 바로크 음악
11 고전주의와 소나타 형식
12 베토벤
13 낭만주의 음악
14 20세기 음악
15 국악의 음계와 장단
16 형식론과 표현론
17 동양의 음악론
18 미학의 탄생
19 예술이란 무엇인가
20 기술 복제와 대중 예술
기출 1 바로크 기악과 형식의 발견
기출 2 베토벤 교향곡을 둘러싼 시대의 기대
기출 3 소리의 성질과 음악의 아름다움

부록 · 실제 지면

교재별 실제 지면

책마다 한 장씩, 실제 책의 지면을 그대로 실었습니다(실제 크기의 90%). 정규 과정은 레벨마다 1주차를 실었고, 분량이 많은 문학 개념 연습과 최고난도 독서는 일부만 실었습니다. 모든 책의 차례는 앞의 「교재 전권 차례」에 있습니다.

교재	실은 부분	분량	쪽
01 프로모드 정규 과정	**소쉬르1 1권** · 1주 학습(어휘 · 교과 · 문학 · 글쓰기)	11쪽	104
	프레게1 1권 · 1주 학습(어휘 · 어법 · 개념 · 교과 · 문학)	12쪽	115
	러셀1 1권 · 1주 학습(어휘 · 문법 · 개념 · 비문학 · 문학)	22쪽	127
	비트겐슈타인1 1권 · 1주 학습(문법 · 문학 · 비문학)	37쪽	149
02 문장 독해 연습	**문장 독해 연습 · 러셀** ·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12쪽	186
03 문법 개념 연습	**문법 개념 농장 · 러셀** · 01 「품사와 활용」	16쪽	198
04 문학 개념 연습	**문학 개념 연습 · 러셀 1권** · 01장 「시어와 시구, 행과 연」 가운데 개념 01 「시어」와 장 끝의 개념 확인 · 실전 문제 · 서술형	18쪽	214
05 지식과 지혜 글쓰기	**지식과 지혜 글쓰기 · 프레게1** · 1장 「개요 읽기」	8쪽	232
06 작가와 작품 세계	**작가와 작품 세계 · 1권** · 01 현대소설(박완서 · 염상섭 · 채만식 · 김원일 · 김유정)	17쪽	240
07 국어농장 어휘	**국어농장 어휘 · 러셀 1권** · 13장 「마음 · 실망과 좌절」	12쪽	257
08 국어농장 읽기 텃밭	**읽기 텃밭 1 · 소쉬르1 1권** · 1장 「안녕, 학교」	14쪽	269
09 국어농장 추론 연습	**추론 연습 · 프레게1 1권** · 7단원 「인물의 말로 마음 알아내기」	7쪽	283
10 비트겐슈타인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독서 1권 · 인문 · 예술** · Part A 01과 실전 1회(지문 넷)	12쪽	290
11 고전문학 읽기	**고전문학 읽기 · 러셀 ① 고전시가** · 01 「공무도하가」	5쪽	302
12 선택지 18패턴	**선택지 18패턴 · 독서편** · 1장 D1 「섞어치기」	10쪽	307
13 내신 서술형 연습	**내신 서술형 연습 · 러셀 문학** · 1장 「〈조건〉 을 읽는 법」	5쪽	317
14 한국사 독해 · 세계사 독해	**한국사 독해 1권** · 01 「역사를 알아내는 방법」	3쪽	322
	세계사 독해 1권 · 01 「세계사를 읽는 방법」	4쪽	325
15 경제학 · 법학 · 철학 · 과학 · 기술 · 예술 독해	**법학 독해 1권** · 01 「사회 규범과 법」	4쪽	329
	과학 독해 1권 · 01 「속력과 가속도」	4쪽	333

국어농장 정규과정 · 소쉬르1 1권

01 1주 학습

어휘 · 교과 · 문학 · 글쓰기

이번 주에 읽을 글

- 오감으로 만나는 봄 공원
- 동물들의 슈퍼 감각
- 반짝반짝 내 몸의 감각

어휘

오감으로 만나는 봄 공원



일요일 아침, 나는 엄마와 공원에 갔어요. 눈을 크게 떴더니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작은 새가 노래하자 귀를 쫑긋쫑긋 세웠어요.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은 청각이에요.

꽃밭에서는 코로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은 후각이에요. 엄마가 준 딸기를 입에 넣으니 새콤달콤했어요. 입으로 맛을 보는 것은 미각이지요. 손으로 나뭇잎을 살살 만지니 까칠까칠했어요. 손으로 만져서 아는 것은 촉각이에요.

몸으로 느끼는 이 모든 감각 덕분에 나는 봄을 더 즐겁게 만났어요.

뜻을 보고 단어와 문장 쓰기

뜻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쓴 뒤,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드세요.

01 눈으로 보는 감각

단어

문장

02 귀로 듣는 감각

단어

문장

03 코로 냄새 맡는 감각

단어

문장

04 혀로 맛보는 감각

단어

문장

05 피부로 느끼는 감각

단어

문장

06 몸으로 느끼는 것

단어

문장

낱말과 뜻 연결하기

다음 단어와 알맞은 설명을 연결해 보세요.

1 눈	●	●	ㄱ 사물을 봐요
2 코	●	●	ㄴ 소리를 들어요
3 입	●	●	ㄷ 만져서 느껴요
4 귀	●	●	ㄹ 냄새를 맡아요
5 손	●	●	ㅁ 맛을 느껴요

문장에 어울리는 말 고르기

다음 문장에 어울리는 감각을 나타내는 말을 고르세요.

01 눈으로 별을 보니 (반짝반짝 / 킁킁 / 쫑긋쫑긋) 빛났어요.

02 코로 꽃 냄새를 (통통통 / 킁킁 / 냠냠) 맡았어요.

03 귀를 (살살살 / 쫑긋쫑긋 / 반짝반짝) 세우고 소리를 들었어요.

교과

동물들의 슈퍼 감각



우리 몸에는 세상을 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고마운 눈, 코, 귀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 친구들 중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슈퍼 감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답니다.

먼저 매는 아주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매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땅 위에 있는 아주 작은 토끼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람보다 무려 여덟 배나 더 멀리,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는 훌륭한 코를 가지고 있어요. 킁킁! 개는 냄새를 아주 잘 맡아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범인을 냄새로 찾아내기도 해요. 경찰관 아저씨를 돕는 경찰견은 바로 이 뛰어난 냄새 맡는 능력 덕분에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토끼는 길쭉한 귀를 가지고 있어요. 토끼의 귀가 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잘 듣기 위해서예요. 토끼는 귀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모을 수 있답니다. 동물들의 능력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핵심 내용 확인하기

글을 읽고 알맞은 답을 써 보세요.

01 매가 높은 하늘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작은 동물은 무엇인가요?

답 _____

02 개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잘 쓰는 감각은 무엇인가요?

답 _____

03 토끼가 긴 귀로 잘 듣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_____

04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동물의 감각을 글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답 _____

내용 깊이 확인하기

글의 내용과 맞는 답을 고르세요.

01 글의 처음에 사람의 눈, 코, 귀를 먼저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사람의 눈이 매의 눈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려 주려는 것입니다.
② 동물에게는 눈, 코, 귀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려는 것입니다.
③ 사람은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 주려는 것입니다.
④ 사람보다 뛰어난 동물의 감각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02 매의 눈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매가 귀를 이리저리 움직여 소리를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매가 높은 하늘에서도 땅의 작은 토끼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매가 냄새를 맡아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매가 사람보다 여덟 배나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 글에 나온 동물과 그 동물의 뛰어난 곳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개 - 코 ② 매 - 귀 ③ 토끼 - 눈 ④ 매 - 코

04 이 글에서 설명하지 <u>않은</u> 동물은 누구인가요?

① 매 ② 개 ③ 고양이 ④ 토끼

05 토끼의 귀가 길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빠르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
② 음식 냄새를 잘 맡기 위해서
③ 사방을 멀리까지 보기 위해서
④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06 매는 사람보다 눈이 얼마나 더 좋다고 했나요?

① 2배 ② 4배 ③ 8배 ④ 10배

문학

반짝반짝 내 몸의 감각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반짝반짝 보여요. 눈은 노란 개나리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엄마가 활짝 웃는 얼굴도 봐요. 코는 킁킁킁 냄새를 맡아요. 갓 구운 빵 냄새, 비 온 뒤 흙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귀는 쫑긋쫑긋 소리를 들어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 친구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귀로 쏙 들어와요.

밥을 먹을 때는 입이 가장 바빠요. 입은 냠냠냠 맛을 느껴요. 달콤한 사과는 달고, 새콤한 귤은 시고, 짭짤한 김은 짠맛이 나요. 손은 살살살 만져 봐요. 보들보들한 강아지 털, 까칠까칠한 나무껍질, 차가운 얼음을 손끝으로 느껴요. 발은 통통통 걸어가요. 학교로, 놀이터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발이 나를 데려다줘요.

이렇게 우리 몸은 저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눈과 코와 귀와 입, 손과 발이 함께 일해서 나는 하루를 즐겁게 보내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손이 없다면 무엇이 불편할까요? 발이 없다면 어디에 가지 못할까요? 그러면 내 몸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돼요.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한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세요.

생각 키우기 문제

작품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써 보세요.

01 이 글을 읽고, 내 몸에서 가장 고마운 곳은 어디인지 그 까닭과 함께 써 보세요.

* 나는 (　　) 이(가) 가장 고마워요.
* 왜냐하면 _____

내용 파악 문제

작품 내용을 바탕으로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1 이 글에서 세상을 반짝반짝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코　② 귀　③ 눈　④ 입

02 글에서 발이 하는 행동을 나타낸 말은 무엇인가요?

① 살살살　② 통통통　③ 킁킁킁　④ 쫑긋쫑긋

03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밥은 천천히 먹어야 해요.
② 강아지 털은 보들보들해요.
③ 비 온 뒤에는 흙냄새가 나요.
④ 내 몸에게 고마워해요.

글쓰기

생각 끌어내기

읽은 글과 내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찾아보세요.

01 「반짝반짝 내 몸의 감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고르고, 왜 좋았는지 적어 보세요.

답안

02 「동물들의 슈퍼 감각」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을 하나 적어 보세요.

답안

03 앞에서 고른 장면이나 새로 알게 된 내용과 비슷한 내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나요?

답안

04 글에 넣고 싶은 낱말을 떠올려 적어 보세요.

답안

계획하기

제목, 주제, 처음·가운데·끝에 쓸 내용을 정리하세요.

01 내 글의 제목을 정해 보세요.

답안

02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한 가지 정해 보세요.

답안

03 처음에는 어떤 일을 골랐는지 소개해 보세요.

답안

04 가운데에는 기억나는 장면과 내 경험을 써 보세요.

답안

05 끝에는 내가 느낀 점을 한두 문장으로 써 보세요.

답안

원고지

앞에서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완성하세요.

앞에서 계획한 대로 글을 완성해 보세요.

원고지 1~224자

80

160

원고지 225~288자

원고지 289~400자

368

국어농장 정규과정 · 프레게1 1권

01 1주 학습

어휘 · 어법 · 개념 · 교과 · 문학



이번 주에 읽을 글

- 도서관은 어떻게 책을 정리할까
- 헷갈리기 쉬운 낱말 구별하기
-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 생각을 분류하고 조직하는 법
- 지우의 정리법

어휘

도서관은 어떻게 책을 정리할까



도서관에 처음 들어서면 책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다. 그런데 사서 선생님은 수천 권의 책 속에서도 원하는 책을 금세 찾아낸다. 그 비밀은 바로 분류에 있다. 분류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같은 묶음으로 모으는 일이다.

과학책, 역사책, 동화책처럼 큰 범주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작은 갈래로 나눈다. 이렇게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가르는 일을 구분이라고 한다. 구분한 책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책꽂이에 차례차례 배열된다. 번호 순서대로 늘어선 책들은 보기에도 깔끔하고 찾기에도 편하다.

이처럼 흩어진 것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면 도서관 전체에 질서가 생긴다. 분류와 정리, 배열이 하나로 이어지면 도서관은 잘 짜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면 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어떤 책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마구 쌓아 두면 혼란만 커지지만,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정리하면 생각에도 질서가 잡힌다.

문맥과 뜻풀이로 낱말 넣기

문맥과 뜻풀이를 참고해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넣으세요.

01 도서관에서는 책을 주제별로 [ ]하여 찾기 쉽게 만든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같은 묶음으로 모으는 일을 나타내는 어휘를 넣으세요)

02 생각이 [ ]에 빠지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뒤죽박죽 섞여 어지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를 넣으세요)

03 공부를 [ ]으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일정한 틀에 따라 짜임새가 있다는 의미의 어휘를 넣으세요)

04 같은 [ ]에 속하는 동물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의 묶음을 나타내는 어휘를 넣으세요)

뜻과 문맥으로 답 고르기

낱말의 뜻과 문맥을 보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1 '정리'의 반의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분류 ② 혼란 ③ 배열 ④ 조직

02 다음 중 '체계'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것은?

① 질서 ② 혼란 ③ 방해 ④ 실수

03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알맞지 <u>않은</u> 것은?

① 운동장에 의자를 두 줄로 <u>배열</u>했다.
② 줄을 서서 차례대로 <u>질서</u>를 지켰다.
③ 고래는 포유류라는 <u>범주</u>에 속한다.
④ 방을 치웠더니 머릿속이 <u>혼란</u>스러웠다.

04 '구분'과 '분류'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분은 다른 점을, 분류는 같은 점을 중심으로 나눈다.
② 구분과 분류는 언제나 똑같은 뜻으로 쓴다.
③ 구분은 큰 것을 작게, 분류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든다.
④ 구분은 시간 순서로, 분류는 장소 순서로 나눈다.

낱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

제시된 낱말의 뜻이 드러나도록 한 문장씩 만들어 보세요.

01 '배열'을 사용한 문장

답안

02 '질서'를 사용한 문장

답안

어법

헷갈리기 쉬운 낱말 구별하기

뜻이 비슷해 보여도 쓰임이 다른 낱말은 문맥을 살펴 골라야 합니다. '다르다'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쓰고, '틀리다'는 답이나 사실이 맞지 않을 때 씁니다.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방법을 알려 준다는 뜻이고, '가리키다'는 손이나 말로 어떤 대상이나 방향을 짚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잃다'는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기회를 없어지게 했을 때 쓰고, '잊다'는 알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 씁니다. 낱말 앞뒤의 뜻을 확인하면 알맞은 표현을 고를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낱말 바로 알기

문맥을 살펴 다르다·틀리다, 가르치다·가리키다, 잃다·잊다 가운데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01 나와 친구는 서로 생김새가 (달라요 / 틀려요).

02 선생님께서 모르는 문제의 풀이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 가리켜) 주셨다.

03 숙제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잃어버렸다 / 잊어버렸다).

헷갈리기 쉬운 낱말 바로 알기 객관식

문맥과 낱말의 뜻을 살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1 '다르다'와 '틀리다'의 쓰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두 대상이 같지 않을 때는 '다르다'를 쓴다.
② 정답이 맞지 않을 때는 '다르다'를 쓴다.
③ 두 낱말은 언제나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사람의 생김새를 비교할 때는 '틀리다'만 쓴다.

02 다음 중 '가리키다'를 알맞게 쓴 문장은 무엇인가요?

① 선생님이 수학 풀이를 가리켰다.
② 친구가 지도에서 우리 학교를 가리켰다.
③ 형이 동생에게 수영을 가리켰다.
④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리켰다.

03 다음 중 '잊다'를 알맞게 쓴 문장은 무엇인가요?

① 운동장에서 지갑을 잊었다.
② 놀이터에서 장갑 한 짝을 잊어버렸다.
③ 친구와 한 약속을 깜빡 잊었다.
④ 아끼던 연필을 교실에서 잊었다.

04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① 두 그림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
② 계산 결과가 틀리다.
③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르치고 있다.
④ 숙제할 것을 잊었다.

개념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배우는 모든 정보는 마치 서랍 안에 넣는 물건과 같습니다. 서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듯이, 생각을 분류하고 조직하면 지식을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단순히 숙제를 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더 빨리 이해하고,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어떤 단계부터 풀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모두 생각 정리 능력에 포함됩니다. 정리된 생각이 바로 효율적인 학습의 시작점입니다.

생각 정리 개념 OX

생각 정리 능력의 효과가 글 내용과 일치하는지 OX로 판단하세요.

01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지식을 머릿속에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다. (○ / ×)

02 생각 정리 능력은 오직 수학 문제를 풀 때만 도움이 된다. (○ / ×)

03 정리된 생각은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 / ×)

교과

생각을 분류하고 조직하는 법

우리의 뇌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생각들이 무질서하게 떠다니면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조직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생각을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범주화'입니다. 범주화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생각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관련 생각, 가족 관련 생각, 취미 관련 생각처럼 주제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 할 일', '이번 주 할 일', '이번 달 할 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주화를 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모든 생각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떤 일부터 처리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각화'입니다. 생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면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생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인드맵은 중심 주제에서 가지를 뻗어 나가며 관련된 생각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리된 생각은 명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학습과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씩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시어 내용 확인하기

글을 읽고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 쓰세요.

01 밑줄 친 '이렇게'가 가리키는 생각 정리 방법을 쓰세요.

보기

예를 들어, 학교 관련 생각, 가족 관련 생각, 취미 관련 생각처럼 주제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 할 일', '이번 주 할 일', '이번 달 할 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주화를 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답 _____

생각 분류와 조직 객관식

생각 정리의 핵심 방법, 범주화·우선순위·시각화의 역할,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판단하세요.

01 글의 첫 문단에서 생각들이 무질서하게 떠다니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① 혼란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② 창의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른다.
③ 뇌가 처리하는 생각의 수가 줄어든다.
④ 중요한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02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 효과적인 도구로 글에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마인드맵 ② 암기 카드 ③ 시간표 ④ 계산기

03 글에서 생각을 마인드맵이나 표로 나타내면 좋은 점으로 든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② 할 일의 개수가 저절로 줄어든다.
③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똑같아진다.
④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모두 외워진다.

04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 뇌가 처리하는 생각의 개수
②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③ 마인드맵의 장점과 활용법
④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05 글쓴이가 제시한 생각 정리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범주화 ② 우선순위 정하기 ③ 시각화 ④ 암기하기

06 '범주화'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교 숙제를 과목별로 나누기
② 일정을 오전/오후로 구분하기
③ 중요한 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④ 책을 장르별로 분류하기

07 다음 중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해당하는 것은?

①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과제
② 다음 달에 있을 가족 여행 계획
③ 친구의 생일 선물 고르기
④ 방학 때 읽을 책 목록 만들기

생각 분류와 조직 서술형

긴급하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나누고, 글쓴이가 생각 정리를 권하는 이유를 쓰세요.

01 긴급하고 중요한 일 :

답안

02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

답안

03 글쓴이가 생각 정리를 권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답안

문학

지우의 정리법

지우는 요즘 고민이 많았다. 다음 주에 있을 발표 준비도 해야 하고, 엄마가 부탁한 심부름도 까먹으면 안 되고, 친구와의 약속도 지켜야 했다. 게다가 어제 본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서 집중이 되지 않았다.

"아, 머리가 복잡해!" 지우는 책상에 엎드려 한숨을 쉬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수민이가 말했다. "지우야, 네 책상 좀 봐. 책상이 그렇게 어지러우니까 머릿속도 복잡한 거 아닐까?"

지우는 자신의 책상을 둘러보았다. 교과서, 노트, 필통, 간식 봉지까지 온갖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이게 내 머리랑 무슨 상관이야?" 지우가 물었다.

수민이는 자신의 깔끔한 책상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나는 매일 아침 책상을 정리하면서 오늘 할 일도 함께 정리해. 교과서는 교과서끼리, 노트는 노트끼리 모아두고, 오늘 할 일은 메모지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둬. 그러면 머릿속도 깔끔해지는 기분이야."

지우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수민이의 방법을 따라 해 보기로 했다. 먼저 책상 위의 물건들을 종류별로 나누었다. 그다음 오늘 할 일을 메모지에 하나씩 적었다.

'1. 발표 자료 찾기, 2. 우유 사 오기, 3. 민호와 4시에 도서관에서 만나기.'

신기하게도 책상이 정리되자 머릿속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와, 정말 신기하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구나." 지우는 앞으로 매일 아침 책상 정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우의 정리법 단답형

수민이가 지우에게 제안한 책상 정리와 할 일 정리 방법을 쓰세요.

01 수민이가 지우에게 제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지우의 정리법 객관식

문장 속 주어·목적어를 찾고, 지우의 고민과 정리 방법, 심리 변화와 주제를 판단하세요.

01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 '정리하면서'의 주어는 무엇인가요?

보기

나는 매일 아침 책상을 정리하면서 오늘 할 일도 함께 정리해.

① 매일 아침 ② 나는 ③ 책상을 ④ 오늘 할 일도

02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 '정리해'의 목적어는 무엇인가요?

보기

나는 매일 아침 책상을 정리하면서 오늘 할 일도 함께 정리해.

① 오늘 할 일도 ② 매일 아침 ③ 나는 ④ 함께

03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 '정리되자'의 주어는 무엇인가요?

보기

신기하게도 책상이 정리되자 머릿속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① 책상이 ② 머릿속이 ③ 지우는 ④ 무엇부터

04 지우가 고민하는 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다음 주 발표 준비 ② 엄마의 심부름 ③ 친구와의 약속 ④ 수학 시험 공부

05 지우가 메모지에 적은 할 일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① 우유 사 오기 → 발표 자료 찾기 → 민호 만나기
② 발표 자료 찾기 → 우유 사 오기 → 민호 만나기
③ 민호 만나기 → 우유 사 오기 → 발표 자료 찾기
④ 발표 자료 찾기 → 민호 만나기 → 우유 사 오기

06 이야기에서 '책상 정리'와 '생각 정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책상 정리는 머릿속 생각 정리와 관련이 거의 없다.
② 책상을 정리하면 생각도 함께 정리되는 효과가 있다.
③ 생각을 먼저 정리한 후에만 책상을 정리할 수 있다.
④ 책상이 오히려 어지러울수록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07 이야기에서 지우의 심리 변화 과정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자신만만함 → 혼란스러움 → 후회
② 혼란스러움 → 의구심 → 깨달음
③ 즐거움 → 슬픔 → 분노
④ 무관심 → 호기심 → 실망

08 수민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②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다 ③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④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다

09 이 이야기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친구의 소중함
② 책상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
③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의 필요성
④ 학업 성취의 비결

지우의 정리법 서술형

나만의 생각 정리 방법을 만들고, 정리의 효과와 지우가 깨달은 교훈을 이야기 내용과 연결해 쓰세요.

01 지우처럼 머릿속이 복잡할 때 사용할 나만의 생각 정리 방법을 만들어 설명하세요.

보기

예: 빨간색은 오늘 꼭 할 일, 노란색은 이번 주에 할 일, 초록색은 시간이 있을 때 할 일로 나누는 '신호등 정리법'

답안

02 생각을 정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지우의 경험을 참고하여, 정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써 보세요.

답안

03 지우가 이야기 끝에서 깨달은 교훈을 서술하세요.

답안

국어농장 정규과정 · 러셀1 1권

01 1주 학습

어휘 · 문법 · 개념 · 비문학 · 문학



이번 주에 읽을 글

- 선택은 어떻게 마음의 질서를 드러내는가
- 문장 속 단어들의 역할 (품사)
- 표현을 생생하게 만드는 비유법
- [인문] 내 마음의 다섯 가지 욕구, 현실요법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휘

선택은 어떻게 마음의 질서를 드러내는가

사람의 행동은 겉으로 보이는 순간의 반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얻으려는 욕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학생이 모둠 활동에서 발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까닭도 단순히 발표가 좋아서만은 아닐 수 있다. 친구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행동이 어떤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문제는 여러 욕구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기 쉽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작은 간섭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분명히 말하지 못해 속으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마음속 요구들이 서로 부딪치면, 사람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

현실적인 해결은 어느 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들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되 상대의 처지도 헤아리는 태도, 필요한 규칙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찾는 태도가 그 예이다. 이때 선택의 책임은 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데서 생긴다. 결국 좋은 선택이란 욕구를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여러 마음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뜻풀이로 지문 속 낱말 찾기

뜻풀이를 보고 글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쓰세요.

01 다음 뜻에 해당하는 어휘를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얻고 싶어 하는 마음

답 _____

02 다음 뜻에 해당하는 어휘를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여러 요소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고른 상태

답 _____

03 다음 뜻에 해당하는 어휘를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다른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가치를 알아주는 것

답 _____

04 다음 뜻에 해당하는 어휘를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답 _____

05 다음 뜻에 해당하는 어휘를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 서로 부딪치는 것

답 _____

06 다음 뜻에 해당하는 어휘를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즐거운 마음으로

답 _____

07 다음 뜻에 해당하는 어휘를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짐작하여 살피는 것

답 _____

뜻과 문맥으로 답 고르기

낱말의 뜻과 문맥을 보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1 이 글에 쓰인 '헤아리는'을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짐작하는 ② 외면하는 ③ 강요하는 ④ 부풀리는 ⑤ 모른 체하는

02 이 글에 쓰인 '갈등'의 예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기분 좋게 숙제를 하는 경우
② 친구들의 칭찬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뿌듯한 경우
③ 동생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혼자 가게에 가는 경우
④ 처음 가 본 곳에서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경우
⑤ 놀고 싶은 마음과 공부할 마음 사이에서 망설이는 경우

03 이 글의 '균형'과 뜻이 반대되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조화 ② 차분함 ③ 안정 ④ 고름 ⑤ 치우침

04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부모님이 내 일에 지나치게 ( )하시면, 오히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기 어렵다.

① 인정 ② 균형 ③ 배려 ④ 간섭 ⑤ 갈등

두 낱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

제시된 두 낱말을 모두 사용해 뜻이 드러나도록 한 문장을 쓰세요.

01 '욕구'와 '균형' 두 어휘를 모두 사용하여, 각 어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한 문장을 만드시오.

답안

문법

문장 속 단어들의 역할 (품사)

우리말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어가 있다. 이 수많은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 품사는 단어가 지닌 고유한 성격을 알려 주는 이름표와도 같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기준은 '형태'로, 단어가 문장 속에서 형태가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눈다. '나무', '헌', '아주'와 같은 단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데, 이를 '불변어'라고 한다. 반면에 '먹다', '예쁘다'와 같은 단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한다. '먹다'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로, '예쁘다'는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로 활용된다. 이처럼 문장 속에서 형태가 바뀌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한다.

두 번째 기준은 '기능'으로,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문장의 몸통과 같이 중심이 되어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단어를 '체언'이라고 한다.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는 '관계언'이라고 한다.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풀이하는 단어는 '용언'이라고 하며,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는 '수식언'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독립언'이라고 한다.

세 번째 기준은 '의미'로, 단어가 지닌 공통된 뜻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는 것이다. 체언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가 있다. 관계언에는 '조사'가 속한다. 용언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나뉜다. 수식언에는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와 주로 용언을 꾸미는 '부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언에는 놀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속한다.

이처럼 우리말은 형태 기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고, 기능 기준에 따라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누며, 의미 기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9품사로 나눈다.

예
형태(불변/가변) — '나무·헌·아주'(불변) / '먹다·예쁘다'(가변)
기능 — '체언(학교)·용언(뛰다)·수식언(아주)·관계언(이/가)·독립언(아!)'
의미 9품사 — '명·대·수 / 조 / 동·형 / 관·부 / 감'

품사 단답형 문제

품사 분류 기준 표를 완성하고, 제시 단어와 개념을 9품사와 기능 갈래로 분류하세요.

01

보기

품사 분류의 세 가지 기준

우리말 단어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과 9품사의 관계를 표로 정리해 보자.

형태	기능	의미
[①] (형태가 변하지 않음)	[②] (문장의 몸통)	명사, 대명사, 수사
	[③] (관계 표시)	조사
	[④] (꾸며주는 말)	관형사, 부사
	[⑤] (독립적인 말)	감탄사
[⑥] (형태가 변함)	[⑦] (움직임·상태 서술)	동사, 형용사

02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하늘

답 _____

03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달린다

답 _____

04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아름답다

답 _____

05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우리

답 _____

06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셋

답 _____

07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에게

답 _____

08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온갖

답 _____

09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아주

답 _____

10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어머나

답 _____

11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먹고

답 _____

12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어의 종류를 나누어 놓은 체계는 무엇인가?

답 _____

13 '먹다'가 '먹고, 먹으니, 먹어서'로 바뀌는 것처럼, 문장 속에서 쓰임에 따라 단어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_____

14 품사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쓰시오.

답 _____

15 체언 가운데 명사를 대신하여 쓰는 품사는 무엇인가?

답 _____

16 체언 가운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는 무엇인가?

답 _____

17 용언 가운데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는 무엇인가?

답 _____

18 수식언 가운데 주로 용언을 꾸미는 품사는 무엇인가?

답 _____

19 관계언에 속하는 품사로,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답 _____

20 '새', '헌', '모든'처럼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는 무엇인가?

답 _____

21 '와', '네', '여보세요'처럼 독립적으로 쓰이는 품사는 무엇인가?

답 _____

품사 객관식 문제

품사 분류 기준과 단어의 기능을 보고 체언·용언·수식언·관계언·독립언을 구별하세요.

01 품사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단어의 '소리(음운)'가 가장 우선적인 분류 기준이 된다.
②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체언·용언 등으로 나뉜다.
③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명사·동사 등으로 세분화된다.
④ 형태·기능·의미의 세 기준은 함께 작용해 품사를 결정한다.
⑤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뉜다.

02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하는 품사는?

① 명사 ② 동사 ③ 부사 ④ 관형사 ⑤ 감탄사

03 기능에 따른 묶음이 나머지와 <u>다른</u> 하나는?

① 학생 ② 우리 ③ 셋 ④ 아주 ⑤ 나무

0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와 <u>다른</u> 하나는?

① 말이 <u>달린다</u>.
② 밥을 모두 <u>먹었다</u>.
③ 하늘이 <u>아름답다</u>.
④ 동생이 <u>잔다</u>.
⑤ 기차가 <u>온다</u>.

05 '수식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②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③ 관형사는 체언(명사 등)을 꾸며 준다.
④ 부사는 주로 용언(동사·형용사)을 꾸며 준다.
⑤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에 속한다.

06 〈보기〉의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보기

나는 <u>새</u> 옷을 입고 나갔다.

① <u>하늘</u>이 무척 푸르고 맑다.
② 오늘 나는 <u>매우</u> 기쁘다.
③ <u>저</u> 사람이 내 친구다.
④ <u>어머나</u>! 정말 멋지구나.
⑤ 동생이 <u>밥</u>을 다 먹는다.

07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부사'인 것은?

① 토끼가 빨리 달린다. ② 나는 책을 읽는다. ③ 셋이서 놀러 갔다.
④ 와! 정말 멋지다. ⑤ 모든 학생이 모였다.

08 문장 속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가 아닌 것은?

① 하늘 ② 그리고 ③ 헌 ④ 에게 ⑤ 깨끗하다

09 '용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②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꾸며 준다.
③ 활용을 통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④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여 주어를 풀이한다.
⑤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용언의 범주에 포함된다.

품사 서술형 문제

헌과 아주의 품사를 밝히고, 각각 어떤 말을 꾸미는지 설명하세요.

01 제시된 문장에서 '헌'과 '아주'의 품사를 각각 밝히고, 두 단어가 각각 무엇을 꾸미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서술하시오.

보기

그는 헌 잡지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

답안

개념

표현을 생생하게 만드는 비유법

비유법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더 생생하고 인상 깊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이때 진짜 말하고 싶은 대상을 '원관념'이라 하고, 빗대어 표현하는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비유가 이루어진다.

직유법은 '같이', '처럼', '듯이', '-인 양' 등 비유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가르마 같은 논길"은 '논길(원관념)'을 '가르마(보조관념)'에 비유하여 일직선으로 뻗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은 '흙(원관념)'을 '살찐 젖가슴(보조관념)'에 빗대어 흙의 부드럽고 풍요로운 느낌을 강조한다. 직유법은 비교하는 말이 직접 드러나 있어 독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다.

은유법은 'A는 B이다' 또는 'A의 B' 같은 형태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는 '마음(A)은 호수(B)이다'의 형태로, 마음이 호수처럼 넓고 고요하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직유법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식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는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라고 하여 하늘과 들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또한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나, "착한 도랑이 /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처럼 자연물이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여 대상에 친근감을 부여하고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대유법도 비유법의 한 종류로, 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사물의 특징으로 그 사물 자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빼앗긴 들'은 '들'이라는 부분(보조관념)을 통해 '빼앗긴 우리나라 국토'라는 전체(원관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비유법은 평범한 내용을 더 새롭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며,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감상하도록 돕는 중요한 표현 기법이다.

예
직유법 — '가르마 같은 논길'(논길↔가르마, '같은' 연결)
은유법 — '내 마음은 호수요'(A는 B이다)
대유법 — '빼앗긴 들'→'들'로 국토 전체를 상징

비유법 단답형 문제

원관념·보조관념·직유법·은유법·의인법·대유법의 핵심 용어를 확인하세요.

01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생생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_____

02 비유법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대상, 즉 '논길'이나 '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_____

03 비유법에서 빗대어 표현하는 대상, 즉 '가르마'나 '살찐 젖가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_____

04 '같이', '처럼', '듯이'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비유법은 무엇인가?

답 _____

05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처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비유법은 무엇인가?

답 _____

06 'A는 B이다'의 형태로 비교 연결어 없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등치하듯 연결하는 비유법은 무엇인가?

답 _____

07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에서 '빵'이 먹을 것 전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은 무엇인가?

답 _____

비유법 객관식 문제

비유법의 종류와 효과를 보고 직유·은유·의인·대유를 구별하세요.

01 비유법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

①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다른 점을 드러내 두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②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③ 익숙한 대상으로 낯선 대상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④ 독자의 흥미를 끌고 정서적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서이다.
⑤ 표현을 더 생생하고 인상 깊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02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

① '처럼·같이' 같은 연결어를 사용한 직유법이다.
② 'A는 B이다' 형식으로 두 대상을 빗댄 은유법이다.
③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인 호수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④ 호수가 지닌 고요함·잔잔함의 이미지가 마음에 전이된다.
⑤ 원관념은 '마음', 보조관념은 '호수'이다.

03 다음 중 직유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 <u>아닌</u> 것은 무엇인가?

① 같이 ② 이다 ③ 듯이 ④ -인 양 ⑤ 처럼

04 "가르마 같은 논길"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

① '논길'이 원관념이다.
② '가르마'가 보조관념이다.
③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논길의 일직선으로 뻗은 모습을 표현했다.
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05 은유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

① 비교 연결어 없이 'A는 B이다'의 형태로 두 대상을 등치하듯 제시한다.
② 비교하는 말이 직접 드러나 있어 독자가 의미를 이해하기 쉽다.
③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형상화하기에 좋다.
④ '내 마음은 호수요'처럼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공통점을 부각한다.
⑤ 직유법보다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06 다음 중 의인법이 쓰이지 않은 표현은 무엇인가?

①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②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③ 착한 도랑이 /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④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

07 의인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① 대상의 의미를 반대로 바꾸어 강조한다.
② 대상을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한다.
③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④ 표현이 간결해지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⑤ 대상에 친근감을 부여하고 생동감을 준다.

08 다음 중 쓰인 비유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① 바다가 우리에게 낮게 속삭인다
② 노란 은행잎이 우리에게 손짓한다
③ 내 마음은 호수요
④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⑤ 착한 도랑이 /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09 '빼앗긴 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① 직유법 - '들'이라는 대상을 '빼앗긴 것'에 직접적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② 은유법 - 들은 결국 적에게 모두 빼앗긴 우리의 땅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③ 의인법 - '들'이 사람처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다.
④ 대유법 - 국토의 일부인 '들'을 통해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나타낸다.
⑤ 반어법 - 실제로는 빼앗기지 않았는데 빼앗겼다고 일부러 반대로 표현했다.

10 비유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대유법은 '같이', '처럼' 같은 말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한다.
② 은유법은 'A는 B이다'의 형태를 띤다.
③ 의인법은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생동감을 준다.
④ 직유법은 비교하는 말이 직접 드러나 이해하기 쉽다.
⑤ 비유법은 평범한 내용을 더 새롭게 전달한다.

비유법 서술형 문제

직유법과 은유법의 연결 방식 차이를 예와 함께 설명하세요.

01 '직유법'과 '은유법'의 연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각 방법의 예를 한 가지씩 들어 서술하시오.

답안

비문학

[인문] 내 마음의 다섯 가지 욕구, 현실요법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다. 현실요법이라는 상담 방법에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런 욕구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문제가 되면, 마음속 욕구들의 균형을 맞춰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실요법에서는 사람에게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살고 싶은 마음이다.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고, 필요한 것을 아끼며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둘째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쉽다. 셋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편이다. 넷째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다. 다섯째는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놀면서 재미를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취미 활동을 즐기고, 항상 밝고 호기심이 많다.

사람마다 이 다섯 가지 마음의 크기는 다르다. ㉠**그래서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 수 있다. 이럴 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키워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자유롭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둘 다 강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친구들과 자주 다툴 수 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기꺼이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현실요법에서는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욕구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사람은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현실요법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다.** 요즘에는 이 상담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여러 심리 상담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다.

현실요법 단답형 문제

현실요법의 기본 생각, 다섯 가지 욕구, 갈등 원인과 해결 흐름을 구조도로 정리하세요.

01

보기

지침: 글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파악하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 1문단: 현실요법의 기본 생각
  * 인간의 모든 행동 = (①)을 이루기 위한 (②)
  * 문제 해결 방법 = 마음속 욕구들의 (③) 맞추기
* 2문단: 다섯 가지 기본 욕구
  * 욕구 1: (④) 싶은 마음
  * 욕구 2: (⑤) 싶은 마음
  * 욕구 3: (⑥)받고 싶은 마음
  * 욕구 4: (⑦) 싶은 마음
  * 욕구 5: (⑧) 살고 싶은 마음
* 3문단: 갈등의 원인과 해결
  * 원인: 사람마다 다섯 가지 마음의 (⑨)가 다르기 때문
  * 사례 및 해결책 제시
* 4문단: 현실요법의 목표와 현재
  * 핵심 목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⑩)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
  * 현재: 많은 (⑪)을 받으며 넓게 사용되고 있음

답 _____

02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속 욕구를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상담 방법은 무엇인가?

답 _____

03 규칙을 잘 지키고 필요한 것을 아끼며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강한 사람인가?

답 _____

04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쉬운 사람은 어떤 마음이 강한 사람인가?

답 _____

05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편인 사람은 어떤 마음이 강한 사람인가?

답 _____

06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강한 사람인가?

답 _____

현실요법 객관식 문제

현실요법 글에서 선별 문장의 연결 의미, 다섯 욕구의 특징, 상담 목표를 판단하세요.

01 ㉠과 그 앞 문장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앞 문장의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② 앞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다.
③ 앞 문장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다.
④ 앞 문장과 다른 새로운 화제를 꺼낸다.
⑤ 앞 문장이 원인이고 ㉠이 그 결과이다.

02 ㉡과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글에서 말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키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
②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연습
③ 다른 사람의 생각도 기꺼이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
④ 규칙을 잘 지키고 필요한 것을 아끼는 연습
⑤ 새로운 취미를 찾아 즐겁게 지내는 연습

03 ㉢의 생각에 따라 상담할 때, 친구와 자주 다투어 고민하는 학생에게 할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친구가 먼저 화를 냈으니 너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② 선생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만 하면 다툴 일이 없을 거야.
③ 타고난 성격은 바뀌지 않으니 지금처럼 지내는 수밖에 없어.
④ 네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
⑤ 마음속 욕구를 모두 없애면 더는 괴롭지 않을 거야.

04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현실요법이 말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욕구
② 다섯 가지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를 가려내는 방법
③ 욕구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라서 생기는 갈등
④ 욕구의 균형을 맞추어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상담의 목표
⑤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로 보는 현실요법의 생각

0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현실요법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본다.
② 현실요법은 요즘 여러 심리 상담에서 사용되고 있다.
③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
④ 현실요법은 다른 사람의 욕구도 존중하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⑤ 모든 사람의 다섯 가지 마음의 크기는 똑같다.

06 〈보기〉의 민수가 가장 키워야 할 마음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민수는 친구들을 늘 잘 챙기고 잘 도와준다. 그러나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친구가 싫어할까 봐 꾹 참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다.

① 살고 싶은 마음 ② 사랑하고 싶은 마음 ③ 인정받고 싶은 마음
④ 자유롭고 싶은 마음 ⑤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

07 다음 중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규칙을 잘 지키고 필요한 것을 아껴 모은다.
②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지만 상처받기 쉽다.
③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생각을 잘 말한다.
④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⑤ 취미 활동을 즐기고 항상 밝고 호기심이 많다.

08 현실요법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② 다섯 가지 마음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 변하지 않는 존재
③ 남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편한 존재
④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이루어주어야 하는 존재

09 '자유롭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둘 다 강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한다.
②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가 없다.
③ 자기 생각만 고집하여 친구들과 자주 다툰다.
④ 규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답답해 보인다.
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만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10 윗글에 나타난 현실요법의 상담 목표를 가장 정확히 진술한 것은?

① 다섯 가지 욕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그 욕구만 집중적으로 키우도록 돕는다.
② 자기 욕구만 채우지 않고 남의 욕구도 방해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③ 문제가 되는 욕구를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돕는다.
④ 상담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욕구를 통제하도록 돕는다.
⑤ 다섯 가지 욕구 중 가장 약한 욕구를 진단해 그것을 키우라고 알려 주는 데 그친다.

현실요법 서술형 문제

갈등이 생기는 까닭을 욕구의 크기와 균형 개념으로 설명하세요.

01 현실요법에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까닭을 '욕구'와 관련지어 밝히고, 그 해결 방법을 서술하시오.

답안

문학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낱말 풀이]

*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답답워라: 답답하구나.
* 한 자욱도 섰지 마라: 한 걸음도 멈추어 서지 마라. '자욱'은 '자국'과 같은 말이다.
* 종다리: 종달새. 봄에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잘 우는 새이다.
* 아씨: 아랫사람들이 젊은 부녀자를 높여 이르는 말.
* 삼단 같은 머리: 숱이 많고 긴 머리. '삼단'은 삼을 묶은 단이다.

* 가쁘게나: 숨이 찰 만큼 빠르게.
* 도랑: 매우 좁고 작은 개울.
* 깝치지: '재촉하지'의 방언.
* 들마꽃: 들에 피는 꽃.
* 아주까리기름: 피마자 씨로 짠 기름. 머리에 바르기도 한다.
* 지심매던: 김매던. '김매다'는 논밭의 잡풀을 뽑아낸다는 뜻이다.
* 시도록: 관절이 삐었을 때처럼 저리도록.
* 짬: 어떤 일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
* 닫는: 빨리 뛰어가는.
* 흔: 넋.
* 우스웁다: '우습다'와 같은 말.
* 지폈나: 신이 내렸나. '지피다'는 사람에게 신이 내려 신통한 힘이 생긴다는 뜻이다.

작품 단답형 문제

비유가 쓰인 구절을 읽고, 화자가 빗댄 대상을 시에서 찾아 쓰세요.

01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에서 화자가 '강가에 나온 아이'에 빗댄 대상을 시에서 찾아 한 글자로 쓰시오.

답 _____

작품 객관식 문제

선별 구절의 주어를 찾고, 빼앗긴 들의 상징·화자의 정서·수미상관 효과를 판단하세요.

01 '흔들고'의 주어로 알맞은 것은?

보기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① 바람 ② 나 ③ 귀 ④ 옷자락 ⑤ 자욱

02 '감았구나'의 주어가 가리키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① 비 ② 자정 ③ 보리밭 ④ 머리 ⑤ 삼단

03 '끌었느냐'의 주어가 가리키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① 나 ② 내 맘 ③ 하늘과 들 ④ 누구 ⑤ 입술

04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① 봄의 아름다움에 기뻐하다가, 봄이 짧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있다.
②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느끼다가, 봄의 풍경을 보며 희망을 되찾고 있다.
③ 봄을 즐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자신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다짐하고 있다.
④ 고향의 봄을 그리워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체념하고 있다.
⑤ 봄 들판에 흠뻑 빠져 기뻐하다가, 빼앗긴 현실을 다시 깨닫고 절망하고 있다.

05 말하는 이가 봄의 들판을 걸으며 느끼는 주된 감정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

① 종다리의 웃음과 도랑의 어깨춤을 보며 느끼는 흥겨움
② 땀 흘려 일하고 싶은 국토에 대한 애정
③ 푸른 하늘과 들판을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
④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마냥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과 무기력함

06 이 시에서 '빼앗긴 들'이 상징하는 의미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

①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간 한 개인의 사유지
② 자유와 주권을 잃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
③ 우리 민족이 되찾아야 할 삶의 터전
④ 봄이 와도 진정한 봄을 누릴 수 없는 억압된 공간
⑤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 우리의 국토

07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라는 구절에 담긴 말하는 이의 심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

① 기쁜 척, 슬픈 척하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일부러 속이는 거짓된 마음
② 자연의 생명력이 주는 환희와 식민지 현실의 비애가 뒤섞인 양가감정
③ 봄을 누리고 싶지만 '빼앗긴 들'이라는 현실에 마음 깊이 자리한 비통함
④ 봄을 만끽하면서도 끝내 잊을 수 없는 민족적 슬픔
⑤ 봄의 아름다움에 빠진 기쁨과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 함께 어우러진 복잡한 마음

08 말하는 이가 "우스웁다"라고 말한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길을 잃어 엉뚱한 들길로 잘못 들어선 자신이 어이없어서
② 종다리가 마치 아씨처럼 구는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③ 하늘과 들이 끝내 대답해 주지 않아 답답해서
④ 바람이 쉬지 말고 걸으라고 재촉하는 것이 귀찮아서
⑤ 빼앗긴 현실을 잊고 들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09 이 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① 질문으로 시작해서 희망적인 대답으로 끝나고 있다.
② 슬픈 질문으로 시작해서 더욱 절망적인 대답으로 끝나고 있다.
③ 슬픈 질문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인 깨달음으로 끝나고 있다.
④ 간절한 소망으로 시작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며 끝나고 있다.
⑤ 기쁜 다짐으로 시작해서 슬픈 후회로 끝나고 있다.

10 이 시에서 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정서 및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

① 하늘과 들을 향해 왜 침묵하냐며 원망을 드러낸다.
② 잘 자란 보리밭을 보며 고마움을 느낀다.
③ 마른 논을 안고 도는 도랑을 '착하다'고 말한다.
④ 흙을 '살찐 젖가슴'에 비유하며 부드럽고 풍요로운 대상으로 여긴다.
⑤ 종다리를 '아씨'에 비유하며 반가움을 표현한다.

11 말하는 이가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① 농사를 직접 지어서 많은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② 가난한 농부들이 겪는 힘든 일상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③ 빼앗긴 우리 땅의 주인이 되어 직접 땀 흘리며 가꾸고 싶어서
④ 농사일을 돕는 척하며 들판을 더 오래 구경하고 싶어서
⑤ 호미를 들어 보이며 일본에 저항하는 용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작품 서술형 문제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의 양가감정,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대응 효과를 설명하세요.

01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라는 표현에서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이 각각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작품 상황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답안

02 이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은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주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답안

국어농장 정규과정 · 비트겐슈타인1 1권

01 1주 학습

문법 · 문학 · 비문학



이번 주에 읽을 글

- 문법 지문 - 음운 체계
- 알 수 없어요
- 배를 매며
- 정합설의 이해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문법

문법 지문 – 음운 체계

1. 음성과 음운의 구분

언어학에서 음성과 음운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음성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물리적인 소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

반면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불'과 '물'에서 'ㅂ'과 'ㅁ'은 각각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므로 서로 다른 음운이다.

이처럼 하나의 음운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쌍이라 하며, 이를 통해 음운을 추출할 수 있다. 국어의 음운에는 자음·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과 소리의 길이와 같은 비분절 음운이 있다. 비분절 음운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분절 음운에 얹혀서만 실현된다.

예를 들어 '눈'(雪)과 '눈'(眼)은 분절 음운이 모두 같으나 소리의 길이로 뜻이 구별되는데, 이때의 길이가 비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소리의 길이도 뜻을 구별하므로, 분절 음운이 같고 길이만 다른 단어의 짝도 최소 대립쌍이 된다.

2. 자음의 분류

국어의 자음은 공기가 목 안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로, 모두 19개이다.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파열음은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이고, 파찰음은 막았다가 서서히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ㅈ, ㅉ, ㅊ)이다.

마찰음은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시키는 소리(ㅅ, ㅆ, ㅎ)이며, 비음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ㅁ, ㄴ, ㅇ),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가 떼며 내는 소리(ㄹ)이다. 또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조음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ㅂ, ㅃ, ㅍ, ㅁ), 잇몸소리(ㄷ, ㄸ, ㅌ, ㅅ, ㅆ, ㄴ, ㄹ), 센입천장소리(ㅈ, ㅉ, ㅊ), 여린입천장소리(ㄱ, ㄲ, ㅋ, ㅇ), 목청소리(ㅎ)로 구분하며,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한편 성대의 울림 여부로 보면 모든 모음과 비음·유음('ㄴ, ㄹ, ㅁ, ㅇ')은 울림소리이고, 파열음·마찰음·파찰음은 안울림소리이다.

3. 단모음의 분류

국어의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다. 단모음은 혀의 높낮이, 혀의 전후 위치, 입술 모양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ㅣ, ㅟ, ㅡ, ㅜ), 중모음(ㅔ, ㅚ, ㅓ, ㅗ), 저모음(ㅐ, ㅏ)으로 나뉘며,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ㅣ, ㅔ, ㅐ, ㅟ, ㅚ)과 후설 모음(ㅡ, ㅓ, ㅏ, ㅜ, ㅗ)으로 구분된다.

또한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ㅟ, ㅚ, ㅜ, ㅗ)과 평순 모음(ㅣ, ㅔ, ㅐ, ㅡ, ㅓ, ㅏ)으로 나뉜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10개의 단모음 체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ㅟ'와 'ㅚ'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이중 모음

국어의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이고, 이중 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이다.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반모음 'j'(ㅣ 계열)와 단모음이 결합한 것으로 'ㅑ, ㅕ, ㅛ, ㅠ, ㅒ, ㅖ'가 있고, 반모음 'w'(ㅗ/ㅜ 계열)와 단모음이 결합한 것으로 'ㅘ, ㅝ, ㅙ, ㅞ'가 있다. 이들은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오는 상향 이중 모음이다.

반면 'ㅢ'는 단모음 'ㅡ' 뒤에 반모음 'j'가 결합한 특수한 경우로 분류된다. 한편 표준 발음법에서 'ㅟ'와 'ㅚ'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5. 모음 조화

국어에서 모음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나뉜다. 양성 모음은 'ㅏ, ㅗ'처럼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모음이고, 음성 모음은 'ㅓ, ㅜ'처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모음이다. 모음 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특히 의성어·의태어와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살살'(양성)에 대응하는 '슬슬'(음성), '찰랑찰랑'(양성)에 대응하는 '철렁철렁'(음성)이 있다. 또한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에서도 모음 조화가 적용되어, '막다'의 어간 '막-'에는 어미 '-아'가, '먹다'의 어간 '먹-'에는 어미 '-어'가 결합한다. 다만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깡충깡충'처럼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섞여 굳어진 표준어도 있다.

문법 객관식 문제

윗글에서 설명한 자음과 모음의 분류, 이중 모음,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을 〈보기〉의 자료에 적용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단어들에서 음운을 추출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다음은 음운 추출 활동에 쓰인 고유어들이다. 이웃한 두 단어가 하나의 음운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 짝이 되도록 차례로 배열하였으며, 각 단어는 모두 세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 - 불 - 발 - 벌 - 범
이웃한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비교하면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들이 드러난다.

① '물'과 '불'을 비교하여 'ㅁ'과 'ㅂ'을 추출할 수 있다.
② '벌'과 '범'에서 추출되는 두 음운은 모두 울림소리이다.
③ 추출되는 자음 'ㅁ'과 'ㅂ'은 조음 위치가 서로 같다.
④ 추출되는 모음 'ㅜ'와 'ㅏ'는 혀의 높이가 서로 같다.
⑤ 추출되는 모음 'ㅜ', 'ㅏ', 'ㅓ'는 모두 후설 모음이다.

0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음은 같은 음절을 이루는 자음들을 자질에 따라 살펴보기 위한 자료이다.
㉠ ㄷ ㉡ ㄴ ㉢ ㅈ ㉣ ㅁ ㉤ ㅇ
각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그리고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자.

① ㉠과 ㉡은 조음 방법이 서로 같다.
② ㉡과 ㉣은 조음 방법은 같고 조음 위치는 다르다.
③ ㉢과 ㉤은 모두 안울림소리에 해당한다.
④ ㉠과 ㉤은 조음 위치가 서로 같다.
⑤ ㉣과 ㉤은 조음 방법은 같고 조음 위치는 같다.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발음 조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다음은 단모음을 정확히 발음하도록 돕기 위해 두 모음의 발음 차이를 설명한 자료이다.
(가) 'ㅓ'를 발음하다가 'ㅗ'로 옮길 때
(나) 'ㅖ'를 발음하다가 'ㅐ'로 옮길 때
(다) 'ㅡ'를 발음하다가 'ㅣ'로 옮길 때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 가운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① (가)에서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변화가 나타난다.
② (가)에서는 혀의 높이가 달라지지 않은 채 발음된다.
③ (나)에서는 혀의 높이를 낮추어 입을 더 크게 벌린다.
④ (다)에서는 혀의 최고점이 뒤에서 앞으로 옮겨 간다.
⑤ (다)에서는 입술 모양이 평순에서 원순으로 바뀐다.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다음은 여러 모음을 발음 특성에 따라 살펴보기 위한 자료이다.
㉠ ㅑ ㉡ ㅚ ㉢ ㅘ ㉣ ㅟ ㉤ ㅖ
각 모음이 단모음인지 이중 모음인지, 이중 모음이라면 어떤 반모음이 결합한 것인지 구분해 보자.

① ㉠은 반모음 'j'와 단모음이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② ㉣은 표준 발음법에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은 반모음 'j'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다.
④ ㉡은 단모음 'ㅡ' 뒤에 반모음이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⑤ ㉠, ㉢, ㉤은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이다.

0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다음은 '말'이라는 형태가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모은 자료이다.
(가) 말:(言) —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음성 기호
(나) 말(馬) — 동물의 한 종류
(다) 말(斗) — 곡식 등을 헤아리는 단위
세 단어의 소리를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 (가)~(다)는 분절 음운의 구성이 서로 같다.
② (나)와 (다)는 비분절 음운까지 같은 동음이의 관계이다.
③ (가)와 (나)는 비분절 음운의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④ (가)와 (다)는 소리의 길이로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
⑤ (나)와 (다)는 소리의 길이가 달라 뜻이 구별된다.

문학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문학 객관식 문제 1 - 알 수 없어요

시어와 시구의 의미, 표현과 시상의 흐름을 살피며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① ㉠ : '바람도 없는~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② ㉡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③ ㉢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④ ㉣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⑤ ㉤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02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명령형 어조를 거듭 사용하여 청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② 동일한 의문형 구조를 반복하여 시 전체에 통일감을 더하고 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이 변화하는 과정을 차례로 그리고 있다.
④ 말줄임표를 거듭 배치하여 시상이 머무는 여백을 형성하고 있다.
⑤ 두 대상을 대비하여 대상들 사이의 우열을 뚜렷이 부각하고 있다.

0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바람도 없는 공중'에서 '오동잎'이 떨어진다는 데서, 화자가 미세한 자연 현상에 마음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푸른 하늘'이 보인다는 데서, 가려졌던 대상이 잠시 모습을 드러냄을 포착함을 알 수 있다.
③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시내가 나온다는 데서, 대상이 비롯된 바를 다 헤아리기 어려움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④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에서, 자신의 헌신이 마침내 사그라듦을 화자가 체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가슴'을 '약한 등불'에 빗댄 데서, 화자가 스스로를 한껏 낮추어 겸허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윗글에 쓰인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연은 오동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려주어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② 2연은 '검은 구름'과 '푸른 하늘'을 대비하여 촉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③ 3연은 '알 수 없는 향기'를 통해 후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④ 4연은 시내의 '노래'를 통해 미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⑤ 6연은 등불이 타는 소리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05 윗글의 6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앞 연들이 던진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며 시상을 맺고 있다.
② 바깥 자연으로 향하던 시선을 화자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고 있다.
③ 대상과 헤어진 데서 비롯된 화자의 슬픔을 직접 토로하고 있다.
④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하여 무상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구도의 길을 포기하려는 화자의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는 묻는 방식을 통해 단정적인 진술과는 다른 효과를 낳기도 한다. 거듭되는 물음은 대상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내는 한편, 답을 쉽게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 대상을 향한 탐구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게 만든다. 또한 물음의 대상이 되는 자연의 사물들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자취를 비추는 거울처럼 쓰인다.

① '누구의 발자취입니까'처럼 묻기를 거듭한 데서, 대상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볼 수 있겠군
② 자연의 사물마다 '누구'의 자취를 비춘다는 점에서, 사물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비추는 거울로 쓰였음을 볼 수 있겠군
③ 끝까지 물음을 거두지 않고 이어 간 데서, 대상을 향한 탐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④ '떨어지는 오동잎'을 '누구의 발자취'로 단정한 데서, 대상의 정체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겠군
⑤ 묻는 대상을 '얼굴'이나 '입김'으로 바꾸어 떠올린 데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감각으로 더듬으려 함을 볼 수 있겠군

문학 명제 분석 1 - 알 수 없어요

선택지의 내용을 하나씩 판단하고, 글에서 근거를 찾아 쓰세요.

1번 ① ㉠ : '바람도 없는~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1.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는 '바람도 없는~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O · X
   근거
2. 그 결합은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준다. O · X
   근거

1번 ② ㉡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1. ㉡ '무서운 검은 구름'은 본문에서 '푸른 하늘'과 대조된다. O · X
   근거
2. 그것은 화자와 절대자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다. O · X
   근거

1번 ③ ㉢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1. ㉢ '알 수 없는 향기'는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다. O · X
   근거
2. 그것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낸다. O · X
   근거

1번 ④ ㉣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①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는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룬다. O · X

근거

② 그 짝은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편재성)를 드러낸다. O · X

근거

1번 ⑤ ㉤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① ㉤ '약한 등불'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와 관련된다. O · X

근거

② 그 관계는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O · X

근거

2번 ① 명령형 어조를 거듭 사용하여 청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① 윗글은 명령형 어조를 거듭 사용하고 있다. O · X

근거

② 윗글은 청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O · X

근거

2번 ② 동일한 의문형 구조를 반복하여 시 전체에 통일감을 더하고 있다.

① 윗글은 '누구의 ~입니까'라는 의문형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O · X

근거

② 이 반복으로 시 전체에 통일감이 생긴다. O · X

근거

2번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이 변화하는 과정을 차례로 그리고 있다.

① 윗글은 계절이 변화하는 과정을 차례로 그리고 있다. O · X

근거

2번 ④ 말줄임표를 거듭 배치하여 시상이 머무는 여백을 형성하고 있다.

① 윗글에는 말줄임표가 거듭 쓰였다. O · X

근거

2번 ⑤ 두 대상을 대비하여 대상들 사이의 우열을 뚜렷이 부각하고 있다.

① 윗글은 두 대상을 대비하고 있다. O · X

근거

② 윗글은 대상들 사이의 우열을 부각하고 있다. O · X

근거

3번 ① '바람도 없는 공중'에서 '오동잎'이 떨어진다는 데서, 화자가 미세한 자연 현상에 마음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1연에서 오동잎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서 떨어진다. O · X

근거

② 화자는 작은 자연 현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 O · X

근거

3번 ②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푸른 하늘'이 보인다는 데서, 가려졌던 대상이 잠시 모습을 드러냄을 포착함을 알 수 있다.

① 2연에서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푸른 하늘이 보인다. O · X

근거

② 화자는 가려졌던 대상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붙잡고 있다. O · X

근거

3번 ③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시내가 나온다는 데서, 대상이 비롯된 바를 다 헤아리기 어려움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① 4연에서 시내는 근원을 알지 못할 곳에서 흘러나온다. O · X

근거

② 화자는 대상이 비롯된 곳을 다 헤아리기 어렵다고 여긴다. O · X

근거

3번 ④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에서, 자신의 헌신이 마침내 사그라듦을 화자가 체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6연에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고 한다. O · X

근거

② 화자는 자신의 헌신이 사그라드는 것을 체념하고 있다. O · X

근거

3번 ⑤ '나의 가슴'을 '약한 등불'에 빗댄 데서, 화자가 스스로를 한껏 낮추어 겸허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6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가슴을 '약한 등불'에 빗댄다. O · X

근거

② 화자는 스스로를 낮추어 겸허하게 드러내고 있다. O · X

근거

4번 ① 1연은 오동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려주어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① 1연의 오동잎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O · X

근거

4번 ② 2연은 '검은 구름'과 '푸른 하늘'을 대비하여 촉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① 2연은 '검은 구름'과 '푸른 하늘'을 대비한다. O · X

근거

② 이 대목은 촉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O · X

근거

4번 ③ 3연은 '알 수 없는 향기'를 통해 후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① 3연의 '알 수 없는 향기'는 코로 맡는 감각을 살린 표현이다. O · X

근거

② 이 대목은 후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O · X

근거

4번 ④ 4연은 시내의 '노래'를 통해 미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① 4연에서 시내를 '노래'라고 부른다. O · X

근거

② 이 대목은 미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O · X

근거

4번 ⑤ 6연은 등불이 타는 소리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① 6연의 등불은 타는 소리를 낸다. O · X

근거

5번 ① 앞 연들이 던진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며 시상을 맺고 있다.

① 6연은 앞 연들이 던진 물음에 분명한 답을 내놓는다. O · X

근거

5번 ② 바깥 자연으로 향하던 시선을 화자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고 있다.

① 1~5연에서 화자는 바깥 자연을 바라보며 묻는다. O · X

근거

② 6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다. O · X

근거

5번 ③ 대상과 헤어진 데서 비롯된 화자의 슬픔을 직접 토로하고 있다.

① 6연에서 화자는 대상과 헤어진 슬픔을 직접 털어놓는다. O · X

근거

5번 ④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하여 무상감을 부각하고 있다.

① 6연은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한다. O · X

근거

② 6연은 삶의 덧없음을 부각한다. O · X

근거

5번 ⑤ 구도의 길을 포기하려는 화자의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① 6연에서 화자는 구도의 길을 포기하려 한다. O · X

근거

6번 ① '누구의 발자취입니까'처럼 묻기를 거듭한 데서, 대상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볼 수 있겠군

① 윗글은 '누구의 ~입니까'처럼 묻기를 거듭한다. O · X

근거

② 거듭되는 물음은 대상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낸다. O · X

근거

6번 ② 자연의 사물마다 '누구'의 자취를 비춘다는 점에서, 사물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비추는 거울로 쓰였음을 볼 수 있겠군

① 윗글의 자연 사물들은 저마다 '누구'의 자취로 그려진다. O · X

근거

② 이 사물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비추는 거울처럼 쓰였다. O · X

근거

6번 ③ 끝까지 물음을 거두지 않고 이어 간 데서, 대상을 향한 탐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① 윗글은 마지막 연까지 물음을 거두지 않는다. O · X

근거

② 이는 대상을 향한 탐구가 끝나지 않고 이어짐을 드러낸다. O · X

근거

6번 ④ '떨어지는 오동잎'을 '누구의 발자취'로 단정한 데서, 대상의 정체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겠군

① 윗글은 '떨어지는 오동잎'을 '누구의 발자취'라고 단정한다. O · X

근거

② 〈보기〉는 물음이 대상의 정체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본다. O · X

근거

6번 ⑤ 묻는 대상을 '얼굴'이나 '입김'으로 바꾸어 떠올린 데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감각으로 더듬으려 함을 볼 수 있겠군

① 윗글은 묻는 대상을 '얼굴', '입김'처럼 바꾸어 떠올린다. O · X

근거

② 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감각으로 더듬으려는 것이다. O · X

근거

작가 소개

한용운(1879~1944)은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자 승려, 독립운동가이다.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으며, 시집 『님의 침묵』(1926)에서 절대자인 '님'을 향한 그리움과 구도의 마음을 역설적 표현에 담아 노래하였다. 대표작으로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나룻배와 행인」 등이 있다.

작품 해설

「알 수 없어요」는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1926)에 실린 자유시이다. 화자는 떨어지는 오동잎, 구름 틈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옛 탑 위의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같은 자연 현상을 보며 그 뒤에 있는 절대자(님)의 존재를 묻는다. 1연부터 5연까지 '~은 누구의 ~입니까'라는 같은 짜임의 물음을 되풀이하여 시에 통일감을 주고, 6연에서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끝없는 자기 헌신의 정신을 드러낸다. 마지막 연에서 시선이 바깥 자연에서 화자 자신의 가슴으로 옮겨 오는데, 화자는 절대자가 누구인지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를 향한 구도의 의지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갈래: 자유시·서정시
주제: 절대자(님)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어조: 의문형(~입니까)을 반복한 경건하고 여성적인 독백체
표현 기법: 동일 통사 구조의 반복, 의문형 종결, 자연물의 상징, 역설("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구성: 자연 현상을 통한 절대자 존재 탐구(1~5연) → 화자 내면의 구도적 의지(6연)

구절 해설

1연

구절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그리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을 '누구의 발자취'라고 묻는다. 작고 조용한 자연 현상 속에서 절대자의 흔적을 찾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2연

구절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무서운 검은 구름'은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가로막는 번뇌나 고난을, 그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잠깐 모습을 드러내는 절대자의 얼굴을 나타낸다. 늘 가려져 있다가 순간순간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을 색채의 대비로 보여 준다.

3연

구절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향기가 '꽃도 없는 깊은 나무'와 '푸른 이끼', '옛 탑'을 거쳐 하늘을 스친다고 하여, 절대자가 화려한 곳이 아니라 깊고 은밀한 곳에서 존재를 드러낸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느껴지므로,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있는 절대자의 존재 방식과 닮았다.

4연

구절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와 '돌뿌리를 울리고' 흐르는 시내를 절대자의 '노래'로 표현하였다.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비롯되는 절대자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며, 시내 소리를 노래로 들어 청각적 이미지를 살렸다.

5연

구절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가이없는 바다'와 '끝없는 하늘'을 '밟고', '만지면서' 저녁놀을 곱게 꾸민다고 하여, 절대자가 온 우주에 두루 있음을 보여 준다. 날마다 보는 저녁놀을 '누구의 시'라고 하여, 자연 전체를 절대자가 쓴 시로 바라본다.

6연

구절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앞의 연들이 바깥 자연을 바라보았다면, 6연에서는 시선이 화자 자신의 가슴으로 옮겨 온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는 다 탄 재가 다시 연료가 된다는 역설로,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 헌신을 나타낸다. '약한 등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절대자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라는 점에서 구도자로서 자신을 세우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끝까지 '입니까'라는 물음으로 맺어 절대자를 찾는 일이 계속 이어짐을 보여 준다.

문학 1 - 알 수 없어요 서술형 문제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 '알 수 없는 향기'와 ㉤ '약한 등불'을 모두 근거로 들어, 반복되는 '누구의 ~입니까'라는 물음이 절대자의 흔적을 탐색하고 화자가 구도자로서 자신을 세우는 방식을 120~180자 내외로 서술하세요.

01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알 수 없어요」에서 화자가 자연 현상을 반복적으로 '누구의 ~입니까'라고 묻는 방식이 절대자 탐구와 자기 정립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과 ㉤을 모두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문학 작품에서 반복되는 의문형 표현은 단순히 답을 모른다는 뜻을 넘어, 보이지 않는 존재의 흔적을 탐색하고 화자 자신의 태도를 세우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자연 현상은 절대자와 화자 사이를 매개하는 표지로 읽을 수 있다.

답안

배를 매며

장석남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A]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문학 객관식 문제 2 - 배를 매며

일상의 행위에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시상의 흐름을 살피며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1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02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말을 건네는 어투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시적인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③ 일상의 행위에 빗대어 추상적 관념을 또렷이 형상화하고 있다.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⑤ 청각적 이미지를 점층적으로 배열하여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0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온다는 데서, 사건이 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②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사랑이 화자의 의지 너머의 일로 다가옴을 알 수 있다.
③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에서, 배가 주변 세계와 한데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에서, 사랑을 잃은 화자의 불안한 흔들림이 점점 커져 감을 알 수 있다.
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에서, 사랑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깨달음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04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절의 순환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며 전개되고 있다.
② 일상의 행위에서 출발해 그 의미를 깨닫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③ 공간을 옮겨 가는 화자의 시선을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묻고 답하는 구조를 거듭하며 주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⑤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0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어떤 시는 일상의 사소한 행위를 빌려 삶의 한 깨달음을 풀어낸다. 우연히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 인연은, 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대상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함께 끌어안는 일로 이어진다. 이때 그 깨달음은 단번에 완성되기보다 거듭 바라보는 가운데 한 걸음씩 깊어진다.

①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을 사랑이라 한 데서, 우연히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데서 인연이 비롯됨을 볼 수 있겠군
②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데서, 한 대상에 머물지 않고 그 둘레의 세계를 끌어안음을 볼 수 있겠군
③ '처음 알았다'에서 다시 '처음 아는 것'으로 이어 간 데서, 깨달음이 한 걸음씩 깊어짐을 볼 수 있겠군
④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깨달음이 단번에 완성되어 더는 깊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겠군
⑤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앉았다가 일이 벌어진 데서, 사소하고 우연한 자리에서 인연이 비롯됨을 볼 수 있겠군

06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거듭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우연한 일을 받아들이며 그 뜻을 헤아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지난 사랑을 돌아보며 그 덧없음을 한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사랑을 이루려고 대상을 적극적으로 좇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사랑의 상처를 잊으려 일상에 몰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학 명제 분석 2 - 배를 매며

선택지의 내용을 하나씩 판단하고, 글에서 근거를 찾아 쓰세요.

1번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① [A]에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그려져 있다. O · X

근거

1번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① [A]에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타난다. O · X

근거

1번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① 배 매기의 의미가 사랑임이 [A]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O · X

근거

1번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① [A]에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 를 통해 제시된다. O · X

근거

1번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① [A]에서 화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표명한다. O · X

근거

② 그 인식은 2연의 정식화보다 한 단계 '심화' 된 것이다. O · X

근거

2번 ① 말을 건네는 어투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윗글의 화자는 말을 건네는 어투를 쓰고 있다. O · X

근거

2번 ②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시적인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① 윗글은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고 있다. O · X

근거

2번 ③ 일상의 행위에 빗대어 추상적 관념을 또렷이 형상화하고 있다.

① 윗글은 배를 매는 일상의 행위를 그리고 있다. O · X

근거

② 윗글은 그 행위에 빗대어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O · X

근거

2번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① 윗글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다. O · X

근거

2번 ⑤ 청각적 이미지를 점층적으로 배열하여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① 윗글은 청각적 이미지를 점층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O · X

근거

3번 ①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온다는 데서, 사건이 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① 1연에서 밧줄이 '등 뒤로 털썩' 날아온다. O · X

근거

② 이 일은 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O · X

근거

3번 ②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사랑이 화자의 의지 너머의 일로 다가옴을 알 수 있다.

① 2연에서 사랑을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O · X

근거

② 사랑은 화자의 의지 너머의 일로 다가온다. O · X

근거

3번 ③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에서, 배가 주변 세계와 한데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3연에서 배는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다. O · X

근거

② 배는 주변 세계와 한데 어우러져 있다. O · X

근거

3번 ④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에서, 사랑을 잃은 화자의 불안한 흔들림이 점점 커져 감을 알 수 있다.

① 5연에서 배는 빛 가운데 울렁인다. O · X

근거

② 이 울렁임은 사랑을 잃은 화자의 불안이 커져 감을 나타낸다. O · X

근거

3번 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에서, 사랑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깨달음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① 4연에서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고 한다. O · X

근거

② 이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다. O · X

근거

4번 ① 계절의 순환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며 전개되고 있다.

① 윗글은 계절의 순환에 따라 전개된다. O · X

근거

4번 ② 일상의 행위에서 출발해 그 의미를 깨닫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① 윗글은 배를 매는 일상의 행위에서 출발한다. O · X

근거

② 윗글은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는 데로 나아간다. O · X

근거

4번 ③ 공간을 옮겨 가는 화자의 시선을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① 화자의 시선은 공간을 옮겨 가며 전개된다. O · X

근거

4번 ④ 묻고 답하는 구조를 거듭하며 주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① 윗글은 묻고 답하는 구조를 거듭한다. O · X

근거

4번 ⑤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① 윗글은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O · X

근거

5번 ①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을 사랑이라 한 데서, 우연히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데서 인연이 비롯됨을 볼 수 있겠군

① 윗글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O · X

근거

② 이는 우연히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데서 인연이 비롯됨을 보여 준다. O · X

근거

5번 ②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데서, 한 대상에 머물지 않고 그 둘레의 세계를 끌어안음을 볼 수 있겠군

①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고 한다. O · X

근거

② 이는 한 대상에 머물지 않고 그 둘레의 세계를 끌어안음을 보여 준다. O · X

근거

5번 ③ '처음 알았다'에서 다시 '처음 아는 것'으로 이어 간 데서, 깨달음이 한 걸음씩 깊어짐을 볼 수 있겠군

① '처음 알았다'가 '처음 아는 것'으로 이어진다. O · X

근거

② 이는 깨달음이 한 걸음씩 깊어짐을 보여 준다. O · X

근거

5번 ④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깨달음이 단번에 완성되어 더는 깊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겠군

① 2연의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은 깨달음이 단번에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O · X

근거

② 〈보기〉는 깨달음이 단번에 완성된다고 본다. O · X

근거

5번 ⑤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앉았다가 일이 벌어진 데서, 사소하고 우연한 자리에서 인연이 비롯됨을 볼 수 있겠군

① 화자는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앉아 있다가 그 일을 겪는다. O · X

근거

② 이는 사소하고 우연한 자리에서 인연이 비롯됨을 보여 준다. O · X

근거

6번 ①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거듭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① 화자는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거듭 다짐한다. O · X

근거

6번 ② 우연한 일을 받아들이며 그 뜻을 헤아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① 화자는 우연히 던져진 밧줄을 받아들인다. O · X

근거

② 화자는 그 일의 뜻을 헤아린다. O · X

근거

6번 ③ 지난 사랑을 돌아보며 그 덧없음을 한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① 화자는 지난 사랑의 덧없음을 한탄한다. O · X

근거

6번 ④ 사랑을 이루려고 대상을 적극적으로 좇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① 화자는 사랑을 이루려고 대상을 적극적으로 좇는다. O · X

근거

6번 ⑤ 사랑의 상처를 잊으려 일상에 몰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① 화자는 사랑의 상처를 잊으려 일상에 몰두한다. O · X

근거

작가 소개

장석남(1965~)은 현대 시인이다. 자연과 일상에서 마주친 작은 장면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사랑과 그리움, 존재의 의미를 노래하였다. 시집으로 『새떼들에게로의 망명』, 『왼쪽 가슴 아래께에 온 통증』 등이 있으며, 「배를 매며」는 『왼쪽 가슴 아래께에 온 통증』(2001)에 실려 있다.

작품 해설

「배를 매며」는 장석남의 시집 『왼쪽 가슴 아래께에 온 통증』(2001)에 실린 자유시이다. 부둣가에서 우연히 던져진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일상의 행위에서 출발해, 화자는 그 일이 곧 사랑이라는 인식에 이른다. 1연에서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모습을 그린 뒤, 2연에서는 배를 매는 일을 사랑에 빗대어 말한다. 3연에서는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를 보여 주고, 4연 [A]에서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라고 하여 사랑이 한 대상뿐 아니라 그 둘레의 세계 전체를 함께 받아들이는 일임을 깨닫는다. 5연은 빛 가운데 온종일 떠 있는 배의 모습으로 끝나 깨달음 뒤의 평온한 여운을 남긴다.

갈래: 자유시·서정시
주제: 일상의 우연한 행위에서 깨닫는 사랑의 본질
어조: 차분하고 담담한 독백체
표현 기법: 배를 매는 일상의 행위에 빗대어 사랑을 형상화함, 구름·빛·시간과 배를 함께 그림
구성: 배를 매는 모습(1연) → 배를 매는 일을 사랑에 빗댐(2연) → 바다에 떠 있는 배(3연) →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심화(4연 [A]) → 평온한 여운(5연)

구절 해설

1연

구절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등 뒤로 털썩 / 밧줄이 날아와 나는 /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같은 표현이 고요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 속에서 화자는 등 뒤로 날아온 밧줄을 받아 배를 맨다. 배를 매는 일이 화자가 미리 바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왔음을 보여 준다.

2연

구절

사랑은, /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되는 것

1연에서 그린 일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는 사랑이 뜻하지 않게 찾아옴을,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되는 것'은 사랑이 화자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임을 나타낸다.

3연

구절

잔잔한 바닷물 위에 /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떠 있는 배

움직임이 멈춘 고요한 풍경이다. 배가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다고 하여, 배를 둘러싼 세계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 준다. 4연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다.

4연 [A]

구절

[A]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시 전체의 핵심 깨달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배만 매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빛과 시간까지 함께 매어진다는 깨달음, 곧 사랑은 한 대상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받아들이는 일임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처음 알았다', '처음 아는 것'을 이어 써서 사랑에 대한 인식이 한층 깊어졌음을 강조한다.

5연

구절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 온종일을 떠 있다

깨달음을 말한 뒤 다시 고요한 장면으로 시를 맺는다. 빛 가운데 떠 있는 배는 작게 흔들리지만 평온하게 머물러 있어, 사랑이 이어지는 상태를 여운으로 남긴다.

문학 2 - 배를 매며 서술형 문제

2연의 '배를 매게 되는 것'과 [A]의 '구름과 빛과 시간'을 비교하여,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세계와 시간을 함께 받아들이는 깨달음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120~180자 내외로 서술하세요.

01 「배를 매며」의 2연과 [A]를 비교하여, 화자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심화되는지 서술하시오.

답안

비문학

정합설의 이해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른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대개 설명적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비문학 객관식 문제 1 - 정합설의 이해

'정합적이다'를 정의하는 세 방식의 차이와 한계를 파악하고, 〈보기〉의 명제에 적용하며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0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0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0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받아들인 ② ㉡ : 일어나지 ③ ㉢ : 밝혀내기 ④ ㉣ : 지나치게 ⑤ ㉤ : 아우를

05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리에 대한 두 이론을 대비하여 각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② '정합적이다'의 정의를 차례로 소개하며 앞선 정의의 한계를 보완해 가고 있다.
③ 정합설이 처음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시대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어 정합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⑤ 여러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 뒤 그중 하나를 지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6 〈보기〉의 명제가 참일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이미 참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자.

① '은주는 여자이다.'는 함축으로 정의해도 정합적이므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면 정합적이므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은주는 학생이다.'는 함축으로 정의하면 함축되지 않으므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은주는 남자이다.'는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면 모순이 없어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⑤ '은주는 여자이다.'는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해도 정합적이므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비문학 명제 분석 1 - 정합설의 이해

선택지의 내용을 하나씩 판단하고, 글에서 근거를 찾아 쓰세요.

1번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① 정합설은 참 여부를 명제들 간의 관계로 판단한다. O · X

근거

1번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① 참인 명제와 정합적이면 새 명제도 참이다. O · X

근거

1번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① 모순 없음으로 참 아닌 명제는 '모순이 있는' 명제이다. O · X

근거

② 모순이 있는 명제는 함축 관계에서도 참이 될 수 없다. O · X

근거

1번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① 함축 관계의 명제들은 대개 설명적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본다. O · X

근거

② 함축 관계의 명제들은 모순 없는 명제들이 될 수 없다. O · X

근거

1번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① 설명적 연관의 긴밀도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O · X

근거

2번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①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 O · X

근거

② 두 명제는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O · X

근거

2번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①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 O · X

근거

2번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① 두 명제는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 O · X

근거

2번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①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O · X

근거

2번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①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있다. O · X

근거

3번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① 〈보기〉와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O · X

근거

②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모순되지 않는 명제는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O · X

근거

3번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① 〈보기〉가 참이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도 반드시 참이다. O · X

근거

② 함축으로 이해하면 함축되는 명제는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O · X

근거

3번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①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는 〈보기〉의 정전을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O · X

근거

②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는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O · X

근거

3번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① 〈보기〉가 참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가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는다. O · X

근거

② 함축으로 이해하면 함축되지 않는 명제는 참으로 추가할 수 없다. O · X

근거

3번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① 〈보기〉와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는 함축 관계이다. O · X

근거

②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대개 설명적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본다. O · X

근거

③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으로 추가할 수 없다. O · X

근거

4번 ① ㉠ : 받아들인

① ㉠ '인정한'은 '받아들인'으로 바꿔 써도 뜻이 통한다. O · X

근거

4번 ② ㉡ : 일어나지

① ㉡ '발생하지'는 '일어나지'로 바꿔 써도 뜻이 통한다. O · X

근거

4번 ③ ㉢ : 밝혀내기

① ㉢ '해결하기'는 제기된 문제를 잘 처리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O · X

근거

② '밝혀내기'는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O · X

근거

4번 ④ ㉣ : 지나치게

① ㉣ '과도하게'는 '지나치게'로 바꿔 써도 뜻이 통한다. O · X

근거

4번 ⑤ ㉤ : 아우를

① ㉤ '포괄할'은 '아우를'로 바꿔 써도 뜻이 통한다. O · X

근거

5번 ① 진리에 대한 두 이론을 대비하여 각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① 윗글은 정합설과 다른 진리 이론을 대비한다. O · X

근거

5번 ② '정합적이다'의 정의를 차례로 소개하며 앞선 정의의 한계를 보완해 가고 있다.

① 윗글은 '정합적이다'의 정의를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의 차례로 소개한다. O · X

근거

② 뒤의 정의는 앞선 정의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제시된다. O · X

근거

5번 ③ 정합설이 처음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시대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① 윗글은 정합설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시대 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O · X

근거

5번 ④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어 정합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① 윗글은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정합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다. O · X

근거

5번 ⑤ 여러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 뒤 그중 하나를 지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① 윗글은 여러 견해 가운데 하나를 지지하며 마무리한다. O · X

근거

6번 ① '은주는 여자이다.'는 함축으로 정의해도 정합적이므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①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는 '은주는 여자이다.'를 함축하므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O · X

근거

6번 ②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면 정합적이므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① '은주는 학생이다.'는 기존 명제와 모순되지 않으므로 모순 없음 정의에서는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O · X

근거

6번 ③ '은주는 학생이다.'는 함축으로 정의하면 함축되지 않으므로 참으로 추가할 수 없다.

① '은주는 학생이다.'는 기존 명제에 의해 함축되지 않으므로 함축 정의에서는 추가할 수 없다. O · X

근거

6번 ④ '은주는 남자이다.'는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면 모순이 없어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① '은주는 남자이다.'는 기존의 참인 명제와 모순이 없으므로 추가할 수 있다. O · X

근거

6번 ⑤ '은주는 여자이다.'는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해도 정합적이므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①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여자이다.'는 직접적인 설명적 연관도 갖는다. O · X

근거

정합설과 대응설

진리에 관한 대표적인 두 이론이다. 대응설은 명제가 실제 사실과 일치할 때 참이라고 보고, 정합설은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된 다른 명제들과 정합적일 때 참이라고 본다. 윗글은 정합설에서 '정합적이다'의 뜻을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의 차례로 정의해 온 과정을 다룬다.

'정합적이다'의 세 가지 정의

(1) 모순 없음 — 이미 참인 명제와 모순되지 않으면 정합적이라고 본다. 조건이 가장 느슨하여 서로 관계가 없는 명제도 정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2) 함축 — 이미 참인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이 되는 명제만 정합적이라고 본다. 조건이 엄격하여 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명제가 지나치게 줄어든다.
(3) 설명적 연관 — 한 명제가 다른 명제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관계이면 정합적이라고 본다. 함축 관계의 명제들까지 아우를 수 있어 함축보다 많은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연관이 얼마나 긴밀한지를 어떻게 잴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명제 · 모순 · 함축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 모순은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이다(예: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함축은 'A가 참이면 B도 반드시 참'인 관계로, 한쪽 방향으로만 성립한다(예: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이면 '은주는 여자이다.'도 참이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문학 1 - 정합설의 이해 서술형 문제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할 때 무관한 명제까지 참으로 추가되는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함축 또는 설명적 연관의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150~220자 내외로 서술하세요.

01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할 때 생기는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함축 또는 설명적 연관의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윗글의 논지에 따라 서술하시오.

답안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다) 도출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라)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문학 객관식 문제 2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유비 논증의 구조와 개연성, 동물 실험을 둘러싼 두 입장의 차이를 파악하며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1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② (나):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다):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④ (라):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⑤ (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0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②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0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04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0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맡기는 ② 가하는 ③ 주는 ④ 안기는 ⑤ 겪게 하는

0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연구자는 쥐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한다는 점을 근거로, 쥐에게 효과가 있었던 당뇨병 치료제가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① 〈보기〉의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이끌어 낸 유비 논증이다.
② 쥐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한다는 점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다.
③ 쥐와 사람의 털 색깔이 다르다는 점은 〈보기〉에 나타난 추론의 개연성을 크게 낮춘다.
④ ㉡의 첫째 비판에 따르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다르다면 이 추론의 개연성은 낮다.
⑤ ㉡의 둘째 비판에 따르면, 쥐도 고통을 느낀다면 이 실험에는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문학 명제 분석 2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선택지의 내용을 하나씩 판단하고, 글에서 근거를 찾아 쓰세요.

1번 ① (가):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① (가)는 유비 논증의 개념(정의)과 유용성을 소개한다. O · X

근거

1번 ② (나):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① (나)는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활용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O · X

근거

1번 ③ (다):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① (다)는 개연성 조건(=관련 있는 유사성)을 설명한다. O · X

근거

1번 ④ (라):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① (라)는 유효성 주장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을 소개한다. O · X

근거

1번 ⑤ (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① (마)는 윤리적 문제까지 다룬다. O · X

근거

② (마)는 그 문제를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본다. O · X

근거

2번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① 개연성은 관련 '없는' 새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O · X

근거

2번 ②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① 인간 자신의 고통도 유비 논증으로 안다. O · X

근거

2번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① 꼬리 유무는 실험 결과와 관련 없는 특성이다. O · X

근거

② 관련 없는 특성 차이는 개연성을 낮춘다. O · X

근거

2번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① 이익 주장은 유효성 주장의 결론으로서 제시된다. O · X

근거

② 이익은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O · X

근거

2번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① 본문은 윤리적 비판의 근거로 '공평하지 않다' 는 생각을 명시한다. O · X

근거

②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은 인간·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 O · X

근거

3번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은 인간과 동물의 기능이 유사해도 인과적 메커니즘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O · X

근거

② ㉠과 ㉡은 모두 기능이 유사하면 인과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O · X

근거

3번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① ㉠은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근거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한다. O · X

근거

② ㉠이 ㉡에 대응하려면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음을 보여 주면 된다. O · X

근거

3번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① ㉠은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한다. O · X

근거

② ㉡은 ㉠이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O · X

근거

3번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 자체를 부정한다. O · X

근거

3번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은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다. O · X

근거

4번 ① ⓐ ㉮ / ⓑ ㉯ / ⓒ ㉰

① ⓑ(유사성)에 해당하는 것은 ㉯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다. O · X

근거

4번 ② ⓐ ㉯ / ⓑ ㉰ / ⓒ ㉱

① ⓐ(이미 알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O · X

근거

4번 ③ ⓐ ㉮ / ⓑ ㉱ / ⓒ ㉳

① ⓐ에 해당하는 것은 ㉮ '어떤 개'이다. O · X

근거

② ⓑ에 해당하는 것은 ㉱ '비슷하게 생긴'이다. O · X

근거

③ ⓒ에 해당하는 것은 ㉳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다. O · X

근거

4번 ④ ⓐ ㉳ / ⓑ ㉮ / ⓒ ㉱

① ⓐ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O · X

근거

4번 ⑤ ⓐ ㉮ / ⓑ ㉲ / ⓒ ㉳

① ⓑ에 해당하는 것은 ㉲ '다른 개'이다. O · X

근거

5번 ① 맡기는

① ⓓ '끼치는'은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O · X

근거

② '맡기는'은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O · X

근거

5번 ② 가하는

① '가하는'은 ⓓ와 바꿔 쓸 수 있다. O · X

근거

5번 ③ 주는

① '주는'은 ⓓ와 바꿔 쓸 수 있다. O · X

근거

5번 ④ 안기는

① '안기는'은 ⓓ와 바꿔 쓸 수 있다. O · X

근거

5번 ⑤ 겪게 하는

① '겪게 하는'은 @와 바꿔 쓸 수 있다. O · X

근거

6번 ① 〈보기〉의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이끌어 낸 유비 논증이다.

① 〈보기〉의 추론은 쥐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에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낸다. O · X

근거

6번 ② 쥐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한다는 점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다.

①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은 당뇨병 치료제의 효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다. O · X

근거

6번 ③ 쥐와 사람의 털 색깔이 다르다는 점은 〈보기〉에 나타난 추론의 개연성을 크게 낮춘다.

① 털 색깔은 당뇨병 치료제의 효과와 관련이 없는 특성이다. O · X

근거

② 털 색깔이 다르다는 점은 이 추론의 개연성을 크게 낮춘다. O · X

근거

6번 ④ ㉡의 첫째 비판에 따르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다르다면 이 추론의 개연성은 낮다.

① ㉡의 첫째 비판은 기능이 유사해도 인과적 메커니즘이 다르면 개연성이 낮다고 본다. O · X

근거

6번 ⑤ ㉡의 둘째 비판에 따르면, 쥐도 고통을 느낀다면 이 실험에는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① ㉡의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O · X

근거

유비 논증

두 대상이 여러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대상이 지닌 특성을 다른 대상도 지닐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결론이 전제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지는 않으므로, 결론이 참일 가능성(개연성)만을 말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추측이나 과학에서 가설을 세울 때 흔히 쓰인다.

개연성과 관련 있는 유사성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두 대상이 얼마나 비슷한가보다 추론하려는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점에서 비슷한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피가 순환하고 허파로 호흡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은 신약 실험 결과와 관련이 있지만, 꼬리가 있고 없음은 관련이 없으므로 개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물 실험을 비판하는 두 가지 관점

윗글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두 가지 점을 비판한다. 첫째는 의학적 유효성의 문제로, 기능이 비슷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다르면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추론의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는 윤리성의 문제로,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도 동물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비슷한데 동물에게만 고통을 주는 실험을 허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비판 모두 유비 논증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비문학 2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서술형 문제

㉡이 ㉠을 비판하는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하여, 동물 실험 결과 적용의 개연성이 낮다는 비판과 고통의 기능적 유사성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윤리적 비판을 150~220자 내외로 서술하세요.

01 ㉡이 ㉠을 비판하는 두 가지 측면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과 윤리성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답안

PART 1

PART 1 · 뼈대 읽기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서술어마다 '누가, 무엇이'를 물어 문장의 뼈대를 찾는다.



원리 한눈에 예문 · 중학 국어 3-1 교과서

1955년 앨라배마주의 버스에서 **한 흑인 여성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되자**, **마틴 루서 킹은** 비폭력적인 시위를 통해 인종 차별 금지 판결을 **받아 냈다**.

서술어		주어
양보하지 않아	누가? →	한 흑인 여성이
체포되자	누가? →	한 흑인 여성이
받아 냈다	누가? →	마틴 루서 킹은

경계 **'-자'를 경계로 주어가 바뀐다.**

이 단원의 차례

			학습일	
원리	서술어를 먼저 찾고 주어를 묻는다	11쪽	월	일
예제	서술어마다 주어 확인하기	12쪽	월	일
훈련 1	사회 · 역사	14쪽	월	일
훈련 2	예술 · 디자인	16쪽	월	일
훈련 3	예술 · 건축	18쪽	월	일
훈련 4	과학 · 에너지	20쪽	월	일

원리 서술어를 먼저 찾고 주어를 묻는다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호응**이라고 한다. 설명하는 글의 문장은 대개 길다. 한 문장에 서술어가 두세 개 들어 있고,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꾸며 주는 말이 길게 끼어들며, 뒤쪽의 주어는 자주 생략된다. 이런 문장은 앞에서부터 낱말만 따라 읽으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놓치기 쉽다.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에는 먼저 **서술어**를 확인하고, 서술어마다 **'누가(무엇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짝을 지어 준다.

호응을 꼭 확인해야 하는 문장

① **주어가 바뀌는 문장** '-자, -는데, -지만' 앞뒤로 주어가 바뀌는 문장이 있다. 서술어마다 주어를 따로 찾아야 한다.

② **주어가 생략된 문장** '-고, -며'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뒤쪽의 주어가 자주 빠진다. 새 주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앞의 주어가 그대로 이어진다.

③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 떨어진 문장** 사이에 꾸며 주는 말이 길게 들어가면, 서술어 바로 앞의 명사를 주어로 잘못 읽기 쉽다.

예문으로 확인하기

예문 중학 국어 3-1 교과서

1955년 앨라배마주의 버스에서 한 흑인 여성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되자, 마틴 루서 킹은 비폭력적인 시위를 통해 인종 차별 금지 판결을 받아 냈다.

서술어가 세 개인데 주어는 둘이다. '양보하지 않아'와 '체포되자'의 주어는 **한 흑인 여성이**이고, '받아 냈다'의 주어는 **마틴 루서 킹은**이다. '-자'를 경계로 주어가 바뀐다. 판결을 받아 낸 사람을 흑인 여성으로 읽으면 문장의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문 중학 국어 3-1 교과서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보편적인 의미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개인이 사용하는 도구나 물건은 물론 공공시설 같은 환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문장에는 주어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 두 서술어의 주어는 앞 문장에 나온 **이 디자인('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개인이 사용하는'의 '개인이'는 '도구나 물건'을 꾸미는 말 안의 주어일 뿐, 문장 전체의 주어가 아니다.

읽는 순서

1단계 서술어를 찾는다. 명사를 꾸미는 말 안의 서술어('-는, -(으)ㄴ')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와 구별한다.
2단계 서술어마다 '누가(무엇이), 무엇을'을 물어 앞에서 답을 찾는다.
3단계 주어가 보이지 않으면 앞의 주어를 넣어 읽어 보고, 뜻이 통하지 않으면 앞 문장에서 찾는다.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묻는다

선택지는 지문의 서술어를 그대로 쓰면서 **주어만 바꾸어** 틀린 말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흑인 여성이 인종 차별 금지 판결을 받아 냈다'처럼 앞 절의 주어를 뒤 절에 붙이는 식이다. 서술어마다 주어를 확인해 두면 이런 선택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서술어 바로 앞의 명사를 주어로 읽는 경우 'A는 B가 사용하는 C를 D한다'에서 D의 주어를 B로 읽는 실수이다. 문장 앞의 'A는'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략된 주어를 놓치는 경우 주어가 없는 문장을 읽을 때 앞 문장의 주어를 떠올리지 않고 넘어가는 실수이다. 주어가 없으면 반드시 앞에서 찾아 넣어 읽는다.

스스로 확인

밑줄 친 서술어를 기준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정답은 별책)

예문 2026년 3월 고1 학평

(가) 골격근은 수축 작용으로 힘을 만들어 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나) 예를 들어 팔을 굽힐 때 이두근이 수축하면 쌍을 이루는 삼두근은 이완되고, 팔을 펼 때 삼두근이 수축하면 이두근은 이완된다.

(가) 무엇이 스스로 이완할 수 없는가? (　　)

(나) 팔을 굽힐 때 무엇이 수축하고, 무엇이 이완되는가? (　　), (　　)

예제 서술어마다 주어 확인하기

2024년 3월 고1 학평 39~43번

①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②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③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 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④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⑤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앞 문단에서]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

예제 1 호응

밑줄 친 서술어를 기준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③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 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 무엇이 필요한가? (다양한 환경 요소)

ⓑ 무엇이 해마다 다른가? (환경 요소들)

ⓒ 무엇이 변하게 되는가? (나이테의 너비)

ⓓ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 (가장 부족한 요소)

풀이

③에는 서술어가 셋이고 주어도 셋이다. '필요한데'와 '다르기' 사이, '다르기 때문에'와 '변하게 된다' 사이에서 주어가 바뀐다. 문장 맨 앞의 '나무가'는 '생장하기'의 주어일 뿐, 문장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예제 2 뼈대 문장 쓰기

③을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진 세 문장으로 나누어 쓰시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하다.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다.

그래서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풀이

'-는데', '-기 때문에'가 문장을 이어 주던 자리에서 문장을 나누면 된다. 나누어 놓고 보면 ③은 '환경 요소가 필요하다 → 그 요소가 해마다 다르다 → 그래서 나이테 너비가 변한다'의 순서로 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예제 3 선지 판별

선지	O / X / 알 수 없음	근거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똑같이 영향을 준다.	X	④⑤
가장 부족한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O	⑤

풀이

첫 번째 선택지는 ③의 '환경 요소들'을 주어로 삼아 ④와 ⑤의 내용을 뒤집었다. ⑤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의 주어는 '가장 부족한 요소' 하나뿐이다.

예제 4 문단 정리

①~⑤의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단을 정리하시오.

① **나이테 너비**는 매해 같지 않다. ②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 때문이다.

③ **환경 요소들**이 해마다 달라 **나이테의 너비**도 변한다.

④⑤ **모든 환경 요소**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가장 부족한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풀이

주어와 서술어만 남겨도 '나이테 너비가 달라지는 까닭 →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문단의 흐름이 드러난다. 긴 문장일수록 뼈대부터 찾는 습관을 들인다.

훈련 1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사회 · 역사

2027 수능특강

①천민 중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을 도살하여 고기를 판매하는 일에 세습적으로 종사하던 백정은 천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다. ②백정은 일반인들에게서 격리된 채 일정한 지역에서만 거주해야 했으며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다. ③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백정에게는 반말을 썼으며, 가옥에 기와를 얹거나 의복에 명주를 사용하지 못했고 교육의 기회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④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모든 신분제가 명목상 폐지되었다. ⑤하지만 사회적 인습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었으며 백정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 ⑥오히려 일제는 소가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백정의 사회적 계급이 유지되길 바라며 백정 출신들을 도수장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1 호응

밑줄 친 서술어를 기준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③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백정에게는 반말을 ⓐ썼으며, 가옥에 기와를 얹거나 의복에 명주를 ⓑ사용하지 못했고 교육의 기회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⑥ 오히려 일제는 (중략) 백정 출신들을 도수장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 누가 누구에게 반말을 썼는가? ( ), ( )

ⓑ 누가 명주를 사용하지 못했는가? ( )

ⓒ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 )

ⓓ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였는가? ( ), ( )

2 서술어와 주어

⑤와 ⑥의 서술어에 알맞은 주어를 쓰시오.

서술어	주어
⑤ 변할 수는 없었으며	
⑤ 개선되지 않았다	
⑥ 바라며, 강요하고, 관리하였다	

3 뼈대 문장 쓰기

③을 주어가 모두 드러나는 세 문장으로 나누어 쓰시오.

4 쉬운 말로 바꾸기

밑줄 친 말을 쉬운 말로 바꾸어 쓰시오.

④ 명목상 폐지되었다 →

⑤ 사회적 인습 →

5 선지 판별

①~⑥을 바탕으로 판별하고 근거 문장 번호를 쓰시오.

선지	O / X / 알 수 없음	근거
ⓐ 백정은 천민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다.		
ⓑ 갑오개혁 이후 백정에 대한 차별은 곧바로 사라졌다.		
ⓒ 일제는 백정의 사회적 계급이 유지되기를 바랐다.		
ⓓ 백정은 고기를 팔 때 나라에 세금을 내야 했다.		

훈련 2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술 · 디자인

중학 국어 3-1 교과서

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단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유용한 물건과 시설, 환경을 추구한다. ② 이 디자인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신체, 인종, 종교, 문화 차이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동등한 기회' 정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디자인에도 적용되었다. ③ 옆으로 긴 막대 모양의 문손잡이(옛날에 주로 쓰이던 동그란 문손잡이는 손이 불편하거나 악력이 약한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힘들다.),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보다 훨씬 유용하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질 때 나오는 소리,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다국어 음성 안내 등을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부를 수 있다. ④ 이런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비사회적 약자에게도 유용하다. ⑤ 특히 대도시의 공공과 환경 부문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외국인을 배려한 디자인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앞 문단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디자인을 말한다.

1 호응

밑줄 친 서술어를 기준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② 이 디자인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중략) '동등한 기회' 정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디자인에도 ⓑ적용되었다.
⑤ 특히 대도시의 공공과 환경 부문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외국인을 배려한 디자인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 무엇이 보편화되어 있는가? ( )

ⓑ 무엇이 디자인에도 적용되었는가? ( )

ⓒ 무엇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가? ( )

2 생략된 주어 찾기

③의 괄호 안 두 문장에서 각 서술어의 주어를 쓰시오.

괄호 안의 서술어	주어
사용하기에는 힘들다.	
훨씬 유용하다.	

3 목적어 찾기

③의 서술어 '부를 수 있다'를 기준으로, 무엇을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부를 수 있는지 네 가지를 쓰시오.

4 누적 복습 · 대용 표현

다음 대용 표현이 가리키는 것을 쓰시오.

② 이러한 가치관 →

④ 이런 디자인 →

5 선지 판별

①~⑤를 바탕으로 판별하고 근거 문장 번호를 쓰시오.

선지	O / X / 알 수 없음	근거
ⓐ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디자인이다.		
ⓑ 동그란 문손잡이는 악력이 약한 사람이 사용하기 힘들다.		
ⓒ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리프트보다 유용하다.		
ⓓ 우리나라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법으로 정해 두었다.		

훈련 3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술 · 건축

2023년 11월 고1 학평 16~21번

① 18세기 말 산업 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② 이에 따라 건축에서도 철근과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기둥과 벽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③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장식적인 요소가 제거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④ 이러한 변화는 건축의 활동 영역을 도시 계획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으로 확대시키며,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1 호응

밑줄 친 서술어를 기준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① 18세기 말 산업 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③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장식적인 요소가 제거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 무엇이 가능해졌는가? ( )

ⓑ 누가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는가? ( ), ( )

2 서술어와 문장 성분

④의 두 서술어에 대해 표를 완성하시오.

서술어	무엇이	무엇을(무엇에)
확대시키며		
미쳤다		

3 뼈대 문장 쓰기

③에서 꾸며 주는 말을 빼고 주어와 서술어 중심의 짧은 문장으로 쓰고, 빠진 꾸밈말이 어떤 건축물을 설명하는지 쓰시오.

뼈대 문장 →

어떤 건축물인가? →

4 누적 복습 · 대용 표현

다음 대용 표현이 가리키는 것을 쓰시오.

② 이에 따라 →

③ 이 시기 →

④ 이러한 변화 →

5 선지 판별

①~④를 바탕으로 판별하고 근거 문장 번호를 쓰시오.

선지	O / X / 알 수 없음	근거
ⓐ 산업 혁명 이후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건축물을 중시하였다.		
ⓒ 건축의 활동 영역이 산업 디자인으로까지 넓어졌다.		
ⓓ 모더니즘 건축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먼저 나타났다.		

훈련 4 0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과학 · 에너지

2023년 11월 고1 학평 22~25번

①최근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양 온도차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②해양에서는 태양열을 흡수한 정도에 따라, 수심이 얕은 표층수와 수심이 깊은 심층수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 ③일반적으로 해양 온도차 발전은 약 20℃를 유지하는 표층수로 냉매를 가열하고, 약 4℃를 유지하는 심층수로 냉매를 냉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④이 과정에서 냉매는 발전 설비를 순환하면서 열전달을 통해 기화와 액화를 반복한다. ⑤이때 열전달이란 고온부의 열에너지가 저온부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열전달량은 열을 전달하는 면적과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1 호응

밑줄 친 서술어를 기준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① 최근 (중략)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u>커지면서</u> 해양 온도차 발전이 ⓑ<u>주목받고 있다</u>.
④ 이 과정에서 냉매는 발전 설비를 순환하면서 열전달을 통해 기화와 액화를 ⓒ<u>반복한다</u>.

ⓐ 무엇이 커지는가? ( )

ⓑ 무엇이 주목받고 있는가? ( )

ⓒ 무엇이 기화와 액화를 반복하는가? ( )

2 서술어와 문장 성분

③의 서술어에 대해 표를 완성하시오.

서술어	무엇이	무엇을
가열하고		
냉각하는		
생산한다		

3 뼈대 문장 쓰기

③을 주어가 모두 드러나는 세 문장으로 나누어 쓰시오.

4 누적 복습 · 대용 표현

다음 대용 표현이 가리키는 것을 쓰시오.

④ 이 과정 →

⑤ 이때 →

5 선지 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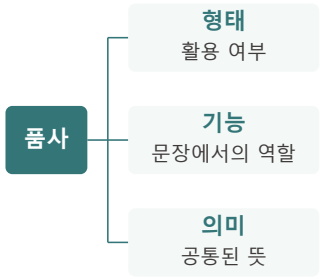
①~⑤를 바탕으로 판별하고 근거 문장 번호를 쓰시오.

선지	O / X / 알 수 없음	근거
ⓐ 표층수는 심층수보다 수심이 깊다.		
ⓑ 해양 온도차 발전에서 심층수는 냉매를 냉각하는 데 쓰인다.		
ⓒ 열전달은 저온부의 열에너지가 고온부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 해양 온도차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발전 방식이다.		

01 품사와 활용

이 단원에서 할 일

· 문장을 단어로 끊고, 단어마다 붙은 품사 이름표를 읽어 낸다.
· 아홉 품사를 가려내는 판별 질문을 순서대로 손에 익힌다.
· 용언이 모양을 바꾸는 '활용'을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 본다.



차례	내용	손에 익힐 판별 질문
Part 1	품사의 분류	앞말에 붙여 썼는가? 사전에서 '-다'를 붙여 찾는가?
Part 2	체언(명사·대명사·수사)	이름인가, 이름 대신인가, 수인가?
Part 3	관계언(조사)	자격을 정하는가, 뜻만 더하는가?
Part 4	용언(동사·형용사)	어간에 '-ㄴ다/-는다'를 붙일 수 있는가?
Part 5	활용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디부터가 어미인가?
Part 6	수식언·독립언	무엇을 꾸미는가? 홀로 쓰이는가?

공부 순서: 개념 상자의 빈칸을 채우며 읽는다 → 빠른 점검으로 확인한다 → 트레이닝으로 판별을 손에 익힌다 → 단원 끝 실전 문제를 푼다.

Part 1. 품사의 분류

품사란 무엇인가

품사
품사는 ____에 붙어 있는 이름표다. 단어는 ____에 실려 있고, 사전에서 단어를 찾으면 품사가 적혀 있다. 국어의 품사는 모두 ____ 가지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품사를 따지기 전에 먼저 문장을 **단어**로 끊어야 한다. 띄어 쓴 덩어리(어절)와 단어는 다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하나의 단어다.

철수가 / 학교에 / 갔다. → 어절 3개

철수 / 가 / 학교 / 에 / 갔다 → 단어 5개

'갔다'는 '가-'와 '-았-', '-다'로 나뉘지만 단어로는 하나다.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야 한 단어가 된다.

품사를 나누는 세 기준

형태 · 기능 · 의미

· ____: 문장 속에서 모양이 바뀌는가 → 바뀌면 가변어, 안 바뀌면 불변어
· ____: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 ____: 그 단어 무리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가 → 아홉 품사

기능	품사	하는 일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문장의 몸. 조사가 붙어 주어, 목적어 등이 된다
관계언	조사	앞말에 붙어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한다
용언	동사, 형용사	주어를 풀이한다. 모양이 바뀐다
수식언	관형사, 부사	다른 말을 꾸민다
독립언	감탄사	홀로 쓰인다

함정 — 모양이 바뀌는 말은 셋이다

모양이 바뀌는 가변어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다. '이다'는 조사이지만 '이고, 이니, 이어서'처럼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조사는 모두 불변어이다"는 틀린 말이다.
여기가 우리 학교이고, 저기가 운동장이다. → 서술격 조사, 가변어

아홉 품사 판별 순서도

순서도를 돌릴 때 지킬 것

· '학생이다'는 '학생'과 '이다' 두 단어다. '이다'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첫 질문에서 조사로 간다.
· '예쁜 꽃'의 '예쁜'은 꽃을 꾸미지만 사전에서 '예쁘다'로 찾는다. 두 번째 질문에서 용언으로 간다.

아홉 품사 판별 순서도

앞말에 붙여 썼는가?
→ 예 → 조사 / 관계언
↓ 아니요

사전을 찾을 때 '-다'를 붙여 찾는가?
→ 예 → 용언 →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 아니요

뒤에 '이/가', '을/를'을 붙일 수 있는가?
→ 예 → 체언 → 명사·대명사·수사
↓ 아니요

놀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가?
→ 예 → 감탄사 / 독립언
↓ 아니요

뒤의 체언이 '어떤' 것인지 꾸미는가?
→ 예 → 관형사 / 수식언
↓ 아니요

부사
→ 수식언 · 용언이나 문장을 꾸민다

개념 확인 · 품사의 분류

01 품사를 나누는 세 기준은 형태, 기능, ( )이다.

02 조사는 모두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O / X)

03 어절과 단어는 언제나 수가 같다. (O / X)

04 '철수가 학교에 갔다.'의 단어 수는?

05 다른 말을 꾸미는 기능의 갈래를 무엇이라 하는가?

06 체언에 드는 세 품사를 쓰시오.

적용 연습 · 단어로 끊기

다음 문장을 단어로 끊고 단어 수를 쓰시오.

01 꽃이 피었다.

02 나는 사과를 먹었다.

03 그는 학생이다.

04 새 신발이 아주 예쁘다.

05 와, 하늘이 맑구나!

Part 2. 체언 — 명사 · 대명사 · 수사

명사

명사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____을 나타내는 단어다.

· _____: 같은 성질의 대상에 두루 쓰는 이름(학교, 강, 책)

· _____: 하나뿐인 대상에 붙인 이름(한라산, 세종대왕)

· _____: 혼자 쓰이지 못하고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 쓰이는 명사(것, 수, 데, 개, 마리)

맛있는 것 / 읽을 수 있다 / 사과 세 개 → 의존 명사

의존 명사는 혼자 쓰이지 못해도 띄어 쓰고 뒤에 조사가 붙으므로 명사다.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는 이름을 ____하여 가리키는 단어다.

· _____: 사람을 가리킨다. 영어로 옮기면 I, you, he 같은 말이다. 나, 너, 그, 우리

· _____: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킨다. 영어로 옮기면 this, that, here 같은 말이다. 이것, 그것, 여기, 거기

함정 — '당신', '저희'는 누구인가
같은 말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앞에 나온 사람을 다시 가리키면 3인칭이다.
당신은 누구세요? → 2인칭(듣는 사람)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꿈을 이야기하셨다. → 3인칭(할머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 1인칭(말하는 사람 쪽)
아이들은 저희끼리 놀았다. → 3인칭(아이들)

수사

수사
수사는 ____이나 ____를 나타내는 단어다.
· 양수사: 하나, 둘, 셋 / 일, 이, 삼
· 서수사: 첫째, 둘째, 셋째

함정 — 수사인가, 꾸미는 말인가
뒤에 **조사**가 붙으면 수사, 뒤의 말을 **꾸미면** 관형사다.
오늘은 다섯이나 지각했다. → 수사(조사 '이나')
사과 다섯 개를 먹었다. → 관형사('개'를 꾸밈)
'한, 두, 세, 네'는 꾸미는 말로만 쓰인다. 수사는 '하나, 둘, 셋, 넷'이다.

개념 확인 · 체언

01 체언은 뒤에 ( )가 붙어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인다.

02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만 쓰이는 명사를 ( ) 명사라 한다.

03 '한라산'은 보통 명사이다. (O / X)

04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꿈을 말씀하셨다.'의 '당신'은 몇 인칭인가?

05 '저희'는 언제나 1인칭이다. (O / X)

06 '사과 다섯 개'의 '다섯'의 품사는?

07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이다.'의 '둘'의 품사는?

08 '세, 네'는 수사로도 쓰인다. (O / X)

적용 연습 · 체언 가려내기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명사, 대명사, 수사).

01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02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03 둘이 함께 왔다.

04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다.

05 그는 매일 운동을 한다.

06 첫째, 시간을 지킬 것.

적용 연습 · 체언 가려내기 (계속)

07 동생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

08 소 두 마리가 풀을 뜯는다.

09 무엇을 도와줄까?

10 하늘에 별이 많다.

Part 3. 관계언 — 조사

조사

조사
조사는 _____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하는 단어다.
· _____: 앞말이 문장에서 어떤 자격(성분)을 갖게 하는지 정한다.
· _____: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한다.
· _____: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격 조사	형태	예
주격	이/가, 께서	꽃이 핀다 / 할머니께서 오셨다
목적격	을/를	책을 읽는다
보격	이/가('되다, 아니다' 앞)	물이 얼음이 되었다
서술격	이다	그는 학생이다
관형격	의	나의 꿈
부사격	에, 에서, 에게, (으)로, 와/과, 보다, 처럼	학교에 간다
호격	아/야	영희야!

보조사	더하는 뜻	예
은/는	대조, 화제	수학은 잘하지만 국어는 못한다
만, 뿐	오직	물만 마셨다
도	역시	나도 간다
까지, 마저, 조차	더함, 극단	너마저 떠나니?
부터	시작	오늘부터
밖에	오직(부정어와 함께)	너밖에 없다

함정 — 같은 꼴, 다른 조사
· '되다, 아니다' 앞의 '이/가'는 **보격 조사**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 두 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으면 **접속 조사**, '누구와'를 나타내면 **부사격 조사**다. "나는 사과와 배를 샀다."(접속) / "나는 동생과 닮았다."(부사격)
· '처럼, 보다'는 뜻을 더하는 것 같지만 부사어를 만드는 **부사격 조사**다.
· 보조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부사 뒤 등 여러 곳에 붙는다. "빨리도 왔다."

개념 확인 · 조사

01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단어가 아니다. (O / X)

02 '물이 얼음이 되었다.'에서 '얼음이'의 '이'는 무슨 조사인가?

03 조사 가운데 모양이 바뀌는 것은?

04 '꽃처럼 곱다'의 '처럼'은 보조사이다. (O / X)

개념 확인 · 조사 (계속)

05 '나는 사과와 배를 샀다.'의 '와'는 무슨 조사인가?

06 '나는 동생과 닮았다.'의 '과'는 무슨 조사인가?

07 보조사는 체언 뒤에만 붙는다. (O / X)

적용 연습 · 조사의 갈래

밑줄 친 조사의 갈래를 쓰시오(주격·목적격·보격·서술격·관형격·부사격·호격 / 보조사 / 접속 조사).

01 선생님<u>께서</u> 숙제를 내 주셨다.

02 고래는 물고기<u>가</u> 아니다.

03 나<u>의</u> 꿈은 의사이다.

04 나의 꿈은 의사<u>이다</u>.

05 동생에게 책<u>을</u> 주었다.

06 동생<u>에게</u> 책을 주었다.

07 영희<u>야</u>, 이리 와.

08 나<u>도</u> 그 영화를 봤어.

09 수학은 잘하지만 국어<u>는</u> 못한다.

10 나는 고양이<u>와</u> 개를 좋아한다.

11 영수가 그녀<u>와</u> 헤어졌다.

12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u>밖에</u> 없다.

Part 4. 용언 — 동사 ·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

용언

용언은 주어를 ____하는 말이다. 사전에는 '-다'를 붙인 기본형으로 실린다.

· ____: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먹다, 달리다, 피다

· _____: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예쁘다, 작다, 푸르다

동사 · 형용사 판별

어간에 '-ㄴ다/-는다'를 붙일 수 있는가?	예 → 동사 먹는다, 달린다 / *예쁜다
아니요 ↓	
'-아라/-어라'(명령), '-자'(청유)가 자연스러운가?	예 → 동사 먹어라, 먹자 / *예뻐라
아니요 ↓	
형용사	성질·상태

판별의 핵심 질문
가장 빠른 질문 하나만 기억하자. **어간에 '-ㄴ다/-는다'를 붙여 쓸 수 있는가?** 붙으면 동사, 안 붙으면 형용사다.

함정 — 뜻만 보고 고르면 틀리는 말
· '늙다'는 동사(늙는다), '젊다'는 형용사(*젊는다).
· '알맞다'는 형용사다. '알맞은'이 바르고 '*알맞는'은 틀린다.
· '크다'는 '기대가 크다'면 형용사, '키가 쑥쑥 큰다'면 동사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면 동사다.
· '있다'는 '집에 있어라'(머물다)면 동사, '돈이 있다'(존재하다, 가지다)면 형용사다.

개념 확인 · 용언

01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용언은?

02 '늙다'와 '젊다'는 품사가 같다. (O / X)

03 '알맞다'의 바른 관형사형을 쓰시오.

04 '키가 쑥쑥 큰다.'의 '크다'의 품사는?

05 '나에게 돈이 있다.'의 '있다'의 품사는?

06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가장 빠른 질문은?

적용 연습 ·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기

밑줄 친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쓰시오.

01 지훈이가 공을 멀리 <u>던졌다</u>.

02 오늘따라 달이 참 <u>밝다</u>.

03 해가 떠오르며 날이 <u>밝는다</u>.

04 우리 아들은 키가 쑥쑥 <u>큰다</u>.

05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u>크다</u>.

06 너는 집에 <u>있어라</u>.

07 날지 못하는 새도 <u>있다</u>.

08 사람은 누구나 <u>늙는다</u>.

09 처지에 <u>알맞은</u> 옷을 입어라.

10 하늘이 무척 <u>푸르다</u>.

11 그 친구는 아는 게 참 <u>많다</u>.

12 이 문제는 잘 <u>모르겠다</u>.

Part 5. 활용

활용과 어간·어미

활용
활용은 용언의 ____에 여러 ____가 붙어 모양이 바뀌는 것이다.
· 어간: 기본형에서 ____를 덜어 낸 부분.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줄기다.
· 어미: 어간 뒤에 붙어 바뀌는 부분이다.
먹다 → 먹<u>고</u>, 먹<u>어서</u>, 먹<u>으니</u>, 먹<u>었다</u> → 어간 '먹-', 어미 '-고, -어서, -으니, -었-, -다'

어미의 갈래

· _____: 맨 끝이 아닌 자리에 오는 어미. 높임 '-시-', 과거 '-었-', 추측 '-겠-'
· _____: 맨 끝에 오는 어미.
· 종결 어미: 문장을 끝낸다. -다, -니, -어라, -자, -구나
· 연결 어미: 앞뒤를 이어 준다. -고, -지만, -어서, -면
· 전성 어미: 용언을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한다. -ㅁ, -기(명사처럼), -ㄴ, -는, -ㄹ(관형사처럼), -게(부사처럼)

활용형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가셨다	가-	-시-, -었-	-다(종결)
먹었겠다	먹-	-었-, -겠-	-다(종결)
읽으니	읽-		-으니(연결)
예쁜	예쁘-		-ㄴ(전성)

활용의 옷 입기 비유
· 어간은 몸, 어미는 옷이다.
· 어간 홀로는 쓰이지 못한다. 옷을 입지 않고 다닐 수 없는 것과 같다.
· 어미는 여러 개 붙을 수 있다. 옷을 겹쳐 입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맨 겉에 입는 어미는 하나뿐이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어간이나 어미의 모양이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누구나 따르는 규칙으로 설명되면 _____이다.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게 바뀌면 _____이다.
· 규칙: 쓰- + -어 → 써('ㅡ' 탈락), 놀- + -는 → 노는('ㄹ' 탈락)

판별 비법 — '-아/-어' 옷을 입혀 보자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알고 싶을 땐 '-아/-어'를 붙여 보자. 받침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진다.

기본형	'-아/-어'를 붙이면	판정
잡다 / 돕다	잡아 / 도와	규칙 / 'ㅂ' 불규칙
벗다 / 짓다	벗어 / 지어	규칙 / 'ㅅ' 불규칙
묻다(묻어 두다) / 묻다(물어보다)	묻어 / 물어	규칙 / 'ㄷ' 불규칙
따르다 / 오르다	따라 / 올라	규칙 / '르' 불규칙
하다	하여	'여' 불규칙
좋다 / 파랗다	좋아 / 파래	규칙 / 'ㅎ' 불규칙

개념 확인 · 활용

01 어간에 어미가 붙어 모양이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02 '읽다'의 어간은?

03 '가셨다'의 선어말 어미 두 개를 쓰시오.

04 한 어간에 어말 어미가 두 개 붙을 수 있다. (O / X)

05 '예쁜 꽃'의 '-ㄴ'은 어떤 어미인가?

06 '듣다'에 '-어'를 붙인 꼴은?

07 '돕다'는 규칙 활용인가, 불규칙 활용인가?

분석 연습 · 어간과 어미로 나누기

〈보기〉와 같이 어간과 어미로 나누시오. 〈보기〉 먹었다: 먹-(어간) / -었-(선어말 어미) / -다(어말 어미)

01 읽고

02 잡았다

03 오셨다

04 예쁘기

05 웃으며

06 가겠니

07 높은

08 달리자

적용 연습 · 규칙과 불규칙

밑줄 친 용언의 기본형을 쓰고,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쓰시오.

01 어머니를 <u>도와</u> 청소를 했다.

02 모자를 <u>벗어</u> 걸었다.

03 음악을 <u>들으며</u> 공부한다.

04 시골에 집을 <u>지었다</u>.

05 옥상에 <u>올라</u> 하늘을 보았다.

06 편지를 <u>써</u> 보냈다.

07 하늘이 <u>파래</u> 보인다.

08 놀이터에서 <u>노는</u> 아이들

Part 6. 수식언 · 독립언

관형사와 부사

관형사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이 ____ 것인지 꾸미는 단어다. 모양이 바뀌지 않고 조사가 붙지 않는다.

· 새, 헌, 옛 / 이, 그, 저, 어느 / 한, 두, 세, 첫

부사

부사는 주로 ____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 단어다.

·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한다. "아주 새 옷", "무척 잘 그린다"

· 일부 보조사와 결합한다. "빨리도 왔다"

· 갈래: 성분 부사(잘, 매우, 빨리, 안, 못) / 문장 부사(과연, 설마, 그리고, 그러나)

함정 — 관형사인가, 용언의 꾸미는 꼴인가

체언을 꾸민다고 다 관형사가 아니다. 사전에서 '-다'를 붙여 찾으면 용언이다. 영어로 옮겨 보자.

그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 형용사 '다르다'(different)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 관형사(other)

새 옷 / 새로운 옷 → 관형사 / 형용사 '새롭다'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는 ____이나 느낌, ____, ____을 나타내는 단어다. 다른 말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며, 뒤에 흔히 쉼표를 찍는다.

아, 벌써 봄이구나. /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 네, 알겠습니다. → 느낌 / 부름 / 대답

함정 — 같은 꼴, 다른 품사

· '저': "저, 있잖아요"면 감탄사, "저 사람"이면 관형사, "저는 학생입니다"면 대명사.

·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면 감탄사, "아니 간다"면 부사.

개념 확인 · 수식언·독립언

01 관형사는 ( )을 꾸민다.

02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 (O / X)

03 '아주 새 옷'에서 '아주'가 꾸미는 말은?

04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의 '다른'의 품사는?

05 '그리고, 그러나'는 어떤 부사인가?

06 '저, 있잖아요.'의 '저'의 품사는?

적용 연습 · 아홉 품사 종합 판별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01 그는 새 옷을 입었다.

02 아이가 빨리 달린다.

03 와, 정말 멋지다!

04 이 책 좀 봐.

05 이것은 내 책이다.

06 꽃이 예쁘게 피었다.

07 그는 매우 친절하다.

08 네, 지금 갈게요.

09 그 집에는 헌 책이 많다.

10 설마 그가 늦을까?

11 이것은 그것과 다른 문제다.

12 오늘은 다섯이 결석했다.

13 책 세 권을 빌렸다.

14 나는 학교에 간다.

15 동생이 밥을 먹는다.

16 하늘이 맑다.

실전 문제

기본

01 '나는 동생과 공원에 갔다.'를 단어로 나누면 몇 개인가?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⑤ 9개

02 '그는 매우 착한 학생이다.'에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가변어)만 고른 것은?

① 그, 는
② 매우, 착한
③ 착한, 이다
④ 학생, 이다
⑤ 착한, 학생

03 기능에 따른 갈래와 품사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② 용언 - 동사, 형용사
③ 수식언 - 관형사, 부사
④ 관계언 - 조사
⑤ 독립언 - 부사

04 밑줄 친 단어가 의존 명사인 것은?

① 맛있는 것을 먹자.
② 학교에 간다.
③ 한라산에 올랐다.
④ 사과가 달다.
⑤ 바다가 넓다.

05 고유 명사는?

① 강
② 산
③ 백두산
④ 사람
⑤ 학교

06 대명사가 **아닌** 것은?

① 나
② 여기
③ 그것
④ 우리
⑤ 사람

07 밑줄 친 '당신'이 3인칭으로 쓰인 것은?

① 당신은 누구세요?
② 당신, 오늘 피곤해 보여요.
③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을 아끼셨다.
④ 당신이 이 일을 맡아 주세요.
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08 밑줄 친 단어가 수사인 것은?

① 사과 다섯 개
② 책 세 권
③ 학생 둘이 왔다.
④ 첫 월급
⑤ 한 사람

09 밑줄 친 말이 조사가 **아닌** 것은?

① 꽃이 피었다.
② 학교에 간다.
③ 나도 간다.
④ 키가 아주 크다.
⑤ 그는 학생이다.

10 밑줄 친 조사가 보격 조사인 것은?

① 꽃이 피었다.
② 물이 얼음이 되었다.
③ 아이가 웃는다.
④ 비가 온다.
⑤ 하늘이 맑다.

11 밑줄 친 조사가 보조사인 것은?

① 너만 믿는다.
② 책을 읽는다.
③ 집에 간다.
④ 나의 꿈
⑤ 영희야, 놀자.

12 밑줄 친 '와/과'가 접속 조사인 것은?

① 사과와 배를 샀다.
② 나는 동생과 닮았다.
③ 친구와 싸웠다.
④ 형과 함께 갔다.
⑤ 그녀와 헤어졌다.

실전 문제 (계속)

13 서술격 조사 '이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앞말과 띄어 쓴다.
②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③ 용언에 속한다.
④ 체언 앞에만 온다.
⑤ '이고, 이니'처럼 모양이 바뀐다.

14 동사는?

① 예쁘다
② 작다
③ 달리다
④ 푸르다
⑤ 착하다

15 형용사는?

① 먹다
② 젊다
③ 읽다
④ 늙다
⑤ 웃다

16 어간에 '-ㄴ다/-는다'를 붙일 수 **없는** 것은?

① 가다
② 자라다
③ 웃다
④ 알맞다
⑤ 피다

17 '읽었다'의 어간은?

① 읽-
② 읽었-
③ 읽었다
④ -었-
⑤ -다

18 선어말 어미가 **아닌** 것은?

① -시-
② -었-
③ -겠-
④ -더-
⑤ -고

19 밑줄 친 어미가 종결 어미인 것은?

① 밥을 먹고 나갔다.
② 밥을 먹어서 배부르다.
③ 같이 밥을 먹자.
④ 밥을 먹으면 졸린다.
⑤ 밥을 먹지만 배고프다.

20 '예쁘다'에 어미가 붙어 관형사처럼 쓰인 것은?

① 꽃이 예쁘고 향기롭다.
② 예쁜 꽃이 피었다.
③ 꽃이 참 예쁘다.
④ 꽃이 예쁘지만 비싸다.
⑤ 꽃이 예쁘니 사자.

21 불규칙 활용을 한 것은?

① 잡아
② 벗어
③ 웃어
④ 먹어
⑤ 도와

22 규칙 활용을 한 것은?

① 들어(듣다)
② 지어(짓다)
③ 올라(오르다)
④ 써(쓰다)
⑤ 하여(하다)

23 밑줄 친 단어가 관형사인 것은?

① 새 옷을 샀다.
② 새로운 옷을 샀다.
③ 예쁜 옷을 샀다.
④ 옷이 아주 크다.
⑤ 빨리 가라.

24 '그는 그림을 무척 잘 그린다.'에서 '무척'이 꾸미는 말은?

① 그는
② 그림을
③ 그린다
④ 문장 전체
⑤ 잘

실전 문제 (계속)

25 밑줄 친 단어가 감탄사인 것은?

① 와, 정말 멋지다!
② 저 사람은 누구야?
③ 저는 중학생입니다.
④ 학교에 아니 간다.
⑤ 이 책 좀 봐.

26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는?

① 빨리
② 매우
③ 잘
④ 설마
⑤ 못

발전

27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것이다. 형태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의미에 따라 아홉 품사로 나눈다.
(나) 셋 중에 둘은 아주 성실한 학생이다.

① 형태에 따라 나누면 '성실한'과 '이다'는 가변어이다.
② 기능에 따라 나누면 '셋'과 '학생'은 체언이다.
③ 기능에 따라 나누면 '은'과 '이다'는 관계언이다.
④ 의미에 따라 나누면 '둘'과 '학생'은 같은 품사이다.
⑤ 의미에 따라 나누면 '아주'와 '성실한'은 다른 품사이다.

28 〈보기〉의 단어들을 분류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호수가 깊다.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① 형태: 가변어 - 깊다, 깊이, 모르다
② 기능: 체언 - 호수, 강, 깊이, 누구
③ 기능: 용언 - 깊다, 깊이
④ 의미: 명사 - 호수, 강, 누구
⑤ 의미: 조사 - 가, 의, 는, 도, 누구

29 밑줄 친 두 말이 서로 다른 인칭으로 쓰인 것은?

① 저희가 하겠습니다. / 아이들은 저희끼리 놀았다.
② 너는 누구냐? / 너도 같이 가자.
③ 그는 좋은 사람이다. / 나는 그를 믿는다.
④ 우리 먼저 갈게. / 우리 팀이 이겼다.
⑤ 나는 학생이다. / 나도 간다.

30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가 수사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사과 다섯 개를 먹었다.
ㄴ. 오늘은 다섯이 결석했다.
ㄷ. 첫째, 정직하자.
ㄹ. 첫 월급을 받았다.
ㅁ.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ㄹ, ㅁ

31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 가운데 보조사가 **아닌** 것은?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여러 문장 성분에 두루 쓰일 수 있다.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
④ 아이들이 악기도 연주했다.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

실전 문제 (계속)

32 〈보기〉의 문장 가운데 '와'가 쓰인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ㄱ. 민수와 지호는 잔다.
ㄴ. 민수와 지호는 친하다.
ㄷ. 민수와 지호는 싸웠다.
ㄹ. 민수와 지호는 마주쳤다.
ㅁ. 민수와 지호는 헤어졌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3 〈보기〉에서 밑줄 친 용언이 동사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아이가 키가 쑥쑥 <u>큰다</u>.
ㄴ. 너에 대한 기대가 <u>크다</u>.
ㄷ. 해가 떠오르며 날이 <u>밝는다</u>.
ㄹ. 오늘따라 달이 <u>밝다</u>.
ㅁ. 너는 집에 <u>있어라</u>.

① ㄱ,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ㅁ

34 〈보기〉의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밥을 먹었다. ㉡ 할머니께서 가셨다. ㉢ 책을 읽으니 졸리다.
㉣ 예쁜 꽃이 피었다. ㉤ 같이 놀자.

① ㉠에는 선어말 어미 하나와 어말 어미 하나가 쓰였다.
② ㉡의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③ ㉢의 '-으니'는 앞뒤를 이어 주는 연결 어미이다.
④ ㉣의 '-ㄴ'은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이다.
⑤ ㉤의 '-자'는 함께하자고 권하는 종결 어미이다.

35 '-아/-어'를 붙인 결과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돕다 → 도와
② 짓다 → 지어
③ 듣다 → 들어
④ 오르다 → 오러
⑤ 파랗다 → 파래

36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u>새</u> 옷을 입었다.
② <u>헌</u> 책을 팔았다.
③ <u>옛</u> 친구를 만났다.
④ <u>다른</u>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
⑤ 생각이 <u>다른</u> 사람과 이야기했다.

37 밑줄 친 단어와 그 품사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u>저</u>, 있잖아요. - 대명사
② <u>저</u> 사람이 누구야? - 관형사
③ <u>저</u>는 중학생입니다. - 관형사
④ <u>아니</u>, 정말이야? - 부사
⑤ 학교에 <u>아니</u> 간다. - 감탄사

실전 문제 (계속)

발전

38 '와, 저 새 신발이 아주 예쁘다.'의 품사 분석이 바른 것은?

① 와 - 부사
② 저 - 대명사
③ 아주 - 관형사
④ 예쁘다 - 동사
⑤ 새 - 관형사

서술형

39 서술격 조사 '이다'가 조사이면서도 가변어인 까닭을 쓰시오.

조건
예를 하나 들어 쓸 것

40 '사과 다섯 개'의 '다섯'과 '오늘은 다섯이 결석했다'의 '다섯'의 품사를 각각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쓰시오.

41 '기대가 크다'와 '키가 쑥쑥 큰다'의 '크다'가 서로 다른 품사인 까닭을 판별 질문을 써서 설명하시오.

조건
'-ㄴ다/-는다'를 이용할 것

42 '잡다'와 '돕다'에 '-아'를 붙인 꼴을 각각 쓰고, 둘 중 불규칙 활용인 것과 그 까닭을 쓰시오.

CHAPTER
01 시어와 시구, 행과 연

시어·시구·행·연·소재

기초 개념

이 챕터에서 배울 개념

1. 시어
2. 시구
3. 행(시행)
4. 연
5. 소재



학습 목표

- 시어, 시구, 행, 연의 뜻을 알고 한 편의 시에서 각각을 찾을 수 있다.
- 시에 쓰인 소재를 찾고, 그 소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말할 수 있다.
- '동일한 시어의 반복', '시행을 사용하여', '소재를 활용하여' 같은 선지 표현의 뜻을 안다.

생각 열기

집을 지을 때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 벽을 만들고, 벽을 이어 방을 만든다. 시도 이와 비슷하다. 낱말 하나하나가 모여 구절이 되고, 구절이 모여 한 줄이 되며, 여러 줄이 모여 한 덩어리를 이룬다. 그리고 시인은 꽃, 눈, 빗방울처럼 눈에 보이는 여러 재료를 골라 마음을 담는다. 이 장에서는 시를 이루는 단위인 시어, 시구, 행, 연과 시의 재료인 소재를 익혀 보자.

01 CONCEPT 시어

핵심 정의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 시를 이루는 낱말 하나하나

시어는 시에 쓰인 말, 곧 시를 이루는 낱말 하나하나이다. 「어머니」의 '보리밭', '호미'처럼 한 낱말로 된 말이 시어이다. 시인은 같은 뜻이라도 소리와 느낌이 알맞은 말을 골라 쓰기 때문에, 시어 하나에도 화자의 마음이 담긴다.

선지에서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처럼 시어를 단위로 표현을 설명한다. 같은 시어가 되풀이되는지, 뜻이 서로 반대인 시어가 짝을 이루는지를 살피면 된다.

헷갈림 주의

시어는 한 낱말이고, 시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시구가 된다. '보리밭'은 시어이고 '푸른 보리밭'은 시구이다. 선지의 '동일한 시어의 반복'은 같은 낱말이 되풀이된다는 뜻이고, '동일한 시구의 반복'은 같은 구절이 되풀이된다는 뜻이다.

기출은 이렇게 묻는다

선지 표현 사전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같은 낱말을 여러 번 써서 그 뜻을 힘주어 드러냈다는 뜻.
-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 →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 '진눈깨비'와 '함박눈'처럼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음.
-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 '푸른', '붉은'처럼 색깔을 나타내는 낱말을 썼다는 뜻.

실제 기출 선지

⭕ (나)와 (다)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이성부, 「벼」 · 2017년 6월 고1 학평 36번 ④)
(나)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 되자'를, (다)는 '~을 보아라', '쓰러지고 쓰러지고'를 되풀이하여 뜻을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곳을 두 작품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 ㉢ : '함박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2017년 6월 고1 학평 37번 ③)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고 한 대상이고 '함박눈'은 '되어 내리자'고 한 대상이다. 화자가 거부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짝을 이루므로 두 시어는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작품 속으로 「어머니」 김종상

들로 가신 엄마 생각
책을 펼치면
책장은 그대로
푸른 보리밭

이 많은 이랑의
어디만큼에
호미 들고 계실까
우리 엄마는

▶ '보리밭', '이랑', '호미'는 모두 한 낱말로 된 시어이다. 이 시어들은 들에 나가 김을 매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화자는 책장을 펼치고 그것을 보리밭으로 바라보며 들에 계신 엄마를 생각한다.

작품 속으로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고 한 것이고 '함박눈'은 '되어 내리자'고 한 것이다. 두 시어가 서로 반대되는 뜻을 지니고 짝을 이루어, 가장 낮은 곳에 따뜻하게 내리는 함박눈 같은 사람이 되자는 화자의 바람을 선명하게 한다.

바로 확인

「어머니」의 '보리밭'과 '푸른 보리밭' 가운데 시어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답안

WORKBOOK 시어

1 빈칸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 곧 시를 이루는 낱말 하나하나를 ( )라고 한다.

답안

2 OX

싱싱한 보리숲
글줄 사이로
땀 젖은 흙냄새
엄마 목소리

— 김종상, 「어머니」

'흙냄새'는 한 낱말로 된 시어이다. (O / X)

[3–4]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골목길 걷는 동안
내 등에 업힌 가을볕

— 정진아, 「가을볕」

3 OX

'골목길'은 시어가 두 개 이상 모인 시구이다. (O / X)

4 구별

'가을볕'은 시어와 시구 가운데 무엇인지 고르시오.

답안

5 구별

먼 곳에서 아슴푸레 빈 우레 소리 들리더니

— 오세영, 「유성」

'아슴푸레'는 시어와 시구 가운데 무엇인지 고르시오.

답안

6 구절 찾기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 오세영, 「유성」

제시한 두 행에서 한 낱말로 된 시어이면서 첫 행을 이루는 말을 찾아 쓰시오.

답안

7 구절 찾기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화자가 '되지 말자'고 한 시어와 '되어 내리자'고 한 시어를 차례대로 찾아 쓰시오.

답안

8 구절 찾기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 이성부, 「벼」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며, 1연과 2연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답안

9 선지 판단

(나)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이성부, 「벼」

다음 선지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보기

"(나)와 (다)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다) 이성부, 「벼」)

답안

10 선지 판단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다음 선지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보기

"㉢ '진눈깨비'는 '함박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답안

11 바꿔 쓰기

'같은 낱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그 뜻을 강조하고 있다.'를 선지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바꿔 쓰시오.

답안

12 OX

빗방울이 개나리 울타리에 솝-솝-솝-솝 떨어진다
빗방울이 어린 모과나무 가지에 롭-롭-롭-롭 떨어진다
빗방울이 무성한 수국 잎에 톱-톱-톱-톱 떨어진다

— 오규원, 「빗방울」

'개나리', '모과나무', '수국'은 각각 한 낱말로 된 시어이다. (O / X)

13 구절 찾기

아빠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
엄마 구두는 새우잡이 뾰족배

— 함기석, 「저녁 항구」

2연에서 아빠 구두와 엄마 구두를 각각 빗댄 배의 이름을 한 낱말(시어)로 찾아 쓰시오.

답안

14 서술

낙타는 혼자 갈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혹 하나 혹 둘
혹을 업고 간다

더위도 추위도 목마름도
혹이 있어 견딜 수 있다

나도 혼자 가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다

꿈 하나
꿈 둘

아직 멀었지만
아직도 가고 있다

— 이장근, 「낙타」

2연과 5연에서 각각 되풀이되는 시어를 찾아 쓰고, 두 시어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쓰시오.

답안

개념 확인 배운 개념 점검

1 빈칸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 ), 시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구절을 ( )라고 한다.

답안

2 빈칸

시를 이루는 한 줄 한 줄의 단위를 ( ), 하나 이상의 행이 모여 이루어진 의미의 단위를 ( )이라고 한다.

답안

3 고르기

책장은 그대로
푸른 보리밭

— 김종상, 「어머니」

'보리밭'은 (시어 / 시구)이다.

답안

4 고르기

글줄 사이로
땀 젖은 흙냄새

— 김종상, 「어머니」

'땀 젖은 흙냄새'는 (시어 / 시구)이다.

답안

5 OX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 오세영, 「유성」

'별들의 운동장'은 한 낱말로 된 시어이다. (O / X)

6 OX

동생 숨결처럼
따뜻하게 느껴지고

— 정진아, 「가을볕」

'동생 숨결처럼'은 시어가 둘 이상 모인 시구이다. (O / X)

7 빈칸

「어머니」는 (　　)연 (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답안

8 OX

빗나간 야구공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 오세영, 「유성」

'쨍그랑'처럼 한 낱말로도 한 행을 이룰 수 있다. (O / X)

9 OX

1연과 4연은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이라는 같은 시행으로 시작한다. (O / X)

10 OX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중략)…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진눈깨비'와 '함박눈'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O / X)

11 OX

'눈발', '진눈깨비', '함박눈' 같은 시어를 보면 이 시의 계절이 겨울임을 짐작할 수 있다. (O / X)

12 고르기

이 시의 중심 소재를 고르시오.
① 약산　② 진달래꽃　③ 걸음걸음

답안

13 OX

'벼'라는 시어가 1연과 2연에서 여러 번 쓰였다. (O / X)

14 고르기

'아랫목 할머니 품처럼'은 (시어 / 시구)이다.

답안

15 고르기

'빈 우레 소리'는 (시어 / 시구)이다.

답안

16 빈칸

「벼」는 ( )연 (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답안

17 OX

이 시조에서 '대'와 '눈'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지닌 소재이다. (O / X)

18 OX

'영변에 약산'은 한 낱말로 된 시어이다. (O / X)

19 OX

시에서는 문장이 끝나지 않아도 줄을 바꿀 수 있다. (O / X)

20 고르기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는 (1연 / 2연 / 3연)에 있다.

답안

21 연결

개념과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보기

(1) 시어 (2) 시구 (3) 행 (4) 연
㉮ 시의 한 줄 ㉯ 행이 모인 덩어리 ㉰ 시에 쓰인 낱말 하나 ㉱ 시어가 모인 구절

답안

22 OX

「사는 일」은 네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O / X)

23 OX

「낙타」에서 '혼자 가는 게 아니다'는 1연과 4연에 되풀이되는 시구이다. (O / X)

실전 문제 작품에 적용하기

실전 01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갛게 익은 멍석딸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
물총새,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

이제 날 저물려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 나태주, 「사는 일」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네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1연은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굽은 길은 굽게 가고'와 '곧은 길은 곧게 가고'는 비슷한 짜임의 시구를 되풀이한 것이다.
③ '차'는 화자를 제시간에 태워 주어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준 소재이다.
④ '바람', '멍석딸기', '물총새'는 화자가 걷지 않아도 좋은 길에서 만난 반가운 소재이다.
⑤ 첫 행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를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바꾸어 되풀이하고 있다.

실전 02

빗방울이 개나리 울타리에 솝-솝-솝-솝 떨어진다
빗방울이 어린 모과나무 가지에 롭-롭-롭-롭 떨어진다
빗방울이 무성한 수국 잎에 톱-톱-톱-톱 떨어진다
빗방울이 잔디밭에 홉-홉-홉-홉 떨어진다
빗방울이 현관 앞 강아지 머리에 돕-돕-돕-돕 떨어진다

— 오규원, 「빗방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빗방울이'라는 시어를 되풀이하고 있다.
② '개나리 울타리', '무성한 수국 잎'은 여러 시어가 모인 시구이다.
③ '솝-솝-솝-솝', '톱-톱-톱-톱'처럼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을 쓰고 있다.
④ 화자가 빗속을 걸어가며 겪은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들려주고 있다.
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을 개나리 울타리에서 현관 앞 강아지 머리로 옮겨 가며 보여 주고 있다.

실전 03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두 네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은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1연과 4연은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이라는 같은 시행으로 시작한다.
③ '-우리다'로 끝나는 시어를 여러 연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④ '영변에 약산'은 실제 지명을 담은 시구이다.
⑤ '진달래꽃'은 화자가 임에게서 받은 것으로, 임을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실전 04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벼'를 중심 소재로 삼아, 홀로 떨어져 사는 삶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을 보아라'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네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은 다섯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쓰러지고 쓰러지고'에서 같은 시어를 되풀이하여 다시 일어서는 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⑤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실전 05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리는 함성,
먼 곳에서 아슴푸레 빈 우레 소리 들리더니
빗나간 야구공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 오세영, 「유성」

윗글의 짜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 구분 없이 열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아슴푸레'와 '지구로 떨어져'는 모두 여러 시어가 모인 시구이다.
③ '밤하늘', '운동회'는 한 낱말로 된 시어이다.
④ '별들의 운동장', '빈 우레 소리'는 시어가 모인 시구이다.
⑤ '쨍그랑'은 한 낱말만으로 한 행을 이루고 있다.

실전 06

낙타는 혼자 갈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혹 하나 혹 둘
혹을 업고 간다

더위도 추위도 목마름도
혹이 있어 견딜 수 있다

나도 혼자 가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다

꿈 하나
꿈 둘

아직 멀었지만
아직도 가고 있다

— 이장근, 「낙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혹'은 낙타가 길을 가는 데 방해가 되는 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② 여섯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은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1연과 4연에서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는 시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④ 5연의 '꿈 하나 / 꿈 둘'은 2연의 '혹 하나 혹 둘'과 대응된다.
⑤ '더위도 추위도 목마름도'는 낙타가 겪는 어려움을 늘어놓은 시구이다.

서술형 조건에 맞게 쓰기

서술형 01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윗글의 짜임을 연과 행의 수를 밝혀 설명하고, 1연과 4연의 공통점을 쓰시오.

작성 조건
〈조건 1〉 연과 행의 수를 숫자로 밝힐 것
〈조건 2〉 1연과 4연에서 되풀이되는 시행을 인용할 것
〈조건 3〉 두 문장으로 쓸 것

답안

서술형 02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윗글에서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두 시어를 찾아 쓰고, 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쓰시오.

작성 조건
〈조건 1〉 두 시어를 원문 그대로 쓸 것
〈조건 2〉 화자가 바라는 삶을 '~ 존재가 되자는 것이다'로 끝맺을 것

답안

서술형 03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윗글의 중심 소재를 쓰고, 4연에서 같은 시어를 되풀이한 부분을 찾아 그 효과를 쓰시오.

작성 조건
〈조건 1〉 중심 소재를 한 낱말로 쓸 것
〈조건 2〉 되풀이된 시어가 담긴 시구를 인용할 것

답안

한눈에 정리

- 시어: 시에 쓰인 낱말 하나하나. '동일한 시어의 반복'은 같은 낱말이 되풀이됨.
- 시구: 시어가 둘 이상 모인 구절. '동일한 시구'는 똑같이, '유사한 시구'는 조금 바뀌어 되풀이됨.
- 행(시행): 시의 한 줄. 문장이 아니라 줄을 셈. 한 낱말로도 한 행이 될 수 있음.
- 연: 행이 모인 덩어리. 빈 줄을 기준으로 셈.
- 소재: 작품의 재료가 되는 사물·대상. 소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선지가 말한 역할이 작품에서 확인되는지 살핌.

국어농장 프레게1 · 학생용

1 개요 읽기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을 처음·가운데·끝으로 나누어 적은 개요를 읽고, 개요와 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안다.



개요와 글 함께 읽기

먼저 개요를 읽고, 같은 색의 문단을 찾아 글을 읽어 봅시다.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을 처음·가운데·끝으로 나누어 짧게 적은 것을 개요라고 한다. 개요의 한 칸이 글의 한 문단이 된다.

개요

처음	겨울에 동물이 겪는 어려움 / 겨울을 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겨울잠
가운데	겨울잠의 뜻 / 개구리, 곰, 다람쥐의 겨울잠
끝	겨울잠으로 힘을 아끼고 추위를 견딤 / 봄에 다시 깨어남

글 「동물의 겨울나기」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고 먹이를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물들은 저마다 겨울을 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겨울잠이다.

겨울잠은 추운 겨울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듯 지내는 것이다. 개구리는 땅속이나 물 밑 진흙 속에 들어가 겨울을 보낸다. 곰은 굴속에서 지내며 가을에 많이 먹어 몸에 쌓아 둔 영양분으로 버틴다. 다람쥐는 땅속 굴에서 자다가 가끔 깨어 모아 둔 도토리를 먹는다.

이처럼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면서 힘을 아끼고 추위를 견딘다. 봄이 오면 동물들은 다시 깨어나 활발하게 움직인다.

1 개요의 '가운데'에 적힌 동물 세 가지가 글에서 각각 어디에서 겨울을 보내는지 써 봅시다.

개구리 _____

곰 _____

다람쥐 _____

2 개요는 짧은 말로, 글은 문장으로 썼습니다. 개요의 '처음' 칸은 글에서 몇 문장이 되었는지 써 봅시다.

☐ 문장

국어농장 프레게1 · 학생용

01 01 개요 읽기

연습 ① 글을 읽고 개요 만들기

글을 읽고,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짧은 말로 정리해 개요를 만들어 봅시다.

글 「식물을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

요즘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식물을 들여왔다가 얼마 못 가 시들게 하는 경우도 많다. 식물을 건강하게 기르려면 몇 가지를 지켜야 한다.

먼저 물은 흙이 말랐을 때 흠뻑 준다. 흙이 젖어 있는데 물을 또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다. 다음으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가끔 창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한다.

이렇게 물과 햇빛과 바람에 신경을 쓰면 식물은 오래도록 푸르게 자란다. 날마다 잎을 살펴보며 식물에 관심을 가져 보자.

개요 문장이 아니라 짧은 말로 씁니다.

처음	_____
가운데	물: _____ 햇빛: _____ 바람: _____
끝	_____

1 개요의 '가운데'에 글의 '흙이 젖어 있는데 물을 또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다.'를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 까닭을 골라 □ 표시를 해 봅시다.

- □ 틀린 내용이기 때문이다.
- □ 물 주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이어서, 개요에는 '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기'만 적으면 되기 때문이다.
- □ 글의 끝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이다.

연습 ② 메모를 개요로 정리하기

「우리 반 운동회」를 쓰려고 모은 메모입니다. 메모를 처음·가운데·끝으로 나누어 봅시다.

메모

① 운동회 날 아침, 운동장에 만국기가 걸려 있었다.

② 우리 반은 이어달리기에서 2등을 했다.

③ 줄다리기에서 모두 힘을 모아 이겼다.

④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더 큰 힘이 난다는 것을 알았다.

⑤ 내 동생은 다음 달에 유치원 발표회를 한다.

⑥ 일주일 전부터 운동회를 손꼽아 기다렸다.

1 메모 번호를 알맞은 칸에 써 봅시다.

처음	
가운데	
끝	
쓰지 않을 메모	

2 쓰지 않을 메모를 고른 까닭을 써 봅시다.

3 '끝' 칸에 메모를 하나 더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알맞을지 짧은 말로 써 봅시다.

국어농장 프레게1 · 학생용

01 01 개요 읽기

내 개요 짜기

주제를 하나 고르고, 떠오르는 낱말을 모은 뒤 개요를 짜 봅시다.

주제 고르기

☐ 내가 좋아하는 계절 ☐ 내가 아끼는 물건 ☐ 우리 동네 자랑

낱말 모으기 주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낱말을 칸마다 하나씩 적습니다.

개요

모은 낱말을 처음·가운데·끝으로 나누어, 칸마다 짧은 말로 씁니다. 쓰지 않을 낱말에는 줄을 긋습니다.

처음	
가운데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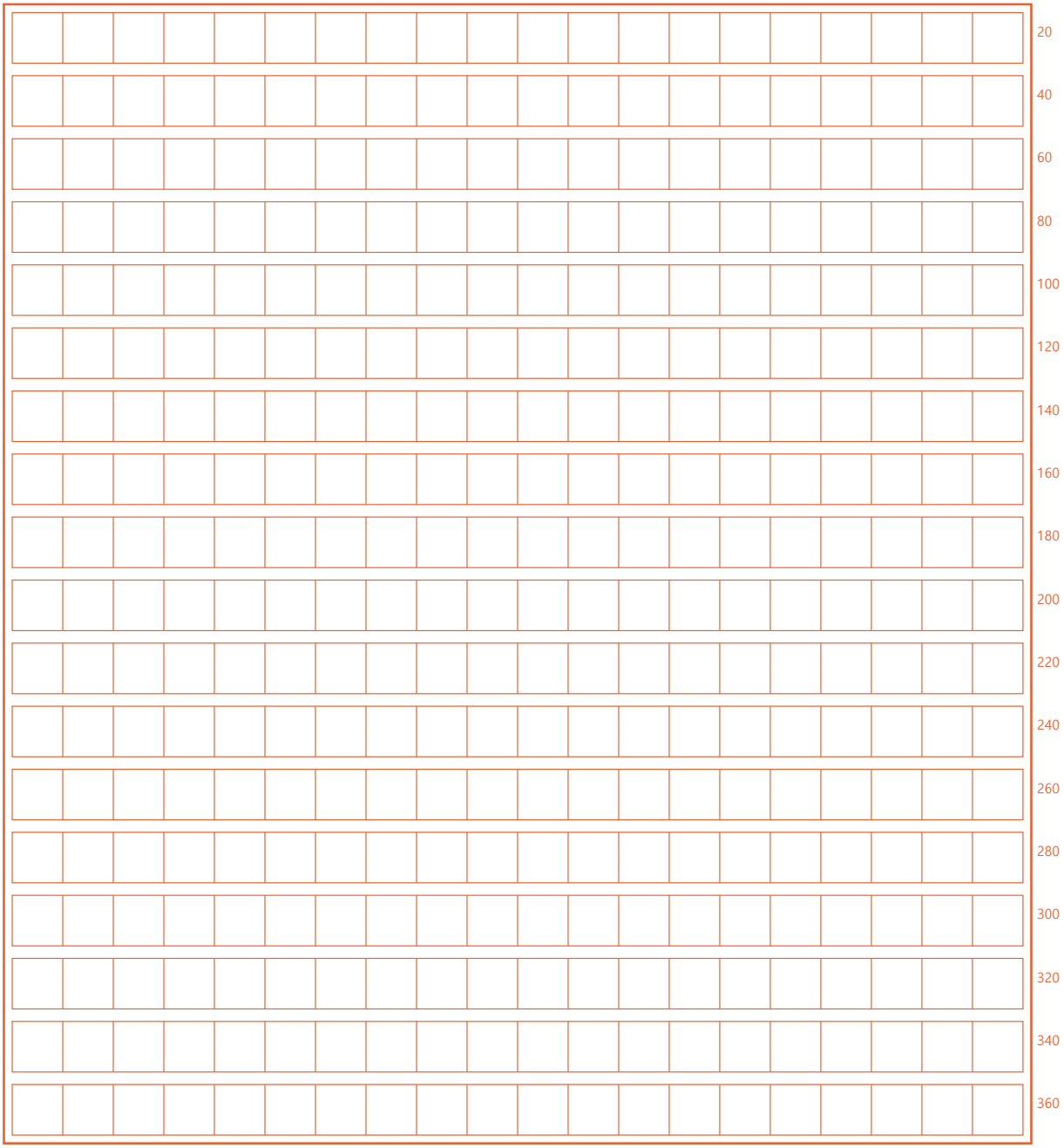
선생님 확인을 받았다. ☐

선생님 확인 이 쪽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선생님이 개요를 확인해 준다. 확인을 받은 뒤 다음 쪽에 글을 쓴다.

국어농장 프레게1 · 학생용

글 쓰기

개요를 보며 세 문단으로 글을 써 봅시다. 개요 한 칸이 한 문단이 됩니다. 문단을 시작할 때는 첫 칸을 비웁니다.



국어농장 프레게1 · 학생용

01 01 개요 읽기

글 쓰기 (이어서)

앞 쪽에서 이어 씁니다.

380

400

국어농장 프레게1 · 학생용

고쳐 쓰기

쓴 글을 개요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선생님 과제에 맞게 고쳐 써 봅시다.

스스로 살펴보기

맞으면 □에 표시해 봅시다.

- □ 개요의 처음·가운데·끝 내용이 글에 모두 들어 있다.
- □ 글을 세 문단으로 나누었고, 문단 첫 칸을 비웠다.
- □ 개요에 없는 내용이 끼어들어 흐름을 끊지 않는다.
- □ 개요의 짧은 말을 완성된 문장으로 풀어 썼다.

고쳐 쓰기

과제와 관련된 문단 하나를 골라 다시 씁니다.

고쳐 쓸 문단: □ 처음 □ 가운데 □ 끝



국어농장 프레게1 · 학생용

01 01 개요 읽기

고쳐 쓰기 (이어서)

앞 쪽에서 이어 씁니다.

240
260
280
300

01 현대소설

현대소설가

박완서

朴婉緖 1931~2011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여성의 삶을 일상의 언어와 체험적 진실로 기록한 한국문학의 거장



생애와 등단

출생과 성장

1931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났다.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일곱 살 무렵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이주했으며,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1950년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다.

전쟁과 생활 체험

입학한 해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1953년 결혼한 뒤 약 20년 동안 가정을 돌보다가, 전쟁기 미군 PX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첫 장편을 썼다.

마흔 살의 등단

1970년 『나목』이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늦은 출발 뒤 약 40년 동안 장편과 단편, 산문을 꾸준히 발표하며 폭넓은 독자층을 얻었다.

상실과 말년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잇달아 잃은 경험은 후기 작품의 슬픔과 생명 의식에 스며들었다. 200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2006년 서울대 명예문학박사가 되었고 2011년 타계 뒤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주요 문학적 특징 및 주제 의식

전쟁과 분단의 생활사

이념 대립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전쟁이 한 가족의 생존·교육·죽음과 기억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구체적인 생활 경험으로 그렸다. 개인의 상처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겹쳐 놓았다.

산업화와 중산층 욕망 비판

개발과 도시화 속에서 물질적 풍요가 삶의 기준이 되는 과정을 냉정하게 포착했다. 허영과 소비 욕망, 왜곡된 결혼과 중산층의 위선을 드러내며 자본주의적 일상을 비판했다.

여성의 몸과 가부장제

결혼과 시집살이, 호주제와 남아 선호 등 남성 중심 가족제도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을 다뤘다. 여성의 몸과 일상에 새겨진 차별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확장하고, 가족 내부의 문제가 곧 제도와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 주었다.

일상의 언어와 체험적 진실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자신의 체험에서 출발해 역사와 사회의 모순을 드러냈다. 냉소적이고 신랄한 시선에 재치와 유머를 더해 비극 속에서도 인물의 생동감과 삶의 복합성을 살렸다.

노년·상실과 생명 긍정

노부부와 병든 부모, 가족을 잃은 사람 등 소외되기 쉬운 존재의 내면을 깊이 응시했다. 늙음과 죽음의 쓸쓸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해와 연민, 일상의 온기로 삶을 긍정했다.

문학사적 의의 및 평가

현대사의 생활 기록

마흔 살의 늦은 등단 뒤 약 40년 동안 생활 체험을 한국 현대사의 기록으로 확장했다. 전쟁과 분단, 산업화, 도시 중산층, 여성과 가족, 노년과 죽음을 한 작가의 지속적인 문제의식 안에서 연결했다.

사적 영역의 문학적 확장

가정과 일상처럼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던 공간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국가 폭력의 흔적을 읽어 냈다. 여성의 구체적 경험을 문학의 중심으로 옮겨 한국 여성작가의 서사적 지평을 크게 넓혔다.

현실 인식과 인간 이해

비극을 미화하지 않는 신랄한 현실 인식과 평범한 사람을 향한 이해를 함께 지녔다. 주요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사후 장편소설 결정판 22권과 단편소설 전집 7권이 간행되어 창작 성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박완서의 주요 작품



『나목』 1970
한국전쟁기 미군 부대 주변에서 일하는 이경과 화가 옥희도의 만남을 중심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와 청춘의 흔들림을 그렸다.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한 인물이 등장하는 등 작가의 전쟁 체험이 바탕이 된 첫 장편이다.



『휘청거리는 오후』 1977
한 가족이 허영과 물질적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과정을 그렸다. 산업화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세속적 욕망으로 대체되고 결혼마저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왜곡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 1980
남성 중심 사회와 가족관계 속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삶을 전면에 내세웠다. 결혼제도의 모순과 여성의 자아 찾기를 다루며 1980년대 박완서 여성문학의 중요한 출발점을 이루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992
개풍의 유년기부터 서울 생활과 대학 입학 무렵까지를 회고한다. 식민지 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1·4 후퇴를 한 소녀의 기억으로 복원해 개인사와 민족사의 비극을 포개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1995
1951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 체험을 소설화했다. 서울에서의 생존, 오빠의 죽음과 가족의 상처, 자신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통해 전쟁이 일상을 파괴한 흔적을 증언한다.



「엄마의 말뚝」 1980~1991
어머니의 서울 정착과 딸의 교육, 전쟁 중 오빠의 죽음, 노년의 병과 죽음을 세 편에 걸쳐 그린 자전적 연작이다. 한 가족의 기억 속에서 식민지 근대와 분단의 상처, 어머니의 생명력을 함께 드러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1980
오랫동안 낙태 시술을 해 온 의사가 폐업을 앞두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선택을 그렸다. 전쟁 폭력이 여성에게 남긴 고통과 파괴된 모성, 생명의 가능성을 응시한다.



「꿈꾸는 인큐베이터」 1993
아들을 얻기 위해 딸의 임신을 중단하도록 강요받았던 여성의 기억을 통해 남아 선호와 남성 중심 가족제도의 폭력을 비판했다. 여성의 몸을 가문의 도구로 여기는 사회의 모순을 드러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1972
월북한 오빠를 둔 '나'와 가족은 정보기관에 연행되고 감시받는다. 설희 엄마의 미국 이민 뒤 심해진 틀니 통증은 분단 현실, 한국 사회의 제약, 선망과 질투가 낳은 정신적 중압감의 상징이다. 2027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



「해산바가지」 1985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시설에 맡기려던 '나'는 초가지붕의 박을 보고, 딸과 아들을 차별하지 않고 출산 때마다 경건히 산바라지하던 시어머니를 떠올린다. 생명 존중의 태도를 깨닫고 자신의 선택을 성찰한다.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

현대소설가

염상섭



廉想涉 1897~1963

식민지·해방·전쟁의 격동을 일상의 언어와 치밀한 관찰로 기록해 한국 근대 사실주의를 확립한 작가

생애와 등단

출생과 유학

1897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태어났다. 한문과 근대 교육을 함께 접했고, 1912년 일본으로 유학해 교토부립제2중학교를 졸업한 뒤 1918년 게이오대학 문과 예과에 입학했다.

오사카 독립운동

1919년 오사카에서 조선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독립선언을 기획하다 체포되었고 재판 뒤 석방되었다. 1920년 귀국해 『동아일보』 기자가 되고 『폐허』 동인으로 활동했다.

소설가의 출발

1921년 『개벽』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했다. 「만세전」을 거쳐 1931년 「삼대」에서 식민지 서울의 가족·세대·계층 문제를 사실주의적으로 집대성했다.

해방 이후와 말년

1936~1945년 만주에서 언론인으로 일한 뒤 광복과 함께 귀국했다. 『경향신문』 초대 편집국장, 한국전쟁기 해군 정훈장교, 서라벌예술대학장을 지냈으며 1963년 3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주요 문학적 특징 및 주제 의식

자연주의에서 사실주의로

초기에는 신경증·광기·우울로 식민지 지식인의 절망을 드러냈다. 이후 치밀한 관찰과 객관적 기술로 개인의 삶을 사회 구조와 연결하며 한국 근대 사실주의를 확립했다. 인물의 내면을 해부하면서도 삶을 규정하는 물질적 조건과 관계망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폈다.

일상에서 포착한 시대

가족의 식사·상속·빚·직업·혼인처럼 구체적인 생활을 따라갔다. 돈과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식민지 자본주의와 해방 뒤 혼란이 스며드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세대·계층의 복합적 시선

구세대·개화 세대·식민지 청년, 지주·농민·지식인·소시민이 서로 다른 가치와 욕망을 드러낸다. 인물을 이념의 대변자로 단순화하지 않고 현실 권력과 맺는 관계를 입체적으로 그렸다.

여로와 도시의 관찰

「만세전」의 귀국 노정처럼 이동하는 시선으로 제국과 식민지의 공간을 비교했다. 서울 중류층의 골목과 집 안까지 촘촘히 재현해 도시의 관계망과 사회 변화가 한눈에 드러나게 했다.

생활어와 냉정한 거리

서울 중류층의 생활어와 인물마다 다른 말투와 대화를 살려 현실감과 인물별 시각의 차이를 높였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모순된 행동과 이해관계를 배열해 독자가 시대의 구조와 윤리 문제를 읽게 했다.

문학사적 의의 및 평가

근대 사실주의의 확립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만세전」을 거쳐 「삼대」에 이르며 한국 근대소설의 자연주의·사실주의를 개척하고 확립했다. 식민지 현실을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과 생활의 관계로 바꾸어 보여 주었다.

식민지에서 4·19까지의 기록

식민지기, 광복과 분단, 한국전쟁, 4·19에 이르는 격동을 평생의 작품에 기록했다. 어느 한 이념으로 현실을 단순화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윤리를 꾸준히 질문했다.

장편소설의 성취

서울 생활어와 복합적인 인물 관계, 치밀한 사건 구성을 통해 가족사가 곧 시대사가 되는 장편소설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해방 뒤에도 일상 속 돈·권력·전쟁의 흔적을 끝까지 관찰해 사실주의의 영역을 넓혔다.

염상섭의 주요 작품



「두 출발」 1927
농촌 유지 안양덕 일가와 머슴 원석을 중심으로 봉건 질서가 해체되는 식민지 농촌을 그렸다. 꼬깔 참봉은 일제 권력에 협력하는 길을 택하고, 쫓겨난 원석은 서울에서 노동하며 공부하겠다고 결심한다.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평가 출제작이다.



「삼대」 1931
조 의관·상훈·덕기로 이어지는 조씨 집안 삼대의 갈등과 몰락을 그렸다. 봉건적 명분, 개화의 허위, 식민지 청년의 고민이 상속과 가족 관계 속에서 충돌한다. 가족사를 시대사로 확장한 사실주의 대표작이며 2023·2026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작이다.



「만세전」 1922~1924
동경 유학생 이인화가 위독한 아내를 만나러 서울로 돌아오는 여로에서 검문과 수탈, 몰락한 조선인의 생활을 목격한다. 개인의 귀국 길을 3·1운동 직전 식민지 사회 전체에 대한 관찰로 확대한 작품이며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작이다.



「두 파산」 1949
문방구점을 꾸려 가는 정례 어머니가 동창 김옥임에게 돈을 빌렸다가 가게를 잃는다. 생계가 무너지는 물질적 파산과 우정·양심을 잃는 정신적 파산을 대비해 광복 직후 일상에 침투한 돈의 논리를 드러냈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작이다.



「양과자갑」 1948
영수의 딸 보배가 이웃의 영어 편지를 번역하고 양과자갑을 선물받는 사건을 그렸다. 영어가 권력과 기회의 언어로 떠오른 미군정기 현실과 미국의 영향력이 가정까지 스미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포착했다. 최신 2027학년도 EBS 수능완성 수록작이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1921
신경증에 시달리는 '나'가 남포에서 광인 김창억을 만난다. 두 사람의 우울과 광기를 겹쳐 3·1운동 뒤 식민지 지식인의 좌절을 드러냈으며, 자연주의적 색채와 초기 사실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등단작이다.



「효풍」 1948
미군정 아래 좌우 대립과 분단이 굳어 가는 해방공간을 다룬 장편이다. 어느 한쪽의 정치주의에 머물지 않고 통합과 자주적 통일정부의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새벽바람'에 혼란 뒤 새로운 질서가 오리라는 희망을 담았다.



「취우」 1952~1953
한국전쟁 때 서울에 남은 인물들이 인공치하를 견디는 과정과 관계 변화를 그렸다. 기존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이어지는 생존의 일상을 포착하고, 전쟁이 개인의 욕망·가족·윤리를 바꾸는 과정을 냉정하게 기록했다.



「무화과」 1931~1932
「삼대」의 후일담에 해당하는 장편이다. 「삼대」에 이어 서울 중산층의 삶을 그리며, 식민지 자본주의 아래에서 가족과 인간관계가 이해관계와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해방의 아들」 1946
만주에서 일본인으로 행세하던 조준식이 홍규의 도움을 받아 해방된 조국의 조선인으로 다시 서는 과정을 그렸다. 광복이 개인의 정체성과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고 새로운 주체와 공동체의 윤리를 모색했다.

현대소설가

채만식

蔡萬植 1902~1950

풍자와 반어로 식민지와 해방기의 모순을 해부한 근대소설가·극작가



생애와 등단

출생과 수학

1902년 전북 옥구, 오늘날 군산 지역에서 태어났다. 서당과 임피보통학교를 거쳐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제일와세다고등학원에 진학했으나 1923년 중퇴했다.

기자와 작가

귀국 뒤 교원 생활을 거쳐 조선일보·동아일보·개벽사 기자로 일했다. 1924년 「새길로」를 『조선문단』에 발표해 등단했고, 1936년부터 창작에 전념했다.

전성기

1930년대 실직 지식인, 농민, 도시 하층민, 식민지 지주층을 다룬 대표작을 집중 발표했다. 소설·희곡·평론·수필 등 약 290편을 남겼다.

친일과 해방 이후

일제 말 징병·지원병 선전과 위문 활동 등에 참여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해방 후 현실 풍자와 자기 회고를 이어 가다 1950년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주요 문학적 특징 및 주제 의식

풍자와 반어

인물이 옳다고 믿는 말과 독자가 파악하는 실제 의미를 어긋나게 한다. 「치숙」의 '나'와 「태평천하」의 윤 직원은 상대를 비난할수록 자신의 무지·친일성·시대착오를 스스로 폭로한다. 화자의 말과 작가의 비판 사이의 거리가 풍자를 만든다.

구어체와 희화화

경어체, 방언과 입말, 과장·반복, 서술자의 논평을 결합한다. 웃음을 만드는 구어적 리듬과 연극적 장면 구성은 인물을 생생하게 하면서 비판을 날카롭게 한다. 희곡 창작 경험도 대화와 장면 전환에 반영된다.

계층과 구조의 시선

실업 인텔리·농민·도시 하층민·고리대금업자·지주·친일 소시민을 폭넓게 그린다. 개인의 실패 뒤에 놓인 식민지 경제·교육·권력 구조를 추적한다.

세대와 가족사

「태평천하」와 「제향날」은 여러 세대의 가치관을 충돌시켜 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변화를 압축한다. 가족의 갈등을 지주제·항일운동·사회주의와 연결한다.

해방기와 자기 성찰

해방 뒤 기회주의와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을 풍자했다. 「민족의 죄인」은 자기 고백의 성취와 책임을 분산하는 자기합리화라는 한계를 함께 지닌 문제작이다.

문학사적 의의 및 평가

풍자와 반어의 성취

채만식은 풍자와 반어를 정교한 서사 장치로 발전시켜, 인물의 말과 실제 의미 사이의 틈에서 식민지 현실과 계층 모순이 드러나게 했다.

1930년대에서 해방기까지의 기록

실직 지식인·농민·도시 하층민·식민지 지주층에서 해방기의 기회주의자까지 그려 1930년대와 해방 직후 사회를 연결했고, 소설과 희곡 양쪽에서 뚜렷한 성취를 남겼다.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적 읽기

일제 말 친일 문필 활동은 그의 문학적 성취와 함께 비판적으로 평가된다. 「민족의 죄인」에는 반성과 자기합리화가 함께 담겨 있다.

채만식의 주요 작품



「미스터 방」 1946
미군 통역으로 권세를 얻은 방삼복과 재산 회복을 꾀하는 백 주사를 통해 해방기의 기회주의와 미청산 친일 세력을 풍자한다.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출제.



「치숙」 1938
친일 소시민인 '나'가 사회주의자 아저씨를 비난하지만, 말할수록 화자의 무지와 속물성이 드러나는 반어적 풍자소설. 최신 2027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



「태평천하」 1938·1948 개제
일제 치하를 '태평천하'라 여기는 윤 직원과 타락한 일가를 통해 식민지 지주층의 부패를 풍자한다. 2026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



「명일」 1936
실직 지식인 범수와 삯바느질로 생계를 잇는 영주의 생활고·교육 갈등을 통해 지식인의 무력과 자기기만을 드러낸다.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



「영웅 모집」 1934
파고다 공원의 다양한 군상과 피에로의 논평으로 1930년대 빈곤·타락과 참된 영웅의 부재를 풍자한 희곡.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



「논 이야기」 1946
논을 되찾으려는 한덕문의 허황된 기대와 좌절을 통해 해방 전후로 이어진 농민 수탈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함께 비판한다.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



「레디메이드 인생」 1934
실직 인텔리 P가 아들을 인쇄소 견습공으로 보내는 결말로, 지식인을 양산하고도 쓸 곳을 주지 않는 식민지 교육과 사회를 비판한다.



「탁류」 1937~1938
미두 투기로 몰락한 집안의 딸 초봉이 착취와 폭력 속에서 파멸하는 수난사. 금강의 흐린 물은 일제 수탈 아래 타락한 사회와 초봉의 운명을 상징한다.



「민족의 죄인」 1948~1949
일제 말 친일 협력을 회고한 자전적 중편. 통렬한 자기 고발이라는 평가와 책임을 분산하는 자기합리화라는 평가를 함께 받는다.



「제향날」 1937
제삿날 할머니의 회상으로 동학농민운동·3·1운동·사회주의를 향한 3대의 항쟁과 수난을 잇는 장막희곡이다.

현대소설가

김원일



金源一 1942~

가족의 기억으로 분단의 상처와 화해의 가능성을 탐구한 소설가

생애와 등단

출생과 유년

1942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했다. 좌익 활동을 하던 아버지가 한국전쟁 중 월북한 뒤 어머니가 네 남매를 홀로 길렀고, 가난과 연좌의 불안은 평생의 문학적 출발점이 되었다.

수학

대구농림고를 졸업하고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공부했다. 1963년 영남대 국문과 3학년에 편입해 1968년 졸업했으며, 1984년 단국대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를 받았다.

등단

1966년 「1961년 알제리아」가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1967년 장편 「어둠의 축제」가 『현대문학』 장편 공모에서 준당선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문단 활동과 수상

출판사 근무 뒤 장편 창작으로 영역을 넓혔다. 1990년 이상문학상, 2008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2012년 은관문화훈장, 2014년 대산문학상 수상으로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다.

주요 문학적 특징 및 주제 의식

분단의 가족사화

좌우 이념을 직접 설교하지 않고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생계, 굶주림·감시·고부 갈등처럼 가족의 일상에 남은 상처로 보여 준다. 역사에 휩쓸린 개인들의 두려움과 책임을 함께 묻는다.

유년 화자와 회상

어린 화자는 사건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배고픔·공포·수치심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성인 화자의 회고가 과거를 다시 해석해 제한된 이해와 훗날의 성찰이 겹치는 성장·기억 서사를 만든다.

아버지 인식의 변화

초기의 아버지는 공포와 환멸의 수수께끼지만, 이후 작품은 그의 선택을 한국전쟁·냉전·국제 관계 속에서 입체화한다. 적대와 침묵에서 이해·화해로 이동하는 과정이 작품 세계의 큰 축이다.

다중 시점과 사실주의

가족 구성원의 시점을 나누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균형 있게 보여 주고, 실제 체험과 조사에 바탕을 둔 인물·공간을 촘촘히 복원한다. 개인 기억을 한국 현대사의 넓은 흐름 안에 배치한다.

주제와 상징의 확장

산업 공해·물질주의·정치적 억압·실향과 세대 갈등까지 시야를 넓힌다. 도요새·어둠·노을·연 같은 상징은 고향과 자유, 상처와 회복을 나타내며 인물의 가치관이 바뀌는 과정과 이어진다.

문학사적 의의 및 평가

가족사로 그린 분단

김원일은 분단을 이념 구호가 아니라 굶주린 아이, 남겨진 어머니, 사라진 아버지와 실향민의 생활 속 상처로 구체화해 개인적 가족사와 한국 현대사를 연결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화해

초기의 공포와 환멸에서 출발해 냉전 속에서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삶을 여러 시점과 장편 서사로 재구성하며 적대의 기억을 이해·화해·보편적 윤리로 확장했다.

작품을 읽을 때 살필 점

어린 화자가 모르는 것과 어른이 된 화자가 돌아보는 것, 여러 인물의 시점, 도요새·노을·연 같은 상징을 함께 살피면 작품이 분단의 상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알 수 있다. 평가원 모의평가와 EBS 교재에 여러 작품이 실렸다.

김원일의 주요 작품



「미망」 1981
좌익 활동 뒤 사라진 아버지 때문에 남은 가족이 30여 년간 가난과 불안을 겪는다.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역사의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이해를 통한 치유를 모색한다. 최신 2027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



『마당 깊은 집』 1988
1954년 대구의 한옥에 모여 산 피란민·상이군인 가족들을 어린 길남의 눈과 성인의 회고로 그린 자전적 성장소설. 전후 서민의 가난과 연대를 복원한다.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록.



「도요새에 관한 명상」 1979
병식·병국·아버지의 시점을 나누어 공해·정치 억압·물질주의·분단을 함께 비춘다. 도요새는 잃은 고향과 정신적 자유를 뜻한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출제, 2023학년도 EBS 수록.



「어둠의 혼」 1973
붙잡힌 좌익 아버지의 총살 소문 앞에서도 굶주림이 더 절박한 어린 갑해의 시선으로 가족의 공포를 그린다. 어둠 이미지는 암울한 현실과 불안한 내면을 나타낸다. 2022학년도 EBS 수록.



「마음의 감옥」 1990
부당하게 구속된 동생 현구와 석방을 요구하는 청년들을 보며 '나'가 양심과 4·19의 기억을 되찾는다. 1990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2024년 4월 고3 전국연합 출제.



『노을』 1977~1978
스물아홉 해 만에 귀향한 화자가 유년의 이념 폭력과 아버지를 다시 본다. 핏빛으로만 알던 노을의 여러 색은 단선적 기억을 넘어선 새 인식을 뜻한다. 2019년 고2 전국연합 출제.



「연」 1979
방랑하는 할아버지·아버지·아들을 잇는 연을 통해 자유를 좇지만 현실에 매인 삶을 형상화한다. 2018년 3월 고1 전국연합 출제.



『불의 제전』 1980~1997
한국전쟁 전후의 가족사와 좌우 충돌, 민초의 삶을 넓은 역사 구도로 추적했다. 1980년 연재를 시작해 1997년 7권으로 완간한 역작이다.



『겨울골짜기』 1987
거창 지역 민간인 학살을 바탕으로 좌우 이념과 빨치산 사이에 갇힌 주민의 공포·희생, 국가 폭력과 전쟁 속 생존을 복원한다.



『바람과 강』 1985
변절자의 죄책감과 죽음 의식을 존재론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 종교 의식과 판소리의 의미를 결합해 분단문학을 내면 윤리와 구원의 문제로 넓힌다.

현대소설가

김유정



金裕貞 1908~1937

식민지 농촌의 비애를 춘천 방언과 해학·아이러니로 형상화한 소설가

생애와 등단

출생과 유년

1908년 강원도 춘천 실레마을의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서울로 옮긴 뒤 어머니와 아버지를 잇달아 여의었고, 집안의 몰락과 가난을 겪었다.

수학과 농촌 계몽

1929년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연희전문 문과에 진학했으나 학업을 중단했다. 1931년 고향에서 야학을 열고 이듬해 금병의숙을 세워 농촌 계몽에 힘썼다.

등단

1933년 「산골 나그네」·「총각과 맹꽁이」를 발표했다. 1935년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노다지」가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 가작으로 입선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구인회와 요절

1935년 후기 구인회 동인으로 이상·박태원 등과 교류했다. 폐결핵과 궁핍 속에서도 2년 남짓한 문단 활동 동안 30편 안팎의 단편을 남기고 1937년 3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주요 문학적 특징 및 주제 의식

구조적 빈곤의 생활화

소작료·빚·세금으로 무너진 농촌을 굶주림, 야간도주, 도박, 자기 벼 절도 같은 생활의 역설로 보여 준다. 인물의 일탈을 개인의 타락보다 생존을 막는 식민지 농촌 구조와 연결한다.

해학과 아이러니

표면의 우스운 말과 행동 뒤에 가난·착취·비애가 겹친다. 독자의 웃음은 곧 연민과 씁쓸함으로 바뀌며, 「만무방」에서는 해학을 줄이고 자기 벼를 훔치는 상황적 아이러니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신빙성 낮은 화자

「봄·봄」과 「동백꽃」의 어수룩한 '나'는 노동 착취나 점순이의 애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화자의 판단과 독자의 추론 사이의 정보 격차가 웃음을 만들고 권력·계층 관계를 드러낸다.

향토어의 생동감

춘천 방언, 속어, 육담, 의성·의태어와 짧은 대화로 인물의 말씨·몸짓·심리를 살리고 현장감을 높인다. 전통적 바보사위 이야기와 농촌 풍속을 개성적인 근대 단편소설의 문체로 바꾸었다.

제재의 확장

실레마을 농민과 사춘기 남녀, 금광 체험에서 나온 투기 욕망, 사직동 셋방살이 도시 빈민을 함께 그렸다. 생활력 강한 여성과 무기력하거나 우직한 남성의 대비도 여러 작품을 잇는다.

문학사적 의의 및 평가

식민지 농촌 현실의 형상화

김유정은 식민지 농촌의 빈곤과 착취를 이념 구호가 아니라 굶주림·소작·도박·금광·성의 거래 같은 구체적 생존 장면으로 형상화해, 인물의 잘못 뒤에 놓인 현실의 구조를 보게 했다.

웃음으로 그린 사실주의

신빙성 낮은 화자, 향토 방언, 민담적 골계와 상황적 아이러니를 결합해 비극을 웃음으로 견디는 독자적 사실주의를 만들었고, 농촌·금광·도시 빈민을 아우르며 한국 근대소설의 언어 감각을 넓혔다.

작품을 읽을 때 살필 점

어수룩한 화자가 모르는 것과 독자가 짐작하는 것의 차이, 해학과 풍자의 차이, 계층 갈등과 당시 농촌의 사정을 함께 살피면 웃음 뒤에 숨은 가난과 착취가 보인다. 수능·평가원 모의평가와 EBS 교재에 여러 작품이 실렸다.

김유정의 주요 작품



「동백꽃」 1936
감자와 닭싸움으로 호감을 보이는 점순이와 이를 모르는 '나'의 인식 격차가 사춘기 애정과 계층 차이를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2026학년도 EBS 수록.



「만무방」 1935
응칠이 잡은 벼 도둑은 자기가 농사지은 벼를 훔치던 동생 응오였다. 수확해도 남는 것이 없는 소작 현실을 상황적 아이러니로 고발한다. 2007학년도 수능 출제, 2025학년도 EBS 수록.



「금 따는 콩밭」 1935
영식이 수재의 꾐에 넘어가 콩밭을 파헤치고 거짓 금맥에 매달린다. 빈곤이 낳은 일확천금 욕망과 금광 투기 세태를 비춘다. 2023학년도 EBS 수록.



「떡」 1935
굶주린 일곱 살 옥이가 잔칫집에서 국밥과 떡을 무리하게 먹고 앓는다. 어린아이의 굶주림과 이를 구경하는 이웃을 통해 농촌 빈민의 참상과 몰인정한 세태를 드러낸다. 2022학년도 EBS 수록.



「봄·봄」 1935
'나'는 혼인을 약속한 장인 봉필의 말을 믿고 3년 넘게 무보수로 일한다. 어수룩한 화자의 제한된 인식이 데릴사위 노동 착취를 웃음 속에 폭로한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출제.



「소낙비」 1935
춘호 부부가 노름 밑천 2원을 구하려 윤리마저 거래하는 과정을 통해 극도의 빈곤과 식민지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등단작.



「땡볕」 1937
덕순이 병든 아내를 지게에 지고 대학 병원에 갔다가 그대로 되돌아오는 길을 그렸다. 가난과 선량한 무지가 어두운 웃음을 자아내는 말기 대표작이다.



「산골 나그네」 1933
나그네 여인은 덕돌과 혼인한 뒤 그의 옷을 훔쳐 물방앗간의 병든 남자에게 입히고 함께 떠난다. 생존을 위한 선택과 원점 회귀 구성이 드러나는 첫 발표작.



「따라지」 1937
사직동 셋방의 주인과 밀린 방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공방을 희화화해 도시 최하층의 슬픔과 고달픔을 웃음 속에 비춘다.



「노다지」 1935
의형제 같은 잠채꾼 꽁보와 더팔이가 금 앞에서 서로를 불신하며 파국에 이른다. 금광 모티프로 물질 욕망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압축했다.

작가와 작품 확인

01 박완서의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쟁이 가족의 삶에 남긴 상처와 여성의 일상을 사회 구조와 연결한다.
② 식민지 도시 중류층의 상속 관계를 통해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를 추적한다.
③ 친일 소시민이 내세우는 자기 정당화를 반어적으로 제시해 풍자한다.
④ 농촌 인물의 생존 문제를 향토어와 어수룩한 화자의 해학으로 드러낸다.
⑤ 아버지에 대한 유년의 공포가 성인의 이해로 변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다.

02 박완서의 『나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족의 결혼과 소비 욕망을 통해 산업화 속 중산층의 허영을 드러낸다.
② 결혼제도 안에서 억압받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찾는 문제를 전면화한다.
③ 유년의 고향 생활에서 서울 이주와 대학 입학 무렵까지의 기억을 회상한다.
④ 전쟁기 미군 부대 주변에서 일하는 이경과 화가 옥희도의 만남을 그린다.
⑤ 노년의 어머니와 전쟁 중 잃은 오빠에 대한 기억을 세 편의 연작으로 잇는다.

03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 가족의 물질적 욕망과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화의 모순을 드러낸다.
② 어머니의 서울 정착과 오빠의 죽음, 노년의 병을 세 편의 연작으로 그린다.
③ 한 여성의 전쟁기 생존과 결혼에 이르는 1951~1953년의 경험을 복원한다.
④ 출산을 돌보던 시어머니의 기억을 통해 현재의 돌봄 선택을 성찰한다.
⑤ 월북한 가족으로 인한 감시와 이웃을 향한 선망을 신체의 통증에 겹친다.

04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가 비판하는 현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결혼을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삼으며 가족을 무너뜨리는 물질적 허영
② 병든 노인을 돌봄의 부담으로 여기면서 생명의 존엄을 잊는 태도
③ 가족의 이념적 선택을 이유로 남은 가족까지 감시하는 분단 현실
④ 식민지 교육이 지식인을 길러 내고도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모순
⑤ 아들을 얻기 위해 여성의 임신 중단을 강요하며 몸을 가문의 도구로 여기는 관습

05 염상섭 소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친일 소시민의 자기 정당화와 독자의 판단을 어긋나게 하여 풍자한다.
② 농촌 인물의 제한된 이해와 향토어를 통해 빈곤 속 해학을 드러낸다.
③ 분단 이후 남겨진 가족의 상처를 유년의 감각과 성인의 회고로 겹친다.
④ 여성의 결혼·출산 경험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을 포착한다.
⑤ 상속·빚·혼인 등 생활의 세부를 치밀하게 관찰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한다.

06 염상섭의 「삼대」에 나타난 인물과 세대별 문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조 의관: 개화의 허위 / 상훈: 봉건적 명분 / 덕기: 식민지 청년의 고민
② 조 의관: 봉건적 명분 / 상훈: 식민지 청년의 고민 / 덕기: 개화의 허위
③ 조 의관: 봉건적 명분 / 상훈: 개화의 허위 / 덕기: 식민지 청년의 고민
④ 조 의관: 식민지 청년의 고민 / 상훈: 개화의 허위 / 덕기: 봉건적 명분
⑤ 조 의관: 개화의 허위 / 상훈: 식민지 청년의 고민 / 덕기: 봉건적 명분



작가와 작품 확인 (계속)

07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방 직후 좌우 대립을 살피며 통합된 정치 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② 전쟁 뒤 피란민이 모여 사는 공간을 복원하여 이웃의 연대를 보여 준다.
③ 상속을 둘러싼 집안의 갈등을 따라가며 세대별 가치관을 대비한다.
④ 이인화의 개인적 귀국길을 식민지 사회 전반에 대한 관찰로 확장한다.
⑤ 광복 뒤 정체성을 회복하는 인물의 이동을 통해 새 공동체를 모색한다.

08 염상섭의 「두 파산」에서 대비되는 두 파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례 어머니의 생계 기반 상실 / 김옥임의 우정과 양심 상실
② 정례 어머니의 우정과 양심 상실 / 김옥임의 생계 기반 상실
③ 정례 어머니의 경제적 자립 / 김옥임의 물질적 몰락
④ 정례 어머니의 물질적 몰락 / 김옥임의 우정 회복
⑤ 정례 어머니의 양심 회복 / 김옥임의 경제적 자립

09 채만식의 풍자·반어를 이해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여 자기 성찰의 깊이를 드러낸다.
② 인물이 옳다고 믿는 말과 독자가 파악하는 실제 의미를 어긋나게 한다.
③ 사건 뒤의 화자가 과거의 오해를 해명하게 하여 인물 간 화해를 이끈다.
④ 여러 인물의 주장을 동등하게 인정하여 가치 판단을 열어 둔다.
⑤ 경제적 성공을 인물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10 채만식의 「치숙」에서 반어가 생기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화자가 아저씨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친일적 태도를 반성한다.
② 화자가 아저씨를 비판하는 말에 작가의 비판적 판단이 실린다.
③ 화자가 아저씨를 비난할수록 화자 자신의 무지와 속물성이 드러난다.
④ 화자가 아저씨의 정치적 신념을 이해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완화된다.
⑤ 화자가 자신의 속물성을 고백하여 아저씨에게 이해를 구한다.

11 채만식의 「태평천하」에서 제목과 윤 직원의 인식의 관계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가의 경제적 성공을 시대의 안정과 연결해 근대적 적응을 긍정한다.
② 일가의 도덕적 타락을 윤 직원의 태평한 현실 인식과 대비해 그를 옹호한다.
③ 윤 직원이 일제 치하를 태평하게 여기는 인식으로 지주층의 부패를 풍자한다.
④ 윤 직원의 시대 인식을 당시 사회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평가와 겹친다.
⑤ 일가 내부의 갈등을 식민지 상황과 구별하여 세대 간 화해의 문제로 다룬다.

12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에서 P가 아들을 인쇄소 견습공으로 보내는 결말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식인을 길러 내고도 쓸 곳을 주지 않는 식민지 교육과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다.
② 지식인의 실업을 학력 부족의 결과로 보아 정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③ 기술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을 보여 주며 식민지 사회의 기회 확대를 긍정한다.
④ 자녀의 교육을 신분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부모의 허영을 드러낸다.
⑤ 지식인의 출세가 식민지 권력에 협력하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풍자한다.

작가와 작품 확인 (계속)

13 김원일이 분단을 다루는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대립하는 정치 이념의 논리를 해설하여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정한다.
② 이념 갈등으로 생긴 가족의 불화를 당사자들의 성격 차이로 해석한다.
③ 역사적 사건을 공적 기록 중심으로 재현하여 개인의 기억과 구분한다.
④ 아버지의 부재와 가족의 생계처럼 일상에 남은 상처로 역사를 보여 준다.
⑤ 분단의 상처를 성공한 인물의 회고에 담아 경제적 성취의 의미를 부각한다.

14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식민지 말기의 도시 중류층을 여러 세대의 상속 갈등으로 살핀다.
② 전후 피란민 생활에 대한 성인의 회고를 길남의 당시 판단으로 제시한다.
③ 전후 피란민 가족의 처지를 개인의 도덕성에 따른 성공과 실패로 대비한다.
④ 귀향한 성인이 아버지의 과거를 재해석하며 유년의 이념 폭력을 돌아본다.
⑤ 전후 대구 한옥의 이웃들을 길남의 눈과 성인의 회고로 그려 가난과 연대를 복원한다.

15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 가족 구성원의 시선을 결합하여 같은 사건에 대한 일치된 판단을 제시한다.
②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식들의 삶을 해설하여 가족의 가치관을 통합한다.
③ 병식·병국·아버지의 시점을 나누고 도요새에 잃은 고향과 자유를 담는다.
④ 산업 공해를 자연 회복의 계기로 삼아 가족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그린다.
⑤ 도요새를 고향에 머물려는 의지로 제시하여 자유에 대한 동경과 대비한다.

16 김원일의 「미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쟁 중 오빠의 죽음과 노년의 어머니를 세 편의 연작으로 되돌아본다.
② 전후 대구의 한옥에 모여 사는 피란민 가족들의 가난과 연대를 복원한다.
③ 유년의 이념 폭력과 아버지의 삶을 귀향한 화자가 새롭게 바라본다.
④ 부당하게 구속된 동생과 청년들의 행동을 보며 화자가 양심을 되찾는다.
⑤ 좌익 활동 뒤 사라진 아버지로 인해 남은 가족이 겪는 가난과 불안을 그린다.

17 김유정 소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향토적 말씨와 농촌 풍속으로 공동체의 안정을 보여 주며 현실을 긍정한다.
② 춘천 방언과 해학을 살리되 웃음 뒤에 식민지 농촌의 빈곤을 겹친다.
③ 인물의 경제적 일탈을 욕심 많은 개인의 성격 문제로 설명한다.
④ 화자의 이해를 독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모순을 해명한다.
⑤ 가난한 인물의 어수룩함을 비판하여 근면한 생활의 회복을 촉구한다.

18 김유정의 「동백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점순이의 행동을 잘 아는 '나'가 모르는 체하는 데서 독자의 웃음이 생긴다.
② '나'의 제한된 이해 때문에 독자도 점순이의 호감을 판단하기 어렵다.
③ 점순이와 '나'의 대등한 처지가 농촌의 계층 차이와 대비된다.
④ 점순이가 감자와 닭싸움으로 보이는 호감을 '나'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⑤ 점순이의 행동은 호감의 표현과 구분되는 일방적 적대감으로 제시된다.

작가와 작품 확인 (계속)

19 김유정의 「만무방」에서 농촌 현실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인 봉필이 데릴사위에게 노동을 시키는 일
② 응오가 자신이 농사지은 벼를 훔치는 일
③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일
④ 영식이 금맥을 믿고 콩밭을 파헤치는 일
⑤ 옥이가 잔칫집에서 떡을 먹고 앓는 일

20 김유정의 「봄·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인 약속을 믿는 '나'의 제한된 이해를 통해 데릴사위 노동 착취가 드러난다.
② 화자가 장인의 계산을 미리 파악해 노동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웃음이 생긴다.
③ 데릴사위의 노동은 가족 간 부양을 위한 서로 돕는 관습으로 긍정된다.
④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당시의 착취 구조를 명확히 해설한다.
⑤ 혼인 갈등은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농촌 청춘의 연애 감정에 초점을 둔다.

21 작가와 작품의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박완서 - 『마당 깊은 집』
② 염상섭 - 「삼대」
③ 채만식 - 「만무방」
④ 김원일 - 「엄마의 말뚝」
⑤ 김유정 - 「레디메이드 인생」

22 작품과 핵심 문제의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휘청거리는 오후』 - 허영과 물질적 욕망이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과정
② 「두 파산」 - 두 여성의 경제적 몰락을 대비하여 동등한 피해를 드러내는 과정
③ 「치숙」 - 화자의 자기 성찰을 통해 식민지 소시민의 속물성을 극복하는 과정
④ 「미망」 -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고통을 남은 가족의 성격적 결함으로 설명하는 과정
⑤ 「만무방」 - 벼를 훔친 인물의 탐욕을 통해 소작농의 빈곤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

23 염상섭의 「삼대」와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구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두 작품은 가족의 갈등을 세대 간 오해로 파악하여 이해와 화해의 가능성을 중심에 둔다.
② 「삼대」는 조씨 집안의 개화를 긍정하고, 「태평천하」는 윤 직원의 현실 적응을 긍정한다.
③ 「삼대」는 청년의 고민을 가족 관계와 분리하고, 「태평천하」는 지주의 부패를 가족 관계와 연결한다.
④ 「삼대」는 조씨 집안의 세대 갈등으로 사회를 살피고, 「태평천하」는 윤 직원의 시대 인식을 풍자한다.
⑤ 「삼대」는 상속 관계를, 「태평천하」는 일가의 타락을 다루되 두 작품 모두 시대의 모순과 구분한다.

24 채만식의 「치숙」과 김유정의 「동백꽃」에 나타난 화자를 구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숙」에서는 화자의 자기 고백으로, 「동백꽃」에서는 독자의 추론으로 화자의 한계가 드러난다.
② 「치숙」에서는 아저씨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동백꽃」에서는 점순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독자의 기준이 된다.
③ 두 작품 모두 화자가 과거의 오해를 해명하면서 독자에게 인물의 진의를 직접 알려 준다.
④ 두 작품 모두 화자의 판단을 독자가 받아들임으로써 대상 인물에 대한 비판에 참여하게 한다.
⑤ 「치숙」은 아저씨를 비난하는 화자의 결함을, 「동백꽃」은 호감을 모르는 화자의 제한된 이해를 드러낸다.

25 염상섭의 「만세전」과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구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만세전」은 전쟁 뒤 귀국한 인물의 시선, 『마당 깊은 집』은 식민지 도시의 유년 체험을 중심에 둔다.
② 「만세전」은 해방공간의 이념 대립, 『마당 깊은 집』은 전후 대구의 피란민 생활을 중심에 둔다.
③ 「만세전」은 3·1운동 직전 귀국 여로, 『마당 깊은 집』은 전후 대구의 길남과 이웃을 중심에 둔다.
④ 「만세전」은 식민지 현실의 관찰, 『마당 깊은 집』은 그 현실에 대한 성인 이인화의 회고를 중심에 둔다.
⑤ 「만세전」은 가족 내의 상속 갈등, 『마당 깊은 집』은 전후 한옥의 이웃 관계를 중심에 둔다.

작가와 작품 확인 (계속)

26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과 김원일의 「미망」을 구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엄마의 말뚝」은 아버지의 실종 이후를, 「미망」은 어머니의 서울 정착 이후를 중심으로 가족의 상처를 잇는다.
② 두 작품은 가족의 고통을 다루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가족 내부의 개인적 불화에서 찾는다.
③ 「엄마의 말뚝」은 어머니의 교육열을 긍정하고, 「미망」은 남은 가족의 가난을 경제적 노력의 문제로 본다.
④ 「엄마의 말뚝」은 물질적 허영으로 인한 붕괴를, 「미망」은 세대별 상속 갈등으로 인한 몰락을 그린다.
⑤ 「엄마의 말뚝」은 어머니의 서울 정착과 전쟁 상처를 연작으로, 「미망」은 아버지 부재 뒤의 불안과 가난을 그린다.

27 학습한 작품의 상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도요새에 관한 명상」의 도요새 - 잃은 고향과 정신적 자유
② 「탁류」의 흐린 강물 - 고향의 질서가 보존해 온 삶의 안정
③ 『노을』의 여러 빛깔 - 변함없이 지속되는 단선적 기억
④ 「어둠의 혼」의 어둠 -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확고한 이해
⑤ 「연」의 연 - 현실의 구속에서 이미 벗어난 자유의 성취

28 『나목』과 「소낙비」를 바르게 구별한 것은?

① 『나목』은 가족의 소비 욕망을, 「소낙비」는 소작농의 벼 절도를 통해 빈곤을 드러낸다.
② 『나목』은 전후 피란민의 연대를, 「소낙비」는 금광 투기가 낳은 파국을 그린다.
③ 『나목』은 전쟁 속 이경과 옥희도의 만남을, 「소낙비」는 빈곤 속 춘호 부부의 윤리 거래를 그린다.
④ 『나목』은 이경의 전쟁 체험을, 「소낙비」는 혼인 약속을 이용한 데릴사위 노동 착취를 그린다.
⑤ 『나목』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아 선호를, 「소낙비」는 춘호 부부의 극심한 빈곤을 드러낸다.

29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와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을 바르게 구별한 것은?

① 앞 작품은 여성 개인의 허영을, 뒤 작품은 지식인 개인의 학력 부족을 비판한다.
② 앞 작품은 남아 선호가 여성의 몸에 가하는 폭력을, 뒤 작품은 지식인을 길러도 쓸 곳을 주지 않는 사회를 비판한다.
③ 앞 작품은 가족의 세대별 상속 갈등을, 뒤 작품은 식민지 교육과 실업의 모순을 비판한다.
④ 앞 작품은 여성의 몸을 가문에 종속시키는 관습을, 뒤 작품은 미군 통역을 이용한 권력 편승을 비판한다.
⑤ 앞 작품은 결혼을 신분 상승에 이용하는 허영을, 뒤 작품은 자녀의 학력을 과시하는 부모의 욕망을 비판한다.

30 채만식의 작품 가운데 희곡끼리 묶은 것은?

① 「제향날」 - 「태평천하」
② 「영웅 모집」 - 「레디메이드 인생」
③ 「미스터 방」 - 「민족의 죄인」
④ 「제향날」 - 「영웅 모집」
⑤ 「명일」 - 「치숙」

서술형

31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과 「꿈꾸는 인큐베이터」가 각각 어떤 가족·사회 문제를 다루는지 서술하시오.

32 염상섭의 「두 파산」에서 '두 파산'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인물과 연결하여 서술하시오.

33 채만식의 「치숙」에서 화자의 말과 독자의 판단이 어긋나는 방식을 서술하시오.

34 김원일의 「미망」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남은 가족에게 끼친 영향과 작품이 향하는 인식을 서술하시오.

35 김유정의 「만무방」에서 응오가 자신의 벼를 훔치는 사건이 왜 아이러니한지, 그 사건이 드러내는 현실과 함께 서술하시오.

서술형 (계속)

36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과 김원일의 「미망」이 가족을 통해 역사적 상처를 보여 주는 방식을 작품별로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

37 염상섭의 「삼대」와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가족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38 채만식의 「치숙」과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화자가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잘못 판단하는 것을 각각 서술하시오.

39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와 염상섭의 「두 파산」이 각각 돈 또는 물질적 욕망을 통해 비판하는 현실을 서술하시오.

40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과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어린 인물의 시선이나 화자의 제한된 이해가 각각 어떤 효과를 내는지 서술하시오.

국어농장 어휘 · 러셀

13장 마음 · 실망과 좌절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익힌다. 소설과 시를 감상하는 글에서 인물이나 화자의 심정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이다.

이 장의 원리는 「비슷한 말의 차이」이다. 실망 · 낙담 · 절망처럼 뜻이 비슷한 말을 정도, 남아 있는 희망, 어울리는 말에 따라 구별해 본다.

표제어의 발음 · 활용 · 문형 · 뜻풀이와 ¶ 용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다. ▸는 이 책에서 쓴 예문이다.

표제어 정리

1. 기대가 꺾일 때

낙담-하다 (落膽--) [낙땀하다] 활용 낙담하여(낙담해), 낙담하니

「동사」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하다. 너무 놀라 간이 떨어지는 듯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시험에 떨어져 낙담하다.

¶ 결승전에서 진 선수들이 크게 낙담하자 감독은 고개를 들라고 말했다.

비슷한 말 낙심하다 · 실망하다

단념-하다 (斷念--) [단:념하다] 활용 단념하여(단념해), 단념하니

「동사」【…을】【-기를】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 버리다.

¶ 그는 그녀를 쉽게 단념하지 못했다.

¶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끝내 진학을 단념하고 말았다.

¶ 비가 그치지 않아 우리는 정상에 오르는 일을 단념하고 산을 내려왔다.

비슷한 말 포기하다 · 같은 한자(斷) 중단 · 단절

체념-하다 (諦念--) [체념하다] 활용 체념하여(체념해), 체념하니

「동사」【…을】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다.

¶ 아직 체념하기에는 이르다.

¶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체념하는 편이 낫다.

¶ 노인은 "세상일이 다 그렇지." 하며 체념한 듯 웃었다.

함께 알 말 체념적(체념하는 것)

낭패 (狼狽) [낭:패]

「명사」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 낭패를 당하다.

¶ 벌써 기차가 떠났다니, 이것 참 낭패로군.

¶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와서 버스비를 낼 수 없으니 낭패였다.

함께 쓰는 말 낭패를 보다 · 낭패스럽다

속수-무책 (束手無策) [속쑤무책]

束(묶을 속) 手(손 수) 無(없을 무) 策(꾀 책)

「명사」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

¶ 날쌘 도둑이 훔친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 모양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 그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니 우리도 속수무책입니다.

▸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청천-벽력 (靑天霹靂) [청천병녁]

靑(푸를 청) 天(하늘 천) 霹(벼락 벽) 靂(벼락 력)

「명사」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청천벽력의 소식.

¶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은 가족 모두에게 청천벽력이었다.

2. 꺾인 뒤에 드는 느낌

의기소침을 뺀 아래 말들은 모두 끝에 느낄 감(感)이 붙어 '~한 느낌'을 뜻한다.

좌절-감 (挫折感) [좌:절감]

「명사」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 자신감을 잃은 느낌이나 기분.

¶ 좌절감에 빠지다.

¶ 한없는 좌절감을 느끼다.

▸ 오디션에 몇 번이나 떨어지자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다.

같은 짜임 좌절(挫折) + 감(感)

절망-감 (絕望感) [절망감]

「명사」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리게 된 느낌.

¶ 절망감에 빠지다.

¶ 절망감에 사로잡히다.

▸ 구조선이 섬을 지나쳐 가자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졌다.

반대되는 말 희망 · 기대감

무력-감 (無力感) [무력깜]

「명사」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 무력감을 느끼다.

¶ 경기에서 너무 벅찬 상대를 만나면 무력감이 든다.

▸ 아픈 동생 곁에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들었다.

상실-감 (喪失感) [상실감]

「명사」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

¶ 상실감에 빠지다.

¶ 상실감을 맛보다.

▸ 오래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보낸 뒤 상실감이 컸다.

패배-감 (敗北感) [패:배감]

「명사」

싸움이나 경쟁 따위에서 자신이 없어 무력해지는 느낌. 또는 싸움이나 경쟁 따위에서 진 뒤에 느끼는 절망감이나 치욕스러운 감정.

¶ 패배감을 느끼다.

¶ 패배감을 맛보다.

▸ 연이은 패배로 선수들 사이에 패배감이 퍼졌다.

회의-감 (懷疑感) [회의감, 훼이감]

「명사」

의심이 드는 느낌.

¶ 회의감이 들다.

¶ 회의감을 가지다.

▸ 밤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자 지금의 공부 방법에 회의감이 들었다.

함께 알 말 회의적(의심을 품는 것)

의기-소침 (意氣銷沈) [의:기소침]

意(뜻 의) 氣(기운 기) 銷(녹일 소) 沈(잠길 침)

「명사」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

▸ 발표를 망치고 의기소침해 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반대되는 말 의기양양

3. 한숨과 뉘우침

한탄-하다 (恨歎-- / 恨嘆--) [한:탄하다] 활용 한탄하여(한탄해), 한탄하니

「동사」【…을】【-음을】【-고】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다.

¶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다.

¶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 그는 가난한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함께 쓰는 말 신세를 한탄하다 · 처지를 한탄하다

탄식-하다 (歎息-- / 嘆息--) [탄:시카다] 활용 탄식하여(탄식해), 탄식하니

「동사」【…을】【-고】

한탄하여 한숨을 쉬다.

¶ 어지러운 세상을 탄식하다.

¶ 그는 이젠 다 틀렸다고 탄식했다.

▸ 할머니는 무너진 담장을 보며 "이 일을 어쩌나." 하고 탄식하셨다.

통탄-하다 (痛歎-- / 痛嘆--) [통:탄하다] 활용 통탄하여(통탄해), 통탄하니

「동사」【…을】('…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몹시 탄식하다.

¶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통탄하다.

▸ 학자들은 귀한 옛 책들이 불에 탄 일을 두고 통탄하였다.

함께 쓰는 말 통탄할 일

자책-하다 (自責--) [자채카다] 활용 자책하여(자책해), 자책하니

「동사」【…을】【-고】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다.

¶ 자신의 과오를 자책하다.

¶ 나는 아이에게 너무 소홀했던 내 자신을 자책했다.

▸ 동생이 다친 것이 자기 탓이라며 언니는 밤새 자책했다.

함께 알 말 자책감

후회-막급 (後悔莫及) [후:회막끕, 후:훼막끕]

後(뒤 후) 悔(뉘우칠 회) 莫(없을 막) 及(미칠 급)

「명사」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을 후회막급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이호철, 문≫

▸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 숙제를 모두 날렸으니 후회막급이었다.

미련 (未練) [미:련]

「명사」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 미련을 갖다.

¶ 미련을 두다.

▸ 떨어진 학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 학교생활에 마음을 붙였다.

주의 '미련하다(매우 어리석고 둔하다)'의 '미련'과는 다른 말이다.

4. 텅 빈 마음

허탈-하다 (虛脫--) [허탈하다] 활용 허탈하여(허탈해), 허탈하니

「형용사」

「1」 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하다.

¶ 허탈한 기분.

¶ 허탈한 느낌.

▸ 한 달 동안 준비한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허탈한 웃음만 나왔다.

「2」『의학』온몸의 힘이 쭉 빠져 빈사지경에 이른 상태이다. 얼굴이 창백하여지고 동공이 커지며 의식이 흐려지고 식은땀이 나는 따위의 증상이 나타난다.

허무-하다 (虛無--) [허무하다] 활용 허무하여(허무해), 허무하니

「형용사」

「1」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이다.

「2」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다.

¶ 허무한 느낌.

¶ 발길에 낙엽이 허무하게 차인다.

▸ 애써 쌓은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사라지자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3」 헛되거나 보잘것없다.

¶ 허무한 죽음.

¶ 그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보면 그는 허무하게 살지는 않았다.

「4」 한심하거나 어이가 없다.

¶ 경기에서 허무하게 지다.

¶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 십 년 공들인 탑이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허망-하다 (虛妄--) [허망하다] 활용 허망하여(허망해), 허망하니

「형용사」

「1」 거짓되고 망령되다.

¶ 허망한 말.

¶ 허망한 소문.

「2」 어이없고 허무하다.

¶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지다.

¶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다.

▸ 한 점 차로 앞서던 경기를 마지막 몇 초 만에 허망하게 내주었다.

공허-하다 (空虛--) [공허하다] 활용 공허하여(공허해), 공허하니

「형용사」

「1」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

¶ 공허한 들판.

¶ 마음이 공허하다.

▸ 친구들이 모두 떠난 교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2」 실속이 없이 헛되다.

¶ 공허한 이론.

¶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글보다 좀 서툴러도 내용이 충실한 글이 오히려 더 낫다.

▸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울적-하다 (鬱寂--) [울쩌카다] 활용 울적하여(울적해), 울적하니

「형용사」【…이】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하다.

¶ 마음이 울적하다.

¶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산보를 나갔다.

▸ 비 오는 일요일에 혼자 집에 있으니 괜히 울적했다.

처량-하다 (凄涼--) [처량하다] 활용 처량하여(처량해), 처량하니

「형용사」

「1」 마음이 구슬퍼질 정도로 외롭거나 쓸쓸하다.

¶ 달은 휘영청 밝고 뒤뜰의 벌레 우는 소리는 처량하기만 하다.

▸ 빈 들판에 홀로 선 허수아비가 처량해 보였다.

「2」 초라하고 가엾다.

¶ 처량한 신세.

¶ 처량한 모습.

▸ 비에 흠뻑 젖은 강아지의 모습이 처량했다.

5.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하다 (漠漠--) [망마카다] 활용 막막하여(막막해), 막막하니

「형용사」

「1」 아주 넓거나 멀어 아득하다.

¶ 바다가 막막하게 펼쳐져 있다.

「2」 아득하고 막연하다.

¶ 앞길이 막막하다.

¶ 생계가 막막하다.

▸ 짐을 모두 잃고 낯선 도시에 혼자 남으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주의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는 뜻의 '막막(寞寞)하다'도 있다.

암담-하다 (暗澹--) [암:담하다] 활용 암담하여(암담해), 암담하니

「형용사」
「1」 어두컴컴하고 쓸쓸하다.
¶ 암담한 어둠.
「2」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 암담한 현실.
¶ 먹고살 길이 암담하다.
▸ 공장이 문을 닫자 마을 사람들의 앞날은 암담했다.

참담-하다 (慘澹-- / 慘憺--) [참담하다] 활용 참담하여(참담해), 참담하니

「형용사」
「1」 끔찍하고 절망적이다.
¶ 잿더미만 남은 참담한 전쟁터.
▸ 태풍이 지나간 뒤 마을은 참담한 모습이었다.
「2」 몹시 슬프고 괴롭다.
¶ 다른 농군들은 죄인처럼 참담하게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서 있기만 했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 믿었던 친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

비참-하다 (悲慘--) [비:참하다] 활용 비참하여(비참해), 비참하니

「형용사」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 폭발 사고 현장의 비참한 모습은 말로는 다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비관-적 (悲觀的) [비:관적]

「I」「명사」
「1」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
¶ 그는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관적인 사람이다.
¶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2」 앞으로의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보는 것.
¶ 앞으로의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라.
¶ 수출 경기가 빨리 살아나야 할 텐데 아직은 비관적이다.
▸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II」「관형사」
「1」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 비관적 성향.
¶ 비관적 태도.
「2」 앞으로의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보는.
¶ 비관적 전망.

반대되는 말 낙관적

원리 · 비슷한 말의 차이

뜻이 비슷한 말이라도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말은 다음 세 가지를 살펴 구별한다.

- **정도** —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상했는가?
- **남아 있는 것** —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가?
- **쓰는 자리** —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쓰는가? 어떤 말과 함께 쓰는가?

실망 · 낙담 · 절망

낱말	사전 뜻	구별
실망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몹시 상함.	가장 넓게 쓴다. '친구에게 실망하다', '결과에 실망하다'처럼 사람이나 일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낙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	간이 떨어지는 듯하다는 데서 나온 말로, 충격을 받아 맥이 풀린 자기 마음을 나타낸다. '친구에게 낙담하다'처럼 남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절망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림.	희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이다.

- 음식 맛이 기대보다 못해 조금 실망했다. (○)
- 음식 맛이 기대보다 못해 조금 절망했다. (어색함)

절망은 희망이 모두 끊어진 상태이므로 '조금'과 함께 쓰기 어렵다.

- 약속을 어긴 친구에게 실망했다. (○)
- 약속을 어긴 친구에게 낙담했다. (어색함)

단념 · 체념

낱말	사전 뜻	구별
단념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 버림.	하려던 일이나 계획을 그만두는 데 쓴다. '진학을 단념하다'처럼 무엇을 단념하는지가 함께 나온다.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나타낼 때 많이 쓴다. '체념한 듯', '체념적 태도'

한탄 · 탄식 · 통탄

낱말	사전 뜻	구별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신세를 한탄하다'처럼 무엇이 원통한지가 함께 나온다.
탄식	한탄하여 한숨을 쉼.	한숨을 쉬는 모습 자체를 나타낸다.
통탄	몹시 탄식함.	탄식보다 정도가 심하다. '통탄할 일'처럼 크게 잘못된 일에 쓴다.

허탈 · 허무 · 허망 · 공허

낱말	사전 뜻	구별
허탈	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함.	기대가 무너진 바로 그때의 몸과 마음 상태
허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함.	인생이나 노력 같은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허망	어이없고 허무함.	어이없이 끝나 버린 일에 쓴다.
공허	아무것도 없이 텅 빔. 실속이 없이 헛됨.	'공허한 말', '공허한 약속'처럼 내용이 비었을 때도 쓴다.

막막 · 암담 · 참담

낱말	사전 뜻	구별
막막	아득하고 막연함.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암담	희망이 없고 절망적임.	'앞날이 암담하다'처럼 주로 앞일에 쓴다.
참담	끔찍하고 절망적임. 몹시 슬프고 괴로움.	이미 벌어진 일의 모습이나 그것을 겪은 심정에 쓴다.

연습 문제

A. 낱말의 뜻 알기

다음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ㄱ. 몹시 탄식하다.
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ㄷ. 의심이 드는 느낌.
ㄹ.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하다.
ㅁ. 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하다.
ㅂ.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다.
ㅅ.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 자신감을 잃은 느낌이나 기분.
ㅇ.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1 낙담하다

2 체념하다

3 낭패

4 좌절감

5 회의감

6 통탄하다

7 허탈하다

8 암담하다

B. 뜻풀이에 맞는 낱말 쓰기

다음 사전 뜻풀이에 맞는 낱말을 쓰시오. 괄호 안은 첫 글자이다.

9 「동사」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 버리다. (단)

10 「명사」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무)

11 「명사」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 (상)

12 「동사」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다. (자)

13 「명사」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미)

14 「형용사」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비)

15 「명사」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 (의)

16 「명사」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청)

C. 사전 뜻풀이 완성하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사전 뜻풀이를 완성하시오.

17 한탄하다: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 )을 쉬며 탄식하다.

18 절망감: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 )을 끊어 버리게 된 느낌.

19 허망하다: ( ) 허무하다.

20 속수무책: ( )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

D. 예문에 알맞게 쓰기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에 맞게 바꾸어 쓰시오.

〈보기〉

낭패 · 미련 · 자책하다 · 무력감 · 막막하다 · 비관적 · 처량하다 · 의기소침

21 우산을 두고 나왔는데 비가 쏟아지니 ( )였다.

22 이미 끝난 일에 ( )을 두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23 자기 실수로 팀이 졌다며 ( ) 친구를 다독여 주었다.

24 불어나는 강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 )이 들었다.

25 지도도 전화도 없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니 ( ).

26 그는 늘 일이 잘 안될 거라고 여기는 ( )인 사람이다.

27 겨울비 속에 정류장에 홀로 남은 노인이 ( ) 보였다.

28 꾸중을 들은 동생이 ( ) 방으로 들어갔다.

E. 한자어와 고유어 바꾸어 쓰기

밑줄 친 한자어를 뜻이 같은 고유어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

29 실수를 깨달은 그는 밤새 자책했다.

30 경기가 끝나자 선수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31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32 홀로 남은 노인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F. 고유어 표현을 한 낱말로 바꾸어 쓰기

밑줄 친 부분을 이 장에서 배운 한 낱말로 바꾸어 쓰시오.

33 불이 번지는데 물이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34 그는 대학에 가려던 생각을 아주 끊어 버렸다.

G. 구별해서 쓰기

'실망'과 '절망'의 차이를 '희망'이라는 말을 넣어 한 문장으로 쓰시오.

35

확인 문제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수는 석 달 동안 준비한 과학 탐구 대회 예선에서 떨어졌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밤마다 실험을 되풀이한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보고서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일이 떠올라 자책했지만 이미 후회막급이었다. 그래도 민수는 미련 없이 다음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01 이 글의 ㉠ '허탈한'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몹시 슬프고 괴로운
② 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한
③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한
④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한
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02 이 글에 쓰인 ㉡ '허망하게'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뿌듯하게
② 떳떳하게
③ 넉넉하게
④ 허무하게
⑤ 막막하게

03 이 글에서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뜻하는 말로 알맞은 것은?

① 후회막급
② 허탈
③ 허망
④ 미련
⑤ 자책

04 다음 뜻을 가진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형용사」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① 처량하다
② 울적하다
③ 암담하다
④ 공허하다
⑤ 허탈하다

05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구조 헬기가 끝내 오지 않자, 섬에 갇힌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깊은 (　　)에 빠졌다.

① 낭패
② 회의감
③ 미련
④ 패배감
⑤ 절망감

06 ㉠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지킬 생각도 없이 늘어놓은 ㉠공허한 약속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① 모두 떠난 운동장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② 친구가 전학 간 뒤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다.
③ 그는 알맹이 없는 공허한 이론만 늘어놓았다.
④ 끝없이 펼쳐진 공허한 들판을 걸었다.
⑤ 불이 꺼진 공허한 집에 혼자 들어섰다.

07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처량했다.

① 낡은 옷을 입고 길가에 앉은 그의 신세가 처량했다.
② 가을밤 풀벌레 소리가 처량하게 들렸다.
③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가 처량했다.
④ 빈 들판에 부는 바람 소리가 처량했다.
⑤ 달 밝은 밤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처량했다.

08 밑줄 친 ㉠을 고유어로 바꾸어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할머니는 무너진 담장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다.

① 손뼉을 치셨다
② 고개를 끄덕이셨다
③ 입을 꼭 다무셨다
④ 한숨을 쉬셨다
⑤ 눈살을 찌푸리셨다

09 다음 문장의 ㉠과 뜻이 반대되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① 부정적
② 소극적
③ 절망적
④ 감상적
⑤ 낙관적

10 밑줄 친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발표를 망친 뒤 그는 한동안 의기소침해 있었다.
②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그는 어떤 질문에도 속수무책으로 대답했다.
③ 미리 연습하지 않은 것이 경기가 끝나고 나니 후회막급이었다.
④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⑤ 계속 지기만 하자 선수들은 의기소침하여 말이 없었다.

1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주일 동안 만든 작품이 망가지자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②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그는 회의감을 느꼈다.
③ 우리 팀이 우승했다는 소식에 모두 낙담하여 환호성을 질렀다.
④ 친구를 잃은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⑤ 갑작스러운 정전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읽기 텃밭 1 1장

안녕, 학교

통합 · 학교



학교에는 교실 말고도 여러 곳이 있어요. 이 장에서는 학교에 있는 곳과 그곳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와 노래, 설명하는 글로 읽어요.

이 장에서 읽을 글

- 이야기 「계단 밑 도깨비」
- 노래 「우리 학교 한 바퀴」
- 설명하는 글 「학교에 있는 곳과 하는 일」

이야기 1 계단 밑 도깨비

읽기 전에 학교 계단 밑에 오래 산 도깨비가 있다면, 그 도깨비는 학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1. 길을 잃은 아침

입학식 다음 날 아침, 서우는 혼자서 학교 현관에 들어섰어요. 어제는 엄마 손을 잡고 왔지만 오늘은 혼자였어요.

서우는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복도는 길게 뻗어 있고, 문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제 들어간 교실이 어느 쪽이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 계단 밑 어둑한 구석에서 무언가 꿈틀했어요.

"새로 온 아이로구나. 길을 잃었지?"

머리에 뿔이 하나 돋은 조그만 도깨비가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나는 이 학교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여기 살았어. 학교 안이라면 모르는 데가 없지."

"그럼 1학년 2반 교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 줘."

도깨비는 히죽 웃었어요.

"그냥 알려 주면 재미가 없지. 내가 수수께끼를 세 개 낼 테니 그 방을 찾아가 보렴. 셋을 다 찾으면 네 교실을 알려 주마."



2. 세 가지 수수께끼

"첫째 수수께끼다. 하얀 침대가 있고 약 냄새가 나는 방.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찾아가는 방은?"

서우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문 위에 붙은 이름표를 하나씩 읽었어요.

"교, 무, 실. 아니야. 보, 건, 실. 여기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하얀 침대가 놓여 있고, 보건 선생님이 다친 아이의 무릎에 약을 발라 주고 계셨어요.

"제법이구나. 둘째 수수께끼다. 말소리는 작게, 책장 넘기는 소리만 사락사락. 이야기 수천 개가 줄지어 잠든 방은?"

서우는 이름표를 읽으며 계단을 올라 한 층 위로 갔어요. '도서관'이라고 쓰인 문을 살짝 열자 책꽂이마다 책이 빽빽했어요. 언니와 오빠들이 소리 없이 책을 읽고 있었고, 한 아이는 책을 빌려 가방에 넣었어요.

"셋째 수수께끼다. 점심때가 되면 고소한 냄새가 솔솔. 모두 줄을 서서 식판을 받는 방은?"

서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따라 내려갔어요. 맨 끝 넓은 방에서 조리사님들이 커다란 솥에 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문 위에는 '급식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3. 문 위의 이름

서우는 급식실 앞에서 다시 계단 밑으로 걸어갔어요.

"보건실, 도서관, 급식실. 셋 다 찾았어. 이제 내 교실을 알려 줘."

도깨비가 막 입을 열려는데, 서우가 먼저 손뼉을 쳤어요.

"아, 잠깐만. 내가 찾아볼래."

서우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 문 위의 이름표를 하나씩 읽었어요. '1학년 1반', 그다음은 '1학년 2반'. 그 문을 열자 어제 본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서 계셨어요.

"서우야, 혼자 잘 찾아왔구나."

그 시각 계단 밑에서는 도깨비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어요.

"허허, 길을 알려 주기도 전에 혼자 찾아가 버렸네."

낱말 풀이

현관 건물에 드나드는 문이 있는 곳.

실내화 건물 안에서만 신는 신.

수수께끼 어떤 것을 바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 말한 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놀이.
사락사락 종이 같은 것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
식판 밥과 반찬을 함께 담을 수 있게 칸이 나뉜 그릇.
조리사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담임 선생님 한 반을 맡아 가르치는 선생님.

이야기 1 계단 밑 도깨비

문제

1 도깨비가 처음 나타난 곳을 고르세요.

① 신발장 옆
② 교실 앞
③ 계단 밑
④ 복도 끝
⑤ 현관 밖

2 '눈앞이 캄캄해졌어요'에서 알 수 있는 서우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신났어요
② 졸렸어요
③ 자랑스러웠어요
④ 심심했어요
⑤ 걱정되었어요

3 도깨비가 서우에게 한 약속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교실까지 손을 잡고 데려다주겠다고 했어요.
② 방 세 곳을 찾으면 교실을 알려 주겠다고 했어요.
③ 엄마가 계신 곳을 찾아 주겠다고 했어요.
④ 수수께끼를 풀면 새 실내화를 주겠다고 했어요.
⑤ 학교에서 가장 넓은 방을 보여 주겠다고 했어요.

4 첫째 수수께끼의 답이 된 방을 고르세요.

① 교무실
② 보건실
③ 도서관
④ 급식실
⑤ 교실

5 '사락사락'은 무엇을 흉내 낸 말인가요?

① 국이 끓는 소리
② 문을 여는 소리
③ 발을 구르는 소리
④ 책장을 넘기는 소리
⑤ 코로 냄새를 맡는 소리

6 도깨비가 마지막에 머리를 긁적인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서우가 수수께끼를 하나도 풀지 못해서요.
② 계단 밑이 너무 어두워 앞이 안 보여서요.
③ 서우가 도깨비의 뿔을 보고 놀려서요.
④ 담임 선생님께 숨어 있다가 들켜서요.
⑤ 서우가 길을 듣지 않고 혼자 교실을 찾아서요.

7 **써 보기** 서우처럼 학교에서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할지 한 문장으로 쓰세요.

노래 2 우리 학교 한 바퀴

읽기 전에 학교에서 가 본 곳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교문 지나 ∨ 현관 지나
신발 벗고 ∨ 실내화로
복도 따라 ∨ 사뿐사뿐
우리 교실 ∨ 찾아가요

딩동댕동 ∨ 종이 울려
얼른얼른 ∨ 가 봐야지

넘어져서 ∨ 무릎 콩콩
보건실로 ∨ 찾아가면
선생님이 ∨ 살펴보고
반창고를 ∨ 붙여 줘요

딩동댕동 ∨ 종이 울려
얼른얼른 ∨ 가 봐야지

소곤소곤 ∨ 도서관엔
책꽂이에 ∨ 책이 가득
읽고 싶은 ∨ 책을 골라
빌려 가서 ∨ 읽어 봐요

딩동댕동 ∨ 종이 울려
얼른얼른 ∨ 가 봐야지

점심시간 ∨ 급식실엔
냄새 솔솔 ∨ 국이 보글
식판 들고 ∨ 줄을 서서
골고루 다 ∨ 먹고 와요

딩동댕동 ∨ 종이 울려
얼른얼른 ∨ 가 봐야지

쉬는 시간 ∨ 운동장엔
줄넘기에 ∨ 술래잡기
신나게 뛴 ∨ 그다음엔
손을 씻고 ∨ 들어가요

낱말 풀이

반창고 다친 곳에 붙이는, 약을 바른 헝겊이나 종이.

술래잡기 술래가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거나 쫓아가 잡는 놀이.

노래 2 우리 학교 한 바퀴

문제

1 이 노래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는 말을 고르세요.

① 교문 지나 현관 지나
② 소곤소곤 도서관엔
③ 딩동댕동 종이 울려
④ 신발 벗고 실내화로
⑤ 손을 씻고 들어가요

2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곳을 노래에서 찾아 고르세요.

① 급식실
② 도서관
③ 보건실
④ 운동장
⑤ 교실

3 '냄새 솔솔 국이 보글'에서 '보글'은 무엇을 흉내 낸 말인가요?

① 국을 먹는 소리
② 국이 끓는 소리
③ 식판을 놓는 소리
④ 손을 씻는 소리
⑤ 줄을 서는 모양

4 노랫말 한 줄을 박자에 맞게 끊어 읽은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교문 / 지나 현관 지나
② 교문 지나 / 현관 지나
③ 교문 지나 현 / 관 지나
④ 교 / 문 지나 현관 지나
⑤ 교문 지나 현관 / 지나

5 **써 보기** 학교에 있는 곳 가운데 노래에 나오지 않은 곳을 하나 골라, 그곳에서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설명하는 글 3 학교에 있는 곳과 하는 일

읽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학교에는 여러 곳이 있고, 곳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교실은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보건실에는 보건 선생님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건실에 가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씀드리면, 보건 선생님이 살펴보고 치료해 주십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거나 빌리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읽는 곳이라서 도서관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급식실은 점심을 먹는 곳입니다. 급식실에 가기 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손에 묻은 세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운동장은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몸을 움직이며 노는 곳입니다.

낱말 풀이

치료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을 낫게 하는 것.

세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생물.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설명하는 글 3 학교에 있는 곳과 하는 일

문제

1 보건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점심을 먹는 곳이에요.
② 책을 읽거나 빌리는 곳이에요.
③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④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는 곳이에요.
⑤ 몸을 움직이며 노는 곳이에요.

2 도서관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도서관이 아주 넓은 곳이라서요.
② 책을 빌리려면 줄을 서야 해서요.
③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읽는 곳이라서요.
④ 도서관에서는 점심을 먹어서요.
⑤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셔서요.

3 급식실에 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손에 묻은 세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O / X)

4 '치료'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책을 빌려서 읽는 것
②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을 낫게 하는 것
③ 손을 비누로 씻는 것
④ 점심을 골고루 먹는 것
⑤ 수업을 준비하는 것

5 **써 보기** 학교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곳을 고르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쓰세요.

낱말 놀이 · 어디일까요?

수수께끼를 읽고 알맞은 곳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보기〉 운동장 교무실 도서관 보건실 급식실

1 공이 데굴데굴, 친구들이 우르르. 체육 시간에 모두 모이는 곳은? ( )

2 선생님들의 책상이 나란히 놓여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시는 곳은? ( )

3 책이 키보다 높이 꽂혀 있고, 빌린 책은 날짜 안에 돌려주어야 하는 곳은? ( )

4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플 때 잠깐 누워 쉴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곳은? ( )

알게 된 것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이 장에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하세요.

- 학교에는 여러 곳이 있고, 곳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 )에 가요.
- 책을 읽거나 빌리려면 ( )에 가요.
- 급식실에 가기 전에는 비누로 ( )을 씻어요.
- 문 위에 붙은 ( )를 읽으면 가려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읽기 추론

[4국05-01] 인물과 이야기의 흐름

7 인물의 말로 마음 알아내기

이야기에서 인물의 마음은 '기뻤다', '서운했다'처럼 바로 쓰여 있지 않을 때가 많다. 이때는 인물이 한 말에서 단서를 찾는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도 단서가 된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지, 말끝을 흐리는지, 묻는 말에 짧게만 대답하는지, 한 말을 고쳐 말하는지 살핀다.

단서를 찾았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마음일까?' 하고 내가 아는 것을 떠올린다. 단서와 아는 것을 이어 결론을 낸다.

예시

현우는 축구 시합에서 지고 집에 왔다. 엄마가 "오늘 어땠어?" 하고 묻자 현우가 말했다. "몰라. 그냥 그랬어. 저녁은 안 먹을래."

단서	배경지식	결론
시합에서 진 날, 묻는 말에 "몰라. 그냥 그랬어."라고 짧게 대답하고 저녁도 안 먹겠다고 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말하고 싶지 않고 입맛도 없어진다.	현우는 시합에 져서 속상하다.

추론 순서

1. 인물이 한 말을 찾는다.
2. 말하는 방식을 살핀다. 되풀이하는 말, 흐리는 말끝, 짧은 대답, 고쳐 말한 말을 찾는다.
3.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아는 것을 떠올린다.
4. 결론을 앞뒤 상황과 맞추어 본다. 상황과 어긋나면 다시 생각한다.

자주 하는 실수

인물이 한 말을 겉뜻 그대로 믿는 실수가 잦다. "괜찮아."라고 말해도 앞뒤 상황이 괜찮지 않으면 마음은 다를 수 있다. 말과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 하기 글을 읽고 단서를 찾아 추론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아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본 짝꿍 태민이가 말했다.
"우아, 이거 진짜 네가 그렸어? 나도 좀 가르쳐 줘!"

단서	배경지식	결론
"진짜 네가 그렸어?" 하고 묻고, 가르쳐 달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솜씨에 놀라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솜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이다.	

2

방학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날, 할머니가 손주의 가방을 들어 주며 말했다.
"다음 달에도 오지? 꼭 오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감자전 해 놓을게."

단서	배경지식	결론
	같은 것을 거듭 물으며 다짐을 받는 것은 그 일을 몹시 바랄 때이다.	할머니는 손주가 떠나는 것이 아쉽고 다시 오기를 바란다.

3

반장 선거 결과가 칠판에 적혔다. 서준이는 결과를 한참 보다가 짝에게 말했다.
"난 원래 반장 같은 거 하기 싫었어. 귀찮기만 하지."

단서	배경지식	결론
선거 결과를 한참 본 뒤 원래 하기 싫었다고 말했다.		서준이는 반장이 되지 못해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있다.

4

동생이 형의 로봇을 떨어뜨려 팔이 부러졌다. 동생이 울먹이며 "미안해." 하자 형이 말했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원래 잘 빠지는 팔이었어."
형은 부러진 팔을 손에 쥔 채 한참 내려놓지 못했다.

단서	배경지식	결론
"괜찮아....." 하고 말끝을 흐리며 '괜찮다'를 되풀이했다. 부러진 팔을 한참 내려놓지 못했다.		

연습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 1 이야기

대회를 하루 앞둔 저녁, 하윤이는 수영장 옆 의자에 앉아 코치 선생님을 기다렸다. 선생님이 오자 하윤이는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내일 물은 오늘보다 차갑지 않을까요? 출발 신호는 호루라기예요, 버저예요? 혹시 제가 출발할 때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선생님은 웃으며 하윤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그래도요, 만약에 앞사람보다 늦게 들어가면요? 다시 해도 돼요?"

1 하윤이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습이 지루해서 집에 가고 싶다.
② 코치 선생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
③ 대회를 앞두고 걱정되고 긴장된다.
④ 내일 대회에서 꼭 이긴다고 자신한다.
⑤ 수영장 물이 차가워서 몸이 떨린다.

2 하윤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혹시', '만약에' 하며 물음을 거듭했다.
② 대회를 하루 앞둔 저녁에 코치 선생님을 만났다.
③ 수영장 옆 의자에 앉아 코치 선생님을 기다렸다.
④ 선생님이 웃으며 하윤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⑤ 선생님이 오늘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다.

글 2 대화

민재: 생일 축하해! 이거 내가 고른 거야. 열어 봐.
수아: 와, 고마워. (포장을 뜯는다.) 아, 목도리구나.
민재: 어때? 빨간색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수아: 응, 색깔 예쁘다. 근데..... 나 털목도리를 하면 목이 좀 따갑더라. 그래도 고마워.

3 수아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민재가 생일을 잊어버려서 서운하다.
② 빨간색을 싫어해서 화가 난다.
③ 목도리가 마음에 쏙 들어 신이 난다.
④ 선물이 고맙지만 목도리가 썩 반갑지는 않다.
⑤ 민재에게 줄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한다.

4 수아가 "근데……." 하고 말을 바로 잇지 못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목도리 색깔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떠오르지 않아서
② 민재가 끼어들어 수아의 말을 가로막아서
③ 포장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직 알지 못해서
④ 하려는 말에 민재가 서운해할까 봐 망설여서
⑤ 털목도리 때문에 목이 따가워서 말하기 어려워서

글 3 일기

4월 12일 금요일
동생이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엄마는 동생 곁에 있고, 저녁은 아빠와 둘이 먹었다. 아빠는 밥을 먹다가 "괜찮아, 별일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하고 세 번이나 말했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든 채로 휴대 전화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자 아빠는 "어떻대? 열은 내렸대?" 하고 물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날 아빠가 끓인 된장찌개는 간이 하나도 안 맞았다.

5 이 일기에서 아빠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생이 아픈 것을 정말로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② 동생이 걱정되면서도 '나' 앞에서 괜찮은 척한다.
③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 낸 것이 뿌듯하고 기쁘다.
④ 식사 중에 엄마에게서 걸려 온 전화가 귀찮다.
⑤ 밥을 천천히 먹는 '나'에게 화가 나 있다.

6 아빠가 동생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빠의 말을 일기에서 찾아 쓰시오.

답:

글 4 옛이야기

옛날 어느 고을에 곳간마다 쌀이 가득한 부자가 살았다. 해가 저물 무렵, 길을 잃은 나그네가 부자의 대문을 두드렸다.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나그네의 해진 옷을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재워 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요. 다만 요즘 우리 집 방이 다 차서……. 저 고개 너머 주막이 그리 멀지 않소이다. 걸음이 빠르면 한밤중이 되기 전에는 닿을 거요."

7 부자가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부자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방이 모자라 나그네에게 몹시 미안해한다.
② 나그네가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해 준다.
③ 나그네가 반가워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④ 나그네가 누구인지 몰라 궁금해한다.
⑤ 나그네를 재워 주기 싫어서 둘러대고 있다.

8 부자가 한 말 가운데, 주막이 '그리 멀지 않다'는 말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

답: _____

실전 인물의 말을 단서로 마음을 짐작하며 읽기

전학 온 날

새 학기가 시작되고 두 주가 지난 월요일,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내 옆자리에 앉혔다. 이름은 윤나래였다.

첫째 시간이 끝나자 나래가 나에게 물었다.

"여기는 쉬는 시간이 십 분이야? 우리 전 학교는 쉬는 시간이 길었는데."

점심시간에는 급식 판을 받아 들고 또 말했다.

"우리 전 학교는 급식에 국이 두 가지 나왔어. 고를 수 있었거든."

나래는 숟가락으로 국을 휘휘 젓기만 하다가 반 넘게 남겼다.

다섯째 시간은 체육이었다. 선생님이 피구를 하자고 하자 아이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나래에게 같은 편을 하자고 했다.

"나 피구 못해. 그냥 저기서 볼게."

나래는 운동장 가장자리 그늘에 쪼그려 앉았다. 그런데 공이 오갈 때마다 나래의 고개도 이쪽저쪽으로 바삐 움직였다. 우리 편이 공을 놓치면 "아, 낮게 던져야지!"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경기가 끝나 갈 무렵, 공이 굴러가 나래의 발 앞에 멈췄다. 나래는 공을 집어 들더니 힘껏 던졌다. 공은 낮고 빠르게 날아가 상대편 지후의 발목에 맞았다. 지후가 선 밖으로 나가자 아이들이 일제히 나래를 돌아보았다. 나래는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바지에 문질렀다.

"저, 전 학교에서 조금 해 봤어."

수업이 끝나고 신발장 앞에서, 나래가 신발 끈을 묶다 말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도현아, 너희 반은..... 아니, 우리 반은 내일도 피구 해?"

9 나래가 '우리 전 학교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되풀이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나래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 학교가 아직 낯설고 전 학교가 그립다.
② 전 학교를 자랑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③ 새 학교의 급식이 입에 맞아 기쁘다.
④ 쉬는 시간이 짧아서 몹시 화가 났다.
⑤ 도현이와 금세 친해져서 신이 난다.

10 나래가 "나 피구 못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대로 솔직하게 한 말이다.
② 체육 시간이 싫어서 피구를 못한다고 그럴듯하게 핑계를 댄 말이다.
③ 할 줄 알지만 낯선 아이들 사이에 끼기가 망설여져서 한 말이다.
④ 짝인 도현이와 같은 편이 되기 싫어서 둘러댄 말이다.
⑤ 다리를 다쳐서 오늘은 뛸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11 나래가 마지막에 "너희 반은..... 아니, 우리 반은"이라고 고쳐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현이네 반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졌다.
② 전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다.
③ 새 반을 자기 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④ 반 이름을 헷갈려서 몹시 부끄러워한다.
⑤ 내일은 피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12 이 글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글의 단서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래는 전 학교에서 피구를 꽤 잘하는 편이었다.
② 나래는 급식으로 나온 국을 반 넘게 남겼다.
③ 나래는 짝인 도현이를 싫어한다.
④ 지후는 공을 맞혀서 나래에게 화가 났다.
⑤ 나래는 다음 주에 다시 전학을 간다.

13 나래의 마음이 처음과 끝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쓰시오. 나래가 한 말을 처음과 끝에서 하나씩 단서로 들어 쓰시오.

Part A 구조 유형 30지문

Part A · 01 빈 주어 문장의 진리값에 대한 세 견해

[1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자. 오늘날 프랑스는 공화국이어서 이 문장의 주어가 가리킬 왕이 없다. 이 문장을 거짓이라고 하면 그 부정인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는 참이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 부정문 역시 존재하지 않는 왕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으므로 참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이 이런 문장 앞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왕도 어떤 의미에서는 '있다'고 보면 문제가 풀리는 듯하지만, 그렇게 하면 '둥근 사각형'처럼 모순된 대상까지 있다고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주어 자리에 오는 표현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프레게는 표현의 '지시체'와 '뜻'을 구별하였다. 지시체는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고, 뜻은 그 대상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모두 금성을 가리키므로 지시체가 같지만, 금성이 새벽과 저녁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므로 뜻은 다르다. 그래서 '샛별은 샛별이다.'와 달리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천문학적 발견을 담은 문장이 될 수 있다. 프레게는 이 구별을 문장에도 적용하여, 문장의 뜻은 그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이고 문장의 지시체는 참이나 거짓이라는 진리치라고 보았다. 우리가 문장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장이 참인지를 묻는 것은 문장의 지시체를 찾아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장 전체의 지시체는 그 문장을 이루는 부분 표현들의 지시체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부분 표현 가운데 하나라도 지시체가 없으면 문장 전체도 지시체, 곧 진리치를 갖지 못한다. '오디세우스는 깊이 잠든 채 이타카에 내려졌다.'라는 문장은 분명히 하나의 사고를 표현하지만, '오디세우스'에 지시체가 없다면 참도 거짓도 아니다. 같은 이유로 프레게의 생각을 따르면 앞의 왕에 관한 두 문장도 모두 진리치를 갖지 않는다.

러셀은 이 문제를 다르게 풀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프랑스 왕'과 같은 한정 기술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문장 속에 놓일 때에만 그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는 문장의 문법적 형식 아래에 숨은 논리적 형식을 드러내려 하였다.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는 '현재 프랑스의 왕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현재 프랑스의 왕인 것은 많아야 하나이다.', '현재 프랑스의 왕인 것은 무엇이든 대머리이다.'라는 세 주장이 결합된 문장이다. 첫째 주장이 거짓이므로 문장 전체는 거짓이다. 만약 현재 프랑스의 왕인 것이 둘 이상이라면 이번에는 둘째 주장이 거짓이 되어 역시 문장 전체가 거짓이 된다. 이렇게 분석하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도 이런 문장에 진리치를 줄 수 있다. 부정문은 부정이 어디까지 걸리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읽힌다. 부정이 서술 부분에만 걸리면 '현재 프랑스의 왕인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은 대머리가 아니다.'가 되어 첫째 주장 때문에 거짓이다. 부정이 문장 전체에 걸리면 '현재 프랑스의 왕인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이 대머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가 되어 참이다. 러셀은 뒤의 읽기를 택하면 원래 문장과 그 부정 가운데 하나가 참이므로 배중률이 지켜진다고 보았다. 같은 분석으로 러셀은 '스콧은 『웨이벌리』의 저자이다.'가 '스콧은 스콧이다.'와 달리 새로운 정보를 담는 까닭도 설명하였다. '『웨이벌리』의 저자'는 스콧이라는 대상의 이름이 아니므로, 이 문장은 '『웨이벌리』를 쓴 사람이 하나 있고 그가 스콧이다.'라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소크라테스' 같은 일상의 고유 명사도 기술구를 줄여 부른 것으로 보았다.

스트로슨은 러셀이 문장과 문장의 사용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의미를 갖는 것은 문장이며, 문장의 의미란 그 문장을 쓸 때 따르는 일반적인 규칙이다. 반면 참이나 거짓을 갖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특정한 때에 문장을 써서 한 진술이다. 대상을 가리키는 일 역시 표현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표현을 써서 하는 것이다. '그 탁자는 책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탁자가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듯, 어떤 대상이 가리켜지는지는 그 말이 쓰이는 상황이 정해 준다.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때에 누군가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진술은 루이 14세의 머리 모양에 따라 참이나 거짓이 되었을 것이다. 같은 문장을 오늘 쓰면 사정이 다르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이 문장으로 진술하는 사람은 현재 프랑스에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전제'라고 부른다. 전제가 거짓이면 그 진술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는 물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그 부정문으로 한 진술도 같은 전제를 지니므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러셀이 첫째 주장으로 내세운 것은 스트로슨에게는 진술의 내용이 아니라 진술이 참이나 거짓일 수 있기 위한 조건이다. 또한 스트로슨은 이 문장이 오늘 쓰여 진리치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무의미한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문장의 의미는 쓰임의 규칙이지 그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프레게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지시체가 같은 두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담을 수 있다.

② 러셀에 따르면 한정 기술구가 의미에 기여하는 바는 그것이 문장 밖에서 홀로 쓰일 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프레게에 따르면 문장을 이루는 부분 표현들의 지시체는 그 문장 전체의 진리치에 따라 정해진다.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같은 문장이라도 그것이 쓰인 때에 따라 그 문장으로 한 진술의 진리치가 달라질 수 있다.

⑤ 러셀은 '『웨이벌리』의 저자'라는 표현을 스콧이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보지 않았다.

2. 프레게와 스트로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프레게와 스트로슨은 모두 빈 주어 문장이 진리치를 갖지 못하는 까닭을 그 문장의 부분 표현에 지시체가 없다는 데서 찾았다.

② 스트로슨은 프레게와 달리 빈 주어 문장의 부정문으로 한 진술은 진리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③ 프레게는 스트로슨과 달리 참이나 거짓을 갖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써서 한 진술이라고 보았다.

④ 스트로슨은 프레게와 달리 문장의 의미가 그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⑤ 프레게는 문장의 뜻을, 스트로슨은 문장의 의미를 진리치와 따로 두었으므로 둘 다 빈 주어 문장을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러셀에 따르면,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가 거짓이라는 판정은 부정이 어디까지 걸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② 러셀에 따르면, 부정이 문장 전체에 걸리도록 읽은 부정문은 그 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이 된다.

③ 프레게의 생각을 따르면, 원래 문장은 진리치를 갖지 못하더라도 그 부정문은 진리치를 가지므로 배중률이 지켜진다.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오늘 이 문장으로 한 진술은 전제가 거짓이므로 거짓이 되고, 그 부정문으로 한 진술은 참이 된다.

⑤ 러셀과 스트로슨은 모두 '현재 프랑스의 왕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를 그 문장으로 말한 내용의 일부로 보았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다음 문장들이 모두 오늘 쓰였다고 하자. (단, 이 학급의 담임 교사는 한 명이고, 그 교사는 안경을 쓰고 있다.)

(가)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

(나) 현재 이 학급의 담임 교사는 안경을 쓰고 있다.

(다) 페가수스는 날개가 있다.

(라)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① 프레게의 생각을 따르면, (나)는 진리치를 갖지만 (다)는 사고를 표현하더라도 진리치를 갖지 않는다.

② 러셀에 따르면, (다)의 '페가수스'를 기술구를 줄여 부른 것으로 보고 분석할 때 (다)는 거짓이다.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가)와 (나)는 같은 짜임의 문장이지만 오늘 쓰인 이 두 문장 가운데 (나)로 한 진술만 진리치를 갖는다.

④ 러셀에 따르면, (라)를 (가)와 함께 거짓이 되도록 읽는 방식에서는 부정이 문장 전체에 걸린다.

⑤ 스트로슨에 따르면, (가)가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때에 쓰였다면 그 진술의 진리치는 그때 왕의 머리 모양으로 정해진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 내가 어제 "올해 우리 학교 3학년 학생회장은 축제 준비 위원이다."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올해는 3학년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회장이 없었어. 결국 나는 없는 사람에 대해 말했으니, 내 말은 거짓이야.

을: 그렇지 않아. 학생회장이 있다는 것은 네 말이 참이나 거짓이 되기 위해 먼저 갖춰져야 할 조건일 뿐, 네가 한 말의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 네 말은 거짓이 아니라 참도 거짓도 아닌 거야.

① 러셀에 의하면, 학생회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갑의 말이 거짓이 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② 스트로슨에 의하면, 학생회장이 있다는 것을 갑이 한 말의 내용으로 본 을의 입장은 옳겠군.

③ 프레게의 생각을 따르면, 갑의 말에서 '3학년 학생회장'이 가리키는 대상이 없으므로 갑의 입장은 옳겠군.

④ 스트로슨에 의하면, 갑이 학생회장이 있던 작년에 같은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⑤ 러셀에 의하면, 학생회장이 있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갑의 말을 이루는 주장의 하나이므로 갑과 을의 입장은 모두 옳지 않겠군.

Part B 실전 5회

실전 1회 · 1 니체의 비극론에 나타난 두 충동

[139 ~ 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니체는 첫 저서 『비극의 탄생』(1872)에서 그리스 예술을 두 가지 충동으로 설명하고, 그 이름을 그리스의 두 신에게서 따왔다. 아폴론은 빛과 조형의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술과 축제의 신이다. 니체는 꿈과 도취라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상태를 실마리로 삼아, 이 두 충동이 예술가 이전에 자연 자체에서 솟아난다고 보았다. 아폴론적인 것은 꿈의 충동이다. 꿈속에서 우리는 또렷한 형상을 보며, 그것이 형상일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즐긴다. 이 충동은 개체와 개체를 나누어 경계 짓는 '개별화의 원리'에 충실하며, 조각과 회화, 서사시처럼 형태를 빚는 예술을 낳는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도취의 충동이다. 축제의 도취 속에서 개인은 자신과 남, 인간과 자연을 나누던 경계를 잊고 근원적인 하나와 합쳐진다. 개별화의 원리가 무너질 때 인간은 두려움과 황홀을 함께 느낀다. 이 충동이 낳는 예술은 형상을 빚지 않는 음악이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따라, 음악은 현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근원적 의지를 직접 드러낸다고 보았다.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인은 삶의 끔찍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기에, 그것을 견디려고 예술을 만들었다. 두 충동은 서로 대립하지만, 그리스 비극에서 하나로 맺어졌다. 비극의 합창단은 음악과 노래로 관객을 도취로 이끌고, 무대 위 배우의 대사와 행위는 그 도취가 꿈처럼 그려 낸 형상이 된다. 비극에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내용을, 아폴론적인 것은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을 맡는 셈이다. 관객이 비극에서 얻는 것은, 개인은 고통 속에 몰락하지만 그 밑을 흐르는 삶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다. 니체는 이를 두고 '오직 미적 현상으로서만 삶과 세계는 영원히 정당화된다.'라고 했다. 삶의 고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가의 눈으로 보면 그 고통은 거대한 음악 속의 불협화음처럼 전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비극이 에우리피데스에 이르러 죽었다고 보았다. 에우리피데스는 합창단의 비중을 줄이고, 극의 첫머리에서 등장인물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설명하게 하며,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무대에 올렸다. 신화 속 영웅 대신 평범한 시민이 무대에 올라 자기 처지를 따지고 변론했다. 니체는 그 뒤에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보았다. '아름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 곧 이성으로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는 낙관이 비극에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몰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가 보기에 ㉠이는 아폴론적인 것이 이긴 것도 아니었다. 도취와 짝을 이루지 못한 형상은 꿈의 깊이를 잃고 개념과 논리의 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886년 새 판에 덧붙인 「자기비판의 시도」에서 니체는, 이 책이 자신의 생각을 쇼펜하우어와 칸트의 말로 나타내려다 그 생각을 흐렸다고 스스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인이 가장 강성하던 시기에 왜 비극을 필요로 했는가 하는, 이 책이 던진 물음만큼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겼다. 쇼펜하우어는 비극의 가치가 관객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지를 체념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지만, 니체의 생각은 처음부터 그와 달랐다는 것이다. 뒤에 쓴 『우상의 황혼』에서 니체는 비극을, 삶이 가장 고귀한 것을 희생하면서도 자신의 다함 없음에 기뻐하는 긍정의 예술이라 불렀다. 초기의 니체가 고통스러운 삶을 예술이 정당화해 준다고 했다면, 후기의 니체는 삶을 무엇으로 정당화하려는 물음에서 벗어나 삶 자체를 긍정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13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꿈속의 형상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이 형상일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안다.
② 개별화의 원리가 무너질 때 인간은 두려움과 황홀을 함께 느낀다.
③ 에우리피데스는 극의 첫머리에서 등장인물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설명하게 했다.
④ 니체는 개별화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충동이 조각과 회화를 낳는다고 보았다.
⑤ 니체는 「자기비판의 시도」에서 첫 저서가 쇼펜하우어의 말에 기대었다고 비판했다.

140.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음악이 세계의 근원적 의지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개별화의 원리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② 비극에서 배우의 대사와 행위는 형상을 빚는다는 점에서 조각과 같은 충동에 속한다.
③ 비극의 합창단은 무대 위에 형상을 세워 관객을 도취에서 꿈으로 옮겨 가게 한다.
④ 아폴론적인 형상은 도취와 짝을 이루지 않아도 꿈의 깊이를 잃지 않을 수 있다.
⑤ 니체는 음악과 서사시가 형상을 빚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충동의 예술이라 보았다.

14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에우리피데스가 합창단을 없애자 무대 위의 형상까지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② 소크라테스의 낙관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되살려 두 충동이 다시 대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③ 무대에 남은 형상이 도취와 짝을 잃어 개념과 논리의 틀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④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형상만 남게 되면서 개별화의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⑤ 아폴론적인 것이 본래 개념과 논리에서 나와 꿈과 짝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1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기〉

한 극단이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를 두 가지 방식으로 올렸다.

㉮ 공연: 합창 노래를 모두 빼고, 막이 오르기 전에 해설자가 줄거리와 결말을 미리 알려 주었다. 배우들은 일상의 말투로 대사를 주고받았다. 관객들은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되었다.」라고 답했다.

㉯ 공연: 합창단이 북과 노래로 공연 내내 무대를 감쌌고, 배우들은 가면을 쓴 채 절제된 몸짓으로 움직였다. 안티고네가 끌려가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무섭고 슬펐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다.」라고 답했다.

① ㉯ 관객이 벅차오른 것을 두고 초기의 니체는, 관객이 삶에 대한 의지를 체념하게 된 결과라고 보겠군.
② ㉮에서 해설자가 결말을 미리 알려 준 것은, 니체가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특징으로 든 방식과 닮았겠군.
③ ㉯ 관객이 무섭고 슬프면서도 벅차오른 것은, 개별화의 원리가 무너질 때 느끼는 감정과 닮았겠군.
④ ㉯에서 가면을 쓴 배우의 절제된 몸짓은, 합창이 이끈 도취가 그려 낸 형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후기의 니체라면 ㉯ 관객의 벅참을, 고귀한 것을 희생하면서도 다함 없는 삶을 기뻐하는 긍정과 연결하겠군.

실전 1회 · 2 확률을 해석하는 네 가지 입장

[143 ~ 1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일 비가 올 확률은 30%이다.'라는 말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이때의 확률이 무엇의 크기인지를 묻기 시작하면 대답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확률 계산의 규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같아도, 그 규칙이 세계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크게 엇갈리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대답은 라플라스가 1814년에 정리한 고전적 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확률은 똑같이 가능한 경우들 가운데 그 사건에 유리한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사위를 던져 3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가능한 여섯 경우 가운데 하나이므로 6분의 1이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똑같이 가능하다'는 말이 결국 '확률이 같다'는 뜻이라면, 확률을 정의하는 데 확률이 다시 쓰이는 셈이 된다. 또 한쪽이 닳은 주사위처럼 경우들이 똑같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이 정의를 쓸 수 없다. 경우들이 똑같이 가능한지를 정하려고 흔히 기대는 원리가 '무차별 원리'이다. 어느 한쪽을 더 믿을 이유가 없으면 각 경우에 같은 확률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같은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다. 이를테면 크기가 제각각인 정육면체가 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느냐 부피를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의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빈도 해석은 확률을 세계 쪽에서 찾는다. 확률은 같은 조건에서 시행을 되풀이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상대 빈도라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유한 빈도 해석은 실제로 일어난 시행들 가운데 그 결과가 나온 비율을 확률로 본다. 이 해석은 확률을 관찰할 수 있는 수치로 바꾸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만 던진 동전의 앞면 확률은 그 결과에 따라 0이나 1이 되어 버린다. 동전이 아무리 고르게 만들어졌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폰 미제스는 시행을 끝없이 되풀이한다면 상대 빈도가 다가갈 극한값을 확률로 보았다. 이 가설적 극한 빈도는 실제로 끝없이 시행을 해서 얻는 값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얻게 될 값이다. 이 해석에서도 단 한 번뿐인 사건의 확률은 문제로 남는다. 폰 미제스는 한 개인의 사망 확률이라는 말은 아무 뜻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개인에게 확률을 주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마흔 살 남성 가운데 사망자의 비율과, 마흔 살 흡연 남성 가운데 사망자의 비율은 다르다. 한 사람은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속하므로, 어느 집단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빈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준거 집합 문제라 한다.

주관 해석은 확률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찾는다. 1920년대에 램지와 드 피네티는 확률을 어떤 명제를 믿는 정도로 보았다. 믿음의 정도는 내기로 잴 수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1만 원을 받고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표가 있을 때, 그 표를 p만 원에 사도 좋고 팔아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건을 p만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확률이 다를 수 있고, 단 한 번뿐인 사건에도 확률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 믿음이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확률 계산에는 이를테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1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믿음의 정도들이 확률 계산의 규칙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내기의 묶음을 그 사람에게 짤 수 있다. 이를 '더치 북'이라 한다. 거꾸로 믿음들이 규칙을 지키면 그런 묶음은 짤 수 없다. 이처럼 규칙을 지키는 믿음을 정합적이라 한다. 새 증거를 얻은 뒤에는 그 증거를 조건으로 한 확률로 믿음을 고쳐 나가야 한다.

주관 해석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정합성이 너무 느슨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규칙만 지키면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것을 아주 높은 정도로 믿는 것도 정합적일 수 있다. 정합성은 믿음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질 뿐, 그 믿음이 세계와 맞는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 해석의 지지자들은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증거로 믿음을 고쳐 나가다 보면 생각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답한다. 한편 포퍼는 1950년대에 확률을 실험 장치 자체가 지닌 성향으로 보는 성향 해석을 내놓았다. 동전과 던지는 방식이 함께 이루는 장치에 앞면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 경향은 시행을 되풀이할 때 빈도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성향은 장치가 지닌 성질이므로 단 한 번의 시행에도 확률을 줄 수 있다. 포퍼는 특히 원자 하나가 붕괴하는 일처럼 양자 역학이 다루는 단일 사건의 확률을 설명하는 데 이 해석이 알맞다고 보았다.

14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라플라스는 똑같이 가능한 경우 가운데 유리한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률로 보았다.
② 유한 빈도 해석에 따르면 한 번만 던진 동전의 앞면 확률은 0이나 1이 된다.
③ 드 피네티는 표를 사고팔 때 공정하다고 여기는 값으로 믿음의 정도를 잴 수 있다고 보았다.
④ 포퍼는 동전과 던지는 방식이 함께 이루는 장치에 앞면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⑤ 폰 미제스는 가설적 극한 빈도를 쓰면 한 개인의 사망 확률도 뜻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144. 윗글의 확률 해석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전적 해석은 경우들이 똑같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도 유리한 경우를 세어 확률을 정할 수 있다.
② 가설적 극한 빈도 해석은 유한 빈도 해석의 한계를 넘으려고 실제 시행 횟수를 끝없이 늘리도록 요구했다.
③ 준거 집합 문제는 주관 해석에서 새 증거를 조건으로 믿음을 고쳐 나갈 때 생기는 문제이다.
④ 같은 동전의 앞면 확률에 대해 주관 해석은 빈도 해석과 달리 사람마다 다른 값을 허용한다.
⑤ 라플라스는 빈도 해석이 단 한 번뿐인 사건을 다루지 못하자 이를 풀려고 무차별 원리를 내놓았다.

14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공장은 한 변의 길이가 1 cm에서 3 cm 사이인 정육면체를 만든다. 만들어질 정육면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다. 따라서 부피는 1 cm^3에서 27 cm^3 사이이다. 무차별 원리를 적용하여, 다음에 나올 정육면체의 한 변이 2 cm 이하일 확률을 구하려 한다.
㉮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1 cm에서 3 cm 사이의 길이마다 같은 가능성을 준다.
㉯ 부피를 기준으로, 1 cm^3에서 27 cm^3 사이의 부피마다 같은 가능성을 준다.

① ㉮로는 2분의 1, ㉯로는 26분의 7이 나와, 같은 사건의 확률이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② 부피는 한 변의 길이보다 빠르게 커지므로, ㉯로 구한 확률이 ㉮로 구한 확률보다 크다.
③ ㉮와 ㉯의 값이 다른 것은 계산이 잘못된 탓이므로, 둘 가운데 하나만 무차별 원리를 바르게 쓴 것이다.
④ 공장이 실제로 만든 정육면체를 재어 비율을 구해도, 유한 빈도 해석에서 이 확률은 두 값으로 나뉜다.
⑤ 한 변이 2 cm 이하인 사건과 부피가 8 cm^3 이하인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두 값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

14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기〉

내일 비가 오면 1만 원을 받는 표 A와,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1만 원을 받는 표 B가 있다. 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1만 원을 곱한 값을 공정한 값으로 여겨, 그 값이면 표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갑	0.6	0.5
을	0.3	0.7
병	0.2	0.6

① 갑에게 A를 6천 원, B를 5천 원에 팔면, 날씨가 어떻든 갑은 1천 원을 잃는다.
② 을의 믿음은 정합적이므로, 주관 해석에 따르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실제로 0.3에 가깝다.
③ 병에게서 A를 2천 원, B를 6천 원에 사면, 날씨가 어떻든 병은 2천 원을 잃는다.
④ 을의 믿음은 규칙을 지키므로, 을을 상대로는 날씨와 상관없이 손해를 보게 하는 내기의 묶음을 짤 수 없다.
⑤ 갑과 병은 둘 다 규칙을 어기지만, 확실한 손해를 보게 하려면 두 사람과 표를 거래하는 방향은 반대여야 한다.

147.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한 빈도 해석에서 한 번 던진 동전의 앞면 확률이 0이나 1이 되는 것은 동전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② 주관 해석의 지지자들은 같은 증거로 믿음을 고쳐 나갈수록 출발점이 다른 두 사람의 생각이 멀어진다고 본다.
③ 포퍼의 해석에 따르면, 붕괴가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원자 하나에도 0과 1 사이의 확률을 줄 수 있다.
④ 확률을 믿음의 정도로 보면 준거 집합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에게나 하나로 정해진다.
⑤ 성향 해석은 빈도 해석과 달리 장치의 성질이 아니라 시행 결과의 비율에서 확률을 찾는다.

실전 1회 · 3 종 차별주의 논쟁과 도덕적 고려의 범위

[148 ~ 1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70년대에 영국의 리처드 라이더는 '종 차별주의'라는 말을 만들었다. 피부색을 이유로 어떤 사람의 이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인종 차별이듯, 어떤 존재가 인간이 아닌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차별이라는 것이다. 싱어는 『동물 해방』(1975)에서 이 생각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다듬었다. 누구의 이익이든 크기가 같은 이익이라면 같은 무게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고려받을 이익을 지니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싱어는 벤담의 물음, 곧 '문제는 그들이 이성을 쓸 수 있느냐,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이다.'를 받아들였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익을 가질 수 있다. 길가의 돌은 발에 차여도 손상될 이익이 없지만, 생쥐는 발에 차이면 아픔을 겪는다.

평등한 고려가 같은 대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돼지는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돼지의 투표권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같은 세기로 손바닥을 때려도 피부가 두꺼운 말과 갓난아기가 겪는 고통의 크기는 다르다. 고려되는 것은 같은 크기의 이익이지 같은 행위가 아니므로, 이 원칙은 오히려 서로 다른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싱어는 고통을 주는 일과 죽이는 일도 구별했다. 자신을 과거와 미래에 걸쳐 있는 존재로 의식하는 존재는 앞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므로, 죽임은 그 바람을 꺾는다. 그러나 자기의식이 없는 존재에게는 계속 살아가는 데 대한 이익이 없다. 그래서 싱어는 자기의식이 없는 존재가 살 만한 삶을 누리다가 고통 없이 죽고, 그 대신 비슷한 삶을 누릴 존재가 새로 생겨난다면, 그 죽임은 그릇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대체 가능성 논증이라 한다. 다만 싱어는 오늘날의 공장식 축산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다.

싱어의 편에서 흔히 쓰이는 논증이 '가장자리 사례 논증'이다. 이성이나 언어 능력을 지닌 존재만 도덕적으로 고려된다고 하면, 그런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갓난아기도 고려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고려의 기준은 이성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헨은 1986년에 이 논증에 맞섰다. 그에 따르면 권리는 서로에게 도덕적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성립한다. 동물은 그런 종류의 존재가 아니므로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을 지니는 종류인 인간에 속하므로 권리를 갖는다. 판정의 단위가 개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개체가 속한 종류라는 것이다. 싱어의 편에서는 이것이 종 차별주의를 다른 말로 되풀이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동물을 위한 다른 길을 연 것은 리건이다. 싱어의 공리주의는 관련된 이익의 합을 따지므로, 합이 충분히 커지면 한 존재를 희생시키는 일도 허용될 수 있다. 리건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그에 따르면 무언가를 믿고 바라고 느끼며, 자기 삶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 그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는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이 가치는 다른 존재들이 얻을 이익의 합과 맞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삶의 주체를 단지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큰 이익을 낳더라도 그 존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같은 이유로 리건은 한 존재를 비슷한 존재로 바꾸어 놓으면 된다는 대체 가능성 논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라이더는 종을 이유로 이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인종 차별에 빗대어 차별이라 보았다.
② 싱어는 이익을 가질 자격을 이성이나 말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서 찾았다.
③ 싱어는 오늘날의 공장식 축산이 대체 가능성 논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다.
④ 리건은 공리주의가 이익의 합을 이유로 한 존재의 희생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⑤ 싱어는 같은 세기로 때리면 말과 갓난아기에게 같은 크기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된다고 보았다.

149. 싱어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고려받을 이익을 지닌다.
② 크기가 같은 이익이라도 인간의 이익이라면 더 무거운 무게로 고려해야 한다.
③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따르면 돼지와 사람에게 서로 다른 대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④ 자기의식이 없는 존재는 고통을 느끼더라도 고려받을 이익을 전혀 지니지 않는다.
⑤ 고통 없는 죽음은 고통을 주지 않으므로 어떤 존재에게도 그릇된 일이 되지 않는다.

15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농장 A는 자기의식은 없지만 고통은 느낀다고 가정한 동물 X를 넓은 곳에서 살 만한 삶을 누리게 기르다가 고통 없이 죽이고, 죽인 만큼의 새 개체를 다시 길러 낸다.

㉯ 연구소 B는 많은 환자를 살릴 약을 만들려고, 무언가를 믿고 바라는 능력을 지닌 침팬지에게 고통이 따르는 실험을 한다.

① 싱어는 ㉮가 대체 가능성 논증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X를 죽이는 일이 그릇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겠군.
② 리건은 X가 삶의 주체라면, ㉮에서 새 개체를 길러 낸다고 해서 X를 죽이는 일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고 보겠군.
③ 코헨은 ㉯의 침팬지가 도덕적 요구를 주고받는 종류의 존재가 아니므로 권리 침해를 문제 삼지 않겠군.
④ 리건은 ㉯의 실험이 낳을 이익의 합이 침팬지가 겪을 해악보다 충분히 크다면 실험을 허용하겠군.
⑤ 싱어는 ㉯의 침팬지가 겪을 고통을 같은 크기의 인간의 고통과 같은 무게로 따져야 한다고 보겠군.

151. 가장자리 사례 논증과 코헨의 반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가장자리 사례 논증은 갓난아기에게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② 코헨의 견해에서는 어떤 사람이 도덕적 요구를 할 능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는 부정되지 않는다.
③ 코헨은 권리를 개체가 지닌 능력에 따라 판정하므로 가장자리 사례 논증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④ 코헨은 싱어가 종류에 기대어 종 차별주의를 다른 말로 되풀이했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⑤ 가장자리 사례 논증에 따르면 이성을 기준으로 삼을 때 동물이 갓난아기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는다.

실전 1회 · 4 미적 판단의 보편성에 대한 칸트와 흄

[152 ~ 157] 다음 (가)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한 사람의 기분을 말한 것에 그치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타당한가? 칸트는 『판단력 비판』(1790)에서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는 판단, 곧 '취미 판단'의 성격을 밝히며 이 물음에 답하려 했다. 취미 판단은 대상을 개념으로 규정하는 인식 판단과 달리, 대상의 표상이 주체에게 일으키는 쾌의 감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쾌의 감정에 근거한다고 해서 다 취미 판단인 것은 아니다. 칸트는 쾌적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구별했다. 쾌적한 것은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개념에 비추어 쓸모 있거나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둘에 대한 만족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데 대한 관심과 이어져 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고 느끼는 즐거움은 그것을 먹고 싶다는 욕구와 떨어지지 않는다. 반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만족은 대상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대상의 형식을 바라보는 데서 생긴다. 칸트는 이를 '무관심적 만족'이라 불렀다. 그는 아름다움을 다시 둘로 나누었다. 꽃처럼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판정되는 아름다움은 '자유미'이고, 건물이나 사람처럼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전제하는 아름다움은 '부수미'이다. 순수한 취미 판단은 자유미에 대한 판단이다.

취미 판단의 또 다른 특징은 보편성이다. 누군가 '이 포도주는 내게 쾌적하다.'라고 할 때 그는 남이 동의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취미 판단은 언제나 눈앞의 이 대상에 대한 단칭 판단이며, '장미는 대체로 아름답다.'처럼 여러 대상을 비교하여 내린 일반 판단은 더 이상 취미 판단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보편성이 개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은 규칙으로 증명할 수 없어서, 아무리 그럴듯한 근거를 대어도 남이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들 수는 없다. 칸트는 이 보편성의 근거를, 대상의 형식을 볼 때 상상력과 지성이 어떤 특정한 개념에도 묶이지 않은 채 서로 어울려 움직이는 '자유로운 유희'에서 찾았다. 이 두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므로, 사적인 조건에서 벗어나 판단하는 한 그 쾌는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다. 칸트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이런 감각을 '공통감'이라 불렀다. 따라서 취미 판단의 보편성은 실제로 동의한 사람을 세어 얻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나)

흄은 「취미의 기준에 대하여」(1757)에서 취미가 사람마다, 시대마다 크게 다르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는 아름다움이 사물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모든 취미가 똑같이 옳은가? 흄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누군가 이름 없는 시인 오길비가 밀턴과 대등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두더지가 쌓은 흙 둔덕이 높은 산만큼 높다는 말처럼 터무니없다고 여길 것이다. 흄은 이처럼 취미의 우열을 가릴 기준이 있다고 보고, 그 기준을 경험에서 찾았다. 작품의 어떤 성질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지는 여러 시대와 나라에 걸친 경험으로 확인된다. 2천 년 전 아테네와 로마에서 즐거움을 준 호메로스가 지금도 파리와 런던에서 찬탄받는 것이 그 예이다. 반대로 한때 큰 인기를 누린 작품이 금세 잊히는 것은, 그 인기가 권위나 유행이 만든 편견에 기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실제 감상자가 그 성질을 늘 알아채는 것은 아니다. 흄은 『돈키호테』의 일화를 든다. 산초의 두 친척이 포도주 한 통을 맛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가죽 맛이 조금 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쇠 맛이 조금 난다고 했다. 사람들은 둘을 비웃었지만, 통을 비우자 바닥에서 가죽 끈이 달린 쇠 열쇠가 나왔다. 흄은 이처럼 작은 성질까지 가려내는 감각의 섬세함을 참된 감상자의 조건으로 들었다. 여기에 같은 종류의 작품을 되풀이해 감상한 연습, 여러 작품의 비교, 편견에서 벗어남, 작품의 목적과 짜임을 파악하는 건전한 지성이 더해져야 한다. 편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를테면 오래전 다른 나라의 청중을 향해 쓰인 연설을 판단할 때 자기 시대의 습관을 내려놓고 그 청중의 자리에 서 보는 것이다. 흄은 이런 조건을 갖춘 참된 감상자들이 함께 내리는 판단이 곧 취미의 기준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런 감상자가 드물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의 문제이므로 따져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런 감상자들 사이에도 비난할 수 없는 차이는 남는다. 젊은이는 사랑을 그린 시에, 나이 든 사람은 지혜로운 성찰을 담은 글에 더 끌리듯, 기질이나 시대와 나라의 풍습에서 오는 선호의 차이는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5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아름다움을 대상 자체의 성질로 보고 그 성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한다.
② (가)는 실제로 동의한 사람의 수로 취미 판단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나)는 이를 비판한다.
③ (가)는 취미 판단을 쾌의 감정이 아닌 개념에 근거한 판단으로 보고, (나)는 감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본다.
④ (나)는 감상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다른 감상자와의 취미 차이가 커진다고 본다.
⑤ (가)는 취미 판단의 보편성을 사람들의 공통된 능력에서, (나)는 취미의 기준을 참된 감상자의 판단에서 찾는다.

153.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칸트는 대상의 형식을 보고 쾌를 느낀 뒤에 그 대상을 개념으로 규정해야 아름답다는 판단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② 칸트에 따르면 어떤 포도주가 쾌적하다고 하는 사람은 남이 동의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다.
③ 칸트는 상상력과 지성이 특정한 개념에 묶이지 않고 서로 어울려 움직이는 데서 보편성의 근거를 찾았다.
④ 칸트에 따르면 좋은 것에 대한 만족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데 대한 관심과 이어져 있다.
⑤ 칸트는 아름다움을 규칙으로 증명할 수 없어서 남이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았다.

154. (나)의 산초의 친척 일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두 친척의 말이 서로 어긋나므로, 둘 가운데 한 사람만 섬세한 감각을 지녔다고 보아야 한다.
② 흄은 이 일화를 들어 편견에서 벗어남이 참된 감상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보였다.
③ 열쇠가 나온 것은 아름다움이 사물 자체의 성질임을 보여 주므로, 흄은 이 일화로 앞의 생각을 버렸다.
④ 두 친척이 비웃음을 산 것은, 비웃은 사람들의 감각이 그 작은 성질을 가려낼 만큼 섬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⑤ 포도주의 맛을 가려내는 섬세함만 갖추면 연습이나 비교가 없어도 참된 감상자가 될 수 있다.

155. (가)의 칸트와 (나)의 흄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흄이 말한 참된 감상자는 칸트의 공통감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갖추어져 있다.
② 칸트와 흄은 모두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판단이 기준이 된다고 본다.
③ 칸트는 실제로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취미 판단의 보편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흄은 이를 부정한다.
④ 흄은 칸트와 달리 취미의 기준을 여러 시대에 걸친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통된 능력에서 찾는다.
⑤ 칸트와 흄은 모두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쾌의 감정에 바탕을 두면서도 한 사람의 기분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156.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기〉

전시회에서 관람객 넷이 같은 정물화를 보고 말했다.
갑: 그림 속 사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보고 있으니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을: 무엇을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과 색이 짜인 모양을 바라보니 즐거워요. 누구든 이 그림을 아름답다고 해야 해요.
병: 이 그림은 황금 비율과 원근법의 규칙을 정확히 지켰어요. 그러니 아름답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에요.
정: 처음 봤을 때는 별로였는데, 같은 화가의 그림을 여러 점 보고 다른 화가들의 그림과도 비교해 보니 이제 섬세한 붓질이 눈에 들어와요.

① 칸트라면, 을의 판단에 실제로 동의하는 관람객이 적다면 을의 판단은 취미 판단으로서의 보편성을 잃는다고 보겠군.
② 칸트라면, 갑의 만족은 대상의 존재에 대한 관심과 이어져 있어 아름다운 것보다는 쾌적한 것에 대한 만족에 가깝다고 보겠군.
③ 칸트라면, 병이 규칙을 들어 아름다움을 증명했다고 하는 것은 취미 판단의 성격을 잘못 안 것이라고 보겠군.
④ 흄이라면, 정이 연습과 비교를 거치면서 참된 감상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가까워졌다고 보겠군.
⑤ 칸트라면, 갑과 을은 둘 다 즐거움을 느꼈지만 그 즐거움이 생겨난 바탕은 서로 다르다고 보겠군.

157.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A와 B는 섬세함, 연습, 비교, 편견 없음, 건전한 지성을 두루 갖춘 비평가이다. 스물다섯 살인 A는 사랑의 설렘을 그린 시를, 예순 살인 B는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를 더 높이 친다. 한편 C는 동네 백일장에서 뽑힌 시가 셰익스피어의 시와 대등하다고 주장한다.

① A와 B는 모두 참된 감상자의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두 사람의 선호도 결국 하나로 모아져야 하겠군.

② C의 주장도 C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므로 A와 B의 판단과 똑같이 옳다고 해야겠군.

③ A와 B의 선호 차이는 나이와 기질에서 온 것으로,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할 수 없는 차이에 해당하겠군.

④ A와 B가 서로 다른 시를 더 높이 치므로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겠군.

⑤ C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까닭은 참된 감상자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셰익스피어의 시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겠군.

고대 가요

01 임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고대 가요

백수 광부의 아내「공무도하가」

지금 전하는 우리 노래 가운데 가장 먼저 문헌에 기록된 작품이다. 본디 우리말로 불렸으나 한문으로 옮겨진 네 구만 전한다. 물을 건너다 빠져 죽은 남편을 두고 아내가 부른 노래로, 그 사연을 담은 배경 설화가 함께 전한다.

1 원문 읽기

원문을 소리 내어 두 번 읽어 보자. 오른쪽의 글자 뜻을 보며 한 구씩 무슨 뜻일지 생각하고, 배경 설화도 함께 읽는다.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고대 가요 · 백수 광부의 아내 · 고조선 · 『고금주』 · 『해동역사』

원문	글자의 뜻
公無渡河(공무도하)	公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 · 無 ~하지 마라 · 渡 건너다 · 河 물, 강
公竟渡河(공경도하)	竟 끝내, 마침내
墮河而死(타하이사)	墮 떨어지다, 빠지다 · 而 ~하여 · 死 죽다
當奈公何(당내공하)	當 이제, 장차 · 奈 ~ 何 ~을 어찌하랴

배경 설화(『고금주』의 기록을 풀어 씀)

조선의 나루터에서 배를 부리던 곽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내 하나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끼고 물을 건너가자, 그 아내가 뒤쫓아 가며 소리쳐 말렸지만 붙잡지 못하여 사내는 물에 빠져 죽었다. 아내는 공후를 타며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소리가 몹시 슬펐다. 노래를 마친 아내도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곽리자고가 집에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여옥이 슬퍼하며 공후를 타서 그 노래를 불렀고,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 여옥은 이 노래를 이웃의 여용에게 전하고「공후인」이라 이름 붙였다.

* 공후: 하프와 비슷한 옛 현악기.

2 대조하며 읽기

글자 뜻을 바탕으로 원문 한 구마다 현대어 풀이의 빈칸을 채워 보자.

원문	현대어 풀이
公無渡河(공무도하)	_____, 물을 _____
公竟渡河(공경도하)	임은 _____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타하이사)	물에 _____ _____
當奈公何(당내공하)	_____ 임을 _____

빠진 말 채우기 노래와 배경 설화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찾아 쓴다.

1. 1구 '물을 건너지 마오'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2. 2구에서 물을 건넌 이는 누구인가?

3. 4구 '어찌할꼬'에서 탄식하는 이는 누구인가?

4. 배경 설화에서 사건을 직접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이는 누구인가?

5. 배경 설화에서 전해 들은 노래를 공후로 타며 다시 부르고 이웃에게 전한 이는 누구인가?

3 되풀이되는 표현

이 작품에 나온 시어와 특징 가운데 다른 고전 시가에도 자주 나오는 것을 모았다.

되풀이되는 표현

물(강) 고전 시가에서 물은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아 만남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자주 쓰인다. 정지상의 「송인」에 나오는 '대동강'도 이별의 자리이다.

임(님)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노래의 '公'은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로, 화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ㄹ꼬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스스로 묻듯이 탄식하는 말에 쓰인다. 「황조가」의 마지막 구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도 이렇게 묻는 꼴로 외로움을 드러낸다.

배경 설화 노래가 생겨난 사연을 담은 이야기이다. 고대 가요는 「구지가」·「황조가」처럼 대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한다.

한역 시가 본디 우리말로 부르던 노래를 한문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우리 글자가 없던 때의 노래는 이렇게 옮겨진 모습으로 전하는 일이 많다.

기 · 승 · 전 · 결 네 부분으로 시상을 펼치는 짜임이다. 기에서 시작하고, 승에서 이어 가며, 전에서 바꾸고, 결에서 마무리한다.

4 작품 정리

기 · 승 · 전 · 결 네 구에 따라 빈칸을 채워 보자.

항목	1구(기)	2구(승)	3구(전)	4구(결)
일어난 일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말림	임이 끝내 물을 건넘	임이 물에 빠져 죽음	임을 잃고 탄식함
'물'의 뜻				
화자의 정서				

5 문항 확인

학교 시험과 교과서 학습 활동에 나온 문항을 변형하였다. 문항 끝의 학교 수는 그 내용을 물은 학교의 수이다.

출제 포인트 · 학교 시험과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

고등학교 세 곳의 시험지와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이 작품을 다룬 내용을 모았다.

1. 구마다 달라지는 '물'의 뜻 — 2개 학교
2. 갈래(고대 가요, 한역 시가)와 4구로 이루어진 짜임 — 2개 학교
3. 집단의 노래에서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시가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 — 1개 학교
4. 화자의 정서 — 1개 학교
5. 배경 설화와 노래가 전해진 과정 — 교과서 활동
6. '물'이 나오는 다른 작품(「송인」)과의 비교 — 교과서 활동

[1~7, 서술형 1~2]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公無渡河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끝내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죽으니
當奈公何	이제 임을 어찌할꼬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

[배경 설화]

조선의 나루터에서 배를 부리던 곽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내 하나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끼고 물을 건너가자, 그 아내가 뒤쫓아 가며 소리쳐 말렸지만 붙잡지 못하여 사내는 물에 빠져 죽었다. 아내는 공후를 타며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소리가 몹시 슬펐다. 노래를 마친 아내도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곽리자고가 집에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여옥이 슬퍼하며 공후를 타서 그 노래를 불렀고,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 여옥은 이 노래를 이웃의 여용에게 전하고 「공후인」이라 이름 붙였다.

* 공후: 하프와 비슷한 옛 현악기.

1. 윗글의 원문을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교과서 활동

① '公'은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로, 화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② '無渡河'는 물을 건너지 말라는 뜻이다.
③ '當奈公何'는 임을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나타낸다.
④ '竟'은 '끝내'라는 뜻으로, 화자가 말렸는데도 임이 물을 건넜음을 나타낸다.
⑤ '墮河而死'는 임이 물에 빠져 죽었음을 나타낸다.

2. 윗글의 시상 전개와 화자의 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개 학교 출제

① 1구와 2구에는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말리는 화자의 다급함과 불안이 드러난다.
② 1구에서 화자는 임이 물을 건너기를 바라며 임을 격려한다.
③ 3구에서 화자는 임이 무사히 물을 건넌 것을 기뻐한다.
④ 4구에서 화자는 임의 죽음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한다.
⑤ 1구에서 4구까지 화자의 정서가 변하지 않고 기쁨이 이어진다.

3. 윗글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교과서 활동

① 1구에서 임에게 직접 말을 건네어 화자의 다급한 마음을 드러낸다.
② '물(河)'을 1구에서 3구까지 되풀이하여 시상을 이어 간다.
③ 4구에서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탄식을 드러낸다.
④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옮겨 담아 슬픔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⑤ 임과 화자에게 일어난 일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노래한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개 학교 출제

〈보기〉

고대 가요는 고대부터 삼국 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이다. 우리 글자가 없던 때여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뒷날 한문으로 옮겨 기록된 것이 많고, 대개 노래가 생겨난 사연을 담은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한다.

① 윗글은 본디 우리말로 불렸으나 한문으로 옮겨진 모습으로 전한다.
② 윗글은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향찰로 기록되었다.
③ 윗글은 노래가 생겨난 사연을 담은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한다.
④ 윗글은 네 글자씩 네 구로 이루어진 한역 시가이다.
⑤ 윗글이 한문으로 기록되었어도 우리 민족의 노래이므로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다.

5. 윗글의 [배경 설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교과서 활동

① 곽리자고는 사건을 직접 보고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하였다.
② 백수 광부의 아내는 남편을 말리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③ 여옥은 전해 들은 노래를 공후로 타며 다시 불렀다.
④ 노래를 들은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데서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곽리자고는 물을 건너려는 백수 광부를 붙잡아 목숨을 구하였다.

6.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교과서 활동

〈보기〉

비 갠 긴 둑에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에나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 눈물이 푸른 물결에 보태어지는 것을
- 정지상, 「송인」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우리말로 지어져 처음부터 한글로 기록되었다.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슬픔을 노래한다.
③ 〈보기〉는 비 갠 뒤의 짙은 풀빛을 그려 이별의 슬픔과 대비한다.
④ 〈보기〉는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강물에 더해진다고 하여 슬픔이 깊음을 드러낸다.
⑤ 윗글은 임이 죽어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슬픔을, 〈보기〉는 임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다.

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교과서 활동

〈보기〉

이 노래의 인물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 술병을 든 백수 광부를 술의 신으로, 공후를 든 아내를 음악의 신으로 보아 신화 속 이야기로 읽기도 하고, 고된 삶에 지쳐 물에 뛰어든 가난한 백성으로 보아 당시 백성의 고단한 삶을 담은 노래로 읽기도 한다.

① 백수 광부를 술의 신으로 보면, 그가 술병을 들고 물에 뛰어든 일을 신화 속 인물의 행동으로 읽을 수 있겠군.
② 아내를 음악의 신으로 보면, 공후를 타며 노래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겠군.
③ 두 사람을 가난한 백성으로 보면, 백수 광부가 물에 뛰어든 것은 신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기쁜 행동이 되겠군.
④ 두 사람을 가난한 백성으로 보면, 이 노래는 고단한 삶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을 담은 노래가 되겠군.
⑤ 어느 해석을 따르더라도, 아내가 임을 잃고 슬퍼한다는 노래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군.

서술형 1. 윗글의 '물(河)'이 1구, 2구, 3구에서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2개 학교 출제

〈조건〉
1. 구마다 화자의 처지와 관련지어 쓸 것.
2. 세 문장으로 쓸 것.

답안

서술형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이 집단의 노래에서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시가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까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1개 학교 출제

〈보기〉
초기의 시가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거나 일을 할 때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집단의 노래였다. 이런 노래에는 집단이 함께 바라는 것이 담겼다. 그러다 차츰 한 사람의 감정을 담은 노래가 나타났다.

〈조건〉
1. 윗글의 화자와 화자가 노래한 감정을 밝힐 것.
2. 두 문장 이내로 쓸 것.

답안

독서편 1장

D1 섞어치기

두 대상의 설명을 서로 바꾸어 붙인다



이 장에서는 선지를 명제로 나누어 참과 거짓을 가리고, 거짓인 명제는 근거를 들어 바르게 고쳐 쓴다. 거짓인 까닭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두 대상의 설명을 서로 바꾸어 붙인 선지(섞어치기)를 살펴본다.

① 패턴 익히기

선지를 판단할 때 먼저 할 일은 선지를 명제로 나누어 하나하나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것이다. 거짓인 명제를 찾았으면 지문의 어느 말과 어긋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선지가 되려면 어떻게 써야 했는지 고쳐 본다. 패턴은 이때 명제가 왜 거짓인지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지문이 두 대상 A와 B를 함께 설명할 때, 출제자는 A의 설명을 B에 붙이거나 B의 설명을 A에 붙여 오답 선지를 만들곤 한다. 선지에 쓰인 말이 모두 지문에 나온 말이어서, 읽은 기억이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맞는 선지로 고르기 쉽다. 이런 거짓을 섞어치기라고 부른다. 두 대상은 두 사람, 두 이론, 두 과정일 수도 있고, 한 대상의 두 측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본다

- 선지에 나온 두 대상(또는 두 측면)이 지문에 모두 나온다.
- 선지의 설명도 지문에 있는 말이다. 다만 지문에서는 다른 대상에 붙어 있다.
- 선지를 'A는 b이다' 꼴로 줄여 읽으면 지문과 어긋난다.

읽는 요령

1 지문을 읽을 때 대조되는 두 대상이 나오면 각 대상에 어떤 설명이 붙는지에 주의한다. '~와 달리', '반면', '~이지만' 뒤에는 다른 대상의 설명이 이어지므로 특히 집중한다.

2 선지를 읽을 때는 대상과 설명을 끊어 '누가(무엇이) - 어떠하다'로 줄인다. 그다음 그 설명이 지문에서 어느 대상에 붙어 있었는지 확인한다.

3 '~와 마찬가지로', '~와 달리', '모두'처럼 두 대상을 비교하는 말이 선지에 있으면 두 대상의 설명을 지문에서 하나씩 따로 맞춰 본다.

기출 선지 살펴보기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문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선지 ⑤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대상	지문	선지
수소 이온(A)	전해질을 통해 이동	도선을 통해 이동 ×
전자(B)	도선을 통해 이동	도선을 통해 이동

지문에서 도선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고,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이동한다. 그러므로 선지는 거짓이다. 섞어치기로 보면, 전자에 붙은 '도선을 통해'를 '~와 마찬가지로'로 묶어 수소 이온에도 붙였다.

바르게 고치면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달리 전해질을 통해 이동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②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선지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대상	지문	선지
'이'(A)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	시공을 초월함
'기'(B)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	만물에 내재된 법칙 ×

지문에서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는 '이'이고, '기'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앞부분은 거짓이다. 뒷부분 "시공을 초월하는 '이'"는 지문과 맞아서, 뒷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걸린다. 섞어치기로 보면, '이'의 설명(법칙)을 '기'에 붙였다.

바르게 고치면 '기'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만물의 법칙인 '이'와 대비된다.

② 명제로 나누기 ③ 근거 찾기

선지 하나에는 판정할 내용이 둘 이상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선지를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나누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나눈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17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된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예컨대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 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나누는 요령

1 '-고', '-며', '-지만', '-므로', '~와 마찬가지로', '~이 아닌'에서 끊는다.
2 끊은 뒤에는 빠진 주어와 대상을 되살려 완결된 문장으로 쓴다.
3 두 내용을 잇는 관계(같다, 다르다, 때문이다)도 따로 명제로 적는다.

예시 ·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③

선지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명제 1 사물이 지닌 속성은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명제 2 인간이 지닌 속성은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명제 3 두 속성은 같은 방식으로 정보로 환원된다.

아래 선지는 명제 단위로 끊어 두었다(②). 명제마다 근거가 되는 문단과 말을 찾아 짧게 쓴다. 그다음 O · X를 판정한다(③). X인 명제는 그 부분을 바르게 고친다.

14번 ①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명제	근거(문단과 말)	O · X
플로리디가 말하는 '있음'은 경험주의가 정의하는 '있음'과 같은 뜻이다.		

바르게 고치면

14번 ④ 추상화 층위에서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명제	근거(문단과 말)	O · X
추상화 층위에서는 일부 정보가 생략된다.		
생략되는 정보는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바르게 고치면

15번 ①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다.

명제	근거(문단과 말)	O · X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온라인 공간이다.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다.		

바르게 고치면

15번 ③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명제	근거(문단과 말)	O · X
추상화 층위는 주체와 대상 사이를 매개한다.		
그 매개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바르게 고치면

15번 ④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 낸 허구이다.

명제	근거(문단과 말)	O · X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인포스피어).		
그 공간은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 낸 허구이다.		

바르게 고치면

16번 ④ ㄹ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보기〉 ㄹ.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명제	근거(문단과 말)	O · X
ㄹ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한다.		
ㄹ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바르게 고치면 _____

물음 X로 판정한 명제 가운데 섞어치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고르고, 지문의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었는지 쓰시오.

섞어치기로 설명할 수 있는 명제가 있는 선지: _____

_____ _____에 대한 설명을 _____에 붙였다.

_____ _____에 대한 설명을 _____에 붙였다.

④ 패턴 판정

선지를 읽고 거짓인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 거짓인 까닭은 지문의 말로 짧게 쓰고, 밑줄 친 말을 바르게 고쳐 쓴다. 끝으로 빈칸을 채워 섞어치기로 설명해 본다.

1 2013학년도 수능 21번 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지문**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선지 ①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거짓인 까닭 지문에서는 _____

바르게 고치면 밑줄 친 말 → _____

섞어치기로 보면

_____ 논증에 붙은 설명(지식을 확장해 줌)을 _____ 논증에 붙였다.

2 2024학년도 수능 15번 ① (나)의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ㄹ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지문 (왕안석)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징)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선지 ① 왕안석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거짓인 까닭 지문에서는 _____

바르게 고치면 밑줄 친 말 → _____

섞어치기로 보면
_____의 생각(규범은 도가 현실화한 결과)을 _____에게 붙였다.

3 2026학년도 수능 14번 ④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지문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선지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거짓인 까닭 지문에서는 _____

바르게 고치면 밑줄 친 말 → _____

섞어치기로 보면
인격을 이루는 두 요소(의식과 신체) 가운데 _____에 붙은 설명을 _____에 붙였다.

4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②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다.

선지 ②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거짓인 까닭 지문에서는 _____

바르게 고치면 밑줄 친 말 → _____

섞어치기로 보면
중심에 둔 것(_____)과 끌어들인 것(_____)의 자리를 바꾸었다.

5 2020학년도 수능 17번 ②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선지 ②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거짓인 까닭 지문에서는 _____

바르게 고치면 밑줄 친 말 → _____

섞어치기로 보면

_____의 생각(믿음의 정도)을 _____에 붙였다.

6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 ③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문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선지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거짓인 까닭 지문에서는 _____

바르게 고치면 밑줄 친 말 → _____

섞어치기로 보면

『자치통감강목』을 따른 측면(_____)과 따르지 않은 측면(_____)을 바꾸었다.

7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④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선지 ④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개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거짓인 까닭 지문에서는 _____

바르게 고치면 밑줄 친 말 → _____

섞어치기로 보면

_____에 일어나는 일(분해, 불안정한 원자)을 _____에 붙였다.

8 2026학년도 수능 14번 ③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지문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선지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거짓인 까닭 지문에서는 _____

바르게 고치면 밑줄 친 말 → _____

섞어치기로 보면

스트로슨이 잘못이라고 비판한 _____의 견해를 _____의 견해로 붙였다.

⑤ 기출 적용

시간을 재고(12분) 네 문항을 푼다. 다 풀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은 정답 선지를,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항은 가장 헷갈린 오답 선지를 골라 '푼 뒤에' 표에 거짓인 말과 그 근거, 바르게 고친 말을 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1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 내는 인공 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원하는 값만 들어 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에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확산 이미지에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10.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②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읽었다.
③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읽었다.
④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었다.
⑤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가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②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③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④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⑤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줄어든다.

12.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
②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다.
③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④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
⑤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 단계는 확산 모델 과정 중 한 단계이다. ㉠은 원본 이미지이고, ㉡은 확산 이미지 중의 하나이며, ㉢은 노이즈 이미지이다. (가)는 이미지가 A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나)는 이미지가 A 단계에서 출력되는 부분이다.

(가) ⇨ A 단계 ⇨ (나)

㉠  ㉡  ㉢ 

①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에 노이즈를 더하겠군.
②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군.
③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겠군.
④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에서 노이즈를 빼겠군.
⑤ 역확산 과정에서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겠군.

푼 뒤에

문항	정답	고른 선지의 거짓인 말과 근거, 고친 말
10번		고른 선지 ( ) 근거 거짓인 말 → 고친 말
11번		고른 선지 ( ) 근거 거짓인 말 → 고친 말
12번		고른 선지 ( ) 근거 거짓인 말 → 고친 말
13번		고른 선지 ( ) 근거 거짓인 말 → 고친 말

정리 이 장에서 본 섞어치기

선지에 나온 말	어떻게 섞었나(이 장의 보기)
'~와 마찬가지로'	다른 대상의 설명을 같다고 묶어 붙임 (수소 이온 · 전자)
'~와 달리'	두 대상의 설명을 서로 맞바꿈 (전통적 인식론자 · 베이즈주의자)
'모두'	한 대상에만 있는 설명을 다른 대상까지 묶음 (이미지 연산기 · 노이즈 예측기)
'~에 따르면'	한 사람의 견해를 다른 사람의 견해로 붙임 (칸트 · 스트로슨)
'~에 동의하겠군'	한 사상가의 생각을 다른 사상가가 받아들인다고 함 (왕안석 · 오징)
과정 · 단계 이름	한 과정의 일을 다른 과정에 붙임 (순확산 · 역확산)

스스로 점검

- ☐ 선지를 명제로 나누어 하나씩 O · X를 판정했는가?
- ☐ 거짓인 명제가 지문의 어느 말과 어긋나는지 찾아 썼는가?
- ☐ 거짓인 명제를 적절한 선지가 되도록 바르게 고쳐 썼는가?
- ☐ 선지에 두 대상이 함께 나오면 대상마다 따로 지문과 맞춰 보았는가?

러셀 문학 · 현대 시 · 윤동주, 「새로운 길」

1 〈조건〉을 읽는 법



1장

서술형에서 점수를 잃는 가장 흔한 까닭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학교 시험의 〈조건〉은 대개 문장 틀, 꼭 넣을 낱말, 분량(글자 수 · 어절 수 · 문장 수), 개수, 근거를 찾을 범위, 쓰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뉜다. 이 장에서는 〈조건〉을 종류별로 쪼개어 읽고, 답안을 쓴 뒤 조건마다 지켰는지 따져 보는 습관을 들인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윤동주, 「새로운 길」

시 읽기 확인

시에서 찾아 쓴다. 답은 시에 나온 말 그대로 쓴다.

물음	답
말하는 이가 가는 곳 두 군데(1연)	
말하는 이가 길에서 만나는 것 네 가지(3연)	
'새로운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 연 두 개	

① 문항 읽기 발문과 〈조건〉 쪼개기

대표 문항 이 시에서 '길'이 상징하는 것과 말하는 이가 그 길을 걷는 태도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6점]

〈조 건〉

1. '길'이 상징하는 것을 한 단어로 밝힐 것.
2. 말하는 이의 태도는 4연에서 근거가 되는 시구를 찾아 함께 쓸 것.
3. '이 시에서 '길'은 ~을/를 상징하고, 말하는 이는 '~'라는 시구에서 ~ 태도를 보인다.'의 형식으로 쓸 것.
4.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9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쓸 것.

〈조건〉은 종류마다 지키는 법이 다르다. 조건마다 어떤 종류인지 적고, 지키는 법을 써 보자.

이 문항이 묻는 것은 '길'이 _____과 말하는 이가 길을 걷는 _____ 두 가지이다.

조건	종류	지키는 법
1		
2		
3		
4		

조건 하나에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기도 하다. 조건 4는 분량(90자 이내)과 문장 수(한 문장)를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답안을 쓴 뒤 둘 다 확인해야 한다.

② 근거 찾기 조건마다 지문에서

묻는 것마다 근거가 되는 시구를 찾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옆에 내 말로 바꾸어 적는다.

묻는 것	지문에서 찾은 근거(그대로 옮기기)	내 말로 바꾸기
'길'이 상징하는 것		
길에서 만나는 것들(3연)		
말하는 이의 태도(4연)		

함정 하나

'길'을 '학교 가는 길'처럼 실제 길로 쓰면 상징을 밝힌 것이 아니다. 또 2연의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은 태도의 근거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건 2가 근거를 찾을 곳을 4연으로 정했으므로 이것을 쓰면 근거 칸의 점수를 잃는다.

③ 개요 문장 틀에 넣어 보기

찾은 근거를 문장 틀에 넣어 본다. 이것이 답안의 뼈대이다.

이 시에서 '길'은 _____을 상징하고, 말하는 이는

'_____'이라는 시구에서

_____ 태도를 보인다.

④ 답안 쓰기

대표 문항 이 시에서 '길'이 상징하는 것과 말하는 이가 그 길을 걷는 태도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6점]

〈조 건〉

1. '길'이 상징하는 것을 한 단어로 밝힐 것.
2. 말하는 이의 태도는 4연에서 근거가 되는 시구를 찾아 함께 쓸 것.
3. '이 시에서 '길'은 ~을/를 상징하고, 말하는 이는 '~'라는 시구에서 ~ 태도를 보인다.'의 형식으로 쓸 것.
4.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9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쓸 것.

개요를 바탕으로 답안을 쓴다. 다 쓴 뒤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까지 세어 분량을 확인한다.

답안

글자 수 세는 법

'띄어쓰기를 포함하여'라는 조건이 있으면 빈칸도 한 자로 센다. 작은따옴표, 쉼표, 마침표도 한 자씩 센다. 어절 수를 세라는 조건은 띄어 쓴 덩어리를 센다('새로운 길'은 2어절). 열 자씩 끊어 세면 빨리 셀 수 있다.

다 쓴 뒤 점검하기

- ☐ '길'이 상징하는 것을 한 단어로 썼는가?
- ☐ 태도의 근거를 4연에서 찾아 작은따옴표로 묶어 썼는가?
- ☐ 문장 틀의 말을 바꾸지 않았는가?
-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90자 이내의 한 문장인가?

⑤ 채점 기준 점검 같은 문항, 두 답안

아래 채점 기준표로 내 답안을 매겨 본다. 칸마다 점수를 적고, 감점 항목이 있으면 뺀다.

채점 칸	배점	기준	내 점수
'길'의 상징	1	인생, 삶 가운데 하나를 썼다.	
근거 시구	2	4연의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또는 '오늘도..... 내일도.....'를 정확히 옮겼다. 4연이 아닌 시구를 쓰면 0점.	
태도	2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려는 태도 가운데 하나를 썼다.	
형식 · 분량	1	문장 틀을 지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9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썼다.	

감점

- '길'을 실제 길(등굣길 등)로 풀이하면 상징 칸은 0점이다.
- 근거 시구를 바꾸어 옮기면(예: '나의 길은 늘 새로운 길') 근거 칸은 1점이다.
- 90자를 넘거나 두 문장 이상으로 쓰면 형식 · 분량 칸은 0점이다.

같은 문항, 두 답안 — 두 학생의 답안을 채점 기준표로 매겨 보자. 답안 A가 점수를 잃은 곳에 밑줄을 긋고, 잃은 까닭을 한 줄로 쓴다.

답안 A

이 시에서 '길'은 인생을 상징하고, 말하는 이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이라는 시구에서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점수: _____점

답안 B

이 시에서 '길'은 인생을 상징하고, 말하는 이는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는 시구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점수: _____점

답안 A가 점수를 잃은 까닭:

⑥ 고쳐 쓰기 · 확인 문항

내 답안에서 점수를 잃은 칸을 고쳐 다시 쓴다. 이미 만점이라면 4연의 다른 시구를 근거로 하여 한 번 더 써 본다.

고쳐 쓰기

확인 1 앞 시에서 1연의 시구를 5연에 그대로 다시 쓴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4점]

〈조 건〉

1. 효과를 두 가지 쓸 것.
2. '반복'이라는 낱말을 쓰지 말 것.
3. 효과마다 한 문장씩 쓸 것.

답안

※ 다음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담장의 안녕

아랫돌이 윗돌에게 업어 줘서 고맙댔어
윗돌이 아랫돌에게 업혀 줘서 고맙댔지
몇백 돌 몇천 돌들이 입을 모아 고맙댔네

— 김봉군, 「돌담장의 안녕」

확인 2 이 시조에서 돌담장이 '안녕'할 수 있는 까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4점]

〈조 건〉

1. 초장과 중장의 내용을 모두 활용할 것.
2. '서로'라는 낱말을 넣을 것.
3. '돌담장이 안녕한 것은 ~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자 이내로 쓸 것.

답안

01 역사를 알아내는 방법

지나간 일은 어떻게 알아내고, 연도와 세기는 어떻게 셀까?

역사와 사료

역사는 지나간 일을 뜻하기도 하고, 지나간 일을 조사하여 적은 것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남긴 것을 살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낸다. 이처럼 역사를 연구하는 데 쓰이는 자료를 사료라고 한다.
사료에는 기록과 유물, 유적이 있다. 기록은 글로 남긴 것으로, 『삼국사기』 같은 역사책이나 비석에 새긴 글 등이 있다. 유물은 그릇, 도구, 장신구처럼 옛사람들이 쓰던 물건이고, 유적은 집터, 무덤, 성처럼 옛사람들이 남긴 자취가 있는 곳이다.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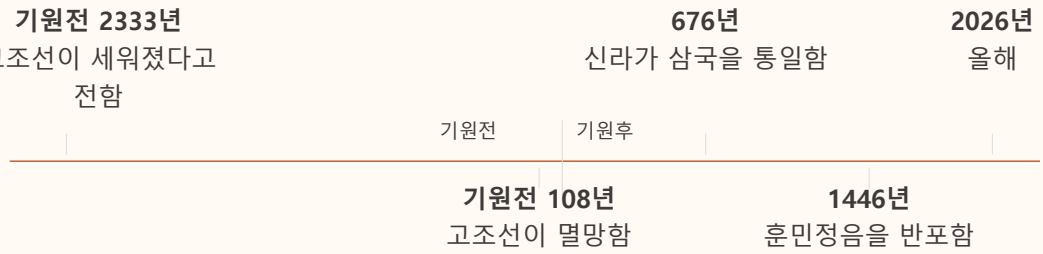
사람들이 글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글자로 남긴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시대를 나누기도 한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시대를 선사 시대라 하고, 기록이 남아 있는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한다. 선사 시대의 생활은 유물과 유적을 살펴 알아낸다. 땅속에서 나온 도구 하나를 보고 그것을 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일했는지 짐작하는 것이다.
선사 시대는 도구를 만든 방법에 따라 다시 나눈다.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 내어 만든 뗀석기를 쓰던 때를 구석기 시대,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쓰던 때를 신석기 시대라고 한다.

연도와 세기를 세는 방법

역사책에는 '기원전 2333년', '676년'처럼 연도가 나온다. 오늘날 쓰는 연도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여긴 해를 기준으로 한다. 그해를 1년으로 하여 그 뒤의 해는 '○○년'이라 하고, 그 앞의 해는 '기원전 ○○년'이라고 한다. 기원전의 연도는 수가 클수록 더 오래전이다.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은 기원전 108년보다 앞선 해이다.
100년을 묶어 세기라고 한다.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이고,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이다. 2026년은 21세기에 속한다. 기원전도 같은 방법으로 세어,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전 1년까지를 기원전 1세기라고 한다.

자료 읽기

자료 1 연표로 본 몇 가지 일



자료 2 여러 가지 사료

사료	어떤 것인가
『삼국사기』	고려 시대인 1145년에 김부식 등이 펴낸 역사책
광개토 대왕릉비	고구려 장수왕이 414년에 아버지의 업적을 새겨 세운 비석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쓰던 흙 그릇
서울 암사동 유적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집터가 모여 있는 곳

글과 자료 1, 2를 바탕으로 옳은 것에는 ○, 옳지 않은 것에는 ×를 쓰시오.

01 고조선이 세워진 일은 고조선이 멸망한 일보다 먼저 일어났다. ( )
02 『삼국사기』는 기록에 해당하는 사료이다. ( )
03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다. ( )
04 광개토 대왕릉비는 『삼국사기』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 )
05 서울 암사동 유적은 옮길 수 있는 유물이다. ( )

낱말과 뜻을 바르게 이으시오.

사료 史料	▪	▪ 기본이 되는 표준
유물 遺物	▪	▪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기록 記錄	▪	▪ 백 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
기준 基準	▪	▪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구분 區分	▪	▪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세기 世紀	▪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문제

01 이 글에서 주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옛사람들이 쓰던 그릇의 종류
② 역사를 알아내는 자료와 시대를 나누고 연도를 세는 방법
③ 『삼국사기』를 쓴 사람
④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

02 이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역사를 연구하는 데 쓰이는 자료를 사료라고 한다.
② 집터나 무덤처럼 옛사람의 자취가 있는 곳을 유적이라고 한다.
③ 선사 시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시대이다.
④ 기원전의 연도는 수가 작을수록 더 오래전이다.
⑤ 2026년은 21세기에 속한다.

03 해와 그 해가 속한 세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① 676년 — 6세기
② 2026년 — 20세기
③ 100년 — 2세기
④ 기원전 108년 — 기원전 1세기
⑤ 1446년 — 15세기

04 선사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그 시대 사람이 쓴 일기를 읽는다.
② 그 시대 왕이 내린 명령을 찾아본다.
③ 땅속에서 나온 도구와 집터를 살펴본다.
④ 그 시대를 기록한 역사책을 읽는다.
⑤ 그 시대 사람의 이름이 적힌 비석을 찾는다.

글에서 찾아 쓰기

05 선사 시대를 도구를 만든 방법에 따라 나누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 내어 만든 도구를 쓰던 _____ 시대와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를 쓰던 신석기 시대

정리하기

항목	내용
사료	역사를 연구하는 데 쓰이는 자료로, _____과 유물, 유적이 있다.
시대 구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_____ 시대와 기록이 남아 있는 역사 시대로 나눈다.
연도	예수가 태어났다고 여긴 해를 1년으로 하고, 그 앞의 해는 _____ ○○년이라고 한다.
세기	_____년을 묶어 한 세기라고 한다.

옛사람들이 남긴 _____를 살펴 지나간 일을 알아내고, 연도와 _____로 일이 일어난 때를 나타낸다.

01 세계사를 읽는 방법

세계사는 무엇을 배우는 공부이고, 넓은 세계의 일을 어떻게 정리하며 읽을까?

세계사란 무엇일까

세계사는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이 지나온 일을 배우는 공부이다. 한국사가 우리 땅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라면, 세계사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같은 여러 지역의 역사를 함께 살핀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종이와 숫자, 사람들이 믿는 종교,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에는 먼 곳에서 시작되어 전해진 것이 많다.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생겨나 어떻게 퍼졌는지 알 수 있다.

지역과 시대로 나누어 읽기

세계사에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세계사를 읽을 때에는 먼저 '어느 지역의 일인가'를 생각한다. 서아시아, 이집트, 인도, 중국, 지중해처럼 지역을 나누어 보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기 쉽다.

다음으로 '어느 시대의 일인가'를 생각한다. 역사가들은 흔히 세계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고대는 큰 강 가에서 문명이 생겨나고, 여러 지역에 큰 나라가 세워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종교와 학문이 나타난 시대이다.

같은 무렵의 세계 비교하기

세계사를 읽을 때에는 같은 무렵에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떠올려 보면 좋다. 기원전 221년에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여러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이 무렵 지중해에서는 로마가 카르타고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며 세력을 넓혀 가고 있었고,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살펴보면, 그때 세계 여러 곳에 큰 나라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를 셀 때에는 한국사와 같은 방법을 쓴다. 예수가 태어났다고 여긴 해를 기원으로 삼아 1년으로 하고, 그 앞의 해는 '기원전 ○○년'이라고 한다. 기원전의 연도는 수가 클수록 더 오래전이다.

낱말 도움말

문명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문자를 쓰며 나라를 세워 이룬 발달한 생활
카르타고 아프리카 북쪽 바닷가에 있던 나라
고조선 우리 역사에서 처음 세워진 나라

자료 읽기

자료 1 기원전 3세기 무렵의 세계

지역	이 무렵에 있었던 일
중국	진나라가 여러 나라를 통일함(기원전 221년)
지중해	로마가 카르타고와 세 차례 전쟁을 벌임(제1차 기원전 264~241년, 제2차 기원전 218~201년, 제3차 기원전 149~146년)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이 인도 대부분을 다스림
한반도	고조선이 있었음

자료 2 세계사의 시대 구분

시대	대체로 가리키는 때
고대	문명이 생겨난 때부터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5세기 무렵까지
중세	5세기 무렵부터 15세기 무렵까지
근대	15세기 무렵부터 20세기 초까지
현대	20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

자료 1, 2만으로 알 수 있는 것에는 ○, 알 수 없는 것에는 ×를 쓰시오.

01 진나라가 통일한 해에 로마와 카르타고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 )

02 진나라의 통일과 아소카왕의 통치는 모두 기원전 3세기 무렵의 일이다. ( )

03 진나라와 로마는 서로 사신을 보내 교류하였다. ( )

04 자료 2에 따르면 중세는 고대보다 앞선 시대이다. ( )

05 자료 2에 따르면 고대는 5세기 무렵에 끝난다. ( )

문제

01 이 글에서 주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진나라가 통일을 이룬 까닭
② 세계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하며 읽는지
③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운 과정
④ 고조선의 발전 과정
⑤ 여러 나라에서 연도를 세는 방법

02 이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세계사는 여러 지역의 역사를 함께 살핀다.
② 세계사를 읽을 때 어느 지역의 일인지 생각하면 흐름을 따라가기 쉽다.
③ 역사가들은 흔히 세계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눈다.
④ 기원전의 연도는 수가 작을수록 더 오래전이다.
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 가운데에는 먼 곳에서 시작되어 전해진 것이 많다.

03 셋째 부분에서 같은 시기의 일을 함께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한 나라의 역사만 자세히 알 수 있다.
② 모든 나라가 같은 해에 세워졌다.
③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④ 먼 나라의 일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⑤ 그때 세계 여러 곳에 큰 나라들이 함께 있었다.

04 기원전 3세기에 속하는 해를 고르시오.

① 기원전 309년
② 기원전 199년
③ 기원전 221년
④ 기원전 146년
⑤ 221년

글에서 찾아 쓰기

05 세계사를 읽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어느 _____의 일인지, 어느 시대의 일인지를 생각하며 읽는다.

풀이 메모

낱말 익히기

낱말과 뜻을 바르게 이으시오.

지역 地域	▪	▪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
시대 時代	▪	▪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문화 체계
통일 統一	▪	▪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기원 紀元	▪	▪ 권력이나 기세의 힘
종교 宗教	▪	▪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
세력 勢力	▪	▪ 연대를 계산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해

정리하기

항목	내용
세계사	세계 여러 _____ 사람들이 지나온 일을 배우는 공부
시대 구분	고대, _____, 근대, 현대
고대	큰 강 가에서 _____이 생겨나고 큰 나라가 세워진 시대
같은 무렵	기원전 221년 진의 통일 무렵 로마는 _____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임

세계사는 어느 _____, 어느 _____의 일인지 생각하고 같은 무렵의 일을 비교하며 읽는다.

세계사를 읽을 때

지역과 시대를 생각하며 읽기

어디에서	언제	같은 무렵
어느 지역의 일인가?	어느 시대의 일인가?	다른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01 사회 규범과 법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는 모두가 따라야 할 행동의 기준이 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이 마땅히 따라야 할 행동의 기준을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 규범에는 관습, 도덕, 법 등이 있다.

관습은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되면서 굳어진 생활 방식이다. 설날에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거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것이 그 예이다.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국가가 벌을 주지는 않는다.

도덕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와 같은 것이 도덕이다. 도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도덕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까지 문제 삼는다.

법은 국가가 만들고 국가의 힘으로 지키게 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을 어기면 국가가 형벌을 내리거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이처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성질을 강제성이라고 한다. 법은 주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결과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 규범
사회 구성원이 마땅히 따라야 할 행동의 기준

관습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되면서 굳어진 생활 방식

도덕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법
국가가 만들고 국가의 힘으로 지키게 하는 사회 규범

강제성
어기면 국가가 제재를 가하여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성질

확인하기

다음 설명에 알맞은 사회 규범을 쓰시오.

01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_____

02 어기면 국가가 형벌을 내리거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_____

03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되면서 굳어진 생활 방식이다.

_____

지문 읽기

사회 규범 가운데 법과 도덕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규범이다. 두 규범은 모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강제성에 차이가 있다.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 있어서 이를 어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데 그친다. 반면 법은 국가가 만든 규범이어서 이를 어기면 국가가 형벌이나 손해 배상 같은 제재를 가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면 친구의 믿음을 잃을 수는 있지만 국가가 그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국가가 형벌을 내리고, 물건의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판단의 대상도 다르다. 도덕은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까지 문제 삼는다.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도덕적으로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원칙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을 ⓑ품었더라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법은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물론 법도 사람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를 일부러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는 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룬다. 다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따지는 것이다.

법과 도덕은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해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도덕적으로도 잘못이고 법으로도 금지된다. 하지만 모든 법이 도덕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가 도로 중앙의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이 왼쪽으로 다니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옳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도로의 왼쪽으로 다닌다. 이런 법은 사람들이 같은 기준을 따르게 하여 혼란과 사고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다. 반대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웃어른께 버릇없이 구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모두 법으로 정해야 할까?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이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데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는 쪽은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은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담고 있다. 도덕 가운데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법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1~3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법과 도덕은 모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② 도덕을 어기면 국가가 제재를 가하여 반드시 따르게 한다.
③ 법에서도 어떤 행위를 일부러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④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법도 있다.
⑤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02 윗글을 바탕으로 법과 도덕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덕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법은 마음속의 동기만을 판단한다.
② 법은 국가가 만든 규범이므로 도덕과 내용이 겹치는 일이 없다.
③ 도덕은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문제 삼는다.
④ 법을 어기면 비난을 받는 데 그치지만, 도덕을 어기면 형벌을 받는다.
⑤ 법과 도덕은 모두 어긴 사람에게 국가가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같다.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민수는 짝의 필통을 몰래 가져가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가져가지 않았다.
(나) 지영이는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시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
(다) 준호는 남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버렸다.
(라) 어떤 나라는 자동차가 도로의 왼쪽으로 다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① (가)의 민수는 마음먹은 것만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행동하지 않았으므로 법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
② (나)에서 지영이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③ (나)와 같은 행동을 처벌하는 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법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④ (다)에서 준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잘못이고 법으로도 금지된다.
⑤ (라)의 나라는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다니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옳다고 보아 그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문제 4~5

04 ㉠의 관점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도덕은 법으로도 정할 필요가 있다.
②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빠짐없이 법으로 정해야 한다.
③ 법으로 정한 것은 모두 도덕에서 나온 것이다.
④ 법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영역도 넓어진다.
⑤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는 일도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05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인도하는
② ⓑ: 지녔더라도
③ ⓒ: 고려하는
④ ⓓ: 통행하도록
⑤ ⓔ: 허용하려고

정리하기

구분	도덕	법
따르게 하는 힘	개인의 양심	_____의 강제력
어겼을 때	양심의 가책, 다른 사람들의 _____	형벌, 손해 배상 같은 국가의 _____
판단의 대상	마음속의 생각과 _____까지	원칙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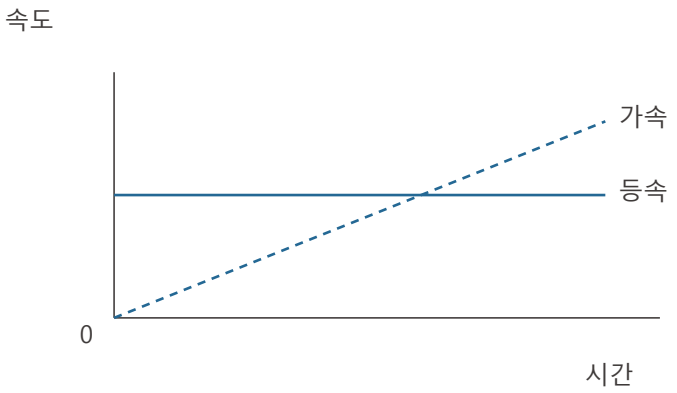
도덕 가운데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법은 _____의 도덕'이라는 말로 나타낸다.

자동차의 통행 방향처럼 도덕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같은 _____을 따르게 하려고 만든 법도 있다.

01 속력과 가속도

물체의 빠르기는 속력으로 나타낸다.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단위로는 m/s(미터 매 초)를 쓴다. 100m를 20초에 달린 사람의 속력은 100÷20=5m/s이다.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같은 빠르기로 움직여도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달라진다.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단위로는 m/s²(미터 매 초 제곱)를 쓴다.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2초 뒤에 6m/s가 되었다면 가속도는 6÷2=3m/s²이다.

〈속도-시간 그래프〉



속력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

속도
속력에 운동 방향을 더하여 나타낸 것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는, 곧 같은 빠르기로 한 방향으로 곧게 나아가는 운동

평균 속력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

확인하기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쓰시오.

01 300m를 60초 동안 걸은 사람의 평균 속력

_____ m/s

02 정지해 있던 자전거가 4초 뒤 12m/s가 되었을 때의 가속도

_____ m/s²

03 같은 빠르기로 원을 따라 도는 물체의 속도

방향이 바뀌므로 계속 _____.

지문 읽기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함께 ⓐ알려야 한다. 빠르기는 속력으로 나타내는데,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집에서 3,600m 떨어진 도서관까지 자전거로 15분, 곧 900초 만에 갔다면 평균 속력은 3,600÷900=4m/s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호등 앞에서 멈추기도 하고 내리막에서 빨라지기도 하므로, 매 순간의 속력은 평균 속력과 다르다. 자동차의 속도계가 보여 주는 것은 그 순간의 속력이다.

속도는 속력에 방향을 더한 것이다. 북쪽으로 10m/s로 달리는 차와 남쪽으로 10m/s로 달리는 차는 속력은 같지만 속도는 다르다. 그래서 일정한 빠르기로 원형 트랙을 도는 선수는 속력은 그대로여도 움직이는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므로 속도는 계속 변한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곧 같은 빠르기로 한 방향으로만 곧게 나아가는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속도가 변할 때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것이 가속도이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일정하게 빨라져 5초 뒤 20m/s가 되었다면 가속도는 (20-0)÷5=4m/s²이다. 1초마다 속도가 4m/s씩 늘어난 것이다. 같은 5초 동안 10m/s가 된 자동차의 가속도는 2m/s²이므로, 걸린 시간이 같다면 속도의 변화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크다. 반대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가 줄어들 때에는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된다.

운동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눈에 볼 수 있다. 가로축에 시간, 세로축에 속도를 놓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는 가속도를 나타낸다. 등속 직선 운동은 가로축과 나란한 직선으로,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또 한 방향으로 곧게 움직이는 물체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구하면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다. 10m/s로 4초 동안 달렸다면 그래프 아래는 직사각형이므로 이동 거리는 10×4=40m이다. 정지 상태에서 일정하게 빨라져 4초 뒤 10m/s가 되었다면 그래프 아래는 삼각형이므로 이동 거리는 10×4÷2=20m이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속도를 줄여라'라는 말은 사실 속력을 줄이라는 뜻이다. 과학에서는 빠르기만 나타내는 속력과 방향까지 나타내는 속도를 구별하여 쓴다.

문제 1~3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같은 빠르기로 원을 도는 물체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②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③ 자동차의 속도계는 그 순간의 속력을 보여 준다.
④ 속도-시간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는 가속도를 나타낸다.
⑤ 한 방향으로 곧게 움직이는 물체는 속도-시간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이동한 거리와 같다.

02 윗글을 바탕으로 속력,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속력이 같으면 속도도 반드시 같다.
② 가속도가 0인 물체는 언제나 정지해 있다.
③ 속도가 줄어드는 물체에는 가속도가 없다.
④ 속력이 같아도 운동 방향이 다르면 속도는 다르다.
⑤ 걸린 시간이 같다면 속도의 변화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곧은 도로에서 한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 A, B, C의 속도를 쟀다. 속도가 변한 자동차는 4초 동안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변하였다.

자동차	처음 속도	4초 뒤 속도
A	0m/s	20m/s
B	10m/s	10m/s
C	20m/s	8m/s

① A의 가속도는 5m/s²이다.
② B의 가속도는 2.5m/s²이다.
③ B는 4초 동안 등속 직선 운동을 하였다.
④ C는 속도가 줄었으므로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⑤ A와 B가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같다.

3번 계산 과정

문제 4~5

04 윗글의 4문단을 바탕으로 할 때, 정지해 있다가 일정하게 빨라져 6초 뒤 12m/s가 된 물체가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6m
② 12m
③ 18m
④ 24m
⑤ 36m

05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제시해야
② ⓑ: 변화하므로
③ ⓒ: 답습하여
④ ⓓ: 표시하면
⑤ ⓔ: 산출하면

4번 풀이 과정

정리하기

개념	구하는 방법	예
속력	이동한 거리 ÷ _____	3,600m를 900초 동안 → 4m/s
속도	속력에 _____을 더하여 나타냄	원을 도는 선수는 속도가 계속 변함
가속도	속도의 _____ ÷ 걸린 시간	5초 동안 0 → 20m/s이면 4m/s²

속도-시간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는 _____를 나타낸다.
한 방향으로 곧게 움직이는 물체는 속도-시간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_____와 같다.